

통분 96-12-41

'96 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IV)

北 韓 實 態 分 野



統 一 院

우리원은 통일문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남북 교류협력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신진학자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89년 이후 매년 신진학자들에게 연구용역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여 그 연구결과를 「'96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5권으로 분류하여 발간 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등 참신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이 논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집의 내용은 우리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6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수 록 논 문 집	집 필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 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독일 및 예멘의 통일사례와 관련하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p>李哲宇(고려대 강사)</p> <p>河奉達(부경대 조교수)</p> <p>金再起(전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p> <p>朴井源(국민대 법학연구소 연구원)</p> <p>沈憲用(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p> <p>李殷國(연세대 조교수)</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지원모델 개발 -사회심리학적 지원체계구축을 중심으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민주적 정치교육과 정치문화를 위한 철학적 반성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탈북자의 체제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독일 및 동구권 국가들의 사유화과정을 참조로 	<p>李晚植(연세대 강사)</p> <p>李京禧(호남대 부교수)</p> <p>具升會(동국대 강사)</p> <p>洪德律(대구대 부교수)</p> <p>李英愛(단국대 정책과학 연구소 연구원)</p> <p>洪準亨(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임강사)</p> <p>金炳昊(국민대 교수)</p>

권별	수 록 논 문 집	집 필 자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신뢰구축 - 비대칭성과 다차원적손실보상 전략을 중심으로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p>許萬鎬(경북대 조교수)</p> <p>申弘均(한국항공대 부교수)</p> <p>趙成烈(성균관대 강사)</p> <p>尹德龍(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p> <p>朴炳度(건국대 강사)</p>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변의 가치 정향연구 	<p>張慶燮(서울대 부교수)</p> <p>咸仁姬(이화여대, 조교수)</p> <p>申 進(충남대 부교수)</p> <p>金貴玉(충북대 강사)</p> <p>任七星(전남대 전임강사)</p> <p>吳基城(북한연구소 연구원)</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관계 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p>姜錫燦(건국대 민족통일연 구소 연구위원)</p> <p>魯燦伯(광주보건전문대 전임강사)</p> <p>張爐淳(성균관대 강사)</p> <p>朴光基(대전대 교수)</p> <p>李宗宣(국회도서관 입법조사 연구관)</p> <p>梁鉉洙(서울대강사)</p>

()는 소속기관임

<收 錄 論 文>

- ◇ 中國農村의 脫社會主義改革과 北韓의 進路 1
張 慶 燮(서울大)
- ◇ 北韓女性의 「女性意識」에 관한 研究 47
咸 仁 姬(梨花女大)
- ◇ 北韓政治體制變革의 力動性 107
申 進(忠南大)
- ◇ 北韓 “人民” 生活世界研究 169
金 貴 玉(忠北大)
- ◇ 北韓의 話法研究 249
任 七 星(全南大)
- ◇ 三次元的 文化構造를 통해 본 北韓住民의 價値定向研究 321
吳 基 城(北韓研究所)

中國農村의 脫社會主義 改革과 北韓의 進路

- 經濟社會學的 再評價 -

研究責任者：張慶燮(서울대)

목 차

<요약문>	5
I. 서론	7
II. 북한과 중국의 농촌, 농업, 농민	8
III. 중국 농촌개혁의 재분석	12
(1) 사영농업의 역사적 단절성과 연속성	13
(2) 농가 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	19
(3) 탈사회주의 사회보장체제로서의 가족부양	24
(4) 계획생육의 거시적 필요성과 미시적 모순	28
(5) 가족경제의 반사회성과 계층분화의 미시적 기초	33
IV.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37
V. 결 론	42
※참고문헌	43

〈요약문〉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성격, 결과에 대한 다측면적이고 분석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 농촌의 중국식 개혁 조건과 가능성을 진단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1)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농촌경제체제를 간단히 비교, 검토한 후, (2) 중국의 농촌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상충 문제, 사영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등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3)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전망을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물리적 여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중국 농촌개혁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도입과 농민들의 대응으로 요약된다. (1) 농업생산에 있어서 개인 및 가구별로 생산성과에 따른 정확한 책임과 보상이 적용되도록 농작업 단위를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구 단위로 분배하여 사영농업을 실시한다. (2) 생산조직으로서의 협동농장은 해체하고 농촌 기층단위의 행정기구가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부시설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 농업 생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조치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4) 농민들이 늘어난 농업소득을 사용하여 다양한 비농업적 소비 및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직업적, 지리적으로 대폭 자율화시키고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에 대한 시장을 허용, 도입한다. (5)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고 농가의 여유소득을 자본으로 활용하고 농민들의 소비재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노동집약적 소비재 제조공업을 중심으로 농촌형 集體 및 私營기업들을 신설, 확대, 지원한다. (6) 농촌공업의 기술, 자본,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북한내 도시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유도한다. (7) 협동농장의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적 복지서비스 제도의 약화는 각 농민가족의 자체적 부양윤리 강화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영리적 서비스시설을 시급히 마련한다. (8) 사영 생산활동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확대되는 농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과 계급, 계층적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집단과 부유계층을 정치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이상과 같은 중국의 일련의 농촌개혁 경험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 이념, 자원, 생산조직, 생산동기, 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만 여러가지 물리적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그 체제개혁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농촌경제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뚜렷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북한 부총리에게 대북 식량 지원을 약속하면서 북한에서도 중국과 같은 농업 청부생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가 북한 식량문제의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사회주의 집단농업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을 꼽고 있으며, 중국이 이미 도입한 계약제 사영농업을 북한에 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권고에 상응하는 조치가 북한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측도 있다. 올해 들이 (1) 북한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를 종전의 10-25명에서 7-8명으로 축소하고, (2) 분조단위의 생산계획을 대폭 하향 설정하는 한편, (3) 초과 생산분에 대한 처분권을 분조에 넘겨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이 1980년대 초중반에 실시한 농업생산 탈집단화 조치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시발로 북한이 중국식의 농촌개혁책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농정 변화의 방향이 중국의 경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I. 서론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중국의 실용주의 정권은 개혁정책의 시발로 농업생산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되어 오던 사회주의 집단농업은 1980년대 초반에 들어 개별 가족단위의 자작 농업으로 점차 대체되어 갔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변화는 곧 농업생산물 구성, 농촌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 등의 변화로 이어졌다. 과거 식량자급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담은 농정목표는 이른바 전체 생산력의 제고와 자원 배분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농촌경제의 다변화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목표 수행의 주체도 국가 통제하의 집단생산체에서 자율적 경제주체로서의 농가와 농민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국 농촌은 개혁기 들어 엄청난 경제/사회/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¹⁾ 이 가운데 특히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급격한 향상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측면의 변화는 범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극히 드문 사회주의 개혁의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농촌개혁에 대한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의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좀더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장기적인 평가들이 늘어났다. 농촌의 집단생산체들의 해체는 불가피하게 집단적 사회보장장치의 약화/붕괴를 야기했고, 가족단위 경제활동의 부활은 가족노동력으로서의 자녀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산아제한을 어렵게 만들며, 농가들 사이에 각자의 노동력, 치부 의욕 및 능력, 정치적 배경 등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영농업이 반드시 중국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의 식량 부족사태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오히려 농촌의 비농업부문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 농촌개혁의 이처럼 복잡한 성격과 결과는, 중국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가능성 및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남한의 학자들이나 관련 기구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훨씬 신중한 태도로 사안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외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이 흔히 사영농업의 부활에 따라 급속한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 정도로 단순화되어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북한도 중국처럼 농업을 사영화하면 농업생산성과 농민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농정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성급한 전망이 여기저기서 내려져 왔다. 이러한 단순하고 성급한 판단의 부작용은, 북한 농촌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단순히 일부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남한정부의 잠재적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1) 중국 체제개혁의 자체적 평가로는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88), 『中國經濟體制改革十年』, Gao Shangquan and Chi Fulin, eds. (1995), *Theory and Reality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등을 참조. 개혁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보고로 陳錦華 主編 (1995), 『1995年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報告』, 江流/陸學藝/單天倫 編 (1995), 『1994-1995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등을 참조

부적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성격, 결과에 대한 복합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이것이 북한 농촌의 개혁 조건과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에 갖는 함의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하에서의 농촌, 농업, 농민의 사정을 간략히 비교검토하고, (2) 중국의 농촌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관계, 사영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등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3)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농촌개혁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농촌개혁이 생산체제 전환을 위해 채택된 국가정책 몇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농촌개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0년대 말의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농민들이 가진 미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욕구, 행태, 자원이 중국의 인구/산업구조 등 거시적 경제환경과 어떻게 맞물리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도, 이같은 북한 농민들의 미시적 욕구, 행태, 자원과 거시적 경제환경 및 구체적 개혁정책의 3자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게 될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어렵פות이나마 예측해 볼 수 있다.

II. 북한과 중국의 농촌, 농업, 농민

중국과 북한에서 좌파혁명이 성공하여 사회주의정권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이고 경제구조는 여전히 농업국으로서의 성격을 벗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배, 내전 등의 혼란을 거치며 굶주리던 인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분재야 말로 국가과업의 최우선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과 북한은 이같은 시급한 과업을 토지개혁에서 농업의 다단계 집단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뚜렷한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이같은 초기 성공이 이후에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민생활의 지속적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농업과 공업, 농민과 노동자, 농촌과 도시 사이의 구조적 차별과 불균형이 뚜렷해지는 문제가 드러났지만, (나이는) 농민들의 대다수는 양국 공산당의 초기 농촌공작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정의와 행복에 대해 여전히 진한 감회를 갖고 있다.

북한이 1946년 실시한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의 철저한 토지개혁은 빈농, 소작농이 대다수였던 농민층으로부터 열렬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농업생산량의 획기적 제고를 가능케 했다 (고승효, 1993). 이후 북한은 한국전쟁기의 파괴와 혼란의 후유증을 극복하

기 위해 1953년에 바로 농업협동화에 착수하여 1958년까지 5년여에 걸쳐 농업합작사의 전국적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농업생산량은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59-61년 기간에는 합작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里를 단위로 하는 대규모 합작사들이 조직되었으며, 1962년부터 오늘날의 협동농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실제 생산관리의 차원에서는 1960년 김일성의 '청산리 현지도'를 계기로 '작업반 우대제'가 도입되었고 1966년부터는 '분조관리제'가 전면 실시되어 소규모 농작업 단위별로 생산노력과 분배를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펼쳤다 (고승효, 1993). 이 기간 동안에도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농업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1930-40년대 혁명전쟁 기간에 일부 혁명기지에서 다양하게 실험된 토지개혁과 농업집단화를 1950년부터 1957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때 농업생산량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다 (Chao, 1970). 1950-52년 기간에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 방식의 土地改革을 끝내자마자 즉각 농업집단화에 돌입하여 이를 원래의 목표시기인 1967년보다 10년을 앞당긴 1957년에 완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부터 실시된 大躍進 기간에는 대규모 人民公社 체제를 기반으로 도입된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동원경제체제가 농촌경제와 농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1961년부터 생산체제의 조정이 이루어져 생산/분배단위로서의 生産隊 및 상급 단위로서의 生産大隊 및 人民公社가 포함된 '三級' 생산체제가 확립되어 197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정기의 농업생산량의 회복세는 매우 눈부신 것이었지만, 이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체에 걸쳐 농업생산량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까지를 따지면, 이처럼 중국은 人民公社 조직을 기반으로, 북한은 협동농장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集體농업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사회주의 집단농업체로서의 인민공사와 협동농장은 내부의 조직구성과 경영방식, 국가경제에의 통합방식 등 기본적인 성격들이 서로 비슷하였다. 즉, 농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토지 등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계수요와 노동시간을 각각 감안한 생산물 분배에 따르고, 농장 단위로 조직화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국가가 정한 주요한 정치/경제적 시책들을 하루하루의 생산/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아 온 것이다. 양국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이같은 유사점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시된 수많은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²⁾ 여기에서는 현재 북한과 개혁 직전 중국 상황의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본고 후반부에 검토될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삼고자 한다.

2) 북한에 관해서는, 장원석 외 (1995),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북한의 농업개황』, 고승효 (1993), 『북한 경제의 이해』 등 참조: 중국에 관해서는 Chao (1970), Agricultural Production in Communist China, 1949-1965, Lardy (1983), Agriculture in China'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Perkins and Yusuf (1984), Rural Development in China 등 참조.

첫째,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농촌의 일반 행정기구와 농업관리기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군단 위에서는 군인민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리단위에서는 리인민위원회와 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별도의 기구로 존재한다. 개혁 직전의 중국에서는 인민공사가 생산/분배 등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정치/사회/행정적 기능을 포괄한 이른바 政/社合一의 기구로 존재했으며, 개혁기에 들어 집단농업체로서의 인민공사는 해체되고 별도의 행정기구인 鄉政府和 村民委員會가 출범하였다.

둘째, 북한의 협동농장은 대형 농기계 등 주요 설비가 국유이고 토지 및 소형 농기구 등은 집단소유인 혼합적 소유구조를 갖고 있고, 지방정부가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간접자본을 직접 건설/운영하는 등 국가개입이 강한 집체농업체제였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인민공사는 상대적으로 자율/자족적인 집체농업체제였는데, 개혁기에 들어 인민공사가 해체되자 동시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여러 간접자본의 유지/건설도 갑자기 중단되는 문제가 나타나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Hinton, 1990).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이제 농민들 자신의 집단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협동농장이 채택한 작업반 우대제 및 분조 관리제는 농작업을 세분화하고 작업단위를 축소하여 생산담당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생산노력(업적) 증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조치였다 (고승효, 1993:213-18). 또한 농가별로 텃밭을 배분하고, 여유 농산물 및 일부 생필품 교환을 위한 '장마당'이라는 지역시장을 허용하는 등 경직된 관리경제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경우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1970년대 말까지는 북한에 비해 생산단위의 규모도 크고 농작업/분배 과정에 있어 좀더 경직된 집단농업체제를 유지하였다. 물론 自留地라는 농가별 텃밭도 허용하고 지역에 따라 여유 농산물과 일부 생필품의 교환을 위한 지역시장이 은밀히 열린 것은 북한과 마찬가지로이다.

네째,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농업의 기업적 관리, 농민의 노동계급화, 농촌생산수단의 전민소유화 등 집체단계의 농촌경제를 全民 단계로 끌어올리고 농업생산/노동을 공업생산/노동에 근사시키려는 명시적인 의지와 노력이 표명되어 왔다. 농민들의 소득, 복지혜택 등 사회/경제적 지위도 도시노동자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의 주도로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추진된 '8/3인민소비재안'은 농민들이 유희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기초적 소비재를 어느 정도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재 공급능력이 부족한 도시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켰다 (방찬영, 1995). 반면 개혁 이전의 중국에서는 농업생산과 농촌경제가 그 자체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및 산업적 특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강조는 농촌경제의 적절한 다변화 및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시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계속 열악해진 모순

이 있었다 (Nolan and White, 1984; Chang, 1994). 따라서 개혁기에 들어 농업과 공업, 농촌경제와 도시경제의 연계발전을 강조하는 현실적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갈수록 많은 수의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표-1> 사회주의기 북한과 중국의 농촌인구 및 농업노동력 비중

	북한	중국
총인구 (만명)	1,935 ('87)	96,259 ('78)
농촌인구 (만명)	782 ('87)	79,014 ('78)
농촌인구 비율 (%)	40.4 ('87)	82.1 ('78)
총노동력 (만명)	1,192 ('92)	40,152 ('78)
농업노동력 (만명)	379 ('92)	28,373 ('78)
농업노동력 비율 (%)	31.8 ('92)	70.7 ('78)

자료 출처: 북한 인구는 Nicholas Eberstadt and Judith Banister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p.21; 북한 노동력은 FAO, *Production Yearbook* (as quoted in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95, 26th ed., p.466); 중국 인구는 『中國統計年鑑 1991』, pp.79-96.

<표-2> 사회주의기 북한과 중국의 농업 및 농부산품의 국민경제적 비중 (%)

	북한 (1988)	중국 (1978)
농공업총생산액중 농업생산액	24.3	24.8
국민수입에서 농업순생산액	32.5	32.8
경공업생산액중 농부산품가공생산액	73.1	68.4
사회상품구매액중 농촌상품구매액	56.8	26.4
수출총액중 농부산품/가공품 총액	47.1	50.3 ('80)

자료 출처: 북한은 이택중 (1995), “북한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개혁의 시사점”, p.368; 중국은 『中國統計年鑑 1991』, pp.18-25, p.584, p.616.

다섯째, <표-1>, <표-2>에서 보듯이, 현재 북한에서 농촌인구, 농업노동력, 농업생산 등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미 농업/농촌 중심 사회로서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이 직접 제시한 비교적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농촌인구 비율은 1975년에 43.3퍼센트로 줄어든 이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1987년에는 40.4퍼센트를 나타냈다. 농

업이 차지하는 노동력(1992년에 31.8%)이나 순생산액(1988년에 32.5%)으로 따지면 농촌의 중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이처럼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기는 하지만 식량 및 생필품원료의 공급, 나아가 수출의 측면에서 상당한 국가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되어야 한다. 개혁 직전의 중국에서는 농촌인구(1978년에 82.1%) 및 농업노동력(1978년에 70.7%)의 범사회적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었으며, 다만 농업생산(32.8%)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용파의 경제개혁 역시 농업과 농촌을 사발로 한 것은 당연해 보이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농업부문의 발전까지도 농업과 농촌에서 그 기본조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Chang, 1993).

여섯째, 북한 농촌에서는 그동안 인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농촌인구와 농업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며 (중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등의 요인이 작용해 농촌에 지나친 유희노동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기에 따라 오히려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³⁾ 반면 개혁 이전의 중국 농촌에서는 1960년대 인구폭증의 여파가 나타나고 경직된 거주/직업배치 정책으로 농촌인구와 농업노동력의 상대적 비중이 전혀 줄지 않은 등의 요인이 작용해 한정된 토지에 엄청난 인구압력이 작용하였다.⁴⁾ 따라서 농촌의 엄청난 유희노동력을 먹여살리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농업 이외의 다양한 대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핵심대책이 이른바 鄉鎮企業 중심의 농촌산업화이다 (Chang, 1993).

북한과 중국 농촌의 이같은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 중국 농촌개혁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이 중국과 차이를 갖는 농업정책과 농촌사정은 상당 부분 중국이 실용주의 개혁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들과 일치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같은 차원에서 북한이 중국식 농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중국에서 취해진 것과 유사한 농촌개혁 조치들을 북한이 취했을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농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 농촌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거둘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농촌 경제개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성과도 상당히 불확실하며 더우기 북한의 농촌경제가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동시적 개혁과 발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농촌개혁 자체의 지속성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중국 농촌개혁의 재분석

중국의 농촌개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1970년대 말의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

3) 에버스타트와 배니스터(Eberstadt and Banister, 1992:84)는 북한이 유엔에 제시한 인구자료에 근거해, 북한이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 상태에 있으며 당분간 부족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4) 농촌에만 2억이방 정도의 유희노동력이 위장실업 상태에 있다고 추계되기도 한다 (Gu, 1995).

사/사회적 상황에서 농민들이 가진 미시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욕구, 행태, 자원이 중국의 인구, 산업구조 등의 거시적 경제환경과 어떻게 맞물리고, 국가의 개혁정책이 이러한 미시적-거시적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실행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중국과 비슷한 개혁정책들이 북한 농촌에 도입되었을 때 이것이 농민들의 미시적 욕구, 행태, 자원 및 거시적 경제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체계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농촌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관계, 사영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등화 등의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사영농업의 역사적 단절성과 연속성⁵⁾

중국의 농촌개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농업의 脫집단화 또는 私營化, 즉 人民公社의 해체를 수반한 가족농체제의 부활을 핵심으로 한다. 개혁 이전의 중국 집단농업의 생산조직인 人民公社는 아래로 生産大隊와 生産隊를 포함하는 3단계 체제를 갖고 있었다. 지역마다의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생산대는 농업 생산 및 회계의 기본 단위이고, 생산대대와 인민공사는 농촌기업 운영, 농업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 학교같은 공공제도의 운영 등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담당했다. 생산대에 의한 집단농업은 해당 지역의 모든 인민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연말에 가구별 식구수(생계수요) 및 功分(노동시간)을 반영해 수확물을 분배하였다. 수확물의 일정분은 국가가 정하는 가격에 의해 수매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 집단농업은 1970년대 말부터 지역별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농작업 단위를 생산대 이하로 하고, 생산성과 물질적 보상을 좀더 엄밀히 연계시키며, 일부 농가들을 특수 작물의 재배나 특정 작업에 배치시키는 등 생산의 개별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일부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되어 다른 지역들로 퍼져 나갔다. 이러한 변화들은 包產到戶라는 새로운 가구별 생산책임제로 집약되어졌다. 1980년에 공인되고 198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채택된 이 제도는, 일정한 농토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할당된 작업을 한 농가들이 생산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면 이에 상응한 功分을 얻어 그만큼의 보너스를 받게한 것이 핵심이다. 곧이어 包幹到戶라는 좀더 획기적인 가구별 생산책임제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실험되다가 198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유 농지의 사용권을 식구수와 성인노동자수를 감안해 분배받은 각 농가가 생산물 중 국가세금과 지역납부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국가에 수매하거나, 지역의 자유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스스로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5)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Chang (1992), "China's Rural Reform: The State and Peasantry in Constructing a Macro-Rationality" 및 장경섭 (1992), "중국 농업 사영화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표-3> 개혁기 농민가구의 1인당 수입 변화 (단위: 元)

항 목	1978	1980	1985	1987	1989	1991
(1) 총수입	151.79	216.22	547.31	653.58	874.97	1046.10
(1-1) 集體經營수입	88.53	108.37	33.37	42.09	56.62	66.09
(1-1-1) 集體회계수입		97.02	8.64	9.08	10.08	13.82
(1-1-2) 鄉村企業수입	3.01	5.94	18.46	26.73	38.52	41.56
(1-1-3) 公益金수입		0.30	0.88	0.79	0.87	1.07
(1-1-4) 集體獎勵수입	0.15	1.69	0.88	0.89	1.31	1.63
(1-2) 經濟聯合體수입			3.69	3.49	3.45	1.97
(1-3) 家庭經營수입	54.01	87.44	472.24	568.94	764.86	919.63
(1-4) 기타비생산성수입	9.25	20.41	38.01	39.06	50.54	58.41
(2) 순수입	133.57	191.33	397.60	462.55	601.51	708.55
(2-1) 集體經營수입	88.53	108.37	33.37	42.09	56.62	66.09
(2-2) 經濟聯合體수입			3.69	3.49	3.45	1.97
(2-3) 家庭經營수입	35.79	62.55	322.53	383.57	494.22	588.52
(2-3-1) 농업	15.15	21.93	191.46	207.80	240.19	323.53
(2-3-2) 임업			6.16	6.57	8.13	8.48
(2-3-3) 목축업	12.01	25.71	44.36	60.48	93.15	94.10
(2-3-4) 어업			3.59	5.56	7.35	8.19
(2-3-5) 수공업	1.42	2.87	8.11	9.74	10.72	11.48
(2-3-6) 수렵채취업	5.19	5.80	10.13	10.64	12.11	14.77
(2-3-7) 공업			2.18	5.40	8.71	8.56
(2-3-8) 건축업			7.41	10.25	13.50	11.90
(2-3-9) 운수업			8.47	10.38	13.97	13.60
(2-3-10) 임노동	2.02	6.24	26.55	38.07	59.66	64.93
(2-3-11) 상업				7.27	10.65	10.91
(2-3-12) 요식업			6.13	1.69	2.26	1.72
(2-3-13) 개인서비스			3.25	4.52	6.41	6.98
(2-3-14) 기타			4.73	5.20	7.41	9.37
(2-4) 기타비생산성수입	9.25	20.41	38.01	33.40	47.22	51.97

주: 經濟聯合體는 다수의 가구가 모여 운영하는 민간 협업경영체임.

자료 출처: 『中國統計年鑑 1992』, p.307.

이같은 농업 생산제도의 개혁은 곧바로 농업생산성 및 농가 소득수준의 괄목할만한 향상으로 이어졌다. 『中國統計年鑑』에 발표된 공식적 통계를 살펴 보면, 농업 시영화를 위한 주요 조치들이 대부분 취해졌던 1978-1985년 기간 동안에, 농지 1畝당 평균 식량 생산량이 337斤에서 464斤으로 25% 가량 높아졌고,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순수입)은 133.6元에서 397.6元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가의 비농업부분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소

특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성 및 농민소득의 향상에 가려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농촌의 고용도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1978-1985년 기간 동안에, 경작농지는 22억5천2백만畝에서 21억5천4백만畝로 감소했지만, 농업에 고용된 총노동력은 2억8천3백7십만명에서 3억1천1백9십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농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해 농업에 흡수되어야 할 노동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의 탈집단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의 원칙이 인민공사 대신 가족농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⁶⁾

중국의 농촌개혁은 이처럼 농촌지역의 안정적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성 및 농민 소득수준의 뚜렷한 향상이라는 바람직한 거시경제적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농촌개혁의 초기 성공은 이를 추진한 鄧小平 실용주의 정권의 정치적 업적으로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인민공사 해체 이후 사영농업의 실제 경영주체인 가족농의 특수한 행위양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들의 발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농업 탈집단화를 제도적 차원에서 확고히 한 인민공사의 해체는 국가라는 거시적 행위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서 이루어졌지만, 인민공사 해체 이후에 확립된 가족중심적 농업생산양식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미시적 행위자들인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가족농 내부의 사회관계과 경제원칙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자신이 전통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농업 개혁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실용주의 개혁지도부와 외국의 자유주의 개혁찬양자들이 강조하는 가족 단위 사영농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검토해 보자. 생산대 단위의 집단농업의 문제점은 집단 농작업 과정에서 무임승차를 노리는 이기적 농민들의 나태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진다는 미시경제학적 혹은 미시사회학적 설명이 흔히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더라도 가족 단위 사영농업에서는 집단농업의 문제점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믿어야 할 근거는 없다. 집단농업에 대한 미시적 분석논리를 억지로 가족농업에 적용하면, 농가는 조직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른 성원들의 눈에 띄지 않고 게으름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설명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온정주의적 상호작용을 핵심적 특질로 하는 가족관계를 생각하면, 한 가족원의 게으름이 발각되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생산성 하락이라는 반대효과를 미칠 것이다. 나아가 가족농은 막상 생계소비, 즉 생산물 분배에 있어서 성원 개개인의 작업기여도를 세세히 따지지 않으므로, 이 역시 비슷한 반대효과를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족농업이 집단농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한 미시적 설명은, 농민

6) 중국 농촌에서도 잠재적 실업인구의 존재성은 인정되지만 공식 통계상의 실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중국의 모든 농촌 인구가 일정한 농지 경작권을 바탕으로 한 가족경제에 흡수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체계의 위기와 생활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의 근대화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진화적인 분화와 합리화 과정으로 일어난다. 사회체계는 분화하고 복잡해지는 반면 생활세계는 더욱 합리화 된다. 증대하는 사회체계의 복잡성은 생활세계의 합리화과정을 자극하며 새로운 체계발전은 새로운 생활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체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개되어 간다.

한편 체계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세계에도 영향을 주어 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체계의 위기는 정체성 및 동기부여의 위기를 낳게 되고 이는 또한 순환과정을 겪게 된다. 그가 『의사소통행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체계 및 생활세계의 위기

종류 \	하위체계위기	체계 위기	정체성 위기
경제		경제적 위기	--
정치		합리성 위기	정당성 위기
사회문화		--	동기부여 위기

위의 표에서 가리키듯이 체계의 위기는 생활세계에 동기부여의 위기를 낳는다. 또한 동기부여의 위기는 다시 체계의 위기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모형은 원래 하버마스가 살고 있는 선진자본주의사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형을 북한사회, 특히 북한 생활세계에 적용시켜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그가 전제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개념을 북한이 지향하는 이념의 문제로 대처한다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며, 또한 생활세계에서 사는 주민들의 체계에 대한 지지는 주민들의 안정된 정체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경제·정치 체계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곤란이 생겨 이념과 현실에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 사회주의 주민으로서 스스로를 동기 부여하기 어렵게 된다. 동기부여의 곤란은 다시 체계 위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론을 빌어 북한의 생활세계에 적용시켜 찾아내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생활세계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스스로 생활세계를 발전시켜 왔는가?

둘째, 북한의 주된 위기가 경제 체계에서 배태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체계 위기가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구 분	1978	1980	1985	1990
(이농) 1인당소득(원)	140.0	214.6	340.2	632.8
증가율/78대비(%)		953.3)	(143.0)	(352.0)
IV. 가격: 작물/생산성 불변				
총소득(100만원)		151,212.2	169,423.3	290,503.2
(비이농) 1인당소득(원)		186.6	195.0	309.5
증가율/78대비(%)		(33.3)	(39.3)	(121.1)
(이농) 1인당소득(원)		190.1	209.8	345.3
증가율/78대비(%)		(35.8)	(49.9)	(146.6)
V. 생산성: 작물/가격 불변				
총소득(100만원)		117,870.9	154,065.8	170,270.8
(비이농) 1인당소득(원)		145.5	177.3	181.4
증가율/78대비(%)		(3.9)	(26.7)	(29.6)
(이농) 1인당소득(원)		148.1	190.8	202.4
증가율/78대비(%)		(5.8)	(36.3)	(44.5)
VI. 작물: 생산성/가격불변				
총소득(100만원)		112,380.3	123,302.3	127,458.6
(비이농) 1인당소득(원)		138.7	141.9	135.8
증가율/78대비(%)		(-0.9)	(1.4)	(-3.0)
(이농) 1인당소득(원)		141.2	152.7	151.5
증가율/78대비(%)		(0.9)	(9.1)	(8.2)
VII. 생산성 * 가격: 작물불변				
총소득(100만원)		164,173.1	240,188.8	455,963.1
(비이농) 1인당소득(원)		150.5	184.1	274.9
증가율/78대비(%)		(7.5)	(31.5)	(96.4)
(이농) 1인당소득(원)		148.1	176.8	274.2
증가율/78대비(%)		(5.8)	(26.3)	(95.9)

구 분	1978	1980	1985	1990
VIII. 작물 * 가격: 생산성불변				
총소득(100만원)		157,440.3	191,552.2	338,696.5
(비이농) 1인당소득(원)		149.0	163.6	195.6
증가율/78대비(%)		(6.4)	(16.9)	(39.7)
(이농) 1인당소득(원)		146.6	154.7	185.7
증가율/78대비(%)		(4.7)	(10.5)	(32.6)
IX. 작물 * 생산성: 가격불변				
총소득(100만원)		121,966.1	177,184.3	200,232.1
(비이농) 1인당소득(원)		146.3	164.7	176.2
증가율/78대비(%)		(4.5)	(17.6)	(25.9)
(이농) 1인당소득(원)		144.0	155.9	164.1
증가율/78대비(%)		(2.9)	(11.4)	(17.2)

주: 소득계산에 포함된 작물은 주곡(쌀, 보리, 밀, 옥수수, 콩, 고구마, 감자);
 면화; 유지(화생, 유채료, 지마); 황마; 감서; 감채; 담배.

자료 출처: 『中國統計年鑑 1991』, pp.340-54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이같은 가족농업과 집단농업의 미시적 연속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촌개혁이 대외적으로도 유명한 성공작이 된 근본적 이유는 아니다. 중국 농촌개혁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이전보다 급격히 향상시켰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가 엄청난 재정/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농민들에 대해 획기적인 경제적 양보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즉, 농산물 수매가의 획기적 인상, 농작물 파종구조의 대폭적 자유화, 이농이촌의 부분적 허용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조정책은 중국 정부의 기존의 도시편향적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대농민 양보책이었던 것이다 (cf. Chang, 1994). 그리고 농업생산의 탈집단화는 아리한 거시적 정책조정에 수반되었기 때문에 제도상의 혼란 대신 즉각적인 농촌 경제사정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표-4>의 성분분석(component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개혁기 농가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이 농산물 수매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그외 생산성의 증가와 재배작물의 변화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난다. 만일 농민들이 이전과 같은 정책적 제약상태에서 저가 수매되는 주곡의 생산에만 매달려야 했다면, 개별 농가 단위의 사영 농작업에서도 별다른 의의를 찾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농업 개혁의 성격이 미시적 차원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도시편향적 농정의 근본적 수정이라는 거시정책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농촌 개혁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가능한 것이다.

(2) 농가 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⁷⁾

농업개혁 초기의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설명이 생산체제 개편의 직접적 효과로서보다는 국가의 농민에 대한 경제적 양보책의 결과로서 더욱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같은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구조적인 제약이 따름을 함의한다. 즉,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계속적으로 지탱해주기 위해 농산물 수매가 인상, 고소득 환급작물 재배의 허용, 농지부족에 대응한 이농 허용 등을 계속 실시하려면, 국가 재정적자의 확대, 주곡자급의 위협, 도시지역의 물리적 비대와 사회적 불안정화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결코 장기화될 수 없을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세의 완화 또는 정지이며, 이는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며 중국 농촌에서 실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농촌개혁의 동력은 여기에서 상실되지 않았다. 농업 사영화에 즉각적으로 뒤이어 농촌지역의 소규모 거점지역인 鄉과 鎮을 중심으로 한 농촌산업화(rural industrialization)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농민들은 농업부문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득향상과 사회적 변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농촌산업화가 중국 농촌의 사회주의 발전사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950년대말 毛澤東이 소련과의 이념적 차이를 표방하면서, 스탈린식 경제발전전략에 중요한 수정을 가했는데, 그 핵심적 조치중의 하나가 노동집약적 농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모택동은 혁명 완수 후 도시지역에서 소련의 재정/조직/기술상의 원조하에 추진된 자본집약적 중공업화가 중국 실정에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의 원천을 농촌의 엄청난 (유휴)노동력에서 찾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50년대말 大躍進의 와중에서 새롭게 조직화된 人民公社 체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개별 인민공사는 지역별 自力更生の 기치하에 기초적 생산재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독려되었고, 이에 따라 소규모 노동집약적이고 토착기술의존적인 농촌형 생산재공업이 집단생산체제의 일부로서 급조되었다.⁸⁾

이같은 역사적 실험으로서의 모택동식 농촌산업화는 비록 철강, 시멘트, 농약, 전력 등의 경이적인 생산증대를 가져왔지만, 농민들은 그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당장 필요한 소비재 생산을 제대로 늘릴 수는 없었다. 비농업 프로젝트들을 위한 농업 노동력의 무계획적이고 과도한 차출에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업생산은 전대미문의 하락을 겪었고, 굶기야 많게는 3천만명

7)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Chang (1993), "The Peasant Family in the Transition from Maoist to Lewisian Rural Industrialisation"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관련된 중국 문헌으로 丁國光 (1993), 『鄉鎮企業論』 등 참조.

8) 대표적인 예가 土法爐이다. 토법로는 각 지역 인민들이 그들의 노동력과 토착기술을 바탕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철광석을 채취/가공하여, 지역의 관련 공업에 공급하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토법로를 통해 공급된 철이 농기구 제작 등에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이 낮고 규격이 결여된 제품으로서 갖는 비효율성이 심각했다 (Riskin, 1987).

까지로 추계되는 인민들이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모택동식 공업화의 또다른 한계는 비록 농민들이 공업생산에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동원은 계절적이고 순환적이어서 그들이 산업노동자로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약진 실패 후의 조정기에 들어서, 농촌공업의 생산 품목 및 조직상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같은 모택동식 농촌산업화의 근본적 한계점들은 개혁 직전까지 유지되었다.

개혁기 들어 농업에서의 다양한 탈집단화 조치들과 함께 농촌 비농업부문의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려는 조치가 동시에 취해졌다. 그러나 집단생산체제로서의 모택동식 농촌산업은 인민공사의 점진적 해체, 즉 농촌경제의 탈집단화에 따라 그 조직적 기초가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농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형태들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는데, 1984년에 비농업부문의 사적 기업활동을 용인하는 역사적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농민들의 인근 鄉소재지, 鎮, 중소도시로의 단거리 이주나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농민들은 개인 및 가구 단위로 個體戶라는 지위를 얻어 다양한 수공업, 상업, 개인서비스업을 시작하거나, 소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私營企業의 형태로 좀더 큰 규모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웃, 친척 등 다수의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新經濟聯合이라는 자격을 얻어 자율적인 집단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기존의 생산대, 대대, 공사 단위의 集體企業들도 새로운 시장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합리화 조치들을 취하고 소유권의 일부나 경영권을 개인들에게 이양해 사적 경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형 기업들의 대다수가 鄉소재지나 鎮에 위치하므로 집합적으로 鄉鎮企業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표-5> 연도별 鄉鎮企業의 단위수, 고용인원, 생산량

	단위수 (만개)			고용인원 (만명)			생산액 (억元)		
	전체	鄉辦	村辦	전체	鄉辦	村辦	전체	鄉辦	村辦
1978	152	32	120	2827	1258	1569	493	281	212
1980	142	34	108	3000	1394	1606	657	369	288
1984	606	40	146	5208	1879	2103	1710	818	648
1985	1222	42	143	6979	2111	2216	2728	1139	910
1986	1515	43	130	7937	2275	2266	3541	1414	1103
1987	1750	42	116	8805	2398	2321	4764	1826	1412
1988	1888	42	117	9546	2490	2404	6496	2438	1924
1989	1869	41	113	9367	2384	2337	7428	2673	2183
1990	1850	39	107	9265	2333	2259	8462	2987	2442

1991	1909	38	106	9609	2431	2336	11622	4274	3445
1992	2079	39	113	10581	2608	2540	17975	6649	5450
1993	2453	43	125	12345	2881	2887	31541	10788	9572
1994	2494	42	123	12018	2961	2938	42588	15041	13825

주: 1978-1983년까지는 鄉辦企業, 村辦企業만 포함; 1984년 이후는 모든소유 및 경영 형태의 기업을 포함.

자료 출처: 『中國統計年鑑 1995』, pp.363-65.

<표-6> 지역별 鄉鎮企業의 단위수, 고용인원, 생산량 (1994년 현재)

	단위수 (천개)			고용인원 (천명)			생산액 (천만원)		
	전체	鄉辦	村辦	전체	鄉辦	村辦	전체	鄉辦	村辦
北京	103	5	15	1242	466	600	9173	3797	4840
天津	49	3	9	1018	278	576	7661	2051	4732
河北	1786	20	55	7947	1187	1564	25538	4539	5815
山西	732	8	43	3792	535	1064	10309	1621	3103
內蒙古	471	8	10	1326	307	169	2460	605	398
遼寧	875	16	47	4473	1145	1428	23734	6142	9335
吉林	699	8	18	2144	337	325	4838	989	993
黑龍江	773	10	24	2208	400	316	6000	1406	1176
上海	15	5	10	1390	762	628	10447	5999	4448
江蘇	1060	36	76	9420	3976	2908	65520	35005	24665
浙江	880	26	57	7759	2434	1680	48104	17497	10327
安徽	848	24	53	5874	1532	1200	14952	5908	4476
福建	520	12	30	2998	755	638	9635	3389	2761
江西	1170	20	45	4041	794	589	12651	2856	2176
山東	1996	25	150	14816	3005	4895	68039	19510	29839
河南	2060	16	52	8568	1178	1927	17961	3695	5997
湖北	1642	22	138	6121	1350	1369	16561	6132	4845
湖南	1974	27	98	7046	1546	1261	12747	3925	2639
廣東	1389	28	102	9155	2092	2871	22020	9440	5844
廣西	1128	9	13	2302	503	206	4895	1908	568
海南	109	1	2	314	61	26	651	151	60
四川	2045	54	106	7403	3113	1660	19734	10225	6246
貴州	469	5	3	800	163	28	844	457	94

雲南	738	7	25	2354	478	517	2879	807	984
西藏									
陝西	778	12	32	3155	462	611	5814	1051	1352
甘肅	293	8	9	1686	451	225	2246	708	372
青海	37	1	1	105	37	22	101	58	23
寧夏	87	2	1	206	81	31	233	143	44
新疆	219	5	4	519	179	47	689	395	99

자료 출처: 『中國統計年鑑 1995』, pp.363-65.

<표-5>, <표-6>에서 보듯이 1984-85년부터의 향진기업의 단위수나 고용인수의 증가는 전국에 걸쳐 가히 폭발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 초반까지 2백만개를 밑돌던 향진기업의 단위수는 1980년대 후반에는 2천만개를 육박하게 되었고, 고용인수는 1980년대 초반의 3천만명 남짓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1억이 가깝게 되었다. 여기에 조직의 규모 및 형태상 공식적으로는 향진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다양한 비농업부문 생산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경제단위들의 개수나 고용인수가 더해지면,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농촌 비농업부문의 팽창은 개혁기 들어서의 급속한 산업생산 증대 및 경제 전체의 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개혁기 내내 도시 국가기업 부문의 생산부진과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산업화는 중국 개혁의 중장기적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기 중국의 농촌산업화는 루이스(W.A.Lewis, 1954)가 제시한 후발개도국들의 인구과잉 상태에서의 이중구조적 공업화 모형(dual sector model of industrialization)에 근사한 것으로, 노동집약적 소비재공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개혁기 중국에서 전개되는 루이스형 공업화의 중요한 특성은 농민들이 산업부문에 대해 단순히 노동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 토지, 조직 등 주요 생산요소의 대부분을 자체 공급한다는 점이다.⁹⁾ 여기에 덧붙여 산업고용의 창출 속도에 맞추어 노동력을 점진적으로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이주, 교육 및 훈련, 구직 등에 관련된 적용비용을 적절히 충당하는 것도 노동집약적 공업화에 대한 생계농업의 중요한 기여라고 볼 수 있다.¹⁰⁾ 개혁기 중국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급증한 농업소득을 각종 비농업부문 생산활동에 대한 기초자본으로서 활용하고, 가족노동력에 의존하거나 친척, 이웃과의 연대를 통해 기업조직을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토착적 생산기술을 적극적으로

9) 원래의 루이스 이론에서는 도시부문이 산업 자본, 조직, 기술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10) 이는 '생산양식 전환론'(Meillassoux, 1981)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산업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위한 가족농의 이중적 착취와 비슷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실상 공업화를 농가경제에 내재화(internalization)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루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농촌경제에 산업 자본, 조직, 기술을 제공하여야 할 도시산업부문이 자체의 개혁과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만성적인 생산성 감퇴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자구적 공업화 노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촌산업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역할은 농민들의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업 소유 및 경영, 인구이동 등에 관한 행정적 규제를 적시에 완화시킨 소극적인 측면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개혁기 중국에서 농촌산업의 폭발적 발전에 따라 농촌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 및 생산 구조가 급변하게 된 거시적 변화는 결국 개별 농가경제의 노동력 및 자본 배치상의 부문다변화(sectoral diversification)라는 미시적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가들이 노동력 및 자본을 농업과 비농업에 신축적으로 동시 배치함으로써 다부문적 경제조직(multi-sectoral economic organization)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국가가 거시적 경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과 욕구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추구하는 미시적 선택인 것이다. 만성적 농지부족 및 이에 따른 농업의 노동생산성 정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업생산 감퇴의 기회비용을 별로 걱정하지 않고 새롭게 허용된 비농업부문의 생산활동에 노동력과 자본을 신축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별 농가의 이같은 부문다변화의 노력이 집합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중국 경제전체의 고용 및 생산 구조의 급변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고려해야 되는 미시적 과정은 농민들이 부문다변화에 관련된 경제적 자율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농민들의 비농업부문 경제활동과 근거리 이동 및 이주를 전격적으로 허용해 주었다고 해서, 30여년간 집단농장의 노동자로서 생활했던 중국 농민들이 갑자기 농촌산업화에 필요한 자본, 조직, 기술상의 대응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농촌산업화에 대한 이러한 준비과정은 바로 농업 사영화에 의해 상당 부분 충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사영화는 바로 국가의 농민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장치였던 인민공사가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가경제 운영의 자율적 주체가 되었다. 필자의 통계학적 인과분석에 따르면, 농업 사영화의 진전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에는 모호한 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농촌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활용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Chang, 1993).

아울러 수많은 농민들이 비농업부문의 노동 및 경영 활동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 농촌의 고용 구성으로 본 산업구조와 계층구성으로 본 사회구조가 급속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중국 농촌은 더이상 전적인 주곡생산기지나 농업종사자들의 사회로만 규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상공업이 농민들의 주도적인 경영 및 노동에 의해 발전하는 가운데 복합적인 산업구조와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개혁 초기 일부 적극적 농민들에 의해 비농업부문으로의 소규모 실험

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그들 사이에 그리고 그들과 여타 농민 사이에 비교적 수평적인 직업분화의 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Howard, 1988). 그러나 개혁이 심화되면서 사영기업, 외자기업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업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멀지 않아 자본과 노동 사이의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농촌산업화가 이처럼 농민들의 미시적 경제전략에 의해 촉발·지탱되어 왔지만, 그 장기적인 성패는 결국 다양한 거시적 경제조정책, 도시 국유기업과 농촌산업 사이의 구조적 관계, 해외자본의 중국 진출 전략 등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다수의 사영경제단위들의 조직과 이윤이 급팽창함에 따라 생산수단 소유의 집중과 자본가계급 대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혁과 지도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도시 국유기업에 대한 본격적 개혁작업이 계속 미루어지는 상태에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놓고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부각되고 있는 향진기업에 대한 정치적 통제압력이 언제든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내륙 배후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자본이 농촌산업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진기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촌산업화가 진척되어 국가경제적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거시적 변수들의 중요성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3) 탈사회주의 사회보장체계로서의 가족부양¹¹⁾

중국 농촌의 인민공사는 다른 사회주의 경제조직체들과 마찬가지로 생산과 사회보장 기능을 결합적으로 수행했다. 인민공사의 집단경제체제는 해당 지역 농민들 전원에 대해 고용과 생계를 평균주의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특별구호의 대상을 극소화시키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집단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선별적 생활보호를 실시했다. 따라서 개혁기 인민공사의 해체는 농업 생산과정의 탈집단화뿐 아니라 농민복지체제의 구조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만일 인민공사의 뒤를 이은 농촌의 기본적 경제조직체가 기본적 사회보장을 생산과정에 내재화시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농민들에 대한 독립된 공적 복지체제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기 중국 농촌에 독립된 농민복지체제가 제대로 확립되고 있다는 증후는 없다. 다만, 이미 지적한대로 새로운 경제조직체로 등장한 농민가족이 성원간의 도덕적 상호부양을 기본적 행위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가족의 자체적 사회보장 기능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

11)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장경섭 (1995),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 — 시장, 국가, 가족 사이의 농민복지"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관련된 중국측 공식문헌으로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95), 「社會保障體制改革」 참조.

될 수 있다.

개혁 이전의 농촌 복지체제는 마르크스와 모택동의 사상체계를 혼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Dixon, 1981).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살펴보면, 집단농업체제가 생산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of production)를 바로 잡아, 일반 농민들이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 기본적인 복지욕구를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고용/분배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택동주의적 입장을 살펴보면, 각 단위의 집단생산체가 국가나 다른 단위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독립적으로 충족시키는 이른바 自力更生の 이념이 복지체제에 적용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 매개되는 지역간 및 단위간 재분배가 최소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적 생계소비 단위인 가족이 자체적 부양기능을 극대화해야 했다는 점이다. 실제 생산과정에서 각 지역의 농민들은 시민적 권리의 행사로서 집단 농작업에 참여했고, 수확 농산물의 분배에 있어 일정 비율은 개별 농가의 생계수요(식구수)를 반영해 평등하게 이루어졌다.¹²⁾ 그리고 각급 집단조직체는 자체의 재정 및 서비스 인력 범위내에서 특별한 생활 및 의료상의 보호가 필요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해 五保라는 구호(공적 부조)장치를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는 언제나 해당 가족원들의 최대한의 보호·부양 노력을 전제로 했다.¹³⁾

개혁기 농촌경제의 탈집단화는 농민복지를 이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의 사영화 및 시장기제의 도입하에서 농촌 전체의 평균적 소득 향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막상 집단적 농민복지기제는 그 조직 및 재정 기반이 붕괴되어 나갔다. 우선, 집단생산의 중단으로 각 농가에 대한 생계식량 공급의 사후적 보장이 불가능해졌으며, 다만 개별 경작을 위한 농지사용권의 배분에 있어 식구수에 의한 口糧地를 포함시킴으로써 가족별 생계보장을 피하게 되었다. 이 경우, 각 농가의 가족구조와 생산능력에 따라 실제 생계보장의 실현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다. 특수 곤궁자들에 대한 공적 부조로서의 五保도 그 조직 및 재정 기초로서의 집단생산체가 해체됨으로써, 많은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이 공백을 가족이나 친척이 메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새롭게 등장한 村民委員會, 鄉政府 등의 기층 행정조직이 농민들의 지역납부금과 소속 집체기업들의 수익금을 활용해 지역민 구호사업을 떠맡게 되었지만, 집단생산이라는 강제적 사회보장 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농민복지체제의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수한 농촌인구가 충분한 금전적 준비나 안정된 고용기회 마련이 되어있지 못한 채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못한 대도시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들의 비상시 복지수요 충족도 결국 고향의 친족이 떠

12) 생계수요 충족을 위해 각 가구별 식구수에 비례해 실시한 '공산주의적' 분배를 按家庭人口分配라 하고, 생산노력 반영을 위해 각 가구 성원들의 집단노동 시간의 합계에 비례해 실시한 '사회주의적' 분배를 按功分分配라 한다. 지역별/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按家庭人口分配의 비율이 按功分分配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13) 이는 한국에서 제기되어 온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의 사회정책 기초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혁 이전에 인민공사체제를 통해 제공되던 의료같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점차 상품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나, 개인/가구별 재정능력에 따라 수혜상태가 달라지고 있다 (Henderson, 199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 노후생계 등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들도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공공자들에 대한 재분배적 안정장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표-7> 중국의 사회복지(연금/구제) 재정지출 (단위: 億元)

연도	전 체 재정지출	사회복지 지출	연금	사회복지구제비			자연재해 구제비
				농촌	도시	계	
1952	176	2.95	1.23	0.16	0.50	0.66	1.06
1957	304	5.29	1.52	0.66	0.70	1.36	2.41
1962	305	8.14	1.73	1.21	1.18	2.39	4.02
1965	466	10.94	2.31	1.65	1.27	2.92	5.71
1970	649	6.53	2.67				
1975	821	12.88	3.75	1.75	1.72	3.47	5.66
1978	1111	18.91	5.27	2.45	2.17	4.62	9.02
1980	1213	20.31	7.92	2.50	2.86	5.36	7.03
1983	1249	24.04	9.01	2.61	3.97	6.58	8.45
1984	1502	25.16	9.85	2.84	5.07	7.91	7.40
1985	1866	31.15	12.01	2.65	6.24	8.89	10.25
1986	2331	35.58	14.55	2.69	7.71	10.40	10.64
1987	2448	37.40	16.54	2.56	8.39	10.95	9.91
1988	2707	41.77	18.91	2.62	9.60	12.22	10.64
1989	3040	49.60	22.99	2.81	10.92	13.73	12.88
1990	3452	55.04	26.21	2.93	12.57	15.50	13.33
1991	3814	67.62	27.53	3.08	14.20	17.28	22.51
1992	4390	66.45	30.85	3.09	16.62	19.71	15.89
1993	5287	75.27	34.87	3.63	21.37	25.00	15.40
1994	5793	95.14	44.90	3.86	26.96	30.82	19.42

주: 국가지급분 노동보험비는 사회복지 지출에 불포함; 사회복지구제비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 및 民政部 행정비용 포함.

자료 출처: 『中國統計年鑑』, 1989-1995년판의 「財政」 부분에서 취함.

이같은 시장경제하의 방입적 복지체제는 농촌의 기초 생산단위가 된 농가의 자체 부양기능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촌개혁의 공식적 조치로서 가구별 생산책임제(household production responsibility)가 도입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구별 복지책임제(household welfare responsibility)가 함께 도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가구단위의 사영농업과 함께 가구단위의 사회부양(social support)은 현 중국 농촌의 사회체제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과 복지에서 모두 가족중심주의적 사회질서가 중국 농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 사실은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전체 공공복지비 가운데 대농민 지출 비율은 1970년대까지도 최하 10%선을 유지했으나, 개혁기에 들어 점차 감소해 198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10%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표-7> 참조). 개혁 이전의 비율도 농촌인구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할 때 극히 낮은 것이지만, 개혁과정에서 그 비율이 더욱 감소하게 된 것은 농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포기 내지 유보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농민들이 실제로 처한 복지환경은 더이상 국가지도부의 거시정책적 결정이나 이를 반영하는 집단경제적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일반 중국 농민들에게는 농가 단위의 자체적 부양노력만이 보편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인 것이다. 따라서 농가 내부의 부양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족구조, 재정능력, 부양도덕 등의 미시적 요소들이 중국 전체 사회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시적 함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복지차원에서 중국 농촌사회의 성격을 미시적 행위자인 농민들의 가족부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거시적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농민들의 가족단위의 부양 노력의 사회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권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1980년에 제정된 新婚姻法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지원하며,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지원”하는 핵가족적 부양관계뿐 아니라, “친(외)조부모가 부모와 사별한 어린 손자녀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며, 손자녀가 자녀와 사별한 친(외)조부모를 부양하며, 형과 누나가 부모가 별세했거나 능력이 없을 때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등의 확대가족적 부양관계까지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내용을 갖고 있다. 물론 도덕적 부양관계를 형식화된 법적의무(formalized legal responsibility)로서 규정함으로써 공고화시키려는 것은 일면 모순된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거시적 정책결정자들이 개혁

14) 이같은 맥락에서, 초우(Chow, 1988:74)는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에 관한 거의 모든 제안들이 가족체제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 다음 장에서 논의되겠지만, 생산과 복지에서의 동시적인 가족의존 전략은 복지수요충일수록 복지여건이 나쁜 모순이 있다. 즉, 가족의 규모, 구조, 기타 인적 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조직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농가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복지조직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기 농민복지체제가 농민들의 가족부양에 관한 태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⁶⁾

(4) 계획생육의 거시적 필요성과 미시적 모순¹⁷⁾

현 단계 사회주의에서 집단경제체제의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회의적 평가를 내리는 중국의 개혁정권은 농촌의 효율적 생산관리 및 인구부양을 위해 농민가족을 농업 및 비농업 생산과 농민복지의 핵심적 조직체로서 부활시켜 놓았다. 그런데 이같은 농가의존적 경제개혁책은 또다른 중요한 실용주의 국가정책인 가족계획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맬서스(Malthus)류의 인구성장 억제론을 받아들이는 실용주의자들은, 다양한 생산 및 복지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적합한 가족 규모 및 구조를 유지하려는 농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극단적인 산아제한을 강요해 왔다. 개혁정권이 농민인구에 대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거시적 정책목표인 생산·복지체제의 효율화와 인구성장 억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출산동기가 뚜렷히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을 극도로 억제해야 하는 서로 모순된 미시적 행위원칙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가족계획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반발하는 농민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중국공산당내 실용주의자들의 입장이 개혁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온 유일한 분야가 인구정책이다. 모택동은 원래 마르크스의 反맬서스적 인구관을 이어받아 인위적 인구성장 억제책을 반대하고, 대신에 생산체제의 변혁을 통해 중국의 풍부한 인구(노동력)를 원천으로 삼는 중국형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이를 실천에 옮겼었다.¹⁸⁾ 그러

16) 신혼인법과 더불어 가족의존적인 방임적 사회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또다른 의식개혁 노력으로써 이른바 婦女回家論의 유포를 들 수 있다 (장경섭, 1995). 이는 가부장적 가족체제하에서 가족부양에 관련된 가사의 실제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미화 또는 합리화시키고, 아울러 생산체제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중복 고용 노동력의 방출을 여성 위주로 실시하기 위한 선진전략이다.

17)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장경섭 (1993), "중국 농촌의 경제개혁과 인구문제 --- 計劃生育의 경제사회학."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개혁기 중국의 인구문제 전반에 관해서 Goldstein and Wang, eds. (1996), *China: The Many Facets of Demographic Change* 참조.

18) 모택동은 1949년의 글 "관념론적 역사관의 파산"(1992:1898-99)을 통해 일찌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인구가 많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인구가 몇배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책이 있다. 그 대책이란 즉 생산이다. 서방자본계급경제학자들, 예를 들면 말사스 따위들이 소위 식물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일련의 황당한 설교는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벌써 이론적으로 철저히 논박당하였을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혁명후의 조련과 중국해방구의 사실에 의하여 완전

나 대약진과 문화혁명의 실패에 따른 毛노선의 현실성 약화, 그리고 농촌에서의 토지-노동 불균형의 심화 및 도시 국영산업의 고용창출의 부진은 상황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결국 1970년대 초반부터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計劃生育(가족계획)이 실시되었다.¹⁹⁾ 그 결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8년에 7.025에서 1978년에는 2.968로 급감하게 되었다 (CFEPH, 1988:26).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사실은, 도시나 농촌이나 이미 오래 전부터 생산체제가 脫가족화되어 있어 가족자원(family resource)으로서의 자녀의 가치가 상당히 모호해졌고, 궁극적으로 多産에 대한 규범이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약화되어졌다는 것이다 (Chang, 1990). 이는 집단경제기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미시행태론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산아제한과 관련해 국가가 다양한 유인, 감시, 처벌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 인민들은 이에 대해 좀더 수용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대의 가족계획사업이 대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구는 1970년대말에 이르러 10억인을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산아제한을 한층 강화하여 이른바 “한 자녀 갖기(只生有一個孩子)” 운동이 1979년부터 전개되었다.²¹⁾ 인구부문만 따로 놓고 보면, 개혁기에 들어 실용주의자들이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산아제한책이 더욱 강화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추진한 농촌의 탈집단화는 농민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가족중심적인 사회·경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산아제한의 현실적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 농민가족이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가족(가구) 규모 및 구조, 의사소통, 자원배치 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조직적 자율성(organizational autonomy)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절한 가족규모 및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일정한 출산, 특히 남아 출산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만족될 수 없다. 그런데 1970년초부터 강력

히 반박당하였다. . .

세상의 모든 사물 가운데서 제일 귀중한 것은 사람이다. 공산당의 령도하에서는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인간격이라도 이룩할 수 있다. . . 우리는 혁명이 모든 것을 개변할 수 있으며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하고 생활이 유족하고 문화가 개화발전한 새 중국이 오래지 않아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당시 미국의 애치슨(Acheson)이 중국 현실을 놓고 인구과잉과 자원부족으로 인한 체제 붕괴가 뻔하다는 조소를 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19) 대약진의 실패에 이은 1960년대초의 조정기에도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공식 인정되고, 일부 관련 사업이 실시되기는 했으나, 극히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문화혁명의 와중에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20) 이 점은 극단적 산아제한을 실시한 중국에서만 아니라, 그다지 강도있는 인구성장 억제책이 실시된 적이 없는 동구권 사회들에서도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hang, 1990).

21) 이 운동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980년대 초반부터는 농촌지역에서는 첫아이가 딸인 경우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의 ‘한 자녀 갖기’는 계속 실시되고 있다.

한 가족계획하에서 출산율이 급감한 결과, 개혁기에 들어 대부분의 중국 농민들이 보충적 출산 동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인구성장 억제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중국 정부는 가족계획에 관련된 혜택과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의 출산행위에 관련된 비용-혜택 구조(cost-benefit structure)를 단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해 왔다.²²⁾ 즉, 농민들의 단산에 따르는 '경제적 불리'를 국가 인구정책 추종에 대한 '정치적인 보상'으로 상쇄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기에 들어 지역별로 다양해지는 경제적 여건, 인민공사 해체로 인한 가족계획 지원조직의 약화, 정부의 재정상태 악화 등의 요인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보상의 효과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출산행위의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강제적 낙태와 불임시술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등 강압적 방법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되었다.²³⁾ 그러나 경제개혁체과 인구성장 억제책 사이의 모순을 반영해, 농촌의 출산율은 개혁기에 들어 더이상 뚜렷하게 낮아지지는 않고 있다. 사실, 1980년대초에는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는 1970년대 후반의 수준도 어렵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강압적 산아제한에 대한 농민들의 필사적 대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표-8> 1982년과 1990년의 아동 및 청년 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

연령	1982년 센서스			연령	1990년 센서스		
	남성 (십만명)	여성 (십만명)	성비 (여=100)		남성 (십만명)	여성 (십만명)	성비 (여=100)
전체	5,152,775	4,886,364	105.45	5,823,809	5,494,952	105.98	
				0	122,790	109,946	111.68
				1	123,398	110,487	111.69
				2	126,774	115,113	110.13
				3	127,068	116,278	109.28

22) 가족계획 수용에 따른 혜택은 지역별 차이가 많지만, 양육보조비 지급, 무료 의료혜택 부여, 우선적 주택 배정, 자녀의 학비 면제, 부모의 우선적 직장 배정, 사업자급 앞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각종 복지 및 보건 서비스 거부, 학교 및 직장 배정 제한 등의 벌칙이 가해지는데, 이 벌칙의 시행과정에서 반발 농민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까지 행사되는 등 인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다.

23) 지방관리들은 중앙 정부에서 시달린 인구성장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마다 돌며 일종의 '인구사찰 (demographic policing)'을 실시하는데, 이에 대응해 지역주민들이 교대로 땅을 보고 감시조가 나타나면 불법적 임신부들을 피신시키는 등의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한다 (Bianco and Hua, 1988).

				4	111,485	102,893	108.35
				5	104,056	95,963	108.43
				6	99,482	91,262	109.01
				7	105,259	96,792	108.75
0	107,870	100,223	107.63	8	114,320	106,098	107.75
1	90,150	83,608	107.83	9	93,762	87,405	107.27
2	94,608	88,130	107.35	10	99,783	92,788	107.54
3	101,313	94,942	106.71	11	100,110	93,603	106.95
4	95,896	90,303	106.19	12	97,565	91,586	106.53
5	100,060	94,153	106.27	13	100,089	93,991	106.49
6	105,289	99,037	106.31	14	105,777	99,260	106.56
7	112,160	105,635	106.18	15	111,576	105,485	105.77
8	123,732	116,598	106.12	16	120,913	114,519	105.58
9	129,023	121,674	106.04	17	126,228	119,684	105.47
10	129,904	122,321	106.20	18	125,818	119,497	05.29
11	140,719	132,514	106.19	19	133,607	126,687	105.46
12	136,147	128,727	105.76	20	132,286	128,265	103.13
13	145,222	137,174	105.87	21	138,709	133,260	104.09
14	126,388	118,994	106.21	22	126,007	119,602	105.35

자료 출처: 1982년 센서스 자료는 『中國1982年人口普查資料』; 1990년 센서스 자료는 『中國1990年人口普查10%抽樣資料』.

첫째, 가족계획에 관련된 농민들의 불법·편법 행위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의료인들은 농민들에게 가장 널리 보급된 피임장치인 IUD를 비밀리에 제거해 주는 불법적 시술을 통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Bianco and Hua, 1988:154-155).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가업 및 혈통 계승, 노후보장을 걱정하는 농민들 사이에 여영아 유기 및 살해가 번지고 있다 (장경섭, 1993:39-41). 그리고 초음파 등으로 검사·확인된 여태아에 대한 선별적 낙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표-8>에서 보듯이 공식통계상의 신생아 성비(여아=100)가 1982년 센서스에서 107.63, 1990년 센서스에서 111.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상적인 신생아 성비인 105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각각 2천만 명을 넘는 영아를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어서, 허용 자녀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남아를 갖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국 부모들이 여아들에게 행한 비인륜적 행위의 심각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둘째, 가족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양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취학 자녀의 학업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 이들을 가내 일손으로 동원하는 현상이다. 개혁정책의 전개와 함께, “수많은 농민가족들은 농사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각급 학교의 취학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Perry and Wong, 1985:20). 이같은 취학률 감소는 도시지역에는 없는 현상이다 (Davis, 1989). 이 문제는 특히 중등학교에서 심각해, 중등학교 재학생수가 1970년대말에 정점에 이르고 개혁기에 들어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다. 이러한 감소세는 가족계획에 의한 중등학교 취학연령 인구의 감소효과가 미처 나타나기 전에 시작된 것이어서, 그 주된 원인을 경제 및 인구정책의 모순에 대한 농민들의 적응방식으로서의 아동노동력 확보 노력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중국 농가에서 아동노동력의 동원은 전통적으로 행해진 일이지만, 농민들이 공식 학교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농촌아동들의 미래에 관한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²⁴⁾

세제, 산아제한에 의한 가족노동력의 부족으로 농촌의 가족중심적 생산활동의 영위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민들이나 불법적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공식 거주지역에서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농민들이 무작정 도시지역으로 몰려들어 도시지역의 이른바 盲流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혁기 들어 대부분의 중국 대도시들은 공식적 거주이전의 허가나 노동계약 없이 막연한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불법적’으로 밀려드는 이농민들로 북적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농촌지역에서의 경제개혁과 가족계획 사이의 정책적 모순을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영구적으로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중국 농민들의 경험은 이론적으로 흥미로운 것이다. 그동안 출산율 전환(fertility transition)에 관한 이론에 의하면, 대규모 산업노동자화(proletarianization), 즉 가족농인구의 도시노동자로의 집단적 계급 이동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했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유도된 출산율 감소에 따라 가족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탈가족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농 및 산업노동자화가 촉진되는 일종의 ‘역노동자화(inverted proletarian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경제개혁과 가족계획은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으로서 추구되며, 각각 개별적인 거시적 합리성을 갖지만, 이 두 가지 정책목표가 미시적 행위체로서의 개별 농가로 하여금 서로 모순된 행위규범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순에 대한 미시적 적응방식으로서의 여아학대, 아동 학업중단, 무작정 이농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시 거시적인 중요성을 갖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농민들이 그들의 미시적 적응행태를 자율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개혁지도부가 인구 및 경제 정책의 상호 조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4)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개혁기에 들어 중국 정부가 재정위기의 악화를 빌미로 농촌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했다는 사실이다 (Davis, 1989).

(5) 가족경제의 反사회성과 계층분화의 미시적 기초²⁵⁾

생산 및 복지 제도로서의 농민가족이 내부적으로 갖는 도덕적 집단주의는 인민공사가 정치적인 원칙으로서 견지한 생산 및 복지 원칙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위에서 지적했다. 그런데 개혁기 들어 부활된 사영농업 등에서의 경제적 가족주의는 그 내부지향성으로 인해 심각한 反사회적 부작용들을 초래하고 있다. 개혁 이전 각 인민공사 내부의 집단적 경제원칙들은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 전체에서 실현되어야 할 노동, 생계소비, 교육, 건강에 관한 보편적 권리 보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농민들은 인민공사에 소속됨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정치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일부 인민공사가 지역 사정으로 관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의 책임하에 재분배적 기제를 동원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이 과업은 국가에 의한 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개혁기에 들어 마찬가지로의 기능을 농가가 수행하게 되면서 대두되는 문제는, 가족은 인민공사와 달리 정치적 결정에 의해 구조와 기능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원들의 노동, 생계소비, 교육, 건강을 위한 적합한 여건을 조성할 수 없는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때, 다른 농가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구호에 나서게 할 정치·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표-9> 개혁기 농민가구의 수입규모별 분포

항 목	1980	1985	1987	1989	1991
조사호수 (단위: 호)	15,914	66,642	66,912	66,906	67,410
일인당연간수입 (단위: 元)					
총수입	216.22	547.31	653.58	874.97	1046.10
순수입	191.33	397.60	462.55	601.51	708.55
현금수입	113.12	357.39	460.30	657.68	736.84
일인당순수입별분포 (단위: %)					
100元 이상	9.80	0.96	0.87	0.57	0.40
100 - 150元	24.70	3.40	2.38	1.25	0.77
150 - 200元	27.10	7.86	4.99	2.76	1.56
200 - 300元	25.30	25.61	17.51	10.89	6.64
300 - 400元	8.60	24.00	21.34	15.58	11.08
400 - 500元	2.90	15.85	17.21	15.56	13.35
500 - 600元		9.06	12.00	13.35	13.00

25) 이 소절에 논의된 내용은 장경섭 (1996), "구계급, 신계급, 先富계급 --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련 중국문헌으로 李明 / 李江濤 編 (1993), 『中國社會分層』 등 참조.

600 - 800元		8.02	12.87	17.63	20.90
800 -1000元	1.60	2.93	5.47	9.54	12.83
1000-1500元		1.89	4.10	8.86	12.99
1500-2000元		0.26	0.88	2.55	3.89
2000元 이상		0.16	0.38	1.46	2.59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1992』, p.306.

이러한 재분배의 한계는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조정을 위해 시장기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혁기에 각 농가에서 가족중심적인 생산·복지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강한 내부지향적 도덕적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가족유대는 집단적 차원에서는 反사회적 개인주의로 표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Nee, 1985). 이같은 상황에서 농가들 사이에는 경제활동상의 분화뿐 아니라 소득 수준의 불평등화, 나아가 집단적 사회계층의 발생이라는 시장지향적 사영경제의 부작용이 걸려 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표-9>를 보면 개혁기 들어 중국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소득 향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민사회의 층화(stratification)가 당장 사회 전반적 계급투쟁으로 이어져 사회주의 질서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끈궁한 극빈계층의 집단적 발생에 대한 적절한 사전·사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위기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다.

물론, 개혁 이전의 중국도 완전한 평등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산혁명을 통해 농촌지역의 봉건질서와 도시지역의 식민질서가 타파되고 새로 도입된 사회주의 제도에 기초한 통치와 경제건설이 추진되면서, 이번에는 국가중심적인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택동은 1957년의 한 연설에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두가지 종류의 모순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적과 우리(인민) 사이”의 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자신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Mao, 1971:432-79). 이 가운데 적과 인민 사이의 모순은, 반제·반봉건 혁명 및 사회주의로의 체제이행 과정에서 혁명적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을 타도함으로써 적어도 중국 내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불식이 되었다. 인민 자신들 사이의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과 이행이 완수된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요소들 사이의 잠재적 부조화나 갈등 관계를 반영한다. 모택동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제시한 것 이상의 정치적 변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여기에서 永久革命論같은 특유의 정치이론과 大躍進, 文化革命 등과 같은 극적인 변혁운동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인민 내부의 모순은 구체적으로 노동자 내부, 농민 내부, 지식인 내부, 노동자·농민과 지식인 사이, 노동자와 민족자본가 사이, 민족자본가 내부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인민정부와 인

민 사이에도 모순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의 이해·集體부문의 이해·개인의 이해 사이,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주의 사이, 지도부와 피지도부 사이, 관료주의적 간부와 인민 사이 등에서 나타난다. 이같은 인민정부와 인민 사이의 모순도 인민정부가 인민에 속해 있는 이상,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민 내부의 모순은 인민들이 같은 사회주의체제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정치·행정적 지위, 소속 경제단위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해 및 권력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내부 모순에 대한 모택동의 지적은 외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중국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몇가지 불평등의 측면들이 추가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중요한 두가지를 들면, 첫째, 혁명 이전의 계급성분에 의거한 사회·경제적 혜택과 정치적 지위의 차별화가 종종 지역사회나 작업장 수준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내의 성분업,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정치·사회적 참여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 차별 및 소외가 가부장적 정치절서하에서 방조되어 왔다는 지적들이 있다.

모택동 치하의 중국에서도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분절과 불평등이 존재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의 개혁은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적 영리추구와 자유 시장교환이 허용되는 가운데, 先富계층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화를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적 분위기마저 조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별적 부의 획득과 축적을 위해 경영능력과 노동력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와 사적 유대관계가 동원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해서 교육, 성별, 나이에 따른 적응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아울러 가족생산부문에서 가족 규모와 구조에 따라 경제적 성공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혁정권은 현 체제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표면적 취지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결합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각각의 문제점들이 서로 뒤얽혀 극도로 복잡한 불평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개혁기의 농민복지에 관한 정책들은 이러한 계층화의 추세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개혁기에 형성되고 있는 농민복지체제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재분배 기제로서의 성격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앞서 지적했지만 인민공사 체제에 내재된 집단적 사회보장기제들이 점차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방임적 농민복지책은 가족 단위의 자체적 부양책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공적 복지제도들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개별적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가족의 규모, 구조, 기타 인적 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해 생산조직체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농가는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복지조직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산과 복지에서의 동시적인 가족의존 전략하에서는 복지수요충일수록 복지여건이 나빠지는 모순이 있다.

개혁기 들어 농민인구 내부에서의 先富계층의 형성과 극빈 소외집단의 발생은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사회적 계급갈등의 과정으로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대한 영토위의 다양한 경제적 입지조건에 따른 지역간 층화, 그리고 중앙 및 지방 국가기구의 인위적 자원배분에 의한 차별적 수혜 등의 거시적 요인들이 중국 인구 전체 및 농민층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상당 정도 설명해주지만 이는 사실상 개혁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혁에 따른 문제로서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에서의 농민층 내부의 불평등화는 대체로 개별 농민과 농가의 다양한 인적 자원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집단농장의 노동자로서 생활수준과 경제적 자산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국가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예외없는 자작농화의 과정을 거친 중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분화 및 불평등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²⁶⁾ 다시 말해, 개별 농민과 농가의 인적 자원 동원력이라는 미시적 요인에 기초한 농민사회의 계층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실제 증명되고 있다. 우선, 개혁 과정에서 가구주의 교육, 성별, 나이에 따른 경제적 적응도의 차이가 농가 소득수준의 차등화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남자일수록 해당 농가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장경섭, 1996). 아울러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지위와 간부와의 사적 유대관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특혜로 연결되는 현상도 널리 관찰되고 있다. 가구규모 및 가족구조가 가족단위 생산활동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도 뚜렷하다. 각종 가족생산부문에서 가구규모가 클수록 가구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일인당 평균 생산성과 소득도 높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Chang, 1996). 이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농가 및 개인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화를 해석하는 데에 개혁파의 기능주의적 시각이 적용될 여지도 있고, 비판적 갈등론자의 시각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더라도, 현재 중국농촌의 경제구조는 복잡한 양상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사회의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화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완화되거나 반전될 것으로 보는 낙관론의 설득력은 약하다.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화 및 계급구조 발생에 대해 단순히 필요악의 차원에서 간단히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빈곤 소외계층의 집단적 발생은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26) 농업 사명화를 위해 토지 사용권이 개별 농가에 분배되었으나 가구별 식구수나 노동력규모에 비례한 분배였으므로, 이를 경제적 분화나 불평등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수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경제운용조차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시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의 수직적 분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며 경제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도 중국 인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가 다양한 정치·행정적 규제들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발생과 일부 인민들의 절대 빈곤은 우선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에 의해 대처될 수 밖에 없으며,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부유계층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실행될 수도 있다. 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사회구조에 대해 공산당 지도부와 다양한 사회계층의 집단적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 차이는 결국 정치적인 방법으로 좁혀져야 할 것이다.

IV.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북한의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 가능성은 북한이 현재 분명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직까지는 중국이 단연 두드러진 사회주의 개혁/개방의 성공 사례이며, 북한이 앞으로의 개혁 작업을 중국의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과 현재의 경제구조, 국가지도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입장, 자본주의 남한과의 갈등 등을 고려해 보면, 북한이 반드시 중국식의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제시해 왔다.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북한의 고유한 정치이념과 발전전략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재독학자 송두율(1995)은 북한에서 여전히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으로도 규정된 북한 사회주의의 주체적 성격,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목표가 방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나 경제정책의 부분적 분권화도 중국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 민족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들어 농업에 있어서 ‘협동적 소유형태’를 ‘전인민적 소유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농업 사유화를 경제개혁의 시발로 삼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발전전략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²⁷⁾

북한경제를 오랜 기간 심층연구해 온 재일학자 고승효(1993)는 북한이 오래 전부터 농업관리

27) 1994년 북한주석 김일성은 「사회주의 농촌 테제」 발표 30돌을 맞아 전국농업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농민의 노동계급화와 농업의 공업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세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농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선택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은 농업의 기업적 관리를 통해서 도시경제와의 격차 및 괴리를 축소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의한 관내 협동농장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거시적 조정을 촉진하고, 작업반우대제 및 분조관리제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산책임도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생산관리 개선책들을 채택해 꾸준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를 포기하고서까지 탈사회주의적 농업체제를 도입해야 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이 공화국의 개혁정책 입안 및 시행에 깊숙히 관여했던 재미교수 출신 방찬영(1995:260-61)은 북한경제가 외국의 자본, 경영방식, 생산기술에 대한 개방이나 내부적인 “시장력(market forces)의 주입/배합”만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구상요건인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하며, 농업부문에서는 그나마 생산체제 개혁을 하더라도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방찬영(1995:264)은 중국의 농촌 경제개혁에 대해, “농업부문의 개혁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향상됨으로써 공업화 및 수출산업 육성과정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넉넉한 식량을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고 생산성 제고를 통해 창출된 잉여노동력을 산업화과정에 투입시키고 농가수입증대를 통해 농업생산품에 대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 생산증대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입감소로 인해 절약된 외화를 경제현대화를 위한 투자부문으로 전환/활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은 심각한 농업정지의 부족, 토질의 저하와 유실, 농업용수 부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생산체제 개혁이 중국에서처럼 국가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농업생산성 자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고 본다 (방찬영, 1995:264-65).

북한 농촌의 (중국식) 개혁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념적 입장과 현실적 경험을 반영해 북한의 앞길에 대해 심각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들이 중국의 농촌개혁 자체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논의에서는 좌/우 이념적 입장을 넘어서 중국의 농촌개혁이 사회주의 집단 농업체제가 포기되고 사영농업과 시장경제가 도입된 것으로 간단히 요약된다. 그리고 농촌개혁의 경제적 성과도 엄밀한 검토없이 과대평가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농촌개혁은 사회주의 생산체제의 전환을 위해 취해진 빗발치듯 국가정책으로 요약될 수 없으며 그 경제적 성과도 매우 복잡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중국식 농촌개혁이 추진되어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1970년대 말의 중국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사회적 상황에서 국가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농민들의 사회/경제적 욕구, 행태, 자원과 중국의 거시적 경제환경 사이에 조성된 생산적 관계가 북한 농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중국의 농촌개혁 시나리오가 북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의 도입과 농민들의 대응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1) 농업생산에 있어서 개인/가구별로 생산성과에 따른 정확한 책임과 보상이 적용되도록 농작업 단위를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가구 단위로 분배하여 사영농업을 실시한다. (2) 생산조직으로서의 협동농장은 해체하고 농촌 기층단위의 행정기구가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하부시설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3) 농업 생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의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조치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제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4) 농민들이 늘어난 농업소득을 사용하여 다양한 비농업적 소비/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직업적/지리적으로 대폭 자율화시키고 대부분의 경제요소들에 대한 시장을 허용/도입한다. (5)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고 농가의 여유소득을 자본으로 활용하고 농민들의 소비재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노동집약적 소비재 제조공업을 중심으로 농촌형 集體/私營기업들을 신설/확대/지원한다. (6) 농촌공업의 기술, 자본, 판매시장 확보를 위해 북한내 도시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교류를 유도한다. (7) 협동농장의 해체에 따른 농민들의 집단적 복지서비스 제도의 약화는 각 농민가족의 자체적 부양능력 강화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영리적 서비스시설을 사급히 마련한다. (8) 사영 생산활동 및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확대되는 농민들 사이의 소득 불평등과 계급/계층적 차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념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집단과 부유계층을 정치적으로 보호/관리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이상과 같은 일련의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1)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등의 거시정책적 변수, (2)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등의 미시조직적 변수, (3) 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에서 따져보자.

먼저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사영화의 실시, 농촌 생산/행정조직의 개편, 농촌인구의 자율적 직업/거주 변경의 허용, 각종 생산요소 및 상품 시장의 허용, 가족부양 책임의 강화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보완 등 중국에서 취해졌던 일련의 조치가 북한에서도 무난히 취해질 수 있다. 이같은 제도 개혁은 국가지도부 내부의 노선갈등이나 정책 대상 사회집단인 농민층의 반발이 있을 경우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에 비해서도 국가지도부가 정치적으로 더욱 통합되어 있고 농민층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 정책기조가 정해지면 매우 신속하고 철저하게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중국에 비해 인구, 경제규모, 국토면적이 훨씬 작다는 사실도 이같은 제도 개혁의 용이함을 더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작업반 우대제 및 분조관리제의 도입, 농촌시장의 부분적 허용 등 중국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농촌개혁의 초기에 실시한

것과 유사한 조치들을 196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왔다는 사실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정책의 이념적 합리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다.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해 온 북한 정권으로서는 굳이 鄧小平류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탈사회주의적인 개혁조치들을 민중 자존의 차원에서 쉽게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그동안 김정일의 주도하에 취해진 농촌과 도시의 초보적 경제자유화 조치들이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과 이념적 독자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철저히 정당화되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정치적 몰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정권은 독자노선의 중요성을 인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용적 개혁노선의 도입도 그만큼 자인스러울 것이다. 또한 개혁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 인민들이 이념적 차원에서 심각한 도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

농촌의 생산체제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동원능력에 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선다. 특히 최근들어 북한 정부가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황의 타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농민들의 생산의욕 고취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지출을 수행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도 농촌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북한 정부가 중국의 일부 해안지방에서처럼 막대한 해외 자본의 유치에 성공할 전망도 당분간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 북한의 농촌 인구 및 농업생산의 국가적 비중이 훨씬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농촌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거둘 논리적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생산조직의 형성에 관해 살펴보면,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체제를 재도입하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치적 통제력도 충분하고 아울러 북한 농민들도 대체로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업 사영화를 시발로 농민들이 가족 단위의 경제활동을 확대해 나갈 때 그들의 가족관계가 중국에서처럼 신축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조직으로 작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족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될 때 농민들은 가족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동기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경우에 중국의 상황과는 달리 인구압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경제개혁에 모순되는 강압적 산아제한책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농업의 사영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집체적 생산조직들이 보강/설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 비해 지방 집체공업 운영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영기업, 사영기업 등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중국과 같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역주민의 경영/소유/고용상

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농촌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다.

농민들에 대한 생산동기 부여에 관해서도 중국의 경우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즉 대폭적인 농산물 수매가 인상 및 가구별 책임생산제의 동시적 도입이 이루어지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진작되고, 새로운 비농업부문의 고소득 경제활동 기회들이 주어지면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상식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북한 농민들이나 중국 농민들이나 그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국가정책의 호의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경제개혁책들이 즉각적으로 상당한 소득 향상을 가지고 오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지속성이 정치지도부의 통일된 입장으로 천명되어 인민들이 북한 정권의 개혁기조에 대해 정치적 신뢰감을 갖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체제 개혁이 이론적으로 갖는 경제활성화 효과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처한 물리적 여건에 의해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방찬영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농업경지 부족, 토질의 저하와 유실, 농업용수 부족 등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의욕 제고만으로 북한 농업의 획기적 재도약이 가능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발전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미 도시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잠재적 탈농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농촌과 도시의 차이없이 노동력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와 같은 루이스형의 노동집약적 농촌산업화가 촉발되기 어렵고 또 시작되더라도 장기적인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²⁸⁾ 그리고 농촌제조업에 대한 원료 및 에너지 공급도 상당기간 원할치 못할 것이다. 물론 농촌의 유희노동력 부재는 인구부양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만큼 국가의 복지비용 및 가족의 생계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생산적 투자의 확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에서 중국이 실시한 것과 같은 일련의 농촌개혁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되더라도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물리적 여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가지 물리적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그 체제개혁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체제의 사회경제적 비효율성이 농촌개혁의 기회비용으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협동농장의 해체 및 이에 수반된 시장경제적 개혁책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회주의 집단농업이 하나의 현대적 조직농업체제로서 갖고 있는 장점

28) 이는 남한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촌제조업 발전전략이 이미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이후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들이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최근 남한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시장경제적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농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북한에서 굳이 가족 단위의 농업 사영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를 반분해 볼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편으로 농민들 자신의 구체적 입장과 기사적 개혁정책의 논리를 조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기대효과와 기회비용을 균형있고 면밀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북한지도부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V. 결 론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 학계 및 관련 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해는 특히 사회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느낌이다. 중국의 농촌개혁이 북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체제의 형식적 변화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중국 농촌개혁이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민의 경제/사회/문화 생활을 포괄하여 근본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개혁의 조건, 과정, 결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과 북한 농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발전 조건을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북한 농촌의 앞길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농촌개혁의 배경, 과정, 성격, 결과에 대한 다측면적이고 분석적인 검토를 통해 이것이 북한 농촌의 개혁 조건과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에 갖는 함의를 자세하 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농촌경제체제를 간단히 비교/검토한 후, (2) 중국의 농촌개혁을 사영농업의 거시경제적 및 사회정책적 의의, 농가전략으로서의 농촌산업화의 성격, 집단생산체 해체에 따른 사회보장 문제, 경제정책과 인구정책의 관계, 사영경제활동에 따른 불평등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3) 북한의 중국식 농촌개혁의 전망을 제도 개혁, 이념적 합리화, 자원 동원, 생산조직 형성, 생산동기 부여, 물리적 여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이같은 평가의 결론을 말하면, 북한에서도 중국식의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여러가지 물리적 여건의 상이성으로 인해 그 체제개혁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현실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자작농체제의 사회경제적 미효율성이 농촌개혁의 기회비용으로서 심각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도부로서는 한편으로 농민들 자신의 구체적 입장과 기사적 개혁정책의 논리를 조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 생산체제 개혁의 기대효과와 기회비용을 균형있고 면밀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고승효. 1993. 『북한 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 모택동(毛澤東). 1992. 『모택동선집』, 4권. 北京: 民族出版社.
- 방찬영. 1995. 『지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박영사.
- 송두울. 1995. 『역사는 끝났는가』. 서울: 당대.
- 이택중. 1995. “북한농업에 대한 중국 농업개혁의 시사점.” 장원석 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pp.367-80. 서울: 한올아카데미.
- 장경섭. 1992. “중국 농업 사영화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4(1):199-220.
- 장경섭. 1993. “중국 농촌의 경제개혁과 인구문제 -- 計劃生育의 경제사회학.” 『지역연구』 2(2):23-49.
- 장경섭. 1995. “중국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사회보장체계의 전환 -- 시장, 국가, 가족 사이의 농민복지.” 『경제와 사회』 26:76-106.
- 장경섭. 1996. “구계급, 신계급, 선부(先富)계급 -- 개혁기 중국 농촌의 사회경제적 분화.” 『한국사회학』, 30(여름):305-30.
- 장원석 외. 1995.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서울: 한올아카데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북한의 농업기황』.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陳錦華 主編. 1995. 『1995年中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報告』. 北京: 中國計劃出版社.
- 丁國光. 1993. 『鄉鎮企業論』.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江流/陸學藝/單天倫 編. 1995. 『1994-1995年中國: 社會形勢分析與豫測』.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明 /李江濤 編. 1993. 『中國社會分層 -- 改革中的巨變』. 香港: 商務印書館.
- 劉炳瑛 編. 1993. 『社會主義市場經濟運行』. 北京: 經濟科學出版社.
- 越石寶/楊敏. 1994. 『中國市場經濟體制論』. 北京: 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88. 『中國經濟體制改革十年』. 北京:改革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經濟體制改革委員會 編. 1995. 『社會保障體制改革』. 北京:改革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編. 1989-1995.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 編. 1985. 『中國1982年人口普查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 編. 1991. 『中國1990年人口普查110%抽樣資料』.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Bianco, Lucien, and Hua Chang-ming. 1988. “Implementation and Resistance: The Single-Child Family Policy.” Stephan Feuchtwang, Arthur Hussain, and Thierry Pairault, eds., Transforming China's Economy in the Eighties I: The Rural Sector, Welfare, and Employment, pp.147-68. London: Zed Books.
- Chang, Kyung-Sup. 1990. “Socialist Institutions and Family Wealth Flows Reversal: An Assessment

- of Post-Revolutionary Chinese Rural Fertility." Journal of Family History 15(2):179-200.
- Chang, Kyung-Sup. 1992. "China's Rural Reform: The State and Peasantry in Constructing a Macro-Rationality." Economy and Society 21(4):430-452.
- Chang, Kyung-Sup. 1993. "The Peasant Family in the Transition from Maoist to Lewisian Rural Industrialis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2):220-244.
- Chang, Kyung-Sup. 1994. "China's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 Reform: A Comparative Reappraisal." World Development 22(4):601-13
- Chao, Kang. 1970. Agricultural Production in Communist China, 1949-1965.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hina Financial and Economic Publishing House (CFEPH). 1988. New China's Population. New York: Macmillan.
- Chow, Nelson W. S. 1988.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Social Security in China. Centre of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s and Monographs, No.74. Hong Kong: Centr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 Davis, Deborah. 1989. "Chines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Outcomes." China Quarterly 119:577-97.
- Dixon, John. 1981. The Chinese Welfare System, 1949-1979. New York: Praeger.
-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1992.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Berkeley: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95. The Far East and Australia 1995, 6th ed.
- Gao Shangquan, and Chi Fulin, eds. 1995. Theory and Reality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Goldstein, Alice, and Wang Feng, eds. 1996. China: The Many Facets of Demographic Change. Boulder: Westview.
- Gu Shengzu. 1995. "Ideas and Polici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Surplus Rural Labor in China." Social Sciences in China 16(4):20-28.
- Henderson, Gail. 1990. "Increased Inequality in Health Care." Deborah Davis and Ezra Vogel, eds., Chinese Society on the Eve of Tiananmen: The Impact of Reform, pp.263-8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inton, William. 1990. The Great Reversal: The Privatization of Chin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oward, Pat. 1988. Breaking the Iron Rice Bowl: Prospects for Socialism in China's Countryside. Armonk: M.E.Sharpe.
- Lardy, Nicholas. 1983. Agriculture in China'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is, W. Arthur.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1):131-91.

- Mao Tsetung. 1971. Selected Readings from the Works of Mao Tsetung.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 Meillassoux, C. 1981. Maidens, Meal and Money: Capitalism and the Domestic Commu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e, Victor. 1985. "Peasant Household Individualism." William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164-90. Armonk: M.E.Sharpe.
- Nolan, Peter, and Gordon White. 1984. "Urban Bias, Rural Bias, or State Bias?: Urban-Rural Relations in Post-Revolutionary Chin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0(3):52-81.
- Perkins, Dwight, and Shahid Yusuf. 1984. Rural Development in Chin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erry, Elizabeth, and Christine Wong.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Elizabeth Perry and Christine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pp.1-3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terman, Louis. 1983. "A Modified Collective Agriculture in Rural Growth-with-Equity: Reconstructing the Private, Unimodal Solution." World Development 11(1):77-100.
- Riskin, Carl. 1987. China's Political Economy: The Quest for Development since 19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Unger, Jonathan. 1985. "Remuneration, Ideology, and Personal Interests in a Chinese Village, 1960-1980." William Parish, ed., Chinese Rural Development: The Great Transformation, pp.117-40. Armonk: M.E.Sharpe.

목 차

<요 약 문>	51
1. 문제인식의 출발	53
2.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논의를 위한 시론	55
2.1 맑시즘과 公私領域의 이분법	55
2.2 “계급의식”과 “여성의식”	58
2.3. 사회주의 가족론	60
2.4 국가사회주의와 온정적 가부장제	64
3.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66
3.1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	67
3.2 이상적 사례에 반영된 북한여성의 여성관	75
3.3 북한여성의 남한여성에 대한 의식	94
4. 결론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2

〈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여성의식의 단면을 추론해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북한여성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의식을 연구하는 작업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 부가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나마 제한된 자료를 보는 '시각의 닫힘'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맑시즘의 전통 안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여성문제"(woman questions)에 초점을 맞추어 공사영역의 이분법과 여성역압의 보편성 문제, 여성의식과 계급의식의 관계,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의 온정적 가부장제의 특성과 사회주의 가족론에 입각한 여성의식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에는 이에 준하여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해석해보았다. 이를 위한 1차 자료로는 조선중앙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 정기간행물인 「조선녀성」을 선택하였다. 「조선녀성」기사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을 다룬 기사와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표출되고 여성들의 이미지, 이상적인 여성상,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의 갈등 등을 통해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해보았다.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소결은, '노동자의식'에 대한 각성과 그 문제의식에 비해서 '여성의식'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결국 북한여성들이 국가·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업이란 것의 실체를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보조적이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에는 어버이에게 기쁨을 드리는 충신과 효녀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개인의 안위나 행복보다는 인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이 우선시 되는 집단주의적 이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여성들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문제인식의 출발

1989년 이후 구사회주의권의 붕괴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여성학자들은 새로운 실험이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무대에서 성불평등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립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Malinowska, 1995).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바는 ‘오늘날 사회주의권 몰락의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나에 따라 여성노동을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파생된 결과이다 (Pearson, 1990).

사회주의 체제하의 여성노동은 적어도 명목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이 담당하는 출산 및 양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 및 보호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권 여성노동은 ‘값싸고 소모적인’ 자본주의 체제하의 여성노동과는 질적인 차이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Ward, 1990).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해가면서 과거 사회주의권에 속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각종 법률이 오히려 여성노동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원치않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Haug, 1991; Paukert, 1991).

결국 사회주의 국가가 ‘위로부터 내려준 선물’에 익숙해있던 여성들은 국가가 그 선물을 거두어감에 따라 국가의 보호장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본의 경쟁 논리에 더하여 성차별적 논리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다중의 억압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다중의 억압상황은 구 사회주의권 여성들의 “특수한” “여성의식”(women’s consciousness)으로²⁹⁾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지역 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의식은 강하나 여성으로서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가운데 ‘분열된 자아’(split identity)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Wolf, 1985; Dolling, 1991; Malinowska, 1995).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북한여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여타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왔기에, “여성의식”과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조합”을 보이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지금까지 북한여성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보면, 기존의 북한연구가 갖는 한계, 즉 1차자료 확보의 제한성과 연구자의 부족 현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여성에 관해서는 주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자료 정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손봉숙 외, 1991; 윤미량,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은숙, 1993).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정책적 차원

29) “여성의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이 역시도 사회체제의 성격과 관련해서 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본문의 이론적 논의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해보기로 한다.

과 실생활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규명하는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북한사회의 구성원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치관 및 의식을 연구하는 작업은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에 더하여 부딪치게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나마 제한된 자료를 보는 '시각의 닫힘'이라 하겠다. 즉 연구자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제한된 자료들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관점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라본 북한 이해 아니면 북한의 내적논리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객관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최홍기, 1987; 박현선, 1988; 서성우, 1989; 윤미량, 1991; 이온죽, 1993). 더우기 북한여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의 부재로 인해 연구가 서술적인 수준에 머무름은 물론, 북한 여성에 대한 이해 내지 해석을 둘러싸고 분석력과 상상력에 터하여 논쟁을 전개할 기회조차 차단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³⁰⁾ 본 논문은 첫째로,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다각도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주로 맑시즘의 전통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관 및 여성의 계급 의식 문제, 사회주의 가족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아가 국가사회주의의 온정적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볼 것이다.

둘째로는 이들 이론적 논의가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적합성을 갖는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자료로서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의 정기간행물인 「조선여성」을 선택하여,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조선여성」을 1차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본 잡지가 주요 선전매체의 하나로서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상으로 삼는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점과 주 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점, 아울러 기사의 내용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인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각 기사의 "行間 읽기"를 시도해보았다.

셋째로는 남한여성을 다룬 「조선여성」의 기사를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들간의 '거리감'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앞으로 통일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실제 남북한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거리감의 현주소를 점검해봄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30) 항상 그러하듯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주제의 중요성 내지 긴박성에 있어 부차적이거나 시급하지 않은 주제로 인식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에서조차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교환 가운데 하나는 사회문화체제의 통합이 정치경제체제의 통합보다 더욱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요한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에도 두 개의 독일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두 개의 독일 사이에 위계서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 이미 무너진 장벽 위로 새롭게 마음의 장벽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특별히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등장한 집단이 여성이라는 점 역시 우리의 통일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사회의 어느 한 집단도 소외됨 없이 새로운 공동체에 통합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기 위함이다.

2.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논의를 위한 시론

2.1 맑시즘과 公私領域의 이분법

북한여성의 “여성의식”(women's consciousness)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을 구성해보고자하는 본 장에서는 먼저 맑시즘의 틀 안에서 “여성의식”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맑스 자신은 “여성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개념은 서구의 여성해방론자들이 맑스의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으로부터 유추하여, 계급의식이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를 둘러싼 양대 계급간의 착취 및 억압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식이란 ‘생물학적 성에 따른 억압 및 착취구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한 사람인 맥킨논(C. MacKinnon)의 주장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녀에 따르면 “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계는 노동의 맑시즘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본다. 그리하여 “맑시스트의 방법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면 페미니스트의 방법은 의식화”(MacKinnon, 1982: 527)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곧 “여성의식이란 여성의 입장(standpoint)은 남성의 입장과 구조적으로 다르며 여성 삶의 토대는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전제로 “여성과 남성간에 엄존하는 다양한 불평등구조 내지 억압 관계를 자각함”을 의미한다 (아이젠슈타인, 1984; Hartsock, 1987).

단 맑스 자신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보다 인간의 본질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맑스는 생산양식의 범주를 벗어나 초역사적인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진화되는 것이기에 쉽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다 (Marx & Engels, 1969; Holmstrom, 1990: 69-73).

그렇다면 맑스의 틀 안에서는 생물학적 차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남녀간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행하는 노동의 종류 및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관계에서의 성차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쉬바르츠 외, 1985; Benhabib, 1987; Holmstrom, 1990).³¹⁾

31) 이와 관련해서 여성의 노동과 여성의 본질 간에 일련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별/사회적 노동분업(the sexual/social division of labor)은 여성의 본질을 구성하는 특정한 인지적/정감적 구조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이들 구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성적 특질 및 행동 나아가 여성이 행하는 노동을 규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Holmstrom, 1990).

이러한 맑스의 틀 안에서 성별노동분업의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여성억압의 보편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보다 맑스와 엥겔스에게 있어 남녀간의 노동분업은 “순전히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 (Engels, 1884). 성별노동분업이 자연발생적이라함은 아직은 노동이 양성의 생물학적·신체적 기능에 긴밀히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즉 물질적 생산력이 아직 미미한 단계에서는 양성간의 차이와 같은 신체적 차이(임신, 출산, 수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는 것이다. 객관적 생산조건이 발달하여 노동과정에서 그 비중이 증가될 때 비로소 성별분업구조에 기초한 노동력의 역할은 감소되고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부과된 경제적 의미도 소멸하리라 본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노동분업과 남성의 여성지배를 동일시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는 일종의 자살골로 이르는 길”(쉬바르츠 외, 1985:17)이라는 것이다. 이는 맑스와 엥겔스가 ‘가족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노동분업’을 ‘불평등한 분업’ 및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처분권’과 연관시킨 것은 사적소유와 국가라는 조건 하에서의 노동분업에 관한 것이지, 원시사회의 제반 조건 하에서의 노동분업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쉬바르츠 외, 1985; 순터-클레만, 1985).

한편 맑스에게 있어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여성억압의 보편성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아이젠슈타인, 1984)³²⁾ 부르쥬아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Cutler, 1995). 맑스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구분 자체를 부인한다. 이 구분 자체가 부르쥬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사적세계”(private world)와 “공적세계”(public world)간에 엄격한 분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사적세계란 비정치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종속과 지배, 착취와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하며, 공적세계란 누구나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형식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가정되는 정치영역을 의미한다 (Elshtain, 1981).³³⁾ 이러한 공사영역의 분리아말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룩한 ‘분리의 예술’(art of liberation)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맑스에게 있어 이러한 분리는 일종의 환상이다. 시민사회의 갈등을 초월하는데 실패

32) 페미니스트들은 공적영역=생산, 사적영역=재생산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사영역의 의미를 바꾸어놓았다 (Elshtain, 1981:256; 아이젠슈타인, 1984). 이 틀 안에서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여성억압의 보편성으로 연결된다. 이제 여성을 사적인 영역에, 남성을 공적인 영역에 결부시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굳어졌다. 남성은 생산영역, 정치, 종교제도, 지위·문화적 생활영역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 갔다. 반면에 여성은 가정, 자녀, 가사, 성 등으로 제한되는 사적영역으로 편입되어갔다. 그리하여 공사영역의 구분은 남성과 여성을 특징짓는 주요한 보편적인 특성으로 굳어져갔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33) 맑스에게 있어 사적영역은 비정치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모든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만일 사적영역을 가족에 한정한다면 맑스 분석의睿智를 상당부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Elshtain, 1981:186).

한 부르쥬아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국가는 부르쥬아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실체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효율적으로 감추어지게 된다.

자본주의적 질서는 이들 공사영역간의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들어가는 개인은 모든 차별상황을 뒤로 하고 들어간다. 부, 교육정도, 직업, 종교, 인종, 계급, 성 등과 같은 차이는 간과되는 것이다 (Elshtain, 1981; Hernes, 1987; Pateman, 1989; Peterson, 1996).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경제적 착취와 억압은 분리된 정치공간에 의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섬'으로 남는다 (Cutler, 1995).

그렇다면 부르쥬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터하여, 맑스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맑스는 일단 국가를 부인한다.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로서 내재적으로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부르쥬아의 사적영역은 부르쥬아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적영역의 모순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Elshtain, 1981: 186). 국가 대신 맑스는 실질적인 (환상이 아닌) 공동체가 창출되리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단 미래의 공동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적어도 탈피하고자 하는 부르쥬아 사회질서의 모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다 (Marx & Engels, 1969; Elshtain, 1981).

미래사회에 대한 맑스의 낙관적 전망은 그의 인간관과 무관하지 않다. 맑스에게 있어 인간의 본성은 거의 무제한의 다양한 잠재력의 보고이다. 이 잠재력은 인간의 개인적 삶과 類的存在로서의 삶이 “다르지 않을 때”만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다. 단 유적존재로서의 실현 과정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시에 적용가능하리라 전제하고 있다 (Marx & Engels, 1969; Sacks, 1975; Elshtain, 1981).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일은 모든 종류의 구분(all distinctions)을 없애는 일이다. 일반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개별성, 공과 사, 자연과 문화, 남성과 시민(남성의 대립물이 여성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와 필연성, 유적 삶과 특수한 개별 존재로서의 삶 등등의 구분을 없애는 일이다. 모든 구분의 해소는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가능해진다.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구현한 체제로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남성과 남성)의 갈등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lshtain, 1981; Hartsock, 1983; 쉬바르츠 외, 1985).

이러한 맑스의 논의는 여러 곳으로부터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 먼저 맑스는 루소가 고민하던 문제 곧 다양한 사회제도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추상적 연결망없이 어떻게 사회적 삶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며 가능할 것인가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맑스는 완벽하고도 총체적인 사회질서가 해방된 인간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소멸과 더불어 의식있는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라든가 정치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안전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Elshtain, 1981: 192). 결국 맑스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얇은 개념’(thin notion)³⁴⁾에 터하여 “사회적”(social)이라는 범주안에 모든 개별적 개인을 구겨넣음으로써 (Hartman, 1981) 사회전통의 힘이 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권력투쟁 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나이브함은 “남성중심적 맑스”(Masculine Marx)라는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Stefano, 1991:151-57). 즉 맑스의 틀 내에서 여성 노동과 남성 노동의 차별성이 간과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여성노동은 불가사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Hartmann, 1981). 맑스는 계획된, 의식적인, 목표가 뚜렷한 차원의 노동만을 이론화했기 때문에, 자연과 연관된 여성의 노동영역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성노동의 특성을 간과한 것은 인류의 생존과정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한 것으로,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해질 때 필요에 의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자신의 논의와도 상충하는 것으로서 맑스 이론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 “계급의식”과 “여성의식”

맑시즘의 틀 안에서 계급의식 및 이데올로기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여성의식”을 이해함에 있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

맑스는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가지 역설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하나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의식의 물질토대를 밝힌 주장으로서,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존재”(McLellan, 1977:389)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의식의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한 것으로 “어느 시대에 있어서든 지배계급의 이념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이 된다. 즉 사회를 물질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그 사회를 지적으로도 지배한다” (McLellan, 1977:176)는 것이다.

이로부터 인간의 의식을 둘러싸고 사회경제적 결정론과 의식적 자원론 사이의 갈등이 도출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하여 계급의식의 혁명성이 개입되는 듯하다. 이 때 계급의식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대립하여 변증법적으로 형성된다. 참된 계급의식은 그 계급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계급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속한 계급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해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참된 계급의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34)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은 대상을 범주화하고 분류할 수 있는 양식의 습득을 의미한다. 한데 맑스 자신은 언어를 너무나 언어하게 특정한 계급관련성과 연결짓고 있다. 즉 맑스에게 있어 언어란 주로 자본가들의 착취라는 냉혹한 현실을 가장(cover up)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자기의식적 깨달음의 변증법이 단순한 언어학적 활동으로 격하되고, 말하는 주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공식 영역에서의 침묵”이라는 남성들의 왜곡된 자기 표현 등은 맑스에게 있어서 심각한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lshtain, 1981:194).

수단은 '혁명적 프락시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혁명적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일치해야" (Marx & Engels, 1969; McLellan, 1977)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의식을 둘러싼 맑시스트들의 견해는 일종의 '고전적인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명목상으로 보면 "물질적인 존재가 의식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존재의 제조조건들의 혁명적인 변환은 계급의식의 수준을 고양시키는데 달려 있다" (Barrett, 1980:89)는 주장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엄격한 유물론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생산조건이 충분히 성숙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원들은 그들이 처한 구조적 상황의 본질을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과 같은 계급에 속한 성원들과 연대하여 자신들의 물질 토대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하리라 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물론적 분석을 넘어서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는 반성적이고도 비평적인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존재함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설을 해결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느 정도 의식화된 지식인층이나 엘리트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Giddens & Held, 1982:51-53에서 재인용). 이로부터 페미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의 유추관계를 상정해왔으며, 그들 자신의 억압된 조건에 대한 의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성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여성의 계급적 지위는 흔히 이중성을 나타낸다. 여성은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성의 계급적 지위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생산영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³⁵⁾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지배집단인 남성의 이익에 봉사하는 "허위의식" 내지 "남성과 동일시하는 의식"(male-identified)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있다(도노번, 1985:128-29).

단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성 생존의 물질적인 기초"를 "여성의식"의 주요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의식 자체는 "여성의 삶의 특수한 물질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명확한 인식론의 확립을 요구하고" (Hartsock, 1983: 247; 1987)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자라고 규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노동자들의 물질 토대에는 임금노동에 더하여 그들에게 부과된 일차적 사회적 역할로서의 가사노동(사용가치의 생산)과 출산 및 자녀양육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생산활동에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이중의 억압과 착취에 직면하게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5)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하나의 성계급으로 규정하는 반면 맑시스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중시한다.

노동시장내 임금격차는 가부장제의 불적토대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성차별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Hartmann, 1981; Hartssock, 1983; Ward, 1990). 성별 임금격차는 소위 가족수당으로부터 유래한다. 가족수당은 노동의 성적분화의 초석이 되며, 핵가족의 경제적 초석이 되고, 그 결과로서 계속되고 있는 여성의 남성애 대한 경제적 의존의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불적 토대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성의식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교환가치를 생산함으로써 형성된 '추상적 남성성'과는 대립되는 일종의 "혈족적이고, 컨텍스트적이고, 통합적이고, 생명긍정적인 의식"을 창조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의식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비판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입장'(feminist standpoint)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Hartssock, 1987). 이러한 할소크 (N. Hartssock)의 '페미니스트 입장'은 사람과 자연세계와의 연속성 및 상호관련성, 육체와 정신의 연속성 및 상호관련성에 대한 여성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종의 완전한 인간 공동체사회의 가능성, 분리와 대립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관련들에 의해서 구조화된 어떤 사회의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Hartssock, 1983:247).

이러한 여성중심적 의식은 맑스가 제시한 바 '프락시스'의 비전과도 연결된다.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세계, 그 안에서 인간이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물과 좀더 총체적인 관계를 체험할 수 있고, 인간이 생산양식과 그들과의 계급관계 때문에 더 이상 대립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세계 곧 "계급없는 사회"를 구상하고 있다. 이 비전의 중심에는 물론 프락시스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때의 프락시스란 "체험에 의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그림으로써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내에서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계약을 의미한다" (Marx & Engels, 1969; McLellan, 1977).

"완벽하게 구성된 사회는 모든 점에서 인간 존재의 완전함을 갖춘 인간을 창출해낸다. ... 이론적인 모순의 해결은 오직 실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인간의 실천적인 에너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McLellan, 1977)고 보는 맑시스트 철학은,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적 행동에 의해 인간 세계와 인간 자신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적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는 혁명적인 행동의 철학이다.

이를 여성의 경험 및 의식과정에 적용해보면, "여성의식"의 개발에 성공할 경우 여성들은 성불평등구조의 모순과 억압적 상황을 뛰어넘어 여성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가능해진다.

2.3. 사회주의 가족론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맑스와 엥겔스의 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

의 가족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공산당 선언은 당시 부르쥬아 가족의 현실과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즉 “가족은 자본의 논리와 사적영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발전한 형태는 부르쥬아에게만 존재한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에게는 無家族 상황이 강요되고 공인된 매음이 부르쥬아 가족의 문제를 보충한다. ... 이들 상황은 모두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더불어 함께 소멸한다” (福島正夫, 1976:12에서 재인용)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맑스가 이처럼 가족의 몰락을 주장함에 따라 지금까지 그는 반가족론자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맑스의 비유적 표현을 오해한 결과이다. 맑스가 비판하고 있는 바는 가족의 부정적 측면, 곧 여성과 자녀에 대한 비인간화, 프롤레타리아 가족의 분열 및 소외, 사회관계를 교환관계로 비하하는 것 등이지, 이상적 가족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Sacks, 1975; Elshtein, 1981).

“공산주의 사회질서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산주의 사회질서는 남녀관계를 당사자만의 관계로 인정하여 사회가 그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결혼을 유지해온 두가자 기초 즉 사적소유에 의한 부인의 종속과 자녀의 종속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 (福島正夫, 1985:13에서 재인용)이라 답하고 있는 엥겔스의 가족관에서도 가족소멸론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 여기서 사회가 가족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 제도하에서 종교와 관습에 의해 야기되었던 오류를 배제한다는 뜻이지, 사회에 의한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가족이야말로 사회주의 가족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가족으로 본다. 즉 “성적 애정이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진실한 원칙일 수 있는 것은 단지 피지배계급 뿐이며 이는 프롤레타리아 가족에게만 가능하다. 이들 가족은 성적애정에 기초한,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혼인이 있고 특히 부부간의 평등이 있다” (Engels, 1894; 福島正夫, 1985:15)는 것이다.

즉 부르쥬아 가족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등장한 사회주의 가족은, 혼인 당사자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며, 부부간에는 절대평등이 보장되고, 당사자들 사이의 애정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전제를 폐지하고 어린이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며, 교육과 생활을 결합시키고, 적자와 사생아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Sacks, 1975; 福島正夫, 1976).

“요컨대 사회는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가족 그 자체는 자본주의로 인해 오염된 허위성을 벗겨낸 후 진실한 ‘성애’와 상호존경에 기초한 혼인과 그로부터 나온 자식으로 성립된 단위가 곧 사회주의적 가족상이라 하겠다” (福島正夫, 1976: 17-18; 엥겔스, 1897).³⁶⁾

36) 레닌의 사회주의 가족관도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연애에는 두 사람의 생명이 문제이며, 게다가 제 3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 가운데 사회의 이해가,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가족소벌론을 주창하고 있지는 않다. 그 보다는 오히려 가족에 결합이 나타날 경우 국가나 사회단체 혹은 조직의 힘을 동원하여 가족을 보호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개개인 및 사회전체를 위해 가족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사회주의 가족법에서는 ‘사회의 핵심은 가족’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세포’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가족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및 도덕을 건설함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토대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福島正夫, 1985:27). 특별히 가족을 사회의 ‘최소 세포’로 규정함은 사회와 가족이 불가분의 통일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특수한 지위를 접하고 있는 가족과 결혼에 대해 사회주의적 공동체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서 제반 사회적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기초할 때만이 가족은 비로소 명실공히 전체 사회의 가장 작은 세포라는 특징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福島正夫, 1985; Wolf, 1985).

또한 사회주의 가족론은 “국가와 사회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가족에게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 (福島正夫, 1985:29; 엥겔스, 1894). 이러한 상호 책임과 의무관계 하에서 사회주의 가족은 가족법상³⁷⁾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가족 내에서 부부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선택 및 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맞벌이를 원칙으로 하되, 부인이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혼인 중에 획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공동의 소유로 한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으로 인정하며, 재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남편의 노동과 동일시된다.

둘째, 이혼의 자유는 가족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단 이혼은 가족의 안정 및 사회세포로서의 기능과는 대립되는 현상이므로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有責主義보다는 破綻主義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타당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며 부양능력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문제도 신중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셋째, 사회주의 가족법의 커다란 목적 가운데 하나는 건전하고 훌륭한 자녀세대의 육성이라는 가족의 사명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다 (福島正夫, 1985:41). 따라서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가족법은 그 속에 내재된 도덕성과 의무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다. 레닌은 가족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족을 구성하는 자녀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7) 가족법은 결혼과 가족의 관계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의 역사적 전통 및 경제적 상황과 깊이 연계되어 있어 헌법 중의 간결한 가족조항처럼 일률적인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사적소유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가족법 가운데 부부재산제도의 규정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福島正夫, 1985:36).

단 각 현실사회주의 사회의 발전 정도가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가족의 이념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가족론의 이상을 구현한 사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가족론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사회주의 가족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로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분석을 들 수 있다. 맑스 스스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의 산물(사용가치)과 소외된 노동의 산물(교환가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실제로 맑스는 소외되지 않은 사회의 수립을 위한 하나의 선결조건으로서 교환가치의 종결을 생각하고 있었다.

노동자의 건강, 삶, 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연료와 같은 상품들의 질을 기초로 해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생산물들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물건이 되기 이전에 소비되고 말며, 임금을 받고 팔려 곧바로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부가적인 노동은 그것이 인간에게로 유입되기 이전에 이 생산물들 속으로 스며들어버림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가사노동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여성/가정주부이므로, 바로 이 노동력의 재생산작업을 통해 여성이 자본축적의 필요조건인 잉여가치라는 유대와 연결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Rubin, 1975:162).

단 가사노동이 분명 자본주의 체제에 통합되는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여성억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소련, 쿠바,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한 사회에서도 왜 여성들이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도노번, 1985:151). 나아가 “자본주의가 핵가족 없이는 노동자 계급을 재생산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Barrett, 1980:50). 이는 노동의 성별분화가 자본주의에 선행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두번째 비판은 여성의 생산활동 편입과 관련되어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가족이 남성지배에 의한 일부일처제 가족단위로 변형되면서, 역사적으로 첫번째 계급투쟁이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첫번째 계급투쟁은 일부일처제의 결혼 속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적대관계의 발전과 일치하고 첫번째 계급탄압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탄압과 일치한다. ... 그가 부르주아라면 아내를 프롤레타리아이다” (엥겔스, 1894).

이로부터 엥겔스는 여성억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여성이 ‘사적인 가사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공적인 생산관계 속으로 완전히 편입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적인 재생산영역을 공산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단일가족은 사회의 경제적 단위이기를 그만둔다. 사적인 살림살이는 사회적인 산업으로 변환된다.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공적인 일이 된다. 즉 사회는 합법적인 아이들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아이들을 비슷하게 보살펴주게 된다” (McLellan, 1977).

엥겔스가 공적 혹은 사회적 노동을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로서 인식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의 해결책, 즉 공적인 생산영역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것은 맑스의 소외와 사용가치·교환가치 이론의 컨텍스트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엥겔스가 주장하는 생산의 영역은 소외된 노동의 영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사 및 자녀양육의 문제가 공적 생산영역의 외부에 존재하는 한은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관계 속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엥겔스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4 국가사회주의와 온정적 가부장제

구사회주의권을 위시하여 북한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주의(state socialism)가 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사회주의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사회체계를 지배하고 통제해감을 의미한다. (Dolling, 1991).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책은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이상을 추구해감에 온정적 가부장제(paternal patriarchy)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국가가 마치 가부장이 가족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을 대표하듯 모든 성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성별 관계를 통제하는데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구조 하에서는 가부장적 성별 질서를 비판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실제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었다. 성별분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되고 사회적 분업의 중요성에 묻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덕분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서구사회보다 더욱 강하게 유지되면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가사보조기구의 도움없이 가사를 담당하는 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자체가 곧 명백한 여성해방의 지표로 받아들여졌다 (Engel, 1987:789).

구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렸다는 평가는 현실을 다소 미화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해방을 사회적 목표의 하나로 표방하고, 여성을 생산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되어온 자녀양육 및 가사와 관련된 영역의 사회화를 추진해갔다. 그러나 실제로 남녀평등이 구현되었던 상황이나 평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 적은 없었다 (Malinowska, 1995).³⁸⁾

38) 구사회주의권에서도 미묘한 형태의 성불평등구조는 온존하고 있었다. 즉 일부 직업의 여성화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곧 해당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명백한 지표가 되었

물론 구사회주의권에서는 정당 조직 및 공공행정 영역에서 철저한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명목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해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여성들은 여성 자신의 문제나 의견을 반영할 그들 자신의 대표를 가진 경험이 없었다. 구 사회주의권에서는 노동자/농민이나 하는 범주가 여성/남성이거나하는 범주 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강력하게 각인된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권 여성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는 신화가 유포되었고, 여성 스스로도 굳이 투쟁하지 않고 얻어진 자신의 권리를 당연시했다 (Malinowska, 1995).³⁹⁾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노동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원들에게 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주요한 권리이다. 때문에 여성들도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Haug, 1991). 노동자로서의 정체감 형성은 구동독의 경우 40여년, 구소련의 경우 7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사회주의권 여성들은 노동자로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 자신감은 그들의 자세나 신체언어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한 사람의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성을 탈성화(desexualization)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여성을 남성과 동일시하도록 하여 여성에게 가해지는 명백한 차별에 대해 예민한 의식을 계발해가는 과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사회가 여성을 필요로 한다는 자긍심이 지나치게 강한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 구조의 불평등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Haug, 1991).

더우기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대표로 여성을 대신해서 여성의 문제를 돌보아주고, 결정해주며, 해결해주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면서 노동과 모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주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데 동의해왔다 (Dolling, 1991). 따라서 사회주의권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⁴⁰⁾

다 (Malinowska, 1995; Paukert, 1991). 또한 여성의 전문직 참여나 공공행정직 참여는 남성 노동자의 수요 공급에 준하여 조절되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직 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여성의 비율이 극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에 따른 임금격차도 명백히 나타나, 구동독의 경우 1988년 임금 수준이 400-500M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63.7%, 600-700M 집단에서 77.7%를 차지한 반면에 1,500-1,700M 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39) 중국에서는 여성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페미니즘의 좁은 시각에 갇혀 계급갈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는 보고가 있다 (Wolf, 1985:17).

40) 사회주의 혁명 이후 파괴되었던 가족의 전통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음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현상이다. 즉 가족은 '인격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장으로서, 나아가 사회화의 주요 대행

지금까지는 맑시즘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족 및 여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리해보았다. 다음에는 장을 바꾸어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기로 한다.

3.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해석하기 위한 1차자료로서 조선민주여성동맹(이하 女盟으로 지칭함) 중앙위원회⁴¹⁾의 정기간행물인 「조선녀성」을 선택하였다. 「조선녀성」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도 밝힌 바 있듯이, 본 잡지가 여맹의 공식 기관지로서 주요 선전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이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관련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점과, 구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점 아울러 기사의 내용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조선녀성」은 1996년 2호까지 총 누계 483호를 기록하고 있으며,⁴²⁾ 현재는 1년에 6회 발행되고 있다. 「조선녀성」의 1호당 기사는 총 40 페이지 내외로 각 편당 기사의 분량은 비교적 짧아서 1-2 페이지를 넘지 않아 대체로 1호당 30여편의 기사가 실려있다. 기사의 내용은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에 대한 기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기사 혹은 주체사상 학습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룬다. 이들 기사 가운데 북한식 공산주의 사회가 이상으로 하는 여성상에 대한 사례가 등장한다. 「조선녀성」의 고정기사로는 “불멸의 역사를 더듬이”라는 제하에서 지금까지의 북한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영웅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간혹 뒷부분에서 남한사회를 다루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옷차림이나 예절을 다루는 기사도 눈에 띈다.

「조선녀성」에 실린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은 1989년 1호부터 1996년 2호까지 총 44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1989년 부터 현재까지를 설정한 이유는 1989년 동구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북한사회도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하였기 때문이며,⁴³⁾ 다른 이유로는 가

자료서' 제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시민사회 부활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다수의 주변인'(marginal mass)으로 남아있는 여성들이 가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Weinberg, 1994:139).

41) 북한의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된 이후 1951년 1월에 개최된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맹의 기능과 임무, 조직과 기구 및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연구소 (1977) 「북한개론」을 참조할 것.

42) 「조선녀성」의 표지에는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모델로 등장한다. 한테 이 여성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미인들이 대부분이다.

43) 흥미로운 사실은 1993년 2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동구 여성들에 대한 기사가 「조선녀성」에 최초

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보기 위함이다.

「조선녀성」의 기사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해석하는데는 먼저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을 다룬 기사와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표출되고 여성들의 이미지, 이상적인 여성상을 살펴보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의 갈등상황에 대한 행간읽기를 통해 북한 여성의식의 현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한여성에 대한 기사 속에서 북한여성의 대남한여성관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여성들간의 거리를 측량해보기로 한다.

3.1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기사는 모두 35편이 소개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89년 5편, 1990년 10편, 1991년 12편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부터는 감소하여 1992년에 1편, 1993년 3편, 1994년 2편, 1995년, 1996년 각 1편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제목을 보면 <여성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시려고> <여성 일군들을 손잡아 키워주시며>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해주시려고>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어>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해 주시려고> <은혜로운 품>등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 부자가 여성들에게 내린 시해를 감사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꽃> <군민의 정 꽃피워가며> <혁명의 붉은 꽃> 등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한 비유로 예의 꽃이 사용되고 있으며 <녀성은 녀성다와야하오>와 같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혁명화 및 로동계급화”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모두 10편이 등장하고 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수레바퀴에 대한 비유로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듯이” 여자도 남자들과 더불어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함으로써” “혁명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광범한 녀성들을 녀맹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 “녀맹을 위력한 조직으로 활성화”하며, “계급의 눈을 튀워주고 혁명의식을

로 유일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제목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구라파 녀성들의 처지>였으며, 그 내용은 “... 몇 해전까지만 해도 남성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했던 동구라파 녀성들이 오늘날은 남자들의 노리개로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비참한 현실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자본주의적 복귀가 가져다 준 것이란 오직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조선녀성」, 1993(2):37) 하여 자본주의로 복귀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음을 통탄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넣어주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히 항일유격대 여성대원들의 투쟁방식을 훌륭한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항일유격대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과 완전히 평등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혁명임무를 맡아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모두 10편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내용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군민일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여성이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곧 “여성들이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전시증산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면, “인민군 용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과 더욱 영웅적으로 싸우게 되며”, 이는 “싸움터에 남편과 아들딸들을 내보낸 우리 여성들의 숭고한 의무”라 찬양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해서 특기할만한 자료로서 “여성 군중들 속에 들어갈 때에는 몸단장도 그들과 똑같이 조선여성들의 고유한 성품에 맞게 소박하게 하며

<표 1>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및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

년도(호)	<제목> 표현된 내용	여성관
1989(1)	<여성들과 함께 보내신 설명절> 수령님께서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나그럽게 웃으시었다... 나이런 방직공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등을 쓸어주시며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
1989(3)	<우리 여성들이 참 좋아하겠소> 다심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친 딸자식에게런듯 북도리를 친하 여겨주시고 여성들끼리 공장을 꾸리느라 뛰어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어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
1989(4)	<여성들의 힘든 일을 덜여주사려고> 공장여성들, 농촌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힘하고 쉽게 할 수 있겠는가를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헤아리시고, 이럽고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사려고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
1989(4)	<녀성은 녀성다와야 하오> 손을 깨끗이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원들의 전부 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요... 군복을 제때에 손질하거나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이 빗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오.	보조적 군인으로서의 여성다운

1989(6)	<p><몸소 농촌마을 녀맹 위원회를 지도해 주시며> “여성들이 해방된 조선의 녀성답게 생활을 락천적으로 흥겹게 하며, 가정과 마을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데서 모범이 되어야겠는데 문화오락사업도 잘 조직해 보라고... 자녀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p>	문화오락사업조직자/ 자녀양육자로서의 여성
1990(1)	<p><녀성일군들을 손잡아 키워주시여> “일부 녀성 일군들이 굽높은 구두에 꼬리치마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녀성일군들 속에 들어갈 때에는 품단장도 그들과 똑같이 조선녀성들의 고유한 성품에 맞게 소박하게 하며 말도 유식하게 하느라 하지말고 소박하게 하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고 하시며...”</p>	새조국건설일군, 여성지도자상
1990(2)	<p><끝없는 긍지, 보람찬 삶> 수레의 한쪽 바퀴만 돌아서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듯이 사회에서 남자들만 역할하여서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녀성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참가하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김일성 저작집 26권 p. 379)</p>	혁명화 로동계급화
1990(2)	<p><우리 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지적 관계로 되어야...” (김정일의 교시)</p>	평등한 동지적 남녀관계
1990(3)	<p><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후방녀성들> 녀성들은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전시 증산 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무기와 탄약, 식량, 피복 등 필요한 물자들을 더 많이 생산</p>	戰時 여성의 사회참여
1990(4)	<p><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되던 나날에>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은 녀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p>	반제반봉건으로부터 여성 해방

1990(4)	<은혜로운 품, 끝없는 보람> “당의 커다란 배려속에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이바지하 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 혁명투쟁진 설 참여
1990(5)	<군민의 정 꽃피워가며> “너겜에서는 군인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 을 잘 조직하어아”	군대를 혈육처럼 지원하 는 여성
1990(5)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것은 어머니들의 책임>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 의 건설자로 길러내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 있습 니다.”	공산주의 건설자 어머니
1990(6)	<여성동맹을 위력한 여성조직으로> “우리가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려면 광범한 여성들을 여성조직에 굳게 묶어 세워야”	여성조직의 활성화
1990(6)	<대흥치녀들의 어머니들은 말한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공산주의 어머니로 되어 야 하며 자기의 아들딸들을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여 야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적 자녀양육자로 서의 어머니
1991(1)	<여성해방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따르십시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항일유격대의 여성대원들 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여성 들을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손 에 총을 잡고 싸웠으며 이 투쟁에서 여성해방운동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혁명적 여성상
1991(1)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다함없는 사랑> “우리 당은 여성들의 가정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 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야소와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였으 며 여러가지 편의 봉사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렸습니 다.”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해 방
1991(1)	<‘여성해방가’ 를 부르시며> “글을 모르는 여성들에게는 노래를 배워주거나 옛말 을 해주면서 계급의 눈을 떠워주고 혁명의식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고 이르시었다...”	혁명에 동참하는 여성

1991(2)	<여성노동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며> “수령님께서서는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가정부인들이 직장에 나와 일하면 우선 그들의 사상의식이 높아지고 생활도 향상되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성노동자들을 고착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이 처녀로 공장에 들어와서 20-30년씩 한공장에서 일할 데 대하여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
1991(2)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실현해 주시려고>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반체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한 부분이며 나아가서는 더 높은 혁명단계의 과업수행과 밀접히 연관되어”	여성해방, 남녀평등의식
1991(2)	<여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여성들을 사회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맡고 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김정일의 교시)	혁명의 주체 여성상
1991(3)	<광범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그러나 이 모든 권리는 누가 여성들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줄 수는 없으며 여성들 자신이 적극 노력하고 투쟁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여성상
1991(4)	<여성들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후방에 있는 여성들이 전선원호사업을 잘하면 잘할 수록 인민군 용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적들과 더욱 영웅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전선원호사업지원
1991(4)	<남녀평등의 권리를 안겨주시어> “남녀평등권법령은 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였으며 그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남녀평등의식
1991(4)	<전선을 도와 싸운 속사리 여성들> “전선원호사업을 잘 하는 것은 싸움터에 남편과 아들 딸들을 내보낸 우리 여성들의 숭고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전선원호사업지원

1991(6)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주시려고> “아직도 우리의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로력적 부담을 견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정에서 해방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겠습니다.”	가사로부터의 여성해방
1991(6)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와 역할을 밝힌 강령적 지침> “모든 어머니들이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무거운 책임과 영예를 더욱 깊이 느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임무
1992(4)	<전시 식량생산을 보장한 여성보잡이들처럼> “오늘 농촌의 주인은 여성들이며 여성들이 일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여성들 속에서 보잡이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노동하는 여성
1993(4)	<조국이 있어야 집도 가정도 있다> “농촌여성들은 남편과 오빠들을 전선에 내보내고 그들을 대신하여 식량증산의 역군으로 투쟁하였으며 전선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	조국에 헌신하는 여성
1993(5)	<여성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어> “당의 커다란 배려 속에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사업에 동참
1993(6)	<일잘하는데 습관된 여성들이라 하시며>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자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합니다.”	노동하는 여성
1994(3)	<거울에 비긴 모습> “우리들이 제일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해준 말씀, 어머니의 모범입니다. 어머니가 준 인상은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의 역할
1994(5)	<여성들도 건국사업에 떨어나서야 한다고 하시며> “너깁에서는 가두여성들과 가정부인들을 국가사업에 옹기 조직 동원하여야...”	여성 조직의 활성화

1995(6)	<만발하는 혁명의 붉은 꽃> “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 나가는 힘있는 부대입니다.”	혁명의 꽃
1996(2)	<여성들의 믿음직한 정치조직을 결성하시여> “여성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의 교시)	남녀평등의식

* “ ” 안의 글은 김일성의 교시임.

말도 유식하게 하느라 하지 말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바람직한 여성지도자상을 제안하고 있는 기사와,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여성로동자들을 고착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이 처녀로 공장에 들어와서 20-30년씩 일할데 대하여”와 같이 여성에게도 평생 직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사회주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을 다루는 기사가 8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와 더불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준 김일성의 공로가 찬양되고 있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덧붙여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 및 유치원을 많이 건설하였고” “아직도 사회와 가정에서 이중적인 로력적 부담을 걸머지고있는 여성들을 가정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기술혁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다룬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에 따라 “남녀간의 관계는 참다운 사랑에 기초하여야하며, 동지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도 나와 있다.

넷째는 공산주의 건설자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룬 기사가 5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해야한다는 것과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영예”인지를 강조하며 “어머니가 준 인상은 자녀의 성격과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김일성의 ‘여성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4편으로, “자애로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고” “목도리를 친히 여며주시고” “농촌여성들을 친 아버이의 심정으로 헤아리시는” “친아버이의 심정”을 찬양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언행에 나타난 여성관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는 북한의 여성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혁명의식 및 노동계급의식이 여성의식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혁명화 및 노동계급화⁴⁴⁾로 인한 결과이다. 아울러 노동자 지

44)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집단주의 및 조직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여성생활의

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체사상은 유일철학으로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증진시킨다는 명분 하에 남성 대 여성, 지배자 대 피지배자, 객관 대 주관, 소수 대 다수라는 양분법적 세계관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논리를 펴으로써 여성의식은 처음부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경숙, 1991).

둘째, 북한식 남녀평등의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보인다. 북한에서 남녀평등권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마스와 앵겔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음에 대한 우월감이 깔려 있다. 동시에 과거의 '봉건적 잔재'인 일부다처제, 축첩제, 인신매매, 공사창제 등을 일소하고, 식민지 반제반봉건 상황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킨 수령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하에서만 남녀평등 및 여성해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전시체제가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서,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 (양성철 외, 1986:220-33)을 잊볼 수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민족주의적 자긍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혼란된 이중의 이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시체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맹목적 애국심이 강조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후방에 남아 가족을 지키며 전선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비애국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뿐더러, 성 차별을 위시한 여성문제는 국가의 안위가 우선시되면서 주변적인 문제로 의식선상에도 떠오르지 못하는 주제로 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공산주의 건설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단 어머니 역할은 가정의 혁명화를 통한 전체사회의 혁명화를 명분으로 하면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한 자녀교육의 공공화 및 집단화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할갈등의 소지를 적어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듯하다.

다섯째, 국가 사회주의하에서 전형적인 온정적 가부장제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독특한 "개인 숭배"와 상보적 관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개인숭배의 심리학적 원천에는 김일성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여주는 동시에 인민들의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김일성에 대한 인민의 흠모, 존경, 숭배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자 강요된 것은 아니다 (양성철 외, 1986:58). 대부분의 글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충

조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볼 수 있다.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일은 가정을 혁명화하고 전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 여성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그래서 당은 여성동맹중앙위원회로부터 발단 기초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조직체계를 갖추게 하고 여성동맹원의 조직생활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중, 1987:300에서 재인용).

신, 효자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매듭짓고 있는데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반영된 지도자와 인민과의 관계 곧 '지도자는 인민의 핵심이며 그 역도 같다는 변증법적 합의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3.2 이상적 사례에 반영된 북한여성의 여성관

「조선녀성」에서 이상적 여성상으로 예시되고 있는 사례 속에서 북한여성의 여성관을 엿볼 수 있는 표현내용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은 <부록표 1>을 참조할 것) 이상적 여성상을 예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는 총 94편으로, 1989년에 10편, 1990년에 18편, 1991년에 14편, 1992년에 8편, 1993년에 19편, 1994년에 12편, 1995년에 12편 그리고 1996년에 1편이 나와 있다.

먼저 「조선녀성」의 이상적 여성 사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사회적 생산관계 속에서 담당하는 일의 종류를 통해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추측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예시되는 사례는 역시 노동하는 여성들로서 모두 27사례가 수록되고 있다. 이를 세분해보면, 생산현장의 노동자 12사례 (요업공장작업반장 김선숙, 옷공장 지배인 안경희, 생산협동노조 관리위원장 김순애, 상업관리소 소장 정춘실 등의 관리자급과, 순평양제사공장노동자, 일용품공장노동자, 보통강피복공장의 8치녀, 대홍청년광업기업소노동자 등의 일선 노동자, 온돌수리공 박유옥, 제화공 김금녀, 트랙또르 운전사 정연화, 무궤도전차 운전사 경순 등), 농민 4사례 (협동농장관리위원장 리옥상, 일명 '태성 할머니', 농촌의 보잡이 녀성, 농민 김정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4사례 (탁아소 교양원으로부터 유치원 건강관리원, 인민학교 교장 유춘점, 고등학교 체육교사 황길년 등), 소위 서비스업으로 분류가능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4사례 (혁명사적지상점 점장 유춘희, 탄광 려관 책임자 방명숙, 고려호텔 종사자 박상희, 목욕탕 책임자 서윤실 등) 그리고 기타 전문직 3사례 (최초의 녀성비행사 태선희, 병원간호장, 여의사 등)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정주부, 가두녀성 혹은 가내작업반에 소속된 여성의 사례가 모두 11편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내작업반 재단사 강선희, 신발가내작업반원, 가내작업반 반장 조현애, 가두녀성 조순옥, 로동자 부양가족 김순화, 공민 표순애, 가족지원 대원,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가정주부 등이 포함된다.

셋째로는 영예군인 곧 전쟁이나 훈련 중에 장애인이 된 군인의 아내들에 대한 사례가 모두 11편 등장한다. 대체로 이들 아내의 직업은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간호사가 2사례 포함되어 있다.

<표 2> 이상적 사례에 반영된 북한여성의 여성관 및 여성의식

년도(호)	<제목> 표현된 내용	사례의 주인공 직업 혹은 활동
1989(1)	<행복과 기쁨이 카달수록>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탁아소 교양원
1989(1)	<오직 당에 기쁨드릴 생각으로>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다는 백도라지도 심어보고...	김순화 (일반여성)
1989(1)	<마음속에 피는 꽃> 아버이 수령님을 언제나 그윽한 향기속에 모시고 싶은 마음...	유춘희 (혁명사적지 상점 점장)
1989(2)	<혁신으로 들끓는 일터-평양제사공장 조사 1, 2 직장을 찾아서> 조사공들의 불타는 충성심, 시대의 영웅으로 살며,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갈...	제사공장노동자
1989(3)	<뜨거운 마음 굽이치는 혁신의 일터-북창철제 일용품 공장을 찾아서> 마치 알뜰한 주부의 손길이 미친 부엌,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 마저 들려오는 듯...	일용품공장
1989(3)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기위해...	유치원 건강관리원
1989(3)	<대규모 경급속 생산기지건설장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전투의 찻찻에도 식당일을 도와주고 옷가지들을 말끔히 손질해주는...	가정주부

1989(4)	<농장의 주인된 마음으로-7초급단체 녀맹원들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여맹원
1989(5)	<호평받는 신발 생산자들-신발 가내 작업반원들> 모두가 가정부인들이었지만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기술을 배웠다.	신발가내작업반원
1989(6)	<인민의 충족된 자각을 안고> 대부분이 녀성이고 가정부인들이, 저마다 양어학을 배우기 위해 책을 보고 토론하면서	가정부인
1990(1)	<숨은 애국자-공산주의의 어머니> 20대의 젊은 녀성으로서, 참된 의리를 지켜 유자녀들의 어머니가 된 가룩한 마음씨...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복하게 사는... 혁명적 동지애와 참된 의리에 대한 참모습이다.	김옥화(여맹위원장)
1990(2)	<우리 시대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어머니, 그는 두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소중한 두 눈을 바쳤어요.”	병사를 사랑한 여성
1990(3)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떨쳐나선 후방녀성들> 후방의 녀성들은 ‘인민군대의 안해’ ‘인민군대의 어머니’된 영예와 자랑을 지켜...	후방여성
1990(3)	<끝없는 보람을 안고>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그는 공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생산혁신자로 소문났다.	김선숙(작업반장)
1990(4)	<충성의 대를 이어> 지난날 천대받던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농촌녀성인 제가 어떻게...	리옥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1990(4)	<은혜로운 품, 끝없는 보람>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오던 산골 화전민의 딸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990(4)	<은혜로운 품, 끝없는 보람> 일 욕심이 많고 내밀성이 있어 한다면 꼭 해내고 말며, ‘살림군 지배인’이라고...	안경희(옷공장 지배인)

1990(4)	<은혜로운 품, 끝없는 보람> 한 생을 후대교육에 바쳐오는 교육자로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발양...	유춘집(인민학교 교장)
1990(4)	<살림집 건설장에 꽃피는 충성의 마음>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갖은 열사와 천대만을 받 으며 살아온 할머니는...	무명의 할머니
1990(4)	<정방팡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사색도 열정도 사랑도 깡 그리 비칠줄 아는 뜨거운 인간애	황길년(고등중학교 체육 교사)
1990(5)	<전사들의 어머니> 아들딸들이 차려준 환갑상을 그대로 헐어가지고... 굶 인진실자들을 대접한 어머니	무명의 할머니
1990(5)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안고 - 진천 생활필수 품 생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 김순애 동무에 대한 이 야기> 인민 소비품의 질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복무정신	김순애(생산협동조합관리 위원장)
1990(5)	<분덕땅에 자랑하는 여성-고귀한 희생성을 발휘하여 철도사고를 미리 막은 표순애녀성에 대한 이야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의 한 몸을 스스럼없이 내댈 줄 아는	표순애* 산주의적 인간형
1990(5)	<군민의 정 꽃피워가며-인민군대 지원사업을 잘하고 있는 녀맹위원장 리춘옥 동무에 대한 이야기> 영악스런 일썩씨와는 달리 무척 겸손한, 병사들이 이 머니라 다정히 부르는 그 부름	리춘옥(녀맹위원장) 군민알차의 이상
1990(6)	<려현땅에 피어난 꽃-영예 군인 안혜 리명화 동무에 대한 이야기> 생활의 길동무만이 아닌 투쟁의 길동무로 성장하는 자랑스런 안혜...	리명화(영예군인아내)
1990(6)	<대흥치녀들의 어머니들은 말한다> 우리 옥란이가 당이 부른 곳으로 제일 먼저 달려나 간 것이야 너무도 응당한 일	대흥청년광업 종합기업 소의 여성
1990(6)	<아들딸들을 혁명의 미더운 세 세대로> '너희들(세 쌍둥이)은 이 한 어머니의 딸이기 전에 당의 딸들이다'	정종화

1990(6)	<정성이 지극한 간호장> 자기의 피를 서슴없이 뽑아 넣어주었으며 환자를 위 해 온갖 정성을...	병원 간호장
1991(1)	<영원히 당을 따라 변함없이> 집을 떠나 출장은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낄새라 다심히 보살피주는	방명숙(탄광리관책임자)
1991(1)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고맙와요. 하지만 돼지들이 걱정돼서...'	조남실(군인건설자조력)
1991(2)	<해빛안고 피어난 충성의 꽃>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없이 자라는 너희들이 부럼없이 공부하도록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까지 무 상으로 공급받도록 해주시었다.'	강선희(가내작업반재단사)
1991(2)	<금골의 여성들-검덕광업연합기업소안의 녀맹원들> 이곳 여성들은 남편들의 일이자 자기 일이고 아들들 의 일이자 자기 집 일로 여기고...	녀맹원
1991(3)	<은혜로운 조국에 진정을 바쳐-녀맹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순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정이 일편단심 대를 이어 연, 아연 생산으로 당을 받들어가자'	구성순(녀맹 부위원장)
1991(3)	<불타는 한마음 안고-태성리 초급녀맹위원회에서> '태성할머니'가 생전에 얼마나 수령님을 절절히 흠모 하였는가 그리고 농사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 해 어떻게 아글아글 노력해왔는가를...	태성할머니
1991(3)	<미제살인귀들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홍순할머니는 가증스런 놈들의 낫찍을 불이 필필 이 는 눈길로 쏘아볼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놈들의 악 착한 고문이 밤낮없이 계속되었으나... 오직 모른다는 이 한마디	홍순할머니
1991(4)	<룡호벌의 미더운 여성 기계화 초병들> 농장로동자들은 녀자나 남자나 할 것없이 다 트랙또 르를 몰줄 알아야 한다고...	정연화(트랙또르 운전)
1991(4)	<당에 기쁨을 드린 녀맹원> 유금봉 동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돼지를 잘길러 검덕을 지원할 것을 결심하였다.	유금봉(녀맹원, 가정주부)

1991(4)	<당의 은정속에 꽃피나는 새가정-영예군인 안혜들에 대한 이야기> 훌륭한 딸들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다.	영예군인 아내
1991(4)	<전선을 도와 싸운 속사리 여성들>. 속사리 여성들은 치료에 좋다는 약을 구하기 위하여 몇십리 땀길을 걷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부상자들에게 넣어주기도 하였다...	속사리 여성
1991(5)	<뜨거운 은정,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녀맹예술선동대 활동을 활발히 벌려 광부들의 전투적 열의를 더 한층 북돋워주고...	검덕의 여성들
1991(6)	<화성땅에 피어난 미역> 한점의 사심도 없이 자기를 바쳐 남의 자식을 고스란히 키워낸 순금여성	순금여성
1991(6)	<어머니의 마음>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 우리 여성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니냐요. 이런 일까지 나라에 부담을 주어야 되겠어요'	고분여성
1992(1)	<충성의 마음 꽃으로 피워> 축원의 마음을 담아 장생불로의 명약으로 일러오는 산삼을 마련하여 삼가 올리자...	리신득(수령님께 충성)
1992(1)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의 축복-상업관리소 소장 2중 노력영웅 정춘실에 대한 이야기> 그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주부이기 전에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들의 심부름꾼이었으며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	정춘실(상업관리소 소장) 노력영웅
1992(3)	<삶의 순간순간을 충성으로 빛내이며> 수령을 자기 운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수령의 은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오의빈(수령님께 충성)
1992(4)	<진화의 그 날처럼 살고 있는 8명의 로병여성들> 누릴 권리에 앞서 받드시 지켜야 할 전사의 의무를 다하기, 참된 여성혁명가들.	로병여성 8명

1992(4)	<당에 기쁨드릴 한마음 안고> 지난 6년 동안 가내작업반 활동에서 번 돈 10만여원을 그대로 모았다가... 김정일 동지의 탄생 50돐을 맞으며 당자금으로 써줄 것을 청원하여...	조현애(가내작업반 반장)
1992(4)	<전시 식량생산을 보장한 여성보잡이들처럼>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대신하여 식량증산으로 미제원썬놈들에게 복수	여성보잡이
1992(5)	<당의 참된 딸> 적들에게 체포되어 단두대에 올랐을 때 그는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명가의 절개	리보부(여성 혁명가)
1992(5)	<병사들의 친누이> 지난 10여년 세월 인민군 군인들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	김창화
1993(1)	<잊을 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 '나는(김일성) 이 이름모를 너인의 모습에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지난 날의 친분관계를 믿고 찾아갔던 아버지의 친구들 보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그 아주머니가 생사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다.'	교하의 아주머니
1993(1)	<초병의 어머니> 아들 성복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초소에 달려가 아들이 얼마 남지않은 생이나마 우리 당을 받드는 충성과 효성의 한 길에서 참되게 살 수 있도록...	김금녀 (제화공)
1993(2)	<전선원 호미에 담긴 뜨거운 마음> 내조국, 사랑하는 고향땅과 우리 가정을 지키자면 식량을 많이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야	김정원(농민)
1993(2)	<어머니의 행복> 정녕 귀밑 머리 희여진 어머니들도, 사랑하는 조국에 아들딸들을 바친	아들 8형제를 모두 군에 보낸 어머니
1993(3)	<의리깊은 사랑 속에 이어지는 혁명의 피줄기> 혁명가의 안해들은 40여년이 아니라 생이 다하는 날 까지도 홀몸으로 자식을 키우고	홀어머니들

1993(3)	<그는 가정부인이었다> '가정부인이라고 군사복무를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선로동당원...'	조순옥(가정주부)
1993(4)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의리깊은 사랑> 그는 길림시절의 호홉과 발걸음으로 전생애를, 노래를 불러도 길림시절의 노래를...	한영애(항일혁명렬사)
1993(4)	<통일부부로 충성다하렵니다> 저의 남편이 죽음의 천만고비를 이겨내고 당의 품에, 조국의 품에 안긴 것은 한 인간의 승리만이 아닌 가장 고결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이며...	이인모 부인의 글
1993(4)	<조국이 있어야 집도 가정도 있다> '군대동무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뭘 아깝겠나요. 조국이 있고야 집고 가정도 있지.'	이름없는 여성
1993(4)	<청춘들과 한 대오에서>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해야리시여 조선의 첫 여성 비행사로 키워주시고... 국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었다...'	선화(최초의 여성비행사)
1993(4)	<90년대의 안영애가 되지> '이 당증을 당중앙위원회에 전하여 주십시오. 이 돈으로 나의 당비를 물어주십시오.'	안영애(전쟁영웅)
1993(4)	<신념으로 다져진 30년> 긴긴 30년 두손과 두 다리가 없는 영예군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상업일군으로서 오늘까지 빈함없이 혁명의 붉은 꽃을 활짝 꽃피워가고 있는...	강연옥(영예군인의 아내)
1993(4)	<아름다워라 혁명의 꽃> 영예군인녀성이 부모없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닐 수 있었는가...	차정희(영예군인의 아내)
1993(4)	<조국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리양주 녀성과 그의 아들 최학룡 동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리양주 母子
1993(4)	<조국은 나의 행복 나의 미래이다> '이 어머니가 조국에 와서 얻은 가장 큰 행복은 조선로동당 당원의 영예를 지닌 것.'	서운실(복욕탕 책임자)의 글

1993(5)	<영웅의 어머니> '난 그저 그 애를 낳았을 뿐이지요.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신 품이 진짜 어머니 품'	어머니(자식을 나라에 바 침)
1993(5)	<영예군인 안해의 긍지를 안고> '만약 자신이 조금이나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생 을 한다고 후회한다면 나는 영예군인의 안해의 충성의 행군길을...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예군인의 안해
1993(5)	<혁명적 량만을 가지고> '앞 못보는 영예군인 우영남 동무와 가정을 이루던 때까지만해도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화기에애한 량만에 넘친 생활이 되 리라고는...'	영예군인의 안해 초급단체위원장
1993(5)	<전사들의 어머니> '평범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가 초급단체위원장 일 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가구... 영광'	최영신
1994(1)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나날에 혁명동지를 위해 바쳐진 피만도 14Kg, 소 생한 환자들은 80여명이나...	영예군인의 안해들
1994(1)	<한모습> '군대누이'로 불리우는 김창화녀성, 희생된 남편의 고 상한 정신세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예술영화 '생의 흔 적' 주인공처럼 살겠다고 한 청진 객차대의 박창순동 무...	
1994(1)	<사회주의 도덕기풍 꽃피워나가자> 우리를 찾아오는 외국의 벗들에게 봉사할 더 잘하여 '동방예의 지국'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도덕을 큰 미덕으로 여기며 향유해 온 조선녀성들	고려호텔 박상희의 글
1994(1)	<스스로 보람있는 일을 찾아> 사회주의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	박유옥(온돌 수리공)
1994(1)	<오늘의 남강마을 녀성들>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친아들, 친자식이라고 하면 서 원호불자와 수백통의 편지도	남강마을 초급녀맹위원회 원

1994(3)	<큰 심장을 가진 조선의 딸>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20살도 못되는 나이 어린 처녀가 적의 1개 중대를 의거시킨 사건은 력사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임은하를 잔심과 사랑과 공산주의자의 높은 도량을 가지고 위만군병사들을 옹은 길로 이끌어준 유격대의 꽃이었으며...	임은하 (유격대원)
1994(3)	<손녀>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고 명랑한 현순이, 자기 입맛을 돌구고저 수백리 민길에 달려가 생선을 갖다 밥상에 올려놓아준 가룩한 처녀, 자기네 손녀가 되겠다는 현순이와 함께	현순(노인을 부양하는 이야기)
1994(3)	<탄부들의 사랑받는 평양처녀들>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 청년답게...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아름다운 청춘을 바치고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일터를 떠나 탄전으로 달려간 평양 처녀들!	평양처녀 8명(탄전에서 자원봉사)
1994(5)	<인제나 병사들과 함께> 한생을 영예군인 남편과 함께 백두의 정신, 군인정신으로 살아온 권순희 여성...	권순희 (영예군인의 안헤)
1994(5)	<활짝 꽃피나는 군민일치> 지금까지 인민군 전사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것을 자신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충신, 효녀로 준비되는 길에서 너무도 웅당한 일로, 마땅한 도리로...	룡천군 러맹위원회 일군
1994(5)	<꽃피는 미녀, 판을 치는 사회악> 그는 자기의 네 딸을 영예군인에게 시집을 보냈다... 친부모가 되어 친자식처럼 키우는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들, 돌볼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모시며 돌봐주는 여성들은...	서상보
1994(5)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마음으로> 지난 10여년간 그 어떤 보수도 바람도 없이 나라의 철도수송을 위해 모는 것을 바치	가족지원대원
1995(1)	<그들처럼 효녀로 살리> 저와 저의 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받들어	리태옥(인민반 반장)의 글
1995(1)	<착실한 살림군들> 가정에서 쌀세간살이도 알뜰하고 끈지게 하고 헌종이 헌장, 한 그람의 헌 쇠붙이도 버리지 않고 수메하여 나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옥정리 너맹원

-
- | | | |
|---------|--|---------------------|
| 1995(3) | <p><영생하는 애국여성>
리보부 여성은 ... 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인들의 식
사보장과 길안내, 부상병을 돌보는 일, 겨울 군복을
만드는 일, 농사일 등 잡절이나 일감이 늘어났다.</p> | 리보부(군인원호사업지원) |
| 1995(3) | <p><한생을 '인민군대 어머니'로 살리>
아들 다섯이 자라자 다 군대에 보냈고 모든 인민군
대 전사들이 천자식처럼 생각되어...</p> | 무명의 어머니 |
| 1995(3) | <p><영애군인들이 사랑하는 리발사>
영애군인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 놓으며 마을별, 날
자별 순회적 방법으로
그들의 리발을 책임질 것을 그는 스스로 속다짐했다.
그에겐 시간이 많지 못했다.</p> | 무명의 리발사 |
| 1995(4) | <p><크나 큰 영광을 받아안은 금골의 여성들>
금골광부의 진실한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인 그들은
여태껏 광부들을 위해</p> | 금골의 가두여성 |
| 1995(4) | <p><피와 땀>
'혁명동지를 빨리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밤낮으
로 계속되는 치료전투, 조국이 재를 털고 일떠설 때
한사람 한사람의 환자를 완치시켜 초소로, 사회주의
건설현장으로...'</p> | 너의사 |
| 1995(4) | <p><그 어머니에 그 아들>
이 학생의 어머니는 공산주의 어머니, 아애 할머니도
은 군애 소문난 공산주의 할머니</p> | 오옥덕 할머니와 며느리 |
| 1995(5) | <p><고치풍년을 마련한 여성들>
녀맹원들은 어머니 당에 드리는 누에고치풍년 선물
을 마련한 기쁨과 긍지를...</p> | 량채리 녀맹원 |
| 1995(6) | <p><만발하는 혁명의 붉은 꽃>
세대군인 탄부들과 가정을 이루고 남편들과 함께 석
탄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드는 길</p> | 보통강 피복공장 8명의
치녀들 |
| 1995(6) | <p><로동속에 꽃피는 삶>
경순동무는 여성들로서는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무
퀘도 전차운전사가 될 결심을 다졌고... 그러나 그들
부부는 언제나 화목했고 활기에 넘쳤다.</p> | 경순동무(무퀘도 전차운전
사) |
-

1995(6)	<탄전에 잊났은 마음>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서야 이썸 탄부들의 안 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영숙(초급녀맹위원장)
1996(2)	<태성 할머니처럼 살리> 어머이 수령님만 믿고 산 태성할머니처럼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며 한 몸이 그대로 꽃주단이 되어 펼쳐져...	태성 할머니

넷째로는 조직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예가 제시되고 있는 바, 여맹위원회의 활동을 다룬 글이 7편, 여맹위원장(김옥화, 리춘옥, 오옥티 모녀, 우영숙) 혹은 부위원장(구성순)의 활동을 다룬 사례가 5편, 기타 조직원으로서 최고인민회의대의원 1사례, 당원이자 전쟁영웅인 안영애, 인민반 반장 리태옥 등의 사례가 각각 1편씩 제시되고 있다. 녀맹예술선동대의 활동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다.

끝으로 주인공의 구체적인 사회적 활동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아 모두 27편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유격대원 임은하, 항일혁명렬사 한영애, 혁명가의 안혜 정종화, 그리고 조남실, 최영식, 리양주, 김창화, 리보부, 오의빈, 리신득 등과 같이 이름이 밝혀진 경우도 있고, 교하의 아주머니, 태성할머니, 고분녀성, 속사리녀성, 후방녀성, 평양치녀 등과 같이 지명을 통해 주인공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들 광철을 잃은 어머니' '아들 8형제를 모두 군대에 보낸 어머니' 등과 같이 주인공의 정체성이 어머니로만 나와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각각의 사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상의 특징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의 각 사례별로 특별히 부각되는 여성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오히려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관이 있다. 그것은 소위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전형"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전형으로는 일단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조국에 헌신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그 예는 <오직 당에 기쁨드릴 생각으로> <영원히 당을 따라 변함없이> <당에 기쁨을 드린 녀맹원> <은혜로운 조국에 진정을 바쳐> <조국은 나의 행복 나의 미래이다> 등의 제목에서부터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해보면 "지도자동지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다는 백도라지도 십어보고" "어머이 수령님을 언제나 그윽한 향기속에 모시고 싶은 마음" "아미지없이 자라는 너희들이 부럼없이 공부하도록 철따라 교복과 화용뿔까지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해주신 어머이 수령님" "생전에 수령님을 절절히 흠모하였던 '태성할머니'"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장생불로의 명약으로 일러오는 산삼을 마련하여 삼가 올리자는 일념" "수

<표 8> 주요도시의 주택건설

지역	건설사업명	기간	규모
평양시	문수거리 건설	1981-1983	17,000세대
	창광거리 2단계 건설	1984	2,400세대
	비드나무거리 건설	1984	1,000세대
	천리마 2단계 건설	1984-1987	4,000세대
	북새거리 건설	1984-1987	
	광복거리 건설	1985-1989	20,000세대
	안상택거리 건설	1985-1989	
	광복거리 2단계 건설	1990-1992	30,000세대
	통일거리	1990-1992	20,000세대
	통일거리	1992-1993	30,000세대
원산시	북방산거리	1983-1987	7,000세대
함흥시	용남거리, 성천구역 동홍산구역, 사포구역 등	1983-1987	4,000세대
청진시		1984	6,400세대
		1987	3,000세대
		1990	300세대
개성시		1987-1993	5,000세대
남포시		1992-1993	1,600세대
신의주시		1991-1992	2,500세대

* 출처: 북한방송 및 신문내용 종합 (통일원, 1995에서 재인용)

여기서 198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북한건축의 기본적인 양식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족적 형식에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형식이 “건축에서 민족적 특징을 옹기 살리면서 현대적 미감에 맞게 형성하는 문제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에서 집약된다고 한다면(주강현, 1994:398), 현대적 미감은 ‘건축도 현대적 미감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로 압축된다. 이 현대적 미감은 김정일이 제시한 ‘비만복성과 독창성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즉, ‘건축에서 모방과 도식, 유사성을 배격하고 모든 건축을 인민들의 사상미학적 감정과 시대적 요구, 그리고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제평, 1991: 주강현, 1994: 415에서 재인용) 그리고 민족적 형식과 현대적 미감을 강조한 것이 최근에 건설한 평양의 일련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다.

북한의 주택분류는 첫째로, 세대수에 의한 것이 있다. 이것은 적은 세대 살림집(한 동에 보통

집단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인간상의 사례는 다시 세 유형으로 나뉘어져, 첫째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인간애를 구현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순애동무는 평범한 공민이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박한 녀인이었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기의 한 몸을 스스로없이 내댈 줄 아는 그 고귀한 희생성” “당장 피가 요구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피를 서슴 없이 뽑아 넣어주었으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줄 알았으며 특히 학생들을 위해 서라면 사색도 열정도 사랑도 깡그리 바칠줄 아는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교원이었다. 추운 겨울날 체육훈련을 하다가 휴식시간이 되면 학생들의 언 손을 품에 꼭 껴안아 녹여주던 황길년 동무, 학생들이 체육경기에 나갈때면 밤새워 체육복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고 머리단장도 곱게 해주며 너희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던 그였다. 한 학생이 입원했을 때에는 품들여 구한 토종꿀과 고급어죽,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해들고 이틀이 멀다하게 병원에 찾아가 위로해주어 환자의 친누나인줄 알았겠다는 의료일군의 이야기” “한점의 사심도 없이 자기를 바쳐 남의 자식을 고스란히 키워낸 순급녀성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 말하는 것” “언제나 자신의 건강보다 먼저 환자의 생명을 넘려하는 영신 동무, 그 나날에 혁명동지를 위해 바쳐진 피만도 14 킬로그램이 되며 그에 의해서 소생한 환자들은 80여명이나 된다”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집단주의적 여타주의가 높이 찬양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이상의 두번째 사례로는 군민일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야기들이다. “인민군대의 안해’ ‘인민군대의 어머니’된 영예와 사랑을 지켜, 녀성들은 군복도 만들고 성능높은 무기와 군수품들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냈다.” “아들딸이 차례준 환갑상을 그대로 헐어가지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 떡과 고기며 국수와 콩나물을 대접한 어머니의 소행에 대하여” “영악스런 일숨씨와는 달리 무척 겸손한 리춘옥 동무...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꽃피워 인민군대를 정성껏 지원하고” “온 집안의 가보인 그것만은 안된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군대동무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뭘 아깝겠나요. 조국이 있고야 집고 가정도 있지 않겠나요’ 간절한 기대와 애원을 담고 서슴 없이 이 사연깊은 장롱을 내놓은 녀성” “속사리 녀성들은 치료에 좋다는 약을 구하기 위하여 몇십리 밭길을 걷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부상자들에게 넣어주기도 하였다... 자기의 몸에 당긴 불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흙을 끌어모아 부상병의 몸에 당긴 불을 껐다” “농촌의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아들과 오빠를 대신하여 식량증산으로 미제원수놈들에게 복수의 죽음을 주자라고 하면서 눈발같이 떨어치나섰다” “김창화 동무는 지난 10여년 세월 인민군 군인들을 친동생처럼 여기고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와주었다. ‘조국이 있구야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도 있지 않은가’” “재화공 김급녀 동무는 아들 성복이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초소에 달려가 아들이 얼마 남지않은 생이나마 우리 당을 만드는 충성과 효성의 한 길에서 참되게 살 수 있도록” “장군남께서 찾아주신 내조국, 사랑하는 고향땅과 우리 가정을 지키자면 내

힘껏 농사를 지어 한알이라도 더 많은 쌀을 전선에 보내자” “정녕 귀밀 머리 희여진 어머니들도 어머니라 부르며 받아들여가는 사랑하는 조국에 아들딸들을 바친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숭고한 념원 속에” “리양주 여성과 그의 아들 최학룡 동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하기도 했고 인민군구분대 방문에 지성을 다 바치기도 했다” “난 그저 그 애를 낳았을 뿐이지요. 다심한 손길로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초소에 내세워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신 품이 진짜 어머니 품이지요” “평범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가 초급단체위원장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축한 돈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마련할 생각을 하였다” “모든 녀맹원들은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친아들,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원호물자와 수백통의 편지도 썼다” “지금까지 인민군 전사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것을 자신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충신, 효녀로 준비되는 길에서 너무도 응당한 일로, 마땅한 도리로” “전쟁시기에도 후방을 지켜 싸우면서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들 다섯이 자라자 다 군대에 보냈고 모든 인민군대 전사들이 친자식처럼 생각되어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예군인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 놓으며 마을 별, 날자별 순회적 방법으로 그들의 리발을 책임질 것을 그는 스스로 속다짐했다” “가정부인이라고 군사복무를 못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선로동당원입니다” 등에서 감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이상의 세번째 유형으로는 군복무 중 불구가된 영예군인의 아내들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어머니, 그는 두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소중한 두 눈을 바쳤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 하나 해놓은 일이 있어요?” “명화동무라고 남들처럼 건강한 남편을 만나 일생을 고생없이 사는 것이 편한 줄을 모르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과 번민끝에 자기를 이겨낸 명화동무” “생활의 길동무만이 아닌 투쟁의 길동무로 성장하는 자랑스런 안혜” “병원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장성옥 여성은 간호원인 자기의 딸 경희가 일생 영예군인의 안혜가 되리라는 결심을 이야기했을 때 장한 결심을 했다고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간호원 리경심 동무의 어머니 리선일 여성도 딸의 결심에 두말않고 찬성해 나갔다” “긴긴 30년 두손과 두 다리가 없는 영예군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상업일군으로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혁명의 붉은 꽃을 활짝 꽃피워가고 있는 강연옥 동무의 소행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 방조를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진 영예군인녀성이 부모없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신성한 의무를 지낼 수 있었는가” “만약 자신이 조금이나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한다고 후회한다면 나는 영예군인의 안혜의 충성의 행군길을, 한 순간도 지탱할 수 없었을 것” “앞 못보는 영예군인 우영남 동무와 가정을 이루던 때까지 만해도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치는 화기에애한 땅만에 넘친 생활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군대누이’로 사랑스레 불리우는 장풍군의 김창화 여성이며, 희생된 남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소중히 간직하고 예술영화 ‘생의 흔적’ 주인공처럼 살겠

다고한 청진 객차대의 박창순동무...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뜨거운 인간애와 동지적 의리” “한생을 영예군인 남편과 함께 백두의 정신, 군인정신으로 살아온 권순희 여성” “영예군인을 위해 값비싼 사랑을 바치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며 영예군인 안해된 금지와 행복에 젖은 아리따운 모습.. 희천의 서상보 동무는 자기의 네 딸을 영예군인에게 사집을 보냈다” 등은 모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영예군인의 아내가 된 여성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셋째는 조직과 집단을 앞세우며 자기희생,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는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상이다 (양성철 외, 1986; 이중, 1987). 즉 “조사공들의 불타는 충성심, 누구나 한결같이 시대의 영웅으로 살며 투쟁할 굳은 의지와 각오로 혁신의 앞장에서 달려나갈 조사공들” “혁명의 꽃봉오리들을 교육교양하는 교양원으로 자라기까지, 저는 앞으로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한 생을 후대교육에 바쳐오는 교육자로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대성요업공장 위생자기직장 2작업반장인 김선숙동무는 공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생산혁신자로 소문났다” ““인민 소비품의 질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과 사회주의에 헌신복무정신을 말해주는 것이예요” “농장노동자들은 너자나 남자나 할 것없이 다 트랙토르를 몰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찰하기 위해...” “정춘실 동무 그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주부이기 전에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들의 심부름꾼이었으며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였다” “해방된 조국의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나의 소망을 헤아리시여 조선의 첫 여성비행사로 키워주시고 전투에서 세운 자그마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공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 주시었다” ““사회주의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합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스스로 온돌 수리공이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일해나가는 박유옥 동무는 광훈도시관리공의 명예를 지니고” “구성순 동무는 두 아이의 어머니지만 비가오나 눈이오나 자신이 쇠들생산을 책임진 광부가 된 심정으로 막장길을 걸었다” “경순동무는 여성들로서는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부귀도 전차운전사가 될 결심을 다졌고, 그는 드디어 남자 운전사들도 감탄할 정도의 운전기술과 수리기능을 가진 운전사로 자라났다” 등의 사례에서는 부철한 계급의식과 당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헌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로서는 선뜻 나서기 저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로는 사회주의 대가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여성상 내지 성역할 분업구조를 미화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비유한다거나, 온 국민을 하나의 가족으로 비유한다거나, 김일성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 등에서 ‘국가 가족주의’ 내지 ‘가족주의적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은숙, 1987; 1993).

북한의 가족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1980년대 이후 경제적 상황의 악화,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고화, 그리고 대외정세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가족원리가 점차 퇴조하는 대신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상인, 1993). 곧 유기체적 가족국가론이 '사회정치생명체론'⁴⁶⁾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에 의해 더욱 교조화되면서, 여성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추진되는가 하면, 사회통제와 사회부양 복지의 의무가 국가로부터 가족 내부로 점차 이전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조선여성」의 기사에서도 추측해볼 수 있는 바, 먼저 가내작업반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으로는 "(신발가내)작업반원들 모두가 가정부인들이었지만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순천에 있는 신발 가내 작업반을 찾아가 여러 날을 두고 기술을 배웠다"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정부인들인 조건에서 그들 자체의 힘으로 양어미를 파고 물길공사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저마다 양어학을 배우기 위해 책을 보고 또 토론도 하면서 남모르는 수고와 땀을 얼마나 바치었던가" "평범한 가정부인인 녀맹원 유금봉 동무의 집에는 밤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유금봉 동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돼지를 잘길러 검덕을 지원할 것을 결심하였다" "주체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새 세대 청년답게 자신의 안락한 생활이나 행복을 생각하기 앞서 조국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아름다운 청춘을 바치고저 사랑하는 부모님과 정든 일터를 떠나 탄전으로 달려간 미더운 평양 처녀들!" "가족지원대원들은 지난 10여년간 그 어떤 보수도 바람도 없이 나라의 철도수송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왔다" "옥정리 녀맹원들은 가정에서 쓸세간살이도 알뜰하고 깐지게 하고 현종이 한장, 한 그람의 현 쇠붙이도 버리지 않고 수매하여 나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금골광부의 진실한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이 그들은 여태껏 광부들을 위해 하는 자신들의 일을 다 응당한 것으로 여겨왔고 금골의 가두녀성들은 더욱 분발하여" "초급녀맹위원장 우영숙동무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탄부들의 안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녀맹원들 속에서 탄광지원의 불길을 세치게 지평올리도록 하였으며... "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 및 부양을 가까이 부담하고자 하는 사례를 미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다음의 기사 "이웃들과 친척들은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겠는가"고 걱정하면서 다문 몇이라든 애육원이나 친척집에 보내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야 우리 여성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일 때까지 나라에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어요'" "친부모가 되어 친자식처럼 키우는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들, 들불 자식이 없는 늙은이를 모시며 돌봐주는 여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고 명랑한

46) 정치적 생명을 배개로 하여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 그리고 그 자식으로서의 인민대중이 '혈연적인 관계' 혹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정치생명체론'은 봉건유교적 전통과 공명하고 있다 (전상인, 1993).

현순이, 자기 입맛을 돌구고져 수백리 민길에 달리가 생선을 갖다 밥상에 올려놓아준 가룩한 처녀, 자기네 손녀가 되겠다는 현순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병도 털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운신 못하는 할머니에게 세수도 시키고 음식도 떠 넣어주어야 했고 시간맞춰 약도 대접해야 했다. 쉽없이 환자를 주물러주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잠시도 허리를 펴 사이가 없었다... 좋은 세상에서 한 없이 살다 여한없이 간다. 우리 장군님께서 너와 같은 손녀를 키워 보내주시어 일집 혈육 없는 아 늙은 것두 손녀의 무릎우에서 눈을 감게 되었구나...” “20대의 젊은 여성으로서 ... 옥화 여성이 참된 의리를 지켜 유지녀들의 어머니가 된 그 가룩한 마음씨... 광복거리 건설장을 찾아가 일손을 도와 땀을 흘렸으며 작업복들을 손질하기도 하였고 식탁을 꾸밈히 하고 수백첼레의 장갑을 기워주는 등.. 김옥화 여성의 아름다운 공산주의적 풍모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혁명적 동지애와 참된 의리에 대한 참모습이다”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80년대부터 가족관계의 기부장제적 환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복고적인 여성관이 부각되면서,⁴⁷⁾ 일터에서의 여성상도 어머니, 누나, 며느리와 같은 가족관계로 환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기위해”(유치원 건강관리원) “마치 알뜰한 주부의 손길이 미친 부엌에 들어온 것만 같았고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 마저 들려오는 듯 싶었다”(북창철제 일용품공장) “여성의 몸으로 남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 굶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전투의 째째에도 식당일을 도와주고 옷가지들을 맡끔히 손질해주는 등”(대규모 경금속 생산기지건설장) “명숙동무는 당이 맡겨준 이 새로운 초소에서... 집을 떠나 출장은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낄새라 다심히 보살펴주는 그의 정성에 감동되어 손님들은 누구나 친어머니, 친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탄광 여관책임자) “저는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의 벗들에게 봉사할 더 잘하여 예로부터 ‘동방에의 지국’으로 그 이름이 높았고 티없이 밝고 깨끗한 량심과 도덕을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며 향유해 온 조선여성들의 아름다운 풍모를 적극 살려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활짝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고려호텔 종사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어머니로서, 누이로서의 여성다움의 미덕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 욕심이 많고 내털성이 있어 한다하면 꼭 해내고말며 일을 벌려 놓기도 잘하고 거두어 들이기도 잘하는 ‘살림꾼 지배인’” “환자의 친누나인줄 알았겠다는 의료일군의 이야기” “남편들의 일이자 자기 일이고 아들들의 일이자 자기 집 일로 여기고 있는 금꿀의 여성들은 광부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제대배

47) 1980년대 이후 북한여성들의 모범으로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아내 김정숙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환자매체 및 영상매체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일정한 이과장 치없이 여성의 전통적 지위와 역할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이은숙, 1993). 김일성 가족과 관련된 이상적 여성상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할 것.

냥을 탄광합숙에 풀어놓은 제대군인탄부들의 옷도 남몰래 깨끗이 빨아 손질하여 칼날처럼 다림발을 세웠고 친누이의 심정으로 탄부들의 옷도 몸에 꼭 맞게 지어” “지성껏 마련해온 국수감으로 맛있게 차려준 농마국수를 받아 안으며 전사들은 고향의 다심한 어머니를 생각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손질해놓은 백포며 배개, 작업복과 목달개를 받아안던 순간에도 전사들의 눈앞에 떠오른 것은 정다운 고향의 누이모습이었다” “‘군대누이’로 사랑스레 불리우는” “후방의 녀성들은 ‘인민군대의 안해’ ‘인민군대의 어머니’된 영예와 사랑을 지켜” “어머니의 뜨거운 정성에서 군인들은 고향집 친어머니의 정다운 손길을 느꼈던 것” “병사들이 어머니라 다정히 부르는 그 부름 속에는 얼마나 따뜻한 혈육의 정과 친근감이 넘쳐흐르고 있는 것인가... 진정 그가 군인들을 위해 하는 일은 동생을 보살피는 친누이의 심정” “제화공 김금녀 동무는 인민군 군인들을 모두 제아들처럼 사랑해 왔으며”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다 친아들, 친자식이라고 하면서”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였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관계를 사회관계로 확대적용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족의 이상을 전파하고 있다.

끝으로 이상의 사례에 대한 행간읽기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집단주의적 이상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는 오히려 가족이나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현실과 집단주의적 규범이라는 당위 사이에서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내가 할머니 구실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니? 손자를 안고 불을 비비는 것이겠니? ... 나는 어떻게 해서나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 수령님과 당에 기쁨을 드리는데 할머니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기사에서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당에 충성하는 할머니의 역할이 대비되고 있으며, “정춘실 동무는 녀성일군이다... 그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주부이기 전에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사는 인민들의 심부름군이었으며 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어머니였고 주부였다”에서는 한가정의 어머니/주부와 인민의 어머니/주부가 대비되고 있다. 또한 “명화동무라고 남들처럼 건강한 남편을 만나 일생을 고생없이 사는 것이 편한 줄을 모르지 않았다... 수많은 생각과 번민끝에 자기를 이겨낸 명화동무” “자기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예군인을 위해 값비싼 사랑을 바치는 것을 옹당한 것으로 여기며 영예군인 안해된 긍지와 행복에 젖은 아리따운 모습”의 기사에서는 영예군인의 아내가 된 이들의 숨은 갈등이 그려지고 있음에서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읽을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무슨 직업이나 다 귀중합니다”하는 “스스로 온돌 수리공”이 된 여성의 강변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남녀평등, 여성해방의 기치가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 여전히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엿보게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를테면, “그에겐 시간이 많지 못했다. 집에는 늙으신 시어머니와 자식들이 있었으며 한 가정의 주부로서 할 일이 많았다.” “‘젓먹이까지

키우며 프락또르를 배우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던 그 정열은 다 어디갔는가, 밭갈이 도중 죽은 프락또르와 씨름질을 하다가 미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으나 정작 곤히 잡든 남편을 보고서는 차마 깨울 수가 없어 문밖에서 마음 조이던 일을 잊었는가” “가정 살림을 이웃들에게 맡기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붓입이 분명하며, 가정부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 “평범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내가” “남편의 뒷바라지나 하는”⁴⁸⁾등에서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여성들도 자신의 일과 가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갈등이 잠재해 있음을 엿보게해주는 기사도 발견되고 있다. “무래도 전차운전사가 된 경순 동부는... 기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의 운전사생활이 끝나리라 생각했다. 남편도 운전대를 놓을 짓을 은근히 바랐다. 그러다나니 잡다한 가정살림은 의례히 남편에게 많이 차례졌다”는 사례가 그것이다.

부부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음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의 부부라면 같은 길을 함께 가는 혁명적 동지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다고하여 지금 계속되는 생활에 만족해서 자기 아내의 잠재된 창조적 가능성을 외면하는 남자는 자산의 장래에 대한 발전적 전망에도 게으르기 마련입니다”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위음, 1993:94-95)와 같은 주장이나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잘 맞지 않는 때가 있는데 하물며 영애군인을 섬기며 생활하는 과정에야” 등에서 엿볼 수 있다.

3.3 북한여성의 남한여성에 대한 의식

「조선녀성」의 기사 가운데 남한여성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모두 18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남한여성에 대한 기사는 1989년에 1편, 1990년, 1991년에 각 2편씩, 1992년에 3편, 1993년에 5편, 1994년에 3편, 1995년에 2편 수록되고 있다.

남한여성관련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바, 북한여성들은 남한여성에 대해 兩價的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즉 여전히 제국주의적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한여성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동정을 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여성의 운동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먼저 남한여성을 동정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남반부 여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온갖 구속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최하층의 한 존재로서 결혼하면 직업을 얻지 못하며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48) 특기할만한 것은 모든 글에서 '인민'과 '녀성'이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점이고, 어머니 혹은 아내로서의 여성상이 중심이 되면서 미혼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에 대한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는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그”라는 점이 주목된다.

들도 해고당하고 말며” 특별히 “남조선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보잘것없는 기아임금을 받으며, 심지어는 외국호색관광들과 특권층놈들의 용락물로 노리게감으로 짓밟히고 있다...” 나아가 “남조선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무권리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활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항시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법에는... 남녀평등을 규정해놓았으나... 그것을 실행할 의사가 꼬물만치도없는 조건에서 남녀평등은 반 메아리로 되고 있다”. 또한 “이 남에는 여성이 있어도 녀권이 없고 아직도 가부장제의 보수성이 녀성들에게 종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불평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 북한여성의 남조선 여성들에 대한 의식

년도(호)	<제목> 남조선여성들에 대한 의식
1989(2)	<p><날을 따라 양양되는 남조선 녀성들의 투쟁> “남조선 녀성운동은 각 지역별, 계층별 녀성들을 광범히 안입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녀성운동이 반미자주화애로 나아가는 흐름에 당당히 합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녀성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p>
1990(2)	<p><끝없는 궁지, 보람찬 삶> “남반부 녀성들은 조국해방 45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온갖 구속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 참된 권리와 행복을 누리자면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p>
1990(4)	<p><남조선녀성들도 투쟁의 광장에> “남조선의 수많은 녀성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인간, 최하층의 한 존재로서 결혼하면 직업을 얻지 못하며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녀성들도 해고당하고 만다... 녀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은 이러한 굴욕적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분연히 떨쳐나서고 있다... 사랑스럽고 귀중한 아들 딸들을 애타게 파쇼의 무리들에 대한 증오와 원한으로 하여 남녘어머니들의 가슴에 피가 끓고 있다...”</p>
1991(4)	<p><항쟁의 대오에 떨쳐나선 녀성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결사항전의 투쟁속에는 녀성로동자들은 물론 간호원, 녀대학생 심지어는 가정부인들까지더 굳건히 서 있다...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이 자주이고 민주이고 통일임을 심장으로 자각하였기에 수많은 녀성들이 파쇼 총검의 숲을 헤치며 서슴없이 투쟁의 길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련이어 일어나고 있는 분신자결 사건과 열사들의 희생은 광주를 피로 물들인 살인자 로태우 파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한 남조선 녀성들의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p>

- 1991(6)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는 남녘의 여성들>
 “남조선 여성들속에서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는 사업은 지식인, 노동자, 농민, 종교인, 가두녀성 등 각계각층 여성들 속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남조선 여성들 속에 깊이 파악될수록 커다란 전인력을 가지고 그들의 사상의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 주체사상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남조선여성운동을 추동하는 불멸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 1992(3) <조선여성들의 존엄을 짓밟은 일제를 단죄한다>
 “‘중군위안부’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 만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에서 감행된 조직적인 집단강간, 륜간이었다. 짐승도 낮을 끓힐 일제침략군의 만행은 극악한 범죄이며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 1992(4) <날로 확대되는 남조선 여성들의 투쟁>
 “최근 남조선 여성들의 투쟁에서는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단체들이 적극 출현하고 투쟁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주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반미투쟁과 함께 여성단체들의 ‘조국통일위원회’설치와 남북여성들의 민간급통일대화와 접촉실현,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방북인사석방 투쟁 등 남조선 여성들 속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도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 1992(4)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쟁테오에 서서>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사랑하는 지식들의 뒤를 이어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 임종석의 어머니만이 아닌 남녘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민주와 통일은 온 민중이 떨쳐나 싸울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 1993(2) <돈에 팔리는 여자들>
 “남조선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더 비참하다... 남조선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의 ()분의 1도 못되는 극히 보잘것없는 기아임금을 받으며 심지어는 외국호세관광들과 특권층놈들의 톱락불로 노리개감으로 짓밟히고 있다...”
- 1993(4) <짓밟히는 노동의 권리>
 “오늘 남조선 여성들은 정치적으로 무권리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활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항시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법규정’에는 남녀간에 취업조건이나 노동조건, 임금 등에서 차이를 두면 안된다고 규정에 놓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괴뢰들이나 자본가놈들에게 그것을 실행할 의사가 꼬불만차도 없는 조건에서 ‘남녀평등’은 빈 메아리로 되고 있다... 남자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고 입학해서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녔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부대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여성들은 생활체현을 통하여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와 반인민적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여성해방도, 자주, 민주,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 1993(5)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여성들의 천국이다>
 “이남에는 여성이 있어도 녀권이 없고 아직도 가부장제의 보수성이 녀성들에게 종속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불평등이 조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북 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정계와 전문분야에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어 결혼한 녀성들도 마음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참말로 이북은 민중의 락원이고 녀성들의 천국이다.”
- 1993(5) <무참히 버림받는 남조선 녀성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녀성들은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떠받들이우며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가고 있다. 그러나 한 지맥으로 잇닿은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적으로 천서되고 있으며 온갖 불행을 겪고 있다...”
- 1993(6) <광주인민봉기후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녀성들의 투쟁>
 “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녀성들의 투쟁은 더욱 장성강화될 것이며 녀성들의 거세찬 투쟁은 민주적인 새 사회를 반드시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 1994(2) <돈에 팔리우는 녀성들>
 “오늘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정치적자유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으며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수백명의 녀성들이 노예처럼 팔려가고 있는 것은 녀성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 기지촌에 끌려간 녀성들은 성적 노리개로 전락되어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고 녀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있는 윤금이녀성에 대한 살인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 1994(2) <남편의 뒤를 이어>
 “최근 남조선 녀성들 특히 민주화투쟁에 남편을 바친 녀성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 민주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그것은 생활체험을 통해 ‘문면정권’의 허울을 쓴 김영삼 일당에 기대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투쟁만이 살 길임을 절감했기 때문”
- 1994(5) <공부하고 싶다>
 “남조선 녀성들은 어린 자식들을 근심걱정없이 공부시키려면 남조선 괴뢰정권을 타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다.”
- 1995(2) <불굴의 기상을 떨친 전인민적 항쟁>
 “세계를 격동시킨 4월 인민항쟁의 준엄한 나날에 남조선 녀성들도 남자들 못지않게 용감히 싸워 조선녀성의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35년전 항쟁의 거리에서 4. 19 용사들이 피타게 절규한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의 숭고한 녀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파썸 폭압통치가...”

1995(3) <역사에 길이 빛날 광주인민봉기>
 “여성들도 봉기군중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으며 또한 이들은 시위군중들에게 식사를 날라다 주고 고무해주면서 시위자들의 기세를 돋구어 주었다. 여대학생들은 대학가와 거리들에서 복습도 두려움없이 싸우고 있으며 아들과 남편들을 투쟁의 제단에 바친 여성들도 그들이 섰던 투쟁의 대오에서 과감히 싸우고 있다...”

이들 기사에 나타난 남한 여성들의 이미지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희생양이자 남녀 차별의 희생자요, 성의 상품화의 대상이자 모든 면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묶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결론은 거의 예외없이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해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가를 강조하면서 모든 사회주의권을 통틀어 북한여성들의 상대적 지위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남조선 여성들로 하여금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반면에 남한여성의 운동 역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 하다. 즉 “지역별, 계층별로 여성들을 광범히 안입하는” 조직적 여성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광주항쟁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간호원, 여대학생 심지어는 가정주부까지 지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결사항전의 투쟁 속에 서있었으”를 찬양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여성들이 고용차별 반대운동, 농민운동, 민주화 운동 등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자주적 진보적 태도에 대해서는 동조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을 하는 자식들의 뒤를 이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어머니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도 기사의 마무리에는 이러한 투쟁이 더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배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표현으로서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성들을 묘사하는 ‘나라의 꽃’ ‘생활의 꽃’ 등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지금까지 「조선여성」의 기사를 통해 북한여성의 의식의 한 단면을 해석해보는 작업을 시도해보았다. 이로부터 그려지는 북한여성의 모습은 지극히 정형화 되어있으며, 기사의 내용과 그것의 전개 방식에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한마디로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은 여타의 사회주의권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에 비해서 주체적 ‘여성 의식’에 대한 인식은 거의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 대가족’ 및 ‘집단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 으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북한여성의 의식구조에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위계서열이 있

어 최고 위치에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글들이 ‘김일성 아버지’, ‘어머니 당’ 등으로 시작되고 또 끝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여성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당을 마치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여길뿐만 아니라, 주체사상과 당의 교시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인민군대를 지원하고 사회주의 건설현장에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 이 때 여성들은 군인들의 친 어머니, 친 누이가 되고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군들의 어머니, 누이가 된다. 이 모든 행위의 근거에는 아버지 김일성과 어머니 당에 ‘기쁨’을 드리는 충실한 효녀가 되기 위한 효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업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남편과 아들을 보조하고 여성으로서의 희생정신을 발휘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식에는 아버지 수령과 어머니 당에 기쁨을 드리는 충신과 효녀가 되겠다는 생각과, 개인의 안락과 행복보다는 인민과 국가를 위해 가까이 희생하는 집단주의적 이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 여성들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차별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식 사회주의 대가족 의식”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당과 수령의 자식으로 키울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한 가정의 아들, 딸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아들 딸로 성장하여 가족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주의 전사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여성들은 노동자로서의 자신과 어머니로서의 자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신 사이에 어떠한 분열도 경험하지 않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실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으리라 본다.

4. 결론 및 제언

「조선녀성」의 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유추해볼 수 있는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을 이해하는데는 맑스적 인간이해가 상당한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에서는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공사영역의 이분법 곧 공적영역=생산영역=남성영역 대 사적영역=생물학적 재생산(출산)영역=여성영역에 입각한 여성역역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영역이라는 표현도 물론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보다는 노동하는 인간,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인간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사회주의의 온정적 가부장제가 매우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수령과 당의 시혜에 한량없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대가족 하에서 전체는 개인을 위하고 개인은 전체를 위하는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 부자의 교시 및 언행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시 및 언행에 반영

된 여성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첫째는 “여성의 혁명화 및 노동계급화”요, 둘째는 사회주의 혁명건설에 동참하는 여성, 셋째는 사회주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을 달성한 여성, 넷째는 공산주의 건설자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 그리고 다섯째는 김일성의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시혜자로서의 여성이다.

이로부터 북한에서는 여성의 혁명의식 및 노동계급의식이 여성의식 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식민지 반제반봉건 상황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준 수령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하에서 반 남녀평등 및 여성해방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은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시체제가 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서, 여성의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혼란된 이중의 이념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케한다. 즉 전시체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맹목적 애국심이 강조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비애국적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뿐더러, 성 차별을 위시한 여성문제는 주변화함은 물론이다.

한편 공산주의 건설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의 혁명화를 통한 전체사회의 혁명화를 명분으로, 주체사상 교육을 위한 자녀교육의 공공화 및 집단화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계급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할갈등의 소지를 적어도 아데올로기 측면에서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국가 사회주의하에서 전형적인 온정적 가부장제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독특한 “개인숭배”와 상보적 관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조선녀성」의 이상적 사례를 다룬 기사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 즉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성들, 집단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일치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영예군인의 아내가 되며, 혁신적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가 되고, 나아가 “사회주의 대기족”의 일원이 되는 여성들의 사례가 감동적으로 예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집단주의의 이상과 가족 및 시사로운 인간관계에 끌리는 현실 사이에는 일단의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으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든가 여성에게 주어지는 과중한 역할부담, 그리고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부부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북한여성들이 안고 있는 여성문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들 북한여성을 1991년 5월 남한여성들이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것은 표면적 이질감 속에 숨겨진 내면적 동질감이었다고 한다. 즉 북한여성들의 표면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철저히 내면화하여 호전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이 나타났으나, 내면에는 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고립된 폐쇄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순진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는 지적인 새겨볼 만하다.

단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한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떠나 가부장제라는 틀 속에서 규정되고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여기서도 남한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여성억압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반면에, 북한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온정주의를 김일성 수령의 은혜

로 받아들여 오히려 고마와하고 있다는 괴리를 보이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사회체제 하에서 반세기를 지내왔다. 때문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북한 주민들은 매우 이질적인 사회제도 및 문화 속에서 가치관, 행동양식, 나아가 일상생활의 규범 등에 있어 외국보다 더욱 심각한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 여성을 적극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 과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과정에서 현재 남북한 여성들 사이에 놓여있는 의식의 거리를 측량해보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을 “다양성이 공존하는 통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남북한 여성이 함께 만나 “해방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의사소통을 가능케할 “제3의 입장”을 정립하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북한여성의 여성 의식 속에 담긴 바 “생존경쟁이 애초부터 배제된 상황에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순수하고 이해타산이 없는” 면이나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엮음, 1993:28)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인간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알지못할 집단적 열정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개인적 도덕성”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엮음, 1993:76)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개인숭배나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감, 집단주의, 순종 및 동조,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등은 여성 의식의 발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여성의 식과 관련해서는 가부장제의 온정주의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한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내용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 “여성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197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백남룡 「벗」 살림터.
- 조선녀성사 (1964) 「역사에 이름난 녀성들」 평양: 조선녀성사.
- 조선민주녀성동맹 (1967) 「강반석녀사를 따라 배우자」 동경: 조선청년사.
- 조선중앙민주여성동맹 「조선녀성」 1989(1) 부터 1996(2)
- 고현욱 외 (1987)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애실 (1991) “소련 및 북한여성의 노동실태” 21세기 위원회 자료.
- 김용기 (1987)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pp.187-218,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문옥륜 (1990) “북한의 보건의료”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박관수 (1972)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공산권문제연구소.
- 박헌선 (1988)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이화여대.
- 북한연구소 (1985) 「북한총람」
- (1991)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
- 서성우 (1989)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침모습” 「북한」 북한연구소.
- 손봉숙 외 (1991)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양성철, 박한식 (편저) 1986 「북한기행」 도서출판 한울.
- 이윤배 (1973) 「북한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 이경숙 (1991)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여성” pp.11-36,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 이은죽 (1987) “가족제도” pp.249-280,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
- (1993)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법문사.
- 이우영 (1993)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 이중 (1987) “집단주의적 교육체제: 그 규범과 운용” pp.281-337, 고현욱 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태영 (1988) 「북한여성」 실천문화사.
- 작가 황석영석방대책위원회 위음 (1993) 「사람이 살고 있었네」 서울:시와 사회사.
- 전숙자 (1994) “북한여성의 혁명성과 전통성” 「한국사회학」
- 정무장관 제2실 (1990) 「북한여성의 실태」
- 통일원 (1991) 「남북한 사회지표」
- 한국여성개발원 (1992)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Barrett, Michele (1980) Women's Oppression Today, London: Verso.

- Benhabib, Seyla and Drucilla Cornell (1987) "Introduction: Beyond the Politics of Gender" pp.1-16 in S. Benhabib and D. Cornell (eds.) (1987) *Feminism as critique: Essays on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Capitalist Societies*, Polity Press.
- Benhabib, Seyla and Drucilla Cornell (eds.) (1987) *Feminism as critique: Essays on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Capitalist Societies*, Polity Press.
- Brah, A. (1993) "Re-Framing Europe: En-gendered Racism, Ethnicities and Nationalisms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Feminist Review*, 45 (Autumn):1-21.
- Cutler, C. A. (1995) "Global Capitalism and Liberal Myths: Dispute Settlement in Private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Millennium* 24(3):377-398.
- Dolling, I. (1991) "Between Hope and Helplessness: Women in the GDR after the 'Turning Point'" *Feminist Review* 39(winter).
- Eisenstein, Zillah (1981) *The Radical Future of the New Right*, New York: Longman.
- Elshtain, Jean Bethke (1981) *Public Man, Private Woman: Women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ngel, B. A. (1987) "Women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Signs* 12(4):781-96.
- Giddens, Anthony and David Held (1982) *Classes, Power and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tmann, Heidi (1981)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pp.1-41 Lydia Sargent ed. *Women and Revolution*, Boston: South End.
- Hartsock, Nancy (1983) *Money, Sex and Power: Toward a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New York: Longman.
- _____ (1987) "The Feminist Standpoint: Developing the Ground for a Specifically Feminist Standpoint" pp.157-180 in S. Harding (ed.) *Feminism & Methodolog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Haug, F. (1991) "The End of Socialism in Europe: A New Challenge for Socialist Feminism?" *Feminist Review* 39(winter)
- Hernes, H. (1987)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 Holmstrom, Nancy (1990) "A Marxist Theory of Women's Nature" pp.69-86 in Cass R. Sunstein ed. *Feminist & Political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ch, M. (1994) "Women, the State and Citizenship: 'Are Women in the Building or in a Separate Annex?'" *AFS* 19(Autumn):79-91.
- MacKinnon, Catharine (1982)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An Agenda for Theory" *Signs* 7(3)
- Malinowska, E. (1995) "Socio-Political Changes in Poland and the Problem of Sex Discrimin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8(1):35-43.
- McLellan, David ed. (1977) *Karl Marx: Selected Writ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ghadam, V. M. (1994) "Women in Socie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39:95-115.
- Mouffe, C. (1992) "Feminism, Citizenship and Radical Democratic Politics" pp.369-84 in J. Butler and J. W. Scott eds.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 Nicholson, Linda (1987) "Feminism and Marx" pp.16-30 in S. Benhabib and D. Cornell (eds.) *Feminism as critique: Essays on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Capitalist Societies*, Polity Press.
- Pateman, C. (1989) *The Disorder of Women*, Cambridge: Polity Press.
- Paukert, L. (1991)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in the Transition to Market System" *International Labor Review* 139(5/6):613-633.
- Pearson, Ruth (1990) "Questioning Perestroika: A Socialist-Feminist Interrogation" *Feminist Review* 39: 91-96.
- Peterson, V. S. (1996) "The Politics of Identif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1/2): 5-15.
- Reiter, Rayna ed. (1975) *Towards an Anthropology of Wom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Rubin, Gayle (1975)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pp.157-210 in R. Reiter ed. *Towards an Anthropology of Wom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Sacks, Karen (1975) "Engles Revisited: Women,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and Private Property" pp.211-234 in R. Reiter ed. *Towards an Anthropology of Wome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Stefano, Christine (1991) "Masculine Marx" pp.146-63 in Mary Shanley and Carole Pateman eds.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Polity Press.
- Ward, K. ed. (1990) *Women Workers and Global Restructuring*, ILR Press.
- Weinberg, E. (1994) "Reality and Research: Current Issues in Soviet and Russian Stud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5(1):133-141.
- Wolf, Margery (1985) *Revolution Postponed: Women in Contemporary Chin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Yuval-Davis, N. (1996) "Women and the Biological Reproduction of "The Na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1/2):17-24.
- Zaretsky, Eli (1976)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福島正夫 (1976) "사회주의의 가족법 원리와 정책" pp.11-55 in 福島正夫 외 (1976, 1981) 「가족: 정책과 법」 원화용 옮김(1985) 한울림.

번역서

- J. 도노빈 지음 (1985)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이월영 옮김 (1993) 문예출판사.
- K. 맑스, F. 엥겔스 (1969) 「독일 이데올로기 I」 김대웅 (역) (1989) 두레.
- A. 베벨 (1902) 「여성과 사회」 선병렬 역 (1982) 한밭출판사.

- S. 순터-클레만 (1985) “사적유물론이, 유물론적 페미니즘이냐? -제논쟁과 미해결 문제들” pp.91-123 in W. 쉬바르츠 외 지음 (1985)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엄명숙, 강석란 옮김 (1990) 중원문화.
- W. 쉬바르츠 외 지음 (1985)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엄명숙, 강석란 옮김 (1990)
 중원문화.
- W. 쉬바르츠, A. 슈타인베르크 (1985) “가부장제의 역사적 성격” pp.9-56 in W. 쉬바르츠 외
 지음 (1985) 「사적유물론과 여성해방」 엄명숙, 강석란 옮김 (1990) 중원문화.
- H. 아이젠슈타인 (1984) 「현대여성해방사상」 한정자(역) (1986) 이화여대 출판부.
- F. 엥겔스 (1800)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1987) 도서출판 아침.
- 福島正夫 외, (1976, 1981) 「가족: 정책과 법」 원화용 옮김(1985) 한울림.

北韓政治體制 變革의 力動性

研究責任者：申 進(忠 南 大)

목 차

<요 약 문>	111
1. 서 론	115
1.1 연구목적	115
1.2 연구방법	116
2. 이론적 틀	118
2.1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관한 이론들	118
2.2 전체주의 모델	120
2.2 체계론적 모델	122
2.2.1. 체계진동이론	122
2.2.2. 네겐트로피	127
3. 체계의 안정	129
3.1 군부의 지지확보	129
3.2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132
3.3 주민 지지확보노력	138
3.4 테러적 경찰통제제도의 유지	139
4. 체계의 진동확대	141
4.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의 균열	141
4.2 지배집단내의 갈등	145
4.3 경공업 증서와 군부의 갈등	149
4.4 중앙통제경제의 균열	150
4.4.1.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나진-선봉	151
4.4.2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내부경제	155
5. 체계의 붕괴와 복원	158
5.1. 체제이완현상의 표면화	158

5.2. 네겐트로피: 국제적 긴장조성	159
6. 결론 및 정책 제언	162
6.1. 김정일 정권의 안정	162
6.2. 대북투자를 위한 다국적 콘소시움 구성	163
6.3. 진갈형 자주국방능력의 확립	163
6.4. 탈북자와 대북 교육비 반환정책	165

〈요약문〉

김정일정권은 안정적이라고 지적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들이라고 지적되는 조건들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북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틀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변혁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체제의 변혁은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예측하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브르제진스키의 전체주의를 유지시켜 주는 속성을 중심으로 체제에 중압을 가하는 역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론적 분석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체계이론은 중첩적이고 계열적인 위기적 원인들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체계진동이론은 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체계 내부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동요로 인한 중압의 근원들을 권위당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체계의 자체변환과정을 통한 대응과정, 그리고 소극적 환류와 적극적 환류과정을 통한 체계진동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에 관하여 이들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붕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개인의 이윤동기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공동소유제도는 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데에 필요한 동기와 욕구를 이완시킨다. 따라서 공동소유제도는 개인소유제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용, 혹은 자원의 사용을 사적 소유제도로부터 멀리 가져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Hayek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정권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군부에 호의적인 다양한 시책들과 중첩적으로 짜여진 단군 겸직제도에 의해 군부 지도자들로부터의 충성을 확보하는데에 성공했다. 그래도 김정일은 여전히 여전히 군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부대 시찰을 자주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체제 안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즉 경공업 제일주의를 통한 주민복지정책, 테러적 경찰통제제도, 군부의 지지, 권력집단의 김정일 지지 등을 확보하였다. 현재로서는 김정일정권에 대항하는 군부의 반란이나 쿠데타는 혹 민중봉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김정일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여 체계의 진동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세습하였지만 김정일의 북한통치에 대한 정통성이 결여 되어있다. 김일성과 함께 오랜기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최고 통치권자

의 지위에 있다는 것 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을 지지하는 집단들의 권력투쟁은 김정일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의 정치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군부의 강경파를 제이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부와 정무원은 김정일과만 종적으로 연결되는 각각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갈등과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적 갈등의 소지를 보여준다.

중앙통제경제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관료들의 무정부적 경제운영은 북한 경제가 통제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개인의 자영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의 개방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상당히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와의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정부의 참여문제를 북한 경제관료와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북한이 제시한 나진 선봉지구는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정부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한국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나진 선봉 투자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 성사시키고 있다. 다국적 투자 컨소시엄을 통하여 국제 차관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북한에의 투자를 컨소시엄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가자들은 위험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을 적화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이 없이도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북한의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탈피하여 순간보복능력이 탁월한 "전갈(scorpion)형 한반도 방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거의 공격능력을 갖추지 않은 고수도치형 억제전략과 구별된다. 즉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여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력이 갖추어지면 남북한은 전쟁에 대한 헤의지력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오판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자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회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에 대한 대가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의 주요 목적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만큼 경화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1. 서론

1.1 연구목적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도 정치적 변화가 찾아왔다. 북한의 장래에 관하여는 많은 예측이 행해졌으나, 사용된 증거 자료들은 가능성과 가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장래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북한이 잘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적 변화를 통하여 살아남는데에 성공한다는 가설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성공시키며 경제적 변화와 정보 개방에 따라 정치가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데에 성공한다. 그리고는 특히 막강한 군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존속시킨다는 가설이다. 특히 북한 영토의 크기는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의 소규모이면서 사방이 정보통제에 용이하도록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 북한의 생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전쟁 발발의 가설이다. 북한의 급격한 경제적 실패는 체제붕괴의 조짐을 나타낸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을 희구하는 미국과 일본등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급속하게 진행시키고 상호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개혁을 거부하는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적 곤란과 기아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하여 김정일정권의 안위를 위협받는다. 나아가 체제 붕괴위기에 당면한 북한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한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경제적 파국에 직면한 김정일정권은 경제적 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을 둘러싸고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갈등이 심화된다. 이들의 세력균형과 조정에 실패한 김정일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되고 체제 대안세력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체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위의 어느 경우이든지 북한에게 있어서 변혁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일정권의 공고화와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절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서는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회생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회생은 또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게다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근원적인 모순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체제붕괴위기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들 가운데 몇 가지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에 의해 유지되어 온 북한에서 창시자인 김일성이 죽음으로써 주체사상의 해석과 변용에 대한 이견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군 경험이 전무한 김정일이 군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김정일은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승진을 시켜

주었으나 이러한 당근만 가지고서는 김일성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맡게 된 북한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오랜기간동안 식량난과 경제적 궁핍에 익숙해져 왔으나 최근의 일련의 기근과 같은 조건들은 북한의 엄격한 통제경제를 이완시킬 수 밖에 없으며 암시장과 같은 거래들을 제도적으로 묵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유는 곧 정보유통의 확산을 의미하며 정부통제로부터의 자유의 폭이 커진다.

김정일정권은 안정적이라고 지적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 붕괴의 원인들이라고 지적되는 조건들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북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틀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일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변혁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정일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체제의 변혁은 가능할 것인가를 분석한다. 둘째, 북한정권의 존속을 위한 정책선택의 범위를 예측하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정치변동을 지지대상의 변동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치 공동체(political community)의 변동, 체제(regime)의 변동, 권위당국자들(authorities)의 변동.⁴⁹⁾들이다. 정치공동체란 모든 체계활동의 기초에 구성원들 간의 공동체적인 의식이나 감정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변동의 대표적인 예는 집단분리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위집단이 집단행동에 의해 기존의 정치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창출하는 경우이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민족단위의 여러 개의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정치체제의 존속과 변화는 정치공동체의 변화와 다르다.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정치체제는 군주제로부터 바이마르공화국으로 변모되었으며 1933년에는 나치독일로 변화되었지만 독일의 정치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체제는 가치, 규범, 권위구조 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분리될 수 있다. 가치란 공동체의식의 한 부분이며 규범은 요구의 처리와 실행에 있어서의 제도화된 절차이고 권위구조란 권위분배와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실행의 공식적, 비공식적 유형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제는 이에 적응해 가지만 적응에 실패한 체제는 폭력적 혼란의 과정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파괴된다. 체제의 변화는 이들 구성요소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권위⁵⁰⁾는 정치체제가 사회에 대하여 행하는 구속적 결정과 시행에 대한

49)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Chapter 11, 12, 13

50) 권위란 타인의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타인에게 수용됨으로써

기대를 수반하며 또 이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것은 권위당국자들의 행위가 그 역할의 한계 내에 있는 한 구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기대에서 연유된다. 권위당국자의 변동이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권력집단의 변화를 말한다. 권위역할들의 구조는 체계 내에서 권력이 배분되고 행사되는 방식을 반영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정치체제의 정치적 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 채택한 사회주의는 지구상에서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비에트연방을 비롯하여 동유럽 사회주의는 이미 사멸하였다. 중국은 통치체제만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 생산양식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와의 병존을 꾀하고 있다.

북한사회는 브르제진스키(Z. K. Brzezinski)가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분류한 이데올로기의 독점, 단일 대중정당, 테러적 경찰통제, 매스컴의 통제, 군부의 통제, 중앙통제경제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극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젠슈타트(Eisenstadt)⁵¹⁾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경제침체, 주민의 각성과 이반, 체제 정통성의 약화, 국제적 위상의 추락등 네 가지 요소를 다가지고 있다. 또 메르켈(W. Merkel)⁵²⁾이 동독의 붕괴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한 정권목표의 상실, 지배집단내 갈등의 확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복지국가적 정통성의 상실, 외교적 압력 등의 조건들 중에서 남조 선직화라고 하는 정권의 목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브르제진스키의 전체주의를 유지시켜 주는 속성을 중심으로 체제에 중압을 가하는 역동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체계론적 분석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체계이론은 중첩적이고 계열적인 위기적 원인들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특히 체계진동이론⁵³⁾은 정치체제의 변동을 설명하는데에 있어서 체계 내부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동요로 인한 중압의 근원들을 권위당국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체계의 자체

그 효과가 발휘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 영향력은 상호신뢰의 정도, 전통, 문화, 개인적 능력, 복종과 거부시 나타나는 보상과 제재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지배와 복종의 수직적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Amitai Etzioni, *Modern Organiz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1964, PP.58-67; Herbert A. Simon,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54, pp.188-201.

51) S. N. Eisenstadt,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Vicissitudes of Modernity," *DAEDALUS*, Vol.121, No.2(1992), pp.2-8.

52) Wolfgang Merkel, "Warum Brach das SED-Regime Zusammen?" in Ulrike Liebert, Wolfgang Merkel(Hg), *Die Politik Zur Deutschen Einheit*, Opladen, 1991, pp.19-49.

53) 신진, "국회의원의 집단주의적 정치행태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 24집,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3, pp.2237-2241.

만환과정을 통한 대응과정, 그리고 소극적 환류와 적극적 환류과정을 통한 체계전동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정치체제의 변동에 관하여 이들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틀

2.1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관한 이론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실패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제적인 모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정권의 정치적 선택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경제적 통제의 이완, 자유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의미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L. Von Mises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마르크스의 일반적 경제법칙이 원초적으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언제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의 갈등이란 이러한 불균형, 즉 희소한 상품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물의 교환관계에 있어서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하에서만이 가장 효율적인 교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며 사회는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공동소유제도는 자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데 필요한 동기와 욕구를 이완시킨다. 따라서 공동소유제도는 개인소유제도에 비하여 비효율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생산수단이나 자원의 사용, 혹은 자원의 사용을 사적 소유제도로부터 멀리 가져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⁵⁴⁾

Hayek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⁵⁾ 그는 수천년동안이나 인간의 도덕적 전통에 따라 형성되어 온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을 신봉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인간 문명이 발전하는데 따라 조금씩 이상적인 인간의 지성이 수천년동안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단시간내에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의 집단이 만들어 낸 통제경제보다 우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사적 소유제

54) L. Von Mises,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in F.A. Hayek(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3, p.112.

55) F.A. Hayek,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Collected Works, Vol.1,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9, p.30.

도는 그의 사상의 핵심이며 진보된 문명의 도덕률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어떠한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Brzezinski는 사회주의는 자체의 내재적인 모순들 때문에 그 붕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은 정치적 불안정을 대가로 치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실패라는 비용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고 또 서방국가들이 공산주의의 독점적인 선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대중매체수단을 사용하게 되자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민주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⁵⁶⁾

Fukuyama는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책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에서 역사발전의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역사발전의 추진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 추진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과학 기술적 관점에서는 자연과학이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지욕구라고 설명한다. 현대의 자연과학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추진력의 하나이다. 각국간의 방위를 위한 군비경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요소이다. 또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동기는 인간의 지적 욕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⁵⁷⁾ 그의 아이디어는 엔트로피(entropy) 개념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체계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의 체계에서나, 혹은 심리학적인 인간의 욕구영역에서나 엔트로피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자연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지적욕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간의 군비경쟁 역시 새롭고 강력한 무기체계를 요구하는 외부의 자극이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욕구를 자극한다. 인간의 지적 욕구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외부로부터의 제한이나 억압이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후쿠야마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며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간욕구증가와 경제발전요구에 대한 통제실패를 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헝가리의 사회학자인 I. Szelenyi는 사적 소유제의 결핍이 사회주의가 붕괴하게 된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향적인 성장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 경제가 내향적 성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했으며 사회주의에는 이러한 유연성이 결핍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한다.⁵⁸⁾

56) Z.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arls Scribner's Sons, 1989, pp.230-234.

57) F.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Avon, 1991, pp.27-80.

58) I. Szelenyi,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실론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의 성립이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에 비하여 성장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북한체제가 외부와의 관계없이 폐쇄경제체제으로써 존속이 가능하다면 비효율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세계와 교류를 하게 되면 발전된 외부세계의 상품가격은 기술개발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상승한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북한경제를 더욱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실제 1970년대 중반 이후 오일쇼크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 원유가는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연, 아연 등의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폐쇄경제가 지속된 후 북한이 외부세계와 교류를 한다면 교역조건의 악화로 그 적자 폭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붕괴시킬 만큼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며 체제에의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2 전체주의 모델

공산주의체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개념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념적 혼동이나 개념간의 식별이 불명확하게 되면 그릇된 사실들을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류에 논리적으로 도달하게 된다.⁵⁹⁾ 적합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형성된 분석적인 모델은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복잡하고 중첩적인 사실들을 질서있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조직적 기능을 수행하며 사실의 인식과정에서 인간의 지각을 인도하는 발견적(heuristic)기능수행, 체계를 분석함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예측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⁶⁰⁾ 따라서 명확한 개념과 적절한 모델의 설정은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하는 데에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방법론적 분석틀은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장래를 예견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근간이 되고 있는 중요한 도구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체제이면서 병영국가적,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Friedrich와 Brzezinski는 전체주의의 일반적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⁶¹⁾ 즉 1. 공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59) Giovanni Sartory, "Concept misin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No.4(December, 1970), pp.1033-1053.

60) K. W. Deutsch, Politische Kybernetik Modells und Perspective, Freiburg, Rombach Verlag, 1973, pp.44-46.

61) C. J. Friedrich,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in Harry Eckstein and David E. Apter, Comparative Politics, New York, The Free

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독점, 2. 독재자 1인에 의해 유지되는 단일 대중정당, 3. 당과 그 간부들을 지지하면서도 감시하는 테리적인 경찰통제제도, 4. 모든 매스컴의 통제 5. 군부의 통제 6. 철저한 중앙통제경제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존하는 체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분류하고 있어서 정치체제의 역동적 변화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라는 척도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1941년 이전의 나치스 독일을 전체주의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동독이나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은 전체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르제진스키는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전체주의의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상대적 범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이 비판하는 전체주의 모델의 한계와 결함을 인정하지만 이 모델이 공산주의 체제의 한 발전단계의 주요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인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되고 철저한 리더쉽하에 중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전체주의모델이 가장 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Juan Linz는 “후기 전체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이제서 개인 경제적인 분야가 출현하기는 하지만 북한경제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는 매우 전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후기 전체주의체제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점점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을 분석하는데에는 전체주의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장차의 북한사회를 예견하는데에는 후기전체주의적 권위주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Lipset의 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에 관한 요인분석⁶²⁾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민주체제의 안정성이 경제발전과 그 정치체제의 유효성, 그리고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유효성은 실제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대사업이나 군부, 영향력 있는 국민내부의 세력집단들이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정부가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뜻한다. 그리고 정당성이란 현존의 정치체도가 그 사회에 가장 적절한 제도라는 신념이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립셋의 민주체제 안정요인들이 전체주의체제에게도 부합될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권력의 독점, 힘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는 립셋의 ‘합의에 의한 유효성’이나 ‘안정성확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학자들은 Friedrich와 Brzezinski의 연구를 기반으로 여섯가지의 특징을 보인 다각적인 면들을 수용하거나 변용시키면서 더욱 발전시켜왔다. Leonardo Shapiro는 전체주의의 특징적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전체주의체제는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윤곽

Press, 1965, pp.466-467.

62) S.M. Lipset, Political Ma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contours)과 기둥(pillars)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윤곽”, 혹은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도자, 합법적 기관의 억압, 개인윤리의 통제, 계속적인 동원, 도덕적인 지지에 근거한 합법적인 요구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둥”에 해당되는 특징으로써 “이데올로기, 잘 조직된 행정기구, 경찰과 같은 무력적 통제기구” 등을 의미한다. 전체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단일의 지도자의 특성이 당이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⁶³⁾

그동안 전체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은 이 모델이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모두 전체주의로 보고 분석하는데 따른 방법론적인 혼란에 기인한다. 그러나 혁명후 초기 공산주의 정권은 특별히 동원체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전체적이고 억압적인 특징들을 나타낸다. 물리적인 공포정치나 강압, 숙청, 정치의 독점적 통제등 전체주의적 속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때의 전체주의적 접근 방법은 공산주의 정권의 안정과 제도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치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는 고려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즉 1인 독재통치가 소수의 집단적 엘리트 통치로의 대체,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부서간의 대립과 권한분산, 기능적 전문적 엘리트와 이데올로기 중시자들간의 대립,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집단세력들, 특히 족벌집단의 영향력의 강화 등, 그리고 그러한 권력분산과 갈등으로 야기되는 정치체제의 환류효과등에 대하여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주의모델을 근거로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론적 모델을 응용하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 전체주의 모델에 북한정치체제의 정적이고 특징적인 양태들을 분석하고,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1인 혹은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책결정과정과 그 환경과의 환류관계를 분석한다면 공산주의 정치체제 특히 북한정치체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체계론적 모델

2.2.1. 체계진동이론

체계에서 발생하는 중압은 체계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주며 체계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고 체계진동의 근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체계는 적응적 자기안정화(adaptive self-stabilization)의 특성과 적응적 자기조직화(adaptive self-organization)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 체계에서의 균형(equilibrium), 유기적 체계에서의 항상성(homeostasis), 사회체계에서의 항상상태(steady state)적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체계가 정보환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이러한 환류작용으로 인해 체계가 교란되었을 때 체계는 곧 균형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63) Leonardo Schapiro,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1972, pp.18-72.

64) E. Laszlo, Introduction to Systems Philosophy: Toward A New Paradigm of Contemporary Thought, New York, Harper & Row Inc., 1972, pp.103-108.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발생하는 체계의 붕괴현상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체계 자체의 문제로서 체계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능감퇴, 정지, 또는 붕괴되는 경우이다. 체계의 자기규제기능, 자기변환기능, 자기조절기능, 환류기능 등에 이상이 올 경우 체계는 체계로서의 항상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환류통제의 핵심개념인 체계의 산출과 체계 내로 투입된 요구간의 오차의 확대 문제이다. 체계가 투입된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시간의 자체문제이다. 체계는 투입된 요구에 반응하여 산출을 만들어내기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간의 절대적 지체라고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 동안에 발생한 환경적 변화는 이미 투입된 요구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투입된 요구에 대한 산출과 환경의 현실적 여건이 만들어내는 요구간의 사이에는 시기의 지체(time lag)에 따른 오차가 발생한다. 시가지체에 따른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체계의 항상상태의 동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동요확대요인은 체계가 항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가해지는 또 다른 요구로 인한 중압이다. 도달하기 전에 다시 투입된 엔트로피의 증가요인은 체계로 하여금 새로운 항상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심한 진동을 겪게 한다.

셋째, 오차를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계의 정보전달 능력과 권위당국자들의 정보처리능력이다.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요구가 체계 내로 투입되어 권위당국자들의 정책결정 대상의 체계가 새로운 항상상태에 이슈화하기까지에는 수많은 요구규제장치가 존재한다. 이들 요구규제장치를 통과하는 동안에 요구는 변형되고 수렴되며 최종적인 이슈가 된다. 이러한 최종적 단계의 이슈화된 요구와 최초로 체계 내로 투입된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을 “이슈화 오차(issuing error)”에 의한 차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제 시간에 권위당국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보처리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체계는 안정화 될 수 있거나 혹은 더욱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체계가 항상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류순환은 체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오차를 시정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류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소극적 환류와 적극적 환류가 그것이다. 소극적 환류(negative feedback)는 체계 내에 변화가 일어날 때 변수들의 변화를 억제하거나 저항하는 작용으로써 정상적 체계범주로부터의 이탈효과를 최소화하여 일반적으로 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 환류(positive feedback)는 체계내의 변수들에 변화가 발생할 때 이 변화를 더욱 조장시켜주는 작용이다. 그리하여 체계기능의 정상적 범주로부터 이전의 이탈을 더욱 촉진시켜서 체계의 불균형적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체계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⁶⁵⁾

65) Yong-Pil Rhee, *The breakdown Authority Structure in Korea in 1960*,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26.

정치체계에서 권위당국자와 사회간의 매개적 기능을 하는 기구 혹은 요구 여과장치들의 역할과 제도화⁶⁶⁾가 약화되고 제거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양자간의 직접적 충돌로 나타나며 이러한 충돌은 점점 격화되고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의 진동이 더욱 확대된다. 다렌도프(R. Dahrendorf)는 대부분의 정치적 갈등의 격화는 정치권력과 국민대중 간의 직접적 충돌로부터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갈등적 정치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대규모 탄압조치는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킨다. 카리스마가 국가통치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되어 온 정치구조에서 카리스마가 소멸되면 곧 정치권력과 국민과의 매개장치, 요구 여과장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며 국가와 사회간의 매개적 기구들을 파괴하고 제거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흡수할 수 있는 갈등의 완충장치 혹은 요구의 제도적 규제장치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 결과 정치권력은 사회와의 직접적 충돌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급격하게 격화된다.⁶⁷⁾

체계의 진동이 확대되어 체계가 붕괴에 이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체계의 진동에 있어서 체계의 진동수와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면 그 진폭이 커지게 된다. 이를 공진 주파수에 있어서 강제진동 혹은 공명이라고 한다. 즉 구동자의 진폭이 대단히 작을 때라도 구동진동수가 계의 고유진동수와 같을 때 계는 큰 진폭으로 진동한다. 고유진동수에 대한 구동진동수의 비율이 1 일때, 즉 진동수가 상호 같을 때 그 진폭은 최대가 되며 감쇠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진동의 공진진폭은 무한히 커지게 된다. 이때 공진진폭이 그 계의 탄성한계를 넘어서서 계의 요소의 파괴점에 이르게 된다.⁶⁸⁾

정치체계 내에서 각각의 사건들은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제요소의 작용, 자동조절기능 등의 감쇠력에 의하여 각 사건이 체계의 진동에 주는 여파는 점점 감쇠되어간다. 그러나 감쇠되고 있는 진동에 대하여 그 사건과 동일한 진동수를 가진 구동진동수를 가하게 되면 그 진폭이 다시 최대가 되는 것과 같이 감쇠하는 정치적 사건의 여파에 대하여 다시 발생하는 정치적인 동요들은 그 체계의 진폭을 최대화시킨다. 계속적인 정치적 동요사태의 발생은 정치체계의 진동을 확대하여 체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정치체계를 붕괴시킨다.

체계진동의 확대에 관하여 포터(Arthur Porter)는 강제진동(forced oscillations)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증폭계수 $K > 1$ 일 때 시간의 진행에 따라 진동이 점점 증폭되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단진자운동에 있어서 추의 지탱점이 추의 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일 때 단진자운동의 진폭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이분으로써 체계진동의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⁶⁹⁾ 그러나 그는 체계의 안정과 불안정을 나타내주는 모델(a

66) 制度化란 조직과 절차가 가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67) Ralf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p.65 ff.

68) 공진할 때의 진폭의 크기는 체계의 감쇠량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model for demonstrating stability and instability)을 구성함에 있어서 체계진동의 증폭이론에 관하여 시간과 진폭간의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등시간적으로 진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체계진동의 확대이론에 관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정치체계의 진동 확대는 작용-반작용에 의한 단순한 증폭과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가 점점 단축된다. 그리하여 불만을 품은 구성원들과 권위당국자들간의 충돌은 처음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이 되다가 이러한 작용-반작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그 충돌이 점점 급속하게 진행된다. 포터의 이론적 모델은 이러한 진폭과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계 붕괴과정은 물리학에서의 단진자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추의 길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단진자운동을 하던 하나의 체계로부터 추의 길이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상태를 가정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다.

$$\theta(t) \approx \frac{\theta_{init} \cos \left(\sqrt{\frac{g}{l(t)}} t + \phi \right)}{\sqrt{l(t)}}$$

θ_{init} : 최대변위(초기의 진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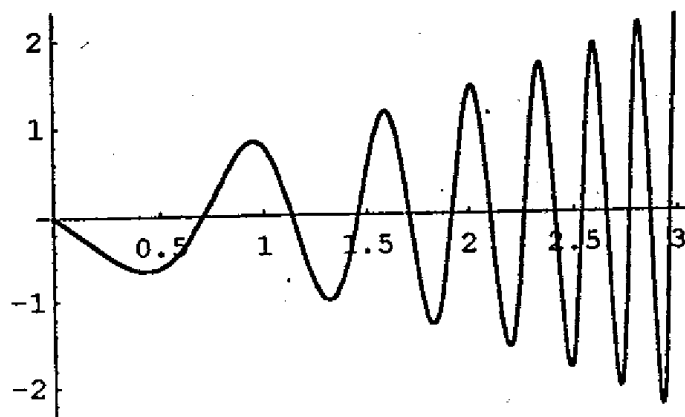
θ_m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의 길이가 변한 후의 진폭

$\theta(t)$: 어느 순간의 변위

limit : 초기의 추의 길이

$l(t)$: 어느 순간의 길이

<도표 1> 체계진동모형



위의 공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의 길이가 짧아지면 주기가 짧아지면서 진폭이 커지게 됨으

69) Arthur Porter, Cybernetics Simplified,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70, pp.113-118.

로써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진폭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 그림은 정치체계 내에서 권위당국자와 환경간의 매개체의 제도화가 약화될 수록 각각의 사건이 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확률이 더욱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동력은 체계의 진동을 확대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즉 정치체계의 경우에 있어서 체계의 지탱점인 정치체계의 권위당국자들과 체계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변동요인간의 간격이 중간의 매개체를 제거하여 더욱 가깝게 되면 그 체계진동의 주기는 더욱 짧아지며 그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요구의 규제장치기능이 마비되거나 붕괴되어 중간의 매개체가 요구를 규제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치체계는 직접 국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며 체계에 대하여 상당한 중압을 야기시킨다. 이에 대하여 권위당국자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정책을 산출하게 된다. 이 때의 정책이 체계안정적이면 체계의 진동은 곧 상쇄되어 평형상태로 돌아간다. 단진자 운동에서 주어지는 구동력이 단진자운동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어지서 운동을 억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단진자운동에서 추의 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어지는 구동력은 단진자운동의 진폭을 확대하는 것처럼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정책의 산출은 체계의 진동을 더욱 확대하여 정치체계 전체를 붕괴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진폭의 확대는 주기가 감소되면서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진폭이 최대로 확대되어 체계가 허용할 수 있는 가용량 (체계기능의 정상기능 범주) 을 넘어서게 되어 체계를 붕괴시킨다.

추의 길이가 짧아지면 주기가 짧아지면서 진폭이 커지게 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진폭의 증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치체계 내에서 권위당국자와 환경간의 매개체의 제도화가 약화될 수록 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구동력은 체계의 진동을 확대하게 된다. 정치체계의 경우에 있어서 체계의 지탱점인 권위당국자들과 체계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동요현상 간의 간격이 중간의 매개체를 제거하여 더욱 가깝게 되면 그 체계진동의 주기는 더욱 짧아지며 그 진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요구의 규제장치기능이 마비되거나 붕괴되어 중간의 매개체가 요구를 규제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 정치체계의 권위당국자는 직접 국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며 상당한 중압을 받는다. 이에 권위당국자들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정책을 산출한다. 이 때의 정책이 체계안정적이면 체계의 진동은 곧 상쇄되어 평형상태로 돌아간다. 단진자 운동에서 주어지는 구동력이 단진자운동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어지서 운동을 억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단진자운동에서 추의 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어지는 구동력은 단진자운동의 진폭을 확대하는 것처럼, 산출된 정책의 성격에 따라 체계의 진동이 더욱 확대되기도 하며 정치체계 전체가 붕괴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진폭의 확대현상은 주기의 감소현상과 병행하여 나타나면서 대단히 짧은 시간 내에 그 진폭이 최대로 확대되어 체계가 허용할 수 있는 능력 (체계기능의 정상기능 범주) 을 넘어서게 되어 체계를 붕괴시킨다.

체계의 환경과 권위당국자들 간의 투입과 산출이 제도화된 원활한 매개적 기능을 배제한 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체계는 안정보다는 불안정하게 되며 체계의 진동은 더욱 확대된다. 이 때 체계의 진동이 항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가해지는 체계진동 요인으로서의 정치적 동요사태들은 체계의 진동을 확대한다. 이러한 극대화된 진폭이 체계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할 때 체계가 붕괴된다.

2.2.2. 네겐트로피

그러나 화학반응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의 실제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에서도 우주의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⁷⁰⁾ 엔트로피는 체계에 있어서 무질서의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체계내의 무질서의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체계와 환경과의 무질서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개방체계에서는 이러한 불가역적인 과정에 의한 엔트로피의 증가현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환경으로부터 negative entropy를 가진 에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체계 내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억제하여 체계의 항상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기존의 엔트로피 상태를 감소시키기까지 하여 체계내의 질서를 높여주고 조직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생명체계가 생명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이유이다.

열역학 제 2 법칙에 의하면 폐쇄체계에 있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많은 확률적 분포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최대의 무질서 상태로 가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비가역적인 증가법칙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발달이나 진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리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높은 질서화와 조직화의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순은 개방체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결된다. 즉 모든 체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므로 질서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나, 특히 개방체계에서는 NEGATIVE 엔트로피를 체계내로 투입함으로써 항상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체내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킴으로써 질서와 조직화를 진행시키기도 한다.⁷¹⁾ 이러한 문제는 Prigogine의 확장된 엔트로피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폐쇄체계에서의 엔트로피는 CLAUSIUS 의 방정식에 따라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다:

$$dS \geq 0$$

70) 엔트로피의 개념을 통계역학적으로 정립하는데 공헌한 사람은 볼츠만(Ludwig Boltzmann, 1844-1906)이었다. 볼츠만은 주어진 상태에서 분자들의 배열방법의 수(W)를 이용하여 엔트로피(S)가 증가한다고 증명하였다(Dickerson, et. al., 1980: 605-606)

$$S = k \ln W$$

k는 매 분자당의 기체상수로서 볼츠만 상수이며 ln은 Logarithm을 의미한다. 이것이 볼츠만의 엔트로피에 대한 확률적 정의이며 통계역학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열역학적 엔트로피와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 사이에 중요한 원칙이 성립되게 되었다.

71) Bertalanffy, op.cit., pp.39-41.

그러나 개방체계에서는 엔트로피의 총변화가 PRIGOGINE 의 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dS = deS + diS$$

dS 는 체계내에서의 엔트로피의 총변화량을 나타내며, deS 는 체계내로 유입된 외부 엔트로피를 나타내며 diS 는 체계의 비가역적인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내부 엔트로피를 말한다. diS 가 일정하거나 혹은 증가하는 반면에 dS 는 외부로부터 충분한 에너지가 체계 내로 유입되면 dS 는 Negative가 될 수도 있으며 결국 전체의 엔트로피는 감소될 수 있다.⁷²⁾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엔트로피 deS 는 positive일 수도 있고 또 negative일 수도 있다. 이러한 negative엔트로피의 투입이야말로 슈뢰딩거 (Schrodinger) 가 말하는 “조직체는 negative엔트로피를 먹고 산다.”고 하는 진술의 기초이며 조직체의 negentropic 경향이다.

생명체계는 본질적으로 개방체계이다. 개방체계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물질 교환 과정 즉 어떤 요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내 보내기도 하며 어떤 요소를 성장시키기도 하며 또한 소멸시키기도 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어떤 조건하에서 개방체계는 소위 “항상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의 상태와는 독립적이며 또한 자기체계의 parameters 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태는 그 체계의 평형상태와는 또 다르다. 이러한 항상상태(steady state)는 다양한 초기상태로부터도 도달될 수 있으며 다양한 교란과정을 겪은 후에도 동일하게 도달되는 것이다.

개방체계는 최대의 엔트로피 가용량을 확보하면서 항상상태에 이르기까지 생명활동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를 투입하여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억제하고 단위용량당 엔트로피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장한다. 생명체계가 일단 최대의 엔트로피 가용량을 갖는 항상상태에 도달한 후에는 쇠퇴의 과정을 시작한다. 체계는 더이상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는 체계의 단위용량당 엔트로피의 양을 증가시키게 된다. 단위용량당의 엔트로피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전 체계의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러한 엔트로피의 증가가 그 체계가 허용할 수 있는 엔트로피의 총량의 한계 즉 그 체계의 스톱포인트(threshold)를 넘어설 때에는 그 체계가 사멸하게 된다.

개방체계와 폐쇄체계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폐쇄체계는 엔트로피의 계속적인 증가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쇠퇴하게 되나 이에 반하여 개방체계는 엔트로피의 감소경향인 네겐트로피적인 경향을 갖게 되어 구조를 정교화 할 수 있게 된다. 체계는 체계 내의 엔트로피의 증가만 억제한다면 영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

72) Kenneth D. Bailey, Social Entropy Theory, Albany, New York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80-81.

3. 체계의 안정

김일성이 사망하고 난 직후인 1994년 8월에는 북한의 로동신문이 “일단의 야심가들과 그 동조자들이 조선로동당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경고성 논설을 발표하여 김정일체제의 승계 과정에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와 동시에 경비가 삼엄한 평양의 외교가에 반 김정일 전단이 살포되었다는 하는 보도와 함께 김정일체제의 위기가 보이는 듯했다. 실제로 약 3개월간을 김정일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0일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보내는 사적 편지에서 “김정일 각하, 조선인민공화국의 최고지도자”라고 언급하였으며 북한은 미국이 김정일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확산조약(NPT) 탈퇴와 미국과 합의한 1994년 8월 12일의 제네바 합의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매우 획기적이고 가장 큰 외교적 승리라고 자축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김정일의 공적이라고 선전하였다. 김정일은 그가 정권을 인수하면서부터 북한의 국익을 위하여 수행한 업적으로 가지고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혁명적 혹은 국가수립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발휘되는 지도력으로서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김정일은 체제보전과 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의 병립하기 어려운 정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개방에 있어서 중국식을 다르지 않고 경제건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독일식으로 흡수통일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김정일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3.1 군부의 지지 확보

공산주의 사회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은 군경험이 전혀 없는데 군부의 지지가 권력의 안정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김정일을 군부에 이식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심스러우면서도 치밀한 계산에 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작업이었다.⁷³⁾ 그는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다. 국방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일차적 수순이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1992년 4월에는 북한군의 원수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부의 실세들을 확보하기 위해 1992년 4월 23일에 664명의 군 장성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이름으로 진급시켰다. 김정

73) 신진, “남북한 교류확대와 전쟁위기가 북한언론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학술논문집, 제 5집 제 2호, 1994, pp.391-398.

일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는 원수별을 달아주었으며 총참모장 최광에게 차수별을 달아주었다.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 김일성은 1992년 북한의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부분별 위원회에 불과하던 것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기관」으로 그 위상을 높였다.(헌법 제111조) 개정 헌법은 주석이 보유하고 있던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이관하였다.(헌법 제113조) 그리고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하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114조 1)

이러한 수순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중에 권력의 핵심인 군권을 김정일이 장악하도록 고려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을 맡기려는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권력 내부에는 이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군부는 차기의 지도자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받고 있으며 국방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사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당중앙 군사위원회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즉 군부의 우대이며 지위상승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군대의 경험이 전무하고 군부에 대한 공헌이 전혀 없는 가운데 김정일로 인하여 북한 군부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인하여 군부가 김정일을 지지할 것으로 계산하였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의 지휘 통솔권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게 있었기 때문에⁷⁴⁾ 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군간의 갈등에서 군부는 당 간부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당내외의 반체제세력의 반발을 통제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1993년 3월 8일 한국에서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준전시상태」를 선포⁷⁵⁾하였다. 김정일은 북한 지역에 이러한 비상사태를 유지함으로써 일체의 비판을 불허하고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⁷⁶⁾함으로써 실제 전쟁이 발발할수도 있음을 북한주민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준전시상태」 선포(1993. 3. 8.)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시 군중집회」를 시발로 각도별로 군중집회를 잇달아 개최하였다.⁷⁷⁾ 또한 북한전역에서 150만명의 청년학생들과 수십만명의 제대군인들을 자원입대형식으로 군에 징집 복귀시켰다. 평양에서는 등화관제훈련과

74) 1980년 채택된 조선 노동당 규약 27조: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1992년 신 헌법은 1980년 노동당규약보다 우선하여 무력의 지휘통솔권이 당중앙에서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나타낸다.

75) 노동신문 1993. 3.9.

76) 노동신문 1993. 3.13.

77) 노동신문, 1993. 3.9.- 10.

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1993. 3.12.)에 이어 정부성명(3.12.)과 외교부 비망록(3.15), 조선 반핵평화위성명(3.22.)등은 북한에 대한 압력은 곧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⁷⁸⁾ 또 1993년 3월 15일의 모스크바 방송은 북한에서 3월 24일이나 3월 26일경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날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특별사찰 수용촉구 결의안」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평양이 등화관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⁷⁹⁾ 즉 북한주민들에게 유일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일체의 일탈행위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⁸⁰⁾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아무런 전쟁도발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⁸¹⁾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국내정치용으로써 김정일의 군정과 군령권을 장악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파악된다. 즉 김정일은 이렇게 삼엄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삼엄하게 유지⁸²⁾한 직후 국방위원장에 선출되는데에 성공하였다. 1993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5차회의 마지막날,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⁸³⁾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부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로동신문이 전하는 국방위원장의 선출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인민회의에 관하여 로동신문은 4월 8일-10일의 전면을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게재하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선출에 관한 기사는 4월 10일 기사에 한번 그리고 다음 2일동안 외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내부 불만을 최대한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 후에도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군부와 당내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은 이어서 1993년 7월 19일에는 6.25전쟁 참전 원로군관과 장령 99명을 승진시켰다.⁸⁴⁾ 이에 앞서 7월 16일에는 오진우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로병」을 대표하여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론설을 로동신문에 발표하게 하였다. 또 김정일이 다수의 장성에게 승진계급장을 달아준 다음날인 7월 20일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총참모장인 최광으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론설을 게재하게 하여 북한 군부의 지지를 확고히

78) 내외통신, 종합판(48), 1993. 4.1.-6.30., 내외통신사, p.221.

79) 내외통신, 종합판(47), 1993. 1.1.- 3.31., 내외통신사, p.339.

80) John Meril, "North Korea in 1993- in the Eye of the Storm-", Asian Survey, vol 34, No.1, January 1994, p.12.

81) 내외통신 종합판(51), 1994. 1.1.-3.31. 내외통신사, p.377.

82) 김정일은 1993년 3월 24일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83) 로동신문 1993. 4. 10.

84) 로동신문 1993. 7. 22.

하는데 빈틈이 없었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김일성 추도대회(1994. 7. 20)를 맞아 이전에 40-100위의 서열에 불과하던 김정일파 고위 장성들(차수)을 22-27위까지의 서열로 급상승시켰다. 이어서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일(1994. 10. 16)에는 백학립, 김봉룡, 김광진, 김익현을 17위에서 20위로 승진시켰다.⁸⁵⁾

이것은 김일성 사후 권력의 공백기에 김일성을 지지하는 군부세력 즉 군 원로그룹을 승진시킴으로써 권력구조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들로 하여금 김정일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율타리 역할을 하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백학립은 1918년생으로 김일성의 전령출신이다. 김광진도 1918년생으로서 6.25동란 때는 인민군을 끌고 대구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 후 1992년 김정일과 오진우가 원수로 승진할 때 최광, 김광진, 이을설, 주도일, 최안덕, 이두익, 김봉룡 등과 함께 차수로 진급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에 따라 김일성의 율타리 역할을 했던 군원로들로 하여금 김정일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권력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이들을 김일성 사망 이전의 서열로 복귀시켰다.

1996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2주기 중앙 추모대회에서는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서열 29위에, 그리고 백학립 사회안전부장을 서열 30위에 복귀시켰다. 그러면서도 이을설호위총국장은 서열 11위에, 조명록 군총정치국장은 서열 12위에, 김영춘 군총참모장은 서열 13위에 승진시켜 김철만(국방위원 서열 14위), 최태복(당비서 서열 15위), 양형섭(최고인민회의의장, 서열 16위) 등 정치국 후보위원들보다 처음으로 서열이 앞서게 되었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권력의 공백기에 군부내 지지파의 위상과 세력을 확보하는데에 무엇보다도 먼저 힘을 기울였다. 1995년과 199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의 군관계 기관의 방문이 대단히 활발해졌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은 1996년부터 인민군 창건일인 4월25일을 국가적 명절로 격상시켜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⁸⁶⁾

3.2 권력기반의 상대적 견고성

북한 노동당 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는 4년마다 열리게 되어있으나 1차당대회는 1946년 8월, 2차당대회는 1948년 3월에 열렸다. 3차당대회는 6.25전쟁을 이유로 1956년 4월에 개최되었으며 4차당대회는 1961년 9월, 5차는 1970년 11월, 6차는 1980년 10월에 각각 열렸다. 그런데 1차 당대회에서부터 6차 당대회까지 유일하게 노동당 중앙위원으로써 자리를 지킨 사람은 김일성 한 사람 뿐이다. 김일성은 권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다 숙청하는데 성공하여 더 이상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에 성공하였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것처럼 전체주의 독재자는 그 핵심세력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내고 이들 인사를 교체하는 능력

85) 김성철 외, 김정일 승계체제 광고와 동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4. p.11.

86) 내외통신, 제 1021호, 서울, 내외통신사, A2.

에 그의 존속이 달려있다⁸⁷⁾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치행태를 나타냈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으면서 정치 일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위원으로 선출되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1974년 이래로 김정일은 권력엘리트들을 자신에 대한 지지파로 만드는 데에 노력해 왔다. 정치위원회 정위원 가운데 김동규만이 1976년 6월에 김정일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다 1977년 10월에 숙청 되었을 뿐 그 이후 정치적인 문제로 숙청된 사람은 거의 없다.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정치위원회 정위원 11명과 비서국 10명 가운데 숙청된 사람은 각각 1명씩 뿐이며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정치국 정위원 19명과 비서국 10명 가운데 숙청된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이것은 1970년까지의 정치적 격변기와 계속되는 숙청기를 거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엘리트만을 선별하는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치문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후계자로서의 김정일은 약 20년간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다. 오히려 갈등관계에 있었던 삼촌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 이복동생 김평일 까지도 포용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것은 북한정치가 김일성-김정일체제로 안정되어 전문엘리트적 능력위주로 평가받는 시기와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는 당비서국에 충성심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겸비한 엘리트들이 대거 진입하게 되었다.

1980년 제 6차 당대회까지는 군출신이 점차 증가하여 26%에 이르고 있으며 군출신으로서 당과 정무원 모두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도 8%에 이르고 있었다. 또 당과 정무원에 동시에 소속된 겸직 엘리트도 점차 증가하여 6차대회때는 38%에 달하고 있어서 노동당에 의한 지배를 확실히 하고 있다.⁸⁸⁾

또 6차 당대회때 선출된 14명의 정치국 정위원 19명 가운데 7명(37%)이 군인이었⁸⁹⁾던데에 반하여 1989년 말에는 14명의 정치국 정위원가운데 2명만이 군인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체제가 안정되자 체제안정에 필요한 군인들의 소용가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경제건설을 위한 전문엘리트의 등용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89년부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김정일은 당성과 혁명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군인들을 다시 승진시켰으며 어느정도 체제가 안정된 1996년

87) Hannah Arendt, "The Totalitarian Leader," in Barbara Kellerman ed., *Political Leadership: A Source Book*, Pittsburgh,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212-213.

88)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p.138.

89)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204.

7월에는 일부 군부실세의 서열을 더욱 상승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김일성 생존시의 서열로 복귀시켰다.

김정일은 우선적으로 김정일의 친인척들을 당정의 주요 위치에 배치했다. 이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신성가족으로서 향후 권력구조의 붕괴나 반란에도 끝까지 김정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서열이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김정일의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집단이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일수록, 그리고 그 집단내의 비공식조직에 의한 혜택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비공식집단에 의해 공식조직은 무시되며 비공식조직 가입자는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갖게되어 그 집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⁹⁰⁾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공식조직에서와 비공식조직에서의 정점을 김정일이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응집력은 어떤 집단보다도 강하며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분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최상층 지배집단은 최고의 특권을 향유하면서 김정일과는 친인척관계, 학교 동문관계, 혹은 혁명유자녀로서의 공동운명체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남산인민학교 인민반에 입학한 후 6.25 전쟁 중에는 중국 동북지방으로 피난 갔다. 그 곳으로 피난와 있던 만경대 혁명유자녀학원 인민반 4학년에 편입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평양의 삼석인민학교와 평양제4인민학교를 다녔다. 1954년 평양제1초급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1957년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했다.

<도표 2> 김정일의 친인척과 서열변동

당서열 ('95)	성명	연령	관계	비고	당서열 ('96)	직위
1	김정일	54(1942년)	본인	김일성아들	1	
4	박성철	83	4촌고모부	김일성사촌매부	3	부주석
5	김영주	74	숙부	김일성동생	4	부주석
17	양형섭	71	사촌고모부	김일성고종사촌매부	16	최고인민회의의장
24	황장엽	73	사촌매부	김일성조카사위	21	당비서
27	김용순	62	외삼촌?	김정숙동생	23	당비서
30	김창주	74	숙부	김일성사촌동생		
45	김경희	50	누이	김일성장녀		당중앙위원
53	이용무	73(?)	사돈	김일성조모이보익조카		당중앙위원
64	강현수	71	외삼촌	김일성외사촌동생		중앙인민위원회
80	장성우		사돈	김경희남편장성태의형		당중앙위원
98	김성애		게모	김일성후처	12('95) 34('96)	당중앙위원

출처: 통일한국 1996.8(서울, 평화문제연구소)와 서울신문사편 북한인명사전(1995)(서울, 서울신문사, 1995)를 중심으로 재구성

90) Erving Goffman, *Asiles: études sur la condition sociale des malades mentaux et autres reclus*, Paris, Doubleday & Company, Inc., 1968, p.249.

1964년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현재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자는 당서열 100위 가운데 25명이다. 그리고 김일성대학 출신자는 34명이다. 이중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이면서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3명이다. 이것은 당서열 100위 가운데 46명이 만경대 혁명유자녀학교와 김일성대학교의 동문으로 남다른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빨치산 세대는 고령이기는 하지만 13명이 당서열 100위에 들어 있으며 김정일과 같은 빨치산 2세는 임수만을 제외하고는 12명 모두 만경대 혁명학원출신이다 또한 김구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동문이기도 하다.

이들 빨치산 2세들이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뿌리 깊으며 김일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입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모두 당에서 높은 서열을 점하고 있으면서 김정일과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지배집단은 이와같이 철저하게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당서열 100위 중 46명은 김정일과 학교동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당수는 이중적으로 학교 동문이거나 빨치산2세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외에도 13명은 빨치산세대이다. 혁명1세대들은 고령이지만 북한사회의 최고 원로집단으로서 김정일체제의 동요요인에 대항하여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계후손인 빨치산 2세들은 북한식의 귀족가문 출신이므로 김정일체제 옹호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다. 김정일의 핵심적인 유대라고 할 수 있는 친인척만도 당서열 100위 이내에 12명에 이른다.

결국 북한의 최상층 지배집단은 김정일과 혈연과 같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김정일에 대한 갈등이나 불만으로 인한 쿠데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동문이 아닌 엘리트들간에 파벌경쟁은 있을 수 있으며 동료들간에 충성경쟁을 위한 알력과 음모는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 대한 도전은 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주변에 포진한 김정일의 측근세력의 성향으로 볼 때 김정일에 대항한 쿠데타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김정일은 그의 나이 또래의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그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사회의 경제와 과학,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달리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김정일은 그의 통치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경제건설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은 8.3.인민소비재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해 왔으며 개방과 무역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표 3> 지배집단의 유대관계

당서열	성 명	연 령	당정직책	만경대	김일성대	빨치산	군 부	인 척
1	김정일	54	정치국상부위원, 중앙 군사위원비서	0	0	2세	원수	김일성의 아들
2	강성산	65	정무원 총리	0	0	2세		
3	이종옥	80	부주석			1세		
4	박성철	83	부주석			1세		김일성의 4촌매부
7	김영남	71	외교부장		0			
8	최 광	78	정치국위원, 중앙군사위원			1세	국방위부 위원장, 총 참모장, 차수	
10	전병호	70	당 군수공업 검열부장	0	0			
11	한성룡	73	당경제정책검열부장	0	0			
12	서윤석	68	평남인민위원장	0	0	2세		
13	김철만	78	제2경제위원장			1세	국방위원, 대장	
14	최태복	67	당비서, 당 과학교육부장	0	0	2세		
15	최영림	67	정무원급속공업부장		0			
16	홍성남	72	부총리		0			
17	양형섭	71	최고인민회의의장		0			김일성의 고종4촌 매부
18	홍석형		국가계획위원장					
19	연형묵	65	중앙인민위원	0	0			
20	이선실	80	정치국 후보위원					
21	김철수		국가안전보위부장(?)				상장	
22	김가남	70	당중앙위원, 비서, 당 선전선동부장		0			
23	김국태	72	당중앙위원, 비서, 당 간부 부장	0	0	2세대		
24	황장엽	73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0			김일성의 조카사위

당서열	성명	연령	당정직책	만경대	김일성대	빨치산	군부	인척
25	김중린	72	당중앙위원,비서					
26	서관희	73	당중앙위원,비서					
27	김용순	62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0			김정숙의 동생(?)
28	김 환	67	부총리,화학공업부장	0	0	2세대		
29	김복신	71	부총리,경공업위원장					
30	김창주	74	부총리		0			김일성의 4촌동생
31	김운혁	70	부총리					
32	장 철	70	부총리,문화예술부장					
33	공진태	71	부총리, 인민봉사위원장					
34	윤기복	70	중앙인민위경제정책 위원장					
35	박남기	68	평양시행정경제위원 장					
36	전문섭	76	국가검열위원장			1세대	대장	
37	유미영	82	대의원,천도교청우당 위원장					
38	현준극	74	당국제부장	0				
39	원동구		대의원					
40	이하일	60	당군사부장				국방위원, 대장	
41	김익현	?	당민방위부장			1세대	차수	
42	이창선	71	당사회문화부장		0			
43	오극열	68	당작전부장		0	2세대		
44	권희경	68	대의원					
45	김경희	50	당경공업부장		0			김일성의 장녀
46	강석송	73	당역사연구소장		0			
47	채희정	72	당계획재정부장		0			
48	노명근		대의원					
49	전하철		대의원					
50	김두남	69	당중앙군사위 의원				대장	
51	백학림	78	사회안전부장				대장	

당서열	성 명	연 령	당정직책	만경대	김일성대	빨치산	군 부	인 칙
52	지창익		중앙인민위 서기장					
53	이용무	73	교통위원장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54	이지찬		진력공업원원장					

3.3 주민 지지확보노력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은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혜택을 볼 때
 라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자신의 체제에 대하여 자신감과 만족감, 그리고 우월
 감을 가져야만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 체제를 수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해방
 후, 북한에서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국가와 체
 제에 대하여 신념과 긍지를 가짐으로써 6.25전쟁 당시 이들이 희생적으로 대치할 수 있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인민들에게 빈 밥그릇만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
 해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도 가질 수 없다
 고 강조한다.⁹¹⁾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의 소비재 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4년 8월3일 8.3. 인민소비재생산
 운동을 전개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사고는 교조주의적인 사상주의만 가지고서는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데로 이어진다. 김정일은 인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농업의 혁신을 통하여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고, 경공업혁명을 통하여 일상생활용품
 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3년 말 제 3 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정일 주도하에 우선적으로 완
 충기를 갖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하여 인민의 소비생활에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는 김정
 일체제의 측근세력들에 의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 일선 관서에서는 김정일의 이
 러한 정책지시를 받고 북한의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려 간다거나 물건을 구하려 여행중 없이 다
 니는 여행에 대하여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경직된 사회주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문제점은 식량등 생활필수품과 소비재의
 공급부족, 생산 원자재 및 중간재와 에너지 공급부족, 투자재원의 공급부족, 산업시설과 기술의

91)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인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4.2.16);
 김성천,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화, 서울, 1993, 민족통일연구원, p.60.

낙후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은 사회체제와 정책적인 면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보호를 위한 폐쇄적 자급경제체제의 추구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경제체제에서는 주어진 생산목표량의 달성을 위해 자재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거래, 자재 은닉, 생산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조악한 생산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또 주체사상에 의한 경제통제로 인해 대외적인 경제관계가 경직되어 나타나고 비효율성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 낙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사적 이윤동기 보장체제의 제도적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적 파국 직전에 처한 북한경제는 국가 주도의 경제구조로서는 생산과 유통 모든 것이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법령으로는 금지된 개인들의 장사체제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극한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장사를 하기도 하며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만들기도 한다. 또 텃밭을 이용하고 곡식을 기르고 가축을 사육하여 내다 팔기도 한다. 텃밭사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법으로는 금지된 것이기는 하지만 관용적으로 묵인과 처벌이 적당히 병존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이들의 자생적인 경제활동에 의해 생존해 간다고 할 수 있다. 주민 개개인의 사적 이윤동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북한 경제는 식량부족사태에서 우선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북한경제의 급속한 도약도 가능하다.

문제는 경제적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일정권이 정권의 안녕을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사적 이윤동기의 보장정책”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3.4 테러적 경찰통제제도의 유지

북한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테러적 경찰기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당기구와 국가안전기획부, 사회안전부 등이 이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기구에 있어서의 조직은 생산단위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도당조직, 중앙당조직으로 유기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당원 상호간과 일반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이 하나의 임무로 되어 있다. 특히 당간부와 당원들을 감시 통제하는 기구는 당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이부는 국가의 전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3선(당조직계통, 행정계통, 보위보계통), 3일보고통제를 통해 감시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당, 반체제음모자, 간첩색출, 국내외정보수집, 정치범 감시 등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다. 교화소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북한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구이다. 사회안전부는 치안을 담당하는데 체제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구이다.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독재구역을 설치하여 약 2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감금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반체제적 사상에 대한 조건반사적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테러적 경찰기구들은 북한주민들을 적절한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시키기도 하며 이디론가 데려가서 영원히 소식이 끊어지는 경우도 비밀비제하다. 또한 고문과 최악의 감옥상태는 북한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재판절차 없이 정치범으로 몰려 특별구역 수용소에 수감된다.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²⁾

이러한 공포정치로 인해 체제에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반체제 전단이 살포되기도 한다. 1996년 8월 초에 귀순한 고준은 1994년 초에 평남 성천군과 양덕군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청년들이여 일어나 싸우자” 등의 내용이 담긴 삐라가 살포된 적이 있으나 주모자는 곧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전한다.⁹³⁾

1994년 8월경 언론에 공개된 북한주민의 공개처형 공고문은 북한 공포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북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은 갈수록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북한의 여행허가제와 일반인 출입통제지역이 북한 전역의 45%에 이르는 것은 알려진 바이다. 또한 신체장애자들을 「제재종 관리소」에 강제 수용하여 강제피입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것으로서 국가 이전의 권리이며 국가초월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라 할지라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판단하는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신체상의 이유로 이들을 격리, 단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인간 존제에 대한 부정이다.

인권은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체제유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내 인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공민으로서의 공민권만 존재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권력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며, 국가내적인 권리이다. 또한 유물론적인 인간관에 입각하여 물질적 수단에 의해서만 공민권이 보장되며 특히 공민권의 핵심은 노동의 권리이다.

북한에서 인간은 인간이 만든 체제나 이념 이전에 각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삶을 누릴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생물적 욕구

92) U.S. Department of State, Democratic People's Rep. of Korea Human Rights Practices, 1995, Internet, March 1996.

93) 한국일보, 1996. 8. 13.

이외에도 정신적 욕구를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계발, 활용하여 정신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국무부, 미국 아시아워치, 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원회등 많은 국제적 인권기관이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서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일관된 태도는 “이들 보고서 내용은 전부가 거짓이며 조작된 것이다. 만일 그런 보고서가 발행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1994년 8월 보도된 공개처형 사진에 대하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처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유지의 핵심은 인권탄압에 기초하고 있다.

4. 체계의 진동확대

4.1 이데올로기와 리더십의 균열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에는 최대의 위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신화적 존재가 된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에게는 오랜시간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한 것은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김정일만이 김일성의 유업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기능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론적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김일성의 유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계자들의 경쟁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후계자로서 위치를 굳혀 온 관행과 엘리트그룹의 지지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김일성이 물려주고 간 북한의 경제상황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최악이 되고 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북한의 경제는 거의 1/4이나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1996년까지는 홍수피해와 구조적인 농업실패로 인해 극심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 지방에서는 식량확보를 위한 주민소요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했던 지방간의 여행도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곧 정보유통과 함께 자유의식의 신장을 위한 첫걸음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또한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과 우호가 격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경제통상이 붕괴되어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서방세계와 거래할 수 있는 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도약단계에 이르는 수 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하여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과 특히 나진-선봉지구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한

국의 박정희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건설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면한 이러한 위기들은 북한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권력투쟁과 민중봉기 등을 야기시켜 조만간 북한정권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은 의외로 체제 안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⁹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지리적으로 폐쇄되고 고립되어 외부의 정보가 북한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교통이 차단되었으며 이웃한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여 어느정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대에 사상과 문화의 침투와 교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텔레비전에 의한 정보의 유입도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텔레비전은 미국과 같은 NTSC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은 유럽과 같은 PAL방식을 채택하여 외국의 텔레비전 전파가 북한내 주민들의 의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차단된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과 외국, 특히 한국을 적절하게 비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화과정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하고 치밀하여 현존의 정치체제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체제에 대한 도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들고 있다.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 역시 철저하다. 식량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북한의 지방에서의 폭동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그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그동안의 이동과 여행에 대한 통제제도 때문이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후계자론'을 통하여 합리화시켰다.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후계자문제가 나오는 것은 김일성의 혁명위업이 장기성을 띠며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지목된 것은 그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김일성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모든 위대하고 비범한 사상, 그리고 정신적인 품모와 특질을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김일성에 의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전형이며 가장 빛나는 모범으로써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가는 혁명의 최고지도자⁹⁵⁾로 부각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합리화는 김정일이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기 위한 구실이고 명분이었다. 김일성이 죽고 난 현재는 김정일이 그동안 행해 온 입적파 관료주의, 그리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의 권력구조 내에서의 역학관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북한정권의 정통성의 중요한 근원이었다. 그런데 김정일이 이러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계승하여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94) Scott Snyder, "A Framework for Achieving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sian Survey Vol.xxxv, No8, August 1995, p.703.

95)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384-386.

는 카리스마에 대한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란 어떤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특성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그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특별히 비범한 권력이나 권력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천부적으로 신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받은 사람들은 지도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카리스마가 실제 권력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탁월한 능력과 매력을 가진 비범한 인간으로써 국가의 대부분에 의해 존경을 받는다고 인식되는 지도자. 둘째,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찾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던 전형적인 국가 영웅이나 구세주. 셋째, 국가성립의 초기단계에서 그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응집력있고 통합된 사회를 창조한 지도자. 넷째, 국가내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며 국가와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이러한 이상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지도자. 다섯째, 바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합법적으로 정당화시켜 체제안정을 이룩한 사람⁹⁶⁾ 등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에 대부분 성공하고 있다. 초기 등장과정에서는 실존 인물이었던 김일성장군의 이름을 차용하여 그 후광을 업고 등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조작된 선전의 반복적 효과와 50여년간에 이르는 통치과정을 통하여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획득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이러한 조건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탁월한 능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며 국가성립의 초기단계에 동참한 것도 아니다.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 북한사회의 미래를 제시하며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다만 오랜기간동안 김일성의 측근에서 제 2인자로서의 권력행사를 해 왔으며 현재도 그의 지지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에게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자로서 절대자에게 가장 충성적이며 그의 위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자의 카리스마를 계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은 권력승계 초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양된 권력의 강화과정을 통해 새로운 카리스마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카리스마가 계승된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수로부터 그의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에게로, 시저로부터

96)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Vol.3, eds.,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p.241-242.

아우구스투스에게로, 레닌으로부터 스탈린에게로, 간디로부터 네루에게로, 패론에게서 그의 아내에게로, 이승만으로부터 이기붕에게로, 케네디로부터 그의 동생들에게로, 모택동에게서 그 후계자들에게로,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⁹⁷⁾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그 후계자들의 독자적인 비범한 능력에 의해서이지 카리스마가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카리스마의 승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Scalapino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데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이전되지 않는다. 김일성이 죽은 후에는 김정일이 그 스스로 자기자신의 정통성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북한정권의 안정 여부가 달려있다.⁹⁸⁾

실제로 김정일이 효과적인 경제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카리스마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김정일 자신의 새로운 카리스마이지 김일성의 카리스마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 간디나 수하르토, 부토, 장개석 등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통치했던 지도자의 혈연적 후계자들이 원래의 그들만큼 카리스마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카리스마가 개인에 내재한 천부적이고 역사적인 산물이지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김정일에게 있어서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유혼 통치”기간 중 권력구조를 장악하고 김정일의 능력을 발휘하고 북한사회의 미래를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94년 10월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이 전적으로 김정일의 영도하에 이루어졌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 대표단으로 하여금 북미 기본합의문에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⁹⁹⁾ 이로써 김정일이 미국등 강대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많은 국익을 도모했다고 선전¹⁰⁰⁾함으로써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그의 통치 스타일을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텔 정치”와 “광복정치”의 개념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하여 보다 가까이 접근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통치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자 제국주의, 자본주의

97) Chung Joong-Gun, "Charisma and Regime Legitimacy: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i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VII, No.1, Winter/Spring 1993, pp.94-95.

98) Robert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Asia: Future Prospects," in *foreign Affairs*, Winter 1991-1992, pp.34-35.

99) 로동신문, 1994. 10. 20. : 11.16.

100) 로동신문, 1994. 12. 23.

사상문화의 침투를 경계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1일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글을 통하여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을 비난하고 북한에서의 사상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북한은 외국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데에 비하여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붕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⁰¹⁾

김정일은 1984년 합영법 실시 이후 1개월에 1회로 완화되었던 ‘주민생활총화’를 1991년부터는 다시 매주 1회로 환원하여 강화하여 주민의식의 해이와 자본주의사상의 침투를 막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들을 비롯한 사상문화수단들을 철저히 장악하여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⁰²⁾

1992년 7월 23일의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다원주의를 설교하면서 이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제국주의자들이 인사교류와 기술협조라는 간판 밑에 부르조아 문화를 전파시키면서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언론이 긍정적 모범의 원칙과 춘추필법의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고 북한언론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사회 내부에 이미 다원주의에 관한 논쟁이 만연하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 개인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등이 상당함을 보여 준다. 조선일보 1992년 9월 24일자는 북한의 일부 고위층이 즐기고 있는 ‘기쁨조’의 ‘스트립쇼’ 장면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고 있다.¹⁰³⁾ 김정일은 1992년 10월 10일 당 창건 47주년 기념논문에서 관료주의의 팽배,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 지식인과 청소년의 사상오염등이 사회주의 국가 붕괴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돈과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된 장사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

4.2 지배집단내의 갈등

권력엘리트와 전문엘리트 집단은 권력구조상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전문엘리트정당성을 증가시키며 영향력이 커진다. 반대로 사회의 발달이 미약하고 단순화할수록 권력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장률을 둔화시키며 경제적 회복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자들과 같은 권력엘리트의

101) 김인숙, 김정일, 사회주의 위업의 향도자, 평양, 1993, 평양출판사, pp.6-7.

102)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박기덕, 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82.

103) 신진, 남북한 교류증대가 북한언론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1992, pp.171-172.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들간의 갈등에서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북한 군부와 당, 정간의 갈등이다. 특히 북한 군은 김일성 생존시에는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당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무력으로 담보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2년의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보다 우위에서 북한인민군의 총 지휘통할권을 장악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군부의 영향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군부가 당의 철저한 정치적 통제를 받는 조직이라면 당정군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의 이러한 갈등이 공식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한정부는 1995년의 막대한 수제피해를 자력으로는 복구 불가능하여 국제사회에 긴급식량 원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전세계의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식량지원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1996년 1월 20일 북한은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외국의 식량원조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뉴욕과 제네바 등에 있는 국제 구호기관의 관리는 북한의 외교부장이 북한군부의 이러한 정책취소를 비난하고 나섰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외교부부부장 최수훈은 그 이유는 “외국의 식량원조가 개혁개방을 부추기려는 적대세력에 이용되는 것을 우려한 군부의 지도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¹⁰⁴⁾ 즉 북한정부가 전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려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군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까지 군부의 실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북한정무원은 군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역으로 제동을 가하면서 쌍방간에 세력 갈등이 있음을 표출시키고 있다. 즉 북한의 군부가 미국과 추진하고 있던 미군유해송환협의를 북한의 외교부가 이를 제동 걸고 협상을 결렬시켰다. 즉 북한외교부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날인 1996년 1월 20일 “미국이 유해송환에 따른 보상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유해발굴조사단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 군부의 외교부에 대한 식량원조사입 해방에 대한 대응조치이며 또 다른 이유는 미군유해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해야 할 일인데 북한군부가 주도하고 나선데 따른 갈등으로 알려졌다.¹⁰⁵⁾

이에 북한의 군부는 북한 외교부를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사색을 찾고 있었다.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정상회담을 마친 한미 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한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의 대표간에 4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북미간의 별도의 회담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에 북한은 4월 19일자 로 4자회담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검토한다는 공식반응을 보였다. 그 후 북한은 다시 미국과의

104) The New York Times, February 8, 1996/A6.

105) 내외통신, 종합판(59), 서울, 내외통신사, P.442.

직접 접촉을 하기 위해 “미국측에 4자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토와 설명을 요구하는 북한의 일련의 행태는 4자회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그 대가를 받아내자는 계산이었다. 즉 공산주의 협상이론에 따르면 협상제약의는 다급하거나 약자의 입장에 놓인 측이 그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제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제약자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미 일 3국은 북한측의 이러한 설명요구가 북한측의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아 고무되었다. 이에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11일 미국 뉴욕의 미북 접촉에서 북한은 공동설명회를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추가 곡물지원과 추가적인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를 요구하였으며 7월 23일의 실무접촉에서는 공동설명회의 개최와 동시에 상기 조건을 이행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우선 공동설명회를 개최한 후 4자회담 이전에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안으로 절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부가 이를 결렬시켰다. 1996년 7월 25일 북한은 북한군의 이름으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협정 체결전까지의 정전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미-북간 합법적인 군사접촉 채널을 구축할 것”을 미국에 제의했다.¹⁰⁶⁾ 북한의 외교부의 주도하에 공동설명회가 성사될 것처럼 보이자 북한군부가 갑자기 불과 이틀만에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 지도부가 4자회담이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중도에 의견을 바꾼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공동설명회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곡물 추가지원 및 경제제재조치 완화를 받아내더라도 한국을 상대로 하는 4자회담에서 얻을 것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중간에 그 결정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외교부가 직접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므로 군부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결렬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로 외교부와 군부가 대남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군부가 저지하고 나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북한 군부가 외교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부가 중간에 의견을 바꾼 것이라고 하더라도 군부와 외교부는 다른 안건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실제로 군부가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외교부가 추진한 공동설명회 수용이 김정일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이 아직 북한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 내부에 지도층간에 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의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이에 대한 관련법의 제정함으로써 북

106) 한겨레신문 1996. 7. 27.

한의 경제적 발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경제특별구역을 창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해의 부족, 군부 및 강경파의 반대 등에 혼신을 빚고 있다.

또한 정부원 내부에서도 부서간의 경쟁과 알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에 관해 정부는 해외의 자본과 자본활동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서들이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무사증 출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안관계 부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¹⁰⁷⁾

1996년 9월 18일 북한해군의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까지 침범하여 좌초된 것은 북한 군부와 북한 대남사업부는 북한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후 북한이 보여주는 외교적 수습책은 이들 강경파가 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의장의 설명요구를 묵살하고 안보리가 대북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동해안에 노동1호 시험발사를 발표하는 것 등은 위협적인 농세적 협박으로써 북한의 과오를 덮으려는 강경파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전문관료들의 북한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행정부가 1996년 9월 13일 나진 선봉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안 북한 군부는 같은 날인 9월 13일 북한해군 잠수함을 원산항을 출발시켜 한국의 동해안에 침투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긴장을 초래했다. 북한해군 잠수함에 의한 대남 간첩 침투가 상례적인 것이고 우연히 발각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북한이 취하는 국제적인 대응태세는 북한에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의 정책과 태도라고 보기 힘들다. 이것은 적어도 다음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지배집단 내의 의사결정과정의 치밀하거나 조직적이지 못하며 횡적인 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현재 김정일이 군부와 경제부처, 그리고 당정 모두를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잠정적인 세력균형과 군부의 지지에 의해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많은 정책결정과정의 김정일에게로만 수직 보고되고 제기될 뿐 횡적인 유대와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부처와 외교부처는 “군부가 반대해서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김정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경제부처의 어떤 일도 군부가 자꾸 반대해서 일이 안되고 있다고 북한관리가 지적하고 있다.¹⁰⁸⁾ 이것은 현재의 실권자인 김정일에게 과잉충성을 보여주기 위한 집단들 즉 군부, 당, 경제전문가 등의 경쟁적인 집단들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107) 백학순, *op. cit.*, pp.73-74.

108) 세종연구소, 북한정세와 남북한관계의 진로, 정책과제보고서 95-04, 서울, 1995. 12, pp.6-7.

4.3 경공업 중시와 군부의 갈등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과 군사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북한경제구조에 있어서 심각한 자원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부족현상과 노동자들의 생산의욕 감퇴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북한 지도부는 제 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끝나는 1993년 12월 이례적으로 북한경제계획의 실패를 공인하였다. 북한경제가 목표에 미달해도 항상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하던 전례에 비추어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경제운영의 실패를 담보로 경제전문관료들의 책임을 물어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도 있다. 또한 숙청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대대적 숙청분위기를 앞세워 경제정책의 근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초석이라고 추정된다. 실제 그 이후 북한의 경제 고위관료가 북한 경제운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된 사실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공업 위주에서 경공업위주라는 대대적인 경제구조의 전환시책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1994년부터 시작된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농업제일주의 등 제 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완충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방향전환은 북한 군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량의 자원이 박탈되거나 혹은 배분과정에서 군부가 소외되는 처지가 되었다. 1993년 말에 북한당국이 공표한 북한경제운영의 실패 책임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전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근원적인 정책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바로 군부였다.

북한군부가 필요로 하고 있는 물자의 조달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언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군부의 이러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경제부처 및 행정부처와의 갈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강화되고 있다.¹⁰⁹⁾

북한의 군부는 별도의 경제적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군사경제부문은 1970년대에 들어 국가계획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들은 농장운영에서부터 광산, 무기, 군수공장 무역은행 등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통제하며 완전히 독립된 경제조직을 구축했다. 특히 인민무력부의 외화벌이 사업은 외화획득이 가능한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덤벼들어 일반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¹¹⁰⁾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김정일과 인민무력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군부의 독자적인 경제규모는 북한경제의 20%-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북한 당중앙위원회는 당창건 50주년을 기념한 1995년 5월 1일 경제사업에서 정무원

109) 4.2 지배집단의 갈등 참조.

110) 배인수, 귀순자생점대담, 통일한국, 1996.9월.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78.

책임제와 정무원 중심제를 강화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겠다는 발표¹¹¹⁾를 하였다. 인민무력부는 이미 국방위원회 산하에서 정무원산하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인민무력부의 독자적 경제부분을 정무원이 흡수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경제부분과 같은 사활적인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간단하게 그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은 권력구조상 불가능하다. 단지 외형적, 행정적으로만 인민무력부가 정무원 소속이 된 것이지 그 자체의 재정 경제권까지 정무원으로 이전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전되었다면 그로 인한 군부의 항거는 임청날 것이며 정무원과 무력부간에, 그리고 인민무력부와 김정일간에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게 되는 바, 김정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명철(전 김일성대학교수)과 고영환(전 북한외교관)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¹¹²⁾

북한당국은 이러한 정책전환에 앞서 북한군부를 달래고 대남 군사적 우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970년대 예산증가율은 매년 평균 14.9%수준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평균 7.0%의 예산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1987년부터의 평균 예산증가율은 5.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1994년에는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이 실패하고 그 완충적 예산편성을 위해 긴축예산을 실시했다. 예산증가율 3.2% 가운데 인민경제비는 전년대비 3.2% 증가, 사회문화시책비는 2.8% 증액되었다. 그런데 군사비는 전년도 대비 4.1%가 증액되어 책정되었다.¹¹³⁾ 평균적으로는 군사비가 다른 부문보다 많이 책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92년도의 예산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공식적으로 표명된 예산상의 군사비지출은 북한경제구조 평가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군사비의 상당부분을 '인민경제비'에 은닉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민경제비에 은닉해 놓았던 군사비 예산을 삭감하고 표면적인 군사비는 증액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4 중앙통제경제의 균열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실상은 식량부족으로 인상지원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총체적 파국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간의 본질을 외면하며 자발적 생산노력을 억압하고 중앙통제식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유의 비효율성이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중앙통제경제의 왜곡된 운영, 김정일체제의 존속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자원의 왜곡현상등은 북한경제를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

111) 로동신문, 1996. 5. 1.

112) 조선중앙연감, 평양, 1994, p73.

113) 1994년 4월6일 8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회의 94년 예산심의, 내외통신, 종합판(52), 서울, 내외통신사, pp.17-19.

르게 하였다.

게다가 유일사상에 따른 결정권의 중앙집중방식은 경제, 사회의 각 하위 부문에서 횡적, 종적 경제적 조정과 관리능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원자재의 부족과 함께 북한경제를 더 이상 생산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다락밭들은 매년 다가오는 장마와 폭우에 의해 많은 토사를 개천 바닥에 쏟아 부어 개천과 저수지의 바닥을 평지보다 높게 만들었다. 그 결과 약간의 폭우와 장마에도 늘 홍수로 이어지는 “人災的 天災”를 양산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일회성이 아니다. 수십년간 체계적으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1994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된 북한의 식량부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1996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97년에도 지극한 식량부족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은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제한된 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이에 대하여 토지임대료 수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경제특구에 최소 150억 달러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투자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원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차관에 의존해야 한다. 대외적 신용도가 없는 북한의 차관능력도 문제지만 차관 상환도 역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공헌할 수 있으나 한국정부와의 거래는 북한정치체제의 안정과 남조선 피뢰정권의 타도와 남조선 인민해방을 추구하는 김정일정권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룰 수도 저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북한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 난국을 외적 분쟁과 긴장 조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비하여 떨어졌지만 군사력에서는 외국의 간섭만 막을 수 있다면 한국과는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북한 군부의 충성맹세이자 호언장담이다. 김정일의 명령만 기다린다는 북한의 구호는 북한경제의 파국이 통일 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에 더불어 전쟁야기를 두려워하는 한국에 대한 또 다른 위협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4.4.1.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나진-선봉

북한의 지도부는 개방과 자유시장으로 인한 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기능적 효과를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개방과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외형상의 법적,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내부구조의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는 개방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북한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급격

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시장거래의 허가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도입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북한 유입으로 인한 주민충격을 완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려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장거래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은 상당기간동안 이러한 자유시장 거래의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효과에 대하여 시험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자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였다. 등소평의 四個堅持(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마르크스-레닌 모택동사상) 기본노선을 지키면서도 동시 경제적 개혁과 개방에 성공한 것들의 의미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는 달리 영토의 크기와 인구, 한국과의 대립관계, 그동안 철저하게 폐쇄된 정보체계 등으로 인해 국지적인 개방조차도 전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국제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1990년까지 북한과 중국은 상호 수습 건에 이르는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국제경제협력사업의 시험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에 자신을 얻은 북한은 중국식의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건설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물론 중국보다 강도 높은 통제와 봉쇄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199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동북아소지역 계획회의(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Meeting)에서 두만강지역개발을 UNDP 제 5차 계획(1992-1996)의 동북아지역 협력사업 중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구 정부차원의 협의대상이 되었다. 두만강 경제지대(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는 두만강 하구지역의 3국간 접경지대를 지칭한다. 중국의 훈춘, 방천, 그리고 북한의 나진 선봉, 러시아의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잇는 약 1천평방 킬로미터의 소삼각지역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견해차이가 커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이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들창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외무역 정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우는 두만강지역 개발이 북한경제 회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우는 이 지역 개발에는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한국의 참가 없이는 이 지역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정우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과 군부 지도자 및 강경파의 생각은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갈등이 예상된다.

두만강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북한은 나진 선봉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991년 12월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서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을 통하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경제협력 관련조항(17조, 37조)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등 관련법규를 마련하였다. 1993년 1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환관리법등을 채택하였다. 이어 1993년 10월에는 관세법, 출입국 관리법, 토지임대법 등을 마련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신속한 관련법규 제정은 경제개방과 국제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조치가 지난 1984년의 합영법보다도 훨씬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대로서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정치적인 안정을 훼손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경제적 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로 인해 파급될 정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또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까닭에 그 효과 예측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체제의 안정과 김정일정권의 착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북한 지도부의 개혁이나 쇄신 없이 봉쇄된 한 지역의 개방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얻고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개방정책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 역시 세습에 의해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쇄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권력투쟁에 의한 정권장악은 지도부의 교체, 사회의 개혁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경제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으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효과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특구는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의해 외화를 획득하며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자국의 수출신장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선진국의 고급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며 기업경영능력과 산업정보와 자본을 자국의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획일적이고도 지나친 통제정책은 경제특구 개발로 인해 획득되는 경제적 효과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나진 선봉지구를 지리적으로 외딴곳에 설치하며 철저한 봉쇄와 감시를 통해 외국 자본주의의 오염으로부터 북한 내부를 보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의 인구가 현재 13만명인바, 가까운 장래에 1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 인구는 북한 전체의 4.5%에 달한다. 또 현재와 같이 거주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도 친척방문은 어느정도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명의 친척들과의 왕래는 이들이 획득한 자본주의적 문화와 정보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들은 한국의 기업인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경영과, 상품, 자본주의의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논리, 자유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적인 판단능력 등을 보고 배울 뿐

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유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들의 이동과 정보확산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것은 곧 북한정치체제의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또 나진 선봉지구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게 되면 북한주민들에게 현재까지 강조하던 남한에 대한 북한당국의 선전이 허구가 되며 남조선 해방론이 더 이상의 힘을 잃게 된다. 이것 또한 북한정치체제의 중요한 불안정 요인이 된다.

이리하여 북한당국은 초기에는 나진 선봉 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기도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투자 설명회에 한국참관단의 입국의 선별적 허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한국정부의 자의에 의한 참가거부를 유도해 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북한의 대외적인 신용도 측면에서 볼 때 한국기업의 참가가 투자기업의 안전을 예측하는데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국을 배제시킴으로써 투자설명회의 효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자유무역지구 설치를 둘러싸고 북한 당국 내부에 개방파와 보수파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나진 선봉 경제특구를 설정한 주요 목적은 상기한 바와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토지를 외국기업에게 임대함으로써 생기는 외화를 획득하는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¹¹⁴⁾ 또 외국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국가에서 편취하여 북한 경제와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중앙당 39호실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특구는 값싼 토지이용료와 값싼 노동력이 전제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값싼 노동력은 북한 이외에도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존재한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특구는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다지 매력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한국이나 일본이 가장 가까운 투자국인데 한국만이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뿐 일본도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또 북한의 저임금에 따른 노동 생산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북한경제특구에 투자할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열악함은 외국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회간접자본은 크게 4개분야로 나눌수 있는데 교통부문(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생활편의시설(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부문, 용수시설등이다. 나진 선봉에 요청되는 사회간접시설비는 거의 150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액수를 동원할 재원이 없다. 북한이 외국 차관을 들여와 사용하고자 해도 북한의 현재의 대외적 신용도로서는 이러한 액수의 차관을 공여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매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업들이 지불하는 토지이용료는 얼마 남지 않는다.

114) 방찬영,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 1996년 3월 서울, LG그룹 임원회 발표논문 p2.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기업인으로서로는 즉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공공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나진 선봉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외국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특구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당사자가 바로 한국정부이다.

그런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 한국정부와 거래를 한다면 북한당국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해방”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어떠한 대화제외와 협력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한국의 주도하에 투자 콘소시움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미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성립과 그 운영에서 북한이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참여는 하되 북한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법을 북한은 원하고 있다. 한국이 KEDO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차후 평가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콘소시움은 북한에의 차관단을 구성하여 국제적 차관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다. 또 콘소시움을 통하여 직접 구성국이 직접 투자하면서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투자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의 한국참가 거부라는 완강한 들창문 사이로 젖어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정부가 국제차관단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차관을 형성한다면 북한이 콘소시움의 대표로 한국정부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의 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한국의 대표단 선출을 거부한다면 현재의 KEDO에서와 같이 북한을 개발시키는 것 이외에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같은 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4.4.2 북한 개방정책의 실험장: 내부경제

김일성이 생전에 쌀이 곧 공산주의라고 언명한 바 있는 데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부족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북한 당국이 지급하는 양곡권은 주민의 거주 이전, 여행 등을 통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당국이 지급하는 식량이 몇 개월씩 밀리는 경우도 허다하여 식량에 관한 한 주민통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가 없어도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하면 검문소에서도 통과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전역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검문하는 사람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위기를 빙자하여 전

쟁위험과 전쟁위기를 고의로 조성하지 않는 한 주민의 이동과 정보의 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북한 내부에 자생하는 시장경제에 대하여도 북한 지도부는 그다지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법으로는 개인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지만 현재는 북한 전역에 “상설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 단속은 하지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칠 뿐이다.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조달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암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 지도부도 묵인하며 그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장업당비서(서열 21위)는 자유시장경제처럼 경쟁이 있는 것이 좋으며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¹¹⁵⁾

북한의 상거래 영역에서는 거의 자본주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이 이미 자본주의적 상거래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북한내부의 시장개방에도 능숙하게 적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농민시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래가 허용된 품목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 이미 오래 된 일이고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서 북한의 대도시 주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의주의 경우 공식적인 농민시장이 다섯 곳이며 암시장은 여덟 곳이다. 물론 암시장은 여전히 불법이다. 안전원이 나타나면 물건을 급하게 감춘다. 그리고 안전원이 지나가면 물건을 다시 내놓고 거래한다. 농촌의 경우에도 군 단위에는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또 지방의 역전 앞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의 역전 앞에는 거의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상행위들은 북한에서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원들도 거의 알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 암시장의 존재와 그 거래 품목에 대하여 정부나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지만 엄격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들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이러한 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공안원이나 안전원들에게 적당한 정도의 뇌물로 묵인되기도 한다. 안전원들도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상납을 요구하기도 한다.

모든 주민들이 장사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은 기업소에서 구입한 자재를 가지고 가내 수공업용을 통하여 가구 등 일용품을 만들어 내다 팔기도 한다. 이들이 만드는 제품은 국가에서 만드는 것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비싼 값에 북송교포들이 사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장사도 하지 않고 수공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 직장에서도 할 일이 없

115) 세종연구소,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의 진로, 정책과제보고서 95-4, 서울, 세종연구소, 1995. 12. p9.

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월급은 못타지만 배급은 탄다. 가끔 실뱀장어잡이등 외화벌이에 동원되기도 하며 하루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도 한다.¹¹⁶⁾

북한의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기업소나 상점, 배급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수단 확보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주민의 경제생활 영역에 있어서 북한의 내부생활은 이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개방 직전의 중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생활영역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필수품들을 만들어 팔고 구입하는 과정을 묵인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정부의 공적인 공급으로서는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공급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공무원들의 보편화된 부패관련 행태이다. 일반적으로 부패란 개인적인 재산이나 지위의 획득을 위해 공무상의 의무를 벗어난 작위 또는 부작위 그리고 사적인 것과 관련하여 영향력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된 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은 정부가 관여하는 경제행위가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처벌 등 강제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적 행정적 질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관습이나 태도, 가치관 등이 정치적 행정적 질서를 용인해 줄 때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 사회적 용인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질서나 사회적 지지를 상실한 행정질서가 존속하려고 한다면 강제적인 법적 제재조치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조차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제재한 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묵인되면 그러한 행정질서는 이미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질서의 불합리성이나 실현불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용인의 힘이 클수록 법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작아진다.

북한사회에서 생활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법규위반행위들은 일선 관계 안전원이나 공안원들의 포괄적인 묵인 하에 행해지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존속해온 전통적인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나 혹은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합법적인 것은 정당하다는 신념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을 때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생국가나 북한 사회에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정당하다는 주민들 사이의 신념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질서가 광범위한 주민들의 감정적 신뢰를 획득하거나 혹은 이성적 신뢰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생존하기 위한 상행위들은 이미 주민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신뢰를

116) 오명선, 귀순자쟁점대담, 통일한국 1996. 8월,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p. 88-95.

확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개인장사 금지규정은 이미 사문화 되었고 오히려 개인의 상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행위들을 세심스럽게 규제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억압으로 비춰지며 사회 불안정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습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체제로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 상행위들을 규제하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 상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로 받는 뇌물등 관련 공무원의 부정이나 불법행위들은 경직된 사회질서에 오히려 윤택유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공안원이나 안전원들이 개인 상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규제한다면 북한 사회에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게 된다. 북한 전역이 극심한 생필품 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되며 이것은 오히려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 공식적으로는 불법이나 현실적으로는 묵인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인들의 상행위 등의 활동이 보장되면 개인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지며 정부는 큰 부담없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언제든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즉 북한사회에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북한사회를 생존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행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정치질서에 대한 합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하여도 회의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정치질서에 대한 회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체제의 붕괴와 복원

5.1. 체제이완현상의 표면화

경제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경제부처의 계획의 무정부성과 혼란은 북한 경제를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북한경제부문에서의 생산량과 그 목표 등의 수치는 허위의 숫자로 채워지며 목표 생산량의 대부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인경제활동에 의해서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의 공식경제부문은 이미 파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정치체제를 지탱해주는 관료집단들의 경제적, 비경제적 일탈행위들은 북한정치체제의 위기수준을 한계에 이르게 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4년 11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당간부들이 인민대중들로부터 유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 1995년 6월 19일 발표논문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하여 미타협적 투쟁으로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95년 10월 '노작'이라는 논문에서도 부정부패의 매력을 추구하고 나섰다. 김정일이 지적한 이러한 부정부

패 현상은 북한사회에 만연한 것으로써 관료와 주민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당성과 사상에 의해서만은 통치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관료들의 사적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시기구나 공식 지위의 이용 행위 등은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김정일정권의 통제의 정당성을 소멸시킨다.

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식량등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동은 당국에 의해서도 묵인되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증가는 주민들간의 정보유통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이상 북한 당국의 사상교육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왜곡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암시장의 목인 역시 북한내부의 경제운용체제는 최고인민회의와 정무원에서의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의 고수라는 언명과는 별도로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은 대부분 이들 불법 개인상인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식량난의 심화에 따라 당국이 허용한 텃밭제도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유의 기쁨과 생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생산품을 교환하기 위한 암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켰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행위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주민들에게 다시 사회주의의 중앙통제경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즉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일단 증가한 엔트로피는 혁명적 조치가 아니고서는 감소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부족과 경제적 파국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탈북증가로 이어진다. 탈북자의 증가는 북한의 민심을 공개적으로 자극하며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체제비판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 탈북자에 대한 소문은 “임금님은 발가벗었다”는 어린아이의 외침과 같이 북한 주민모두가 진실에 눈을 뜨고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혁명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중국, 러시아등지에서 북한으로 도로 잡혀 들어가 처형을 당하는 탈북자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의 체제저항적 북한탈출을 시도할 의욕과 용기를 잃게 된다. 만약에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방치하는 탈북자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근원적으로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5.2. 네겐트로피: 국제적 긴장조성

체제 내에 증가하기 시작한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치체제 자체의 변혁을 통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끌어들이어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체제내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고 나아가 더욱 낮추기까지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마지막 단계였던 국방위원장 취임을 위해서 북한은 핵문제를 들

러싸고 북한 내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여 내부의 반발을 완전히 통제한 후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 정책이 실패하고 김정일 체제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북한은 국제적 긴장조성을 통해 북한 내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파국(crash landing)의 다음 순서이다.

현재 북한은 한국에 비하여 월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등 외세의 간섭만 배제할 수 있다면 북한은 7일-10일 사이에 한반도 전역을 공산주의화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사정거리 1,500킬로미터에 달하는 대포동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사정거리 500-1,000킬로미터의 노동 1호, 노동 2호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5-96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94년 대비 정규군을 103만 명에서 104만 명으로 증가시켰으며 장갑차100여대 야포 50여대, 전투지원함 10여척, 항공기 20여대를 증강 배치했다. 북한은 1995년 10월 400여대의 공군기를 동원한 대규모 기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 동원된 장비와 병력을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기습남침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써 일단 유사시에 미군의 침보망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에 한국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 국내적으로는 전쟁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갈등을 억압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과 화학전에 관한 준비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내에 '핵, 화학방위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8개 부서를 두고 있다. 1부(작전부), 2부(훈련부), 3부(기술부), 4부(기재부), 5부(정찰부), 32부, 항도관리부, 화생방연구소 등이 있다. 이 외에 8개대대 병력의 전투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월등한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북한의 공식적인 최고책임자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며 당면한 북한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에 북한은 경제적 침체에 대한 불만과 내부의 김정일정권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김정일이 회갑을 맞이하는 2002년에는 회갑잔치를 서울에서 한다는 제2의 남침 시나리오를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이러한 선포는 끝없는 경제적 곤란에 허티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되면 이러한 고통도 종말을 고한다는 미래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준전시상태와 같은 전쟁 전야로써 반체제세력을 엄단하는 구실로 삼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의 위협적 조치들을 북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작을 함으로써 국내 정치적인 엔트로피의 증가를 억제하는 네겐트로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RAND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⁷⁾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적화하는 것은 이미 실패하였으며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사용해보느냐 아니면 한국에 흡수당하느냐이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 것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과국을 돌파하려는 마지막 방법이거나 국내 정치적인 갈등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무모한 결정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000톤-5,000톤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평화시 생산능력은 연간 4,500톤, 유사시 생산량은 연간 12,000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기의 대부분은 겨자가스, 포스젠, 사린V 가스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박격포, 야포, 로켓포 등에 이용되며 80-240밀리 다연장 로켓용 화학탄과 항공기 및 헬기용 화학탄으로 제조된다.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 전진 배치된 1,2,4,5,군단 등의 탄약고에 배치 저장된다.¹¹⁸⁾ 게다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학무기도 야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⁹⁾

또한 한국과의 특수전 수행을 위해 북한은 비정규군 특수부대가 약 1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한국군으로 위장하여 후방에 침투한다. 여기에는 여군이나 처녀로 가장하는 '여자강하소대'까지 있다.¹²⁰⁾ 북한은 이들을 침투시키기 위한 AN2 콜트 경항공기등 특수부대의 사전침투를 위한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군인은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인은 북한의 화학공격에 대하여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가상 시나리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수교를 통하여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미국의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북한은 서울 및 인천지역에 6만 여명의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대도시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약 1만 여명의 특수부대원들을 한국군의 복장으로 위장한 채 AN2 콜트 경항공기와 글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야간에 침투시킨다.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화학탄을 터뜨리고 주요 통신망을 차단하여 전국을 통신암흑의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해주에서 방송되는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군의 무장봉기라고 선전한다. 아침이 될 때까지 이들은 모든 주요 통신망을 완벽하게 폭파, 두절시킨 후 요인암살을 계속한다. 미국등 국제기구의 사실확인 작업은

117) The New York Times, January 28, 1996/10L

118) Jane's Intelligence Review, August 1996.

119) Joseph S. Bermudez, "North Korea's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rsenal," Jane's Intelligence Review, May 1993, pp225-228; Paul Bracken, "Risks and Promises in the Two Koreas," ORBIS, Winter 1995, p.56.

120) 한국일보, 1996.8.13. 특수부대 출신 귀순자 최승찬의 증언.

자꾸 늦어진다. 이에 북한은 남조선 인민들의 요청에 의해 피뢰정권으로부터 남조선 인민을 해방한다고 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울산등 전국 주요 도시와 산업 및 군사도시에 화학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도 광범위한 지역에 화학탄을 발사하여 국군의 방어능력을 떨어뜨린 후, 제독부대를 앞세우고 기갑부대가 휴전선을 넘는다. 이와 동시에 보병은 휴전선 밑으로 파놓은 땅굴을 통하여 침입하여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던 한국군의 전방부대와 예비사단들을 포위 압축하여 순식간에 궤멸시킨다. 그리고 서울 및 주요 대도시를 향하여 남하하는 한편 지방에 있던 특수부대와 연합하여 미국등 외세가 개입하기 전인 일주일 이내에 한국의 적화에 성공한다.

혹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지상군보다는 공군의 막대한 화력에 의존할 것이며 북한의 포대들을 공격하고 이어서 북한의 지상군들에 대한 막대한 공격을 통하여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지만¹²¹⁾ 미군의 이러한 전략은 무용지불이 될 것이다. 북한의 포진지들은 이미 자하화 되어 있어서 미군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으며 북한의 지상군들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국의 내부에 들어와 있어서 한국군과 북한군이 구별될 수 없도록 하는 월남식 전쟁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북한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고통이 끝나는 희망의 서곡이며 김정일정권은 주민불만을 전쟁으로 돌리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동안 북한은 체제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체제안정이 안될 경우 실제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6.1. 김정일 정권의 안정

김정일정권은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군부에 호의적인 다양한 시책들과 중첩적으로 짜여진 단군 검직제도에 의해 군부 지도자들로부터의 충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래도 김정일은 여전히 여전히 군부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부대 시찰을 자주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에서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은 체제 안정직인 여러 가지 조건들, 즉 정공입 제일주의를 통한 주민복지정책, 테러적 경찰통제제도, 군부의 지지, 권력집단의 김정일 지지 등을 확보하였다. 현재로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항하는 군부의 반란이나 쿠데타는 혹 빈중봉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김정일체제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하여 체제의 진동확대요인

121) Edward Warner,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and requirements, "North Korea continues to pose a serious challenge to peace by its large conventional forces, their forward posture, and the closed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before House Panel 02/23/95, EPI'404 (1790)

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으로부터 정권을 세습하였지만 김정일의 북한통치에 대한 정통성이 결여 되어있다. 김일성과 함께 오랜기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최고 통치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 뿐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일을 지지하는 집단들의 권력투쟁은 김정일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의 정치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군부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김정일로서는 군부의 강경파를 제어할 능력이 현재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부와 정무원은 김정일과만 종적으로 연결되는 각각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갈등과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익집단적 갈등의 소지를 보여준다.

중앙통제경제적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관료들의 부정부적 경제운영은 북한 경제가 통제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개인의 자영업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의 개방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상당히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6.2. 대북투자를 위한 다국적 콘소시움 구성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은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와 의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정부의 참여문제를 북한 경제관료와 한국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에서 북한이 제시한 나진 선봉지구는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정부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 군부는 한국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주도하에 '나진 선봉 투자 다국적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라고 하는 기구를 통하여 성사시키고 있다. 다국적 투자 콘소시움을 통하여 국제 차관단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북한에의 투자를 콘소시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가자들은 위험부담을 한결 줄일 수 있으며 북한은 한국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6.3. 전갈형 자주국방능력의 확립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미국에만 매달려 있다. 한반도에서 미군만 철수하면 언제라도 한국을 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상당한 정도로 접촉하고 있어서 북한은 전략에 따라서는 미국과 급속한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은 일은 미국과 상호 불가침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우선적으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할 수만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북한의 남침을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데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사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동결을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¹²²⁾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꾸준히 확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경제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계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인 바, 그 속도와 정도는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표명하고 있어서¹²³⁾ 전적으로 북한의 시간표에 따라 미국과 북한간에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이에 대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미 하원은 1995년 5월3일 104회 호의 1회 분과에서 H. R. 1561호의 의결을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넘어서는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되며 또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제한을 완화시키는 조치 이상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결의하였다. 그 조건은 첫째, 북한정부는 남북한간의 남북대화에 임해야 하며 둘째, 남북한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족시켜야 하며 셋째, 북한과 한반도에 관한 미국의 장기정책에의 진척에 협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숫자를 감축시키고 비무장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제배치해야 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와 이동을 금지해야 하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¹²⁴⁾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어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전쟁유혹은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은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2002년 김정일 서울회갑잔치'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곤란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준비경쟁에 있었으며 현재 한국에 비하여 승산이 있는 것은 전쟁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 역시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차라리 전쟁을 해서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는 귀순자의 말을 북한사회의 분위기를 전해준다.

또한 북한의 경제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또는 김정일정권이 국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없

122) Christopher, Secretary, Meeting Our Nation's Needs: Providing Security, Growth, and Leadership For the Next Century,"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April 1, 1996, Vol.7, No.14, pp.160.

123) Winston Lord,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April 1, 1996, Vol.7, No.14, pp.167-168.

124) 104th Congress 1st Session, H.R.1561, Division B, Title XXXVI, Chapter 2, Section2644.

을 만큼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김정일정권은 국제적 긴장조성을 통해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는 북한의 권력지도층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며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통일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하되 주체적인 자주국방능력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을 적화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과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이 없어도 북한의 도발이나 침략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북한의 군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탈피하여 순간보복능력이 탁월한 “전갈(scorpion)형 한반도 방위체계”¹²⁵⁾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거의 공격능력을 갖추지 않은 고슴도치형 억제전략과 구별된다. 즉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여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력이 갖추어지면 남북한은 전쟁에 대한 핵억지력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포기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상호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오판할 수 있는 전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태평양지역에서의 펜타곤 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다자간 안보협의체(The ASEAN Regional Forum, ARF)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 안보협의체(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협의체 안에 이전에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북한을 끌어 들여 영구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¹²⁶⁾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우선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외되고 있어서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우선적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6.4. 탈북자와 대북 교육비 반환정책

한국정부는 북한이나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난민들의 망명요청을 거부했다.¹²⁷⁾가

125) 윤진표, “안보환경변화와 한국의 국익,” 국방논집 33호 1996, p.28.

126) Winston Lord, HIRC testimony, U.S. must allocate resources to back security policies in Asia, 6/27/95, (5430), EPF203

127) 1994년 4월 6일,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계인사와의 오찬에서 북한 벌목공의 망명을 不許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 이유는 중국측에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치 않으며 북한벌목장의 인부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데려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난민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강대국의 틈에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외교의 일면을 보여준다.

1994년 4월 14일 韓·러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북한 별목공 송환문제를 협의하였는 바, 한승주 외무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탈주자들이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러시아 국내법의 보호하에 들 것과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 이주를 원할 경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코지레프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하는 나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94.4.18 한승주 외무장관은 북한 별목공 難民지정절차를 생략할 방침임을 러시아방문 귀국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귀순의사와 신분이 확실할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만으로 한국으로 바로 데려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1994.5.21 통일원 대변인도 북한의 별목공 송환 요구 관련 논평에서 정부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별목공들의 자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의 탈북자 정책이 북한의 민주화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서독의 쾰른리도 자국민으로 간주되는 동독 난민들의 망명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 1989년 헝가리와 체코등에서 여름 휴가를 지내던 동독주민들이 서독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외긴상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쾰른리는 「독일역사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해온 동독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그 후 서독에 대한 동독주민의 이미지는 희망 그 자체였다. 동독주민의 자발적 표에 의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북한정권 탈출자들의 한국행 요구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마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북한은 아예 췌기를 막기 위해 협박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을 납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질정적인 보복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북한당국은 국경을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사살명령을 내렸다.¹²⁸⁾ 국경 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은 동서독 국경지대에서 경험한 바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사살명령을 내린 사람은 「반인권죄」로 처벌되고 있음도 경험한 바 있다.

인권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초월한다.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정책도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북한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자행하는 국경탈출자 사살은 21세기에 진입하는 인류의 이성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인권말살행위이다.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은 동독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대하였다. 그러나 인권범죄 특히 동독탈출자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행위는 반인권죄로 규정하여 냉혹하게 처리하였다. 이것은 자발적 통일을 이룬 동독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의 한계였다.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도 인권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인권에 관한 세계선

128) South China Morning Post, 1994.4.4.

언』은 북한탈출자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탈북자문제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일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높은 결의와 태도만이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자유세계의 대북한 문제해결의지는 인류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정권 탈출자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나아가 인류의 인권신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한국은 2개의 독립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2개의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들로서 양자간의 거래는 내국간 거래로 국제적 인정되고 있다. 더우기 이들은 쌍방이 다 자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국민으로 추정되는 구성원의 인권말살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류의 이성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외교를 주장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권문제이다.

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회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자들에 대한 대가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자유무역지대 개발의 주요 목적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만큼 경화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당국에게 지불한다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서독의 경우에는 소위 「교육비 반환」을 통하여 동독에 합법적이고 몇몇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며 동독도 당연히 받았다. 동서독간 이주협정체결까지 이어졌다.

탈북자들의 교육비를 북한에 반환하는 것이 북한의 묵시적 동조를 얻기만 한다면 북한은 인권옹호라는 선전적 효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를 취하며 남한은 이들 탈출자들을 보호하고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북한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北韓 “人民” 生活世界 研究

- 1980, 90년대 大衆媒體를 中心으로 -

研究責任者：金 貴 玉(忠 北 大)

共同研究者：정 영 철(서 울 大)

목 차

< 요약문 >	173
1. 들어가는 말	177
1.1 연구목적	177
1.2 기존 연구 검토	178
1.3 연구 방법론 및 분석틀	182
1.3.1 연구 방법론 : 생활세계와 체계 이론	182
1.3.2 분석틀	187
2. 북한의 대중매체: 언론, 방송, 영화	188
2.1 언론	188
2.1.1 언론이론	188
2.1.2 김정일의 언론관	191
2.1.3 언론정책	193
2.2 방송	195
2.3 영화	197
2.3.1 영화이론	197
2.3.2 영화정책	198
3. 대중매체에 반영된 생활세계	201
3.1 생활세계 구성원리	201
3.1.1 ‘사회주의적 대가정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현	202
3.1.2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	204
3.1.3 자력갱생의 원칙	205
3.1.4 ‘대중운동’	206
3.2 식생활	208
3.3 의생활	212
3.4 대중매체에 비친 주생활	215

3.5 문화생활 및 사회의식	223
4.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233
4.1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233
4.2 체제 위기	234
4.3 생활세계 위기	236
5. 결론 및 과제	238
※참고문헌	241

〈요약문〉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둘째, 북한의 국가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충분치는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북한 위기관 및 붕괴론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이다. 비록 북한의 대중매체가 실생활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북한의 실생활을 완전히 분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에 드러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과 갈등하고 모순되는 현실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서 제기되고 이를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는 계몽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일단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분석 수단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이상사회와 현실사회와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실생활의 모습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에 중심을 둔다. 르페브르(H. Lefevbre)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이나 하버마스(J. Habermas)의 체계와 생활세계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과연 북한의 현재의 모습이 체계와 생활세계에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북한은 일상생활에 대해 주체사상의 원리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곧 북한 사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관계를 '북한의 제도와 체계'와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분석수준으로서 '국가의 정책', '대중매체', 생활세계'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것은 북한의 국가정책이 곧바로 생활세계로 침투되기 보다는 대중매체를 매개로하여 전달되고 학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현지도'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김정일은 '현지도'라는 직접접촉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심적인 지도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유력한 대중매체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신문은 사회주의 국가 일반에서 보이는 선전, 조작, 선동자로서의 지위 이외에 강력한 교양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신문을 통해서 대중교양의 중요한 내용을 관철시키고 있다. 특히 신문은 당성,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의 사명은 결국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한다. 또한 방송과 영화에서도 동일한 이론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로의 이념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이후부터 북한의 대중매체는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으로 논조의 중심이 바뀌었으며, 사회주의 붕괴와 겹치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

전하고 이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으로서 이것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전체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균면일치를 강조하고 혁명 선배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등 북한이 과도기의 현 상황을 집단주의적 단결로 해결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이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할 것, 낮은 단계의 청산과 사회주의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구호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동구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1995년 태홍수 이후에는 더욱 더 이러한 자력갱생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운동의 강화이다. '정춘실운동',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 '80년대 속도 창조운동', '다수확군 쟁취운동' 등등 각 분야에서 대중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대가정론', '사회주의 생활양식론', '자력갱생', '대중운동' 등이 현재 북한의 생활세계를 가로지르는 국가정책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4가지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식·의·주 등의 3대 생활이 조직되고 있으며, 사회문화 의 식 역시 이것을 중심으로 교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의 모습 이면에는 국가정책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고 여러가지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에서도 직업의 차별, 학력의 차별, 보신주의, 소극주의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세대간의 의식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 상당한 부분은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아직은 심각한 생활세계의 위기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위기가 경제위기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기 보다는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념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데서 파생된다고 보면, 아직은 생활세계에서의 위기 징후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붕괴로 치달을 정도로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가의 정책 역시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끊임없는 사상교양이 생활세계의 이완 현상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의 문제,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문제, 당과 인민의 결합문제 등에서 계속된다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상황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과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경제위기의 극복이고, 둘째는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해결 방도이며, 셋째는 당과 인민, 특히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지속적인 결

합의 보장이다. 여기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관료적·형식주의적 사고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사회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아직은 생활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이를 통해 체제와 생화세계간의 결합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은 과도기적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이의 극복여부가 앞날을 규정짓게 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은 과거에는 비밀에 부쳐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유통, 외국인들의 잦은 방북 및 최근에 잇달아 늘어나고 있는 귀순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대한 단편적이고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여전히 북한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당면 과제를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국가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북한의 당이나 국가기관의 정책이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하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등장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선전·선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하달된 국가정책이 주민 생활상에 끼친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대중매체를 연구한 논문들은 몇 편 있지만 국가정책이 대중매체를 거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기는 어렵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김정일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1980년부터 김정일이 사실상의 후계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므로 1980년대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 후계자로서의 ‘김정일담론’을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위기론 및 붕괴론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북한 위기설은 오래 전부터 여러 출처를 통해 나오고 있었으나 1990년대 경제 사정의 악화와 1995년 홍수로 인해 붕괴론으로 비약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각각 상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만일 위기가 정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닌 체계의 위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체계와 유기적 연관을 갖고 있는 생활세계의 위기가 설명되어야만 위기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 통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동독 정권의 문제나 서독의 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 이전부터 많은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탈출했던 데서 기인하며 이미 생활세계가 흔들리고 있었던 데 더 큰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 및 붕괴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매체에 반영된 북한의 현실이 현실 그 자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미화되거나 왜곡된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세계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모순적이고 갈등적인 현실의 문제가 분출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오늘날의 북한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북한 연구는 오래 동안 정치구조와 권력관계 및 김일성·김정일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경제 분야 연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사회 연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 '북한 바로 알기'운동에 힘입어 사회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드문기운에도 정치학 연구자가 아닌 사회학과 인접학문분야에서 북한 사회를 분석한 글들이 나오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연구성과 중에서 북한 사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글들을 몇 편 살펴보기로 하자.

우경식의 논문은 사회학 연구자가 쓴 본격적인 북한사회 연구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논문 "북한지배층의 담화와 인민의 이데올로기적 지향"(1994)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많은 문제점이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북한에는 체제변화의 징후나 반체제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1980년 이후 북한에서의 이데올로기 생산과 이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사회유형 및 이에 적용하는 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밝히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일성의 '신년사'와 당기관지인 『근로자』의 논설(72건)을 간추려 지배이데올로기의 담론을 추출했다. 또한 『조선문학』에 수록된 단편소설(112건)을 내용분석하여 북한 사회의 성격과 피지배층, 특히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병사 등 4개 계층의 이념적 지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사회의 성격을 전통적 사회, 유사종교적 사회, 갈등형 사회의 통합으로 설명한다. 계층에 따라 지배권력과의 통합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증명해 낸 점은 상당한 탁견이다. 다시 말해 피지배층이 지배권력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및 가지 점에서 갈등적 요소가 커지고 있음을 발견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달은 치명적인 한계를 전제하고 있다. 『조선문학』이라는 정간물은 북한의 문예단체의 기관지라는 점, 다시 말해 그 문예단체는 북한정권의 외곽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조선문학에 등장하는 소설들을 통해 피지배 담론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담론구조가 지배적 담론구조와 분리되어 자립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역사민속학자인 주장현의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북한생활풍습』(1994)은 북한 주민의 의식주 및 생활 전반에 걸쳐 다룬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총서에서부터 『친리

마, 『조선녀성』, 화보집, 『조선건축』, 『조선예술』, 『고고민속』 등 방대한 자료와 화보를 동원하여 민족생활풍습이 걸어온 길과 현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보통의 민속학서가 주로 민속학사와 민속 현상을 서술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면 저자는 북한의 생활풍습이 북한의 이념 및 정책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그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풍습을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분단 50년 속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기반을 둔 북한 풍습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적 특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통일로 가는 길에서 계승하거나 지양해야 할 것들을 규명해 내고 있다. 이 책은 이방면의 드문 저작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책은 민속서라는 점이 갖고 있는 제한성이 있다. 북한을 다른 부문에 대한 정치우위의 사회라고 이해할 때, 어떤 풍습관련 정책이 도입되거나 바뀌게 된 정치적 설명이 간과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시대를 연속적으로 봄으로써 1980년대 김정일 후계체계가 확고해 가면서 김정일의 정책이 생활풍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별다른 주목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은죽의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1993)의 제2편은 “북한여성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는 비교적 오랫동안 사회학적 이론들을 북한 사회 연구에 적용하여 북한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한 바 있었다. 이 논문은 우선 사회주의 가족이론을 정초한 맑스·엥겔스의 이론과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의 이론을 적용했던 레닌, 스탈린 및 모택동 등의 이론을 정리했다. 주로 소설과 같은 문예물을 택하여 북한 가족생활의 실제, 즉 혼인에서 이혼, 가족의 형태, 친족관계, 장례, 부부관계 등에 이르기까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설명하였다. 소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경청할만하다. “소설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관에 의하면 비록 창작이라 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일종의 현실의 전형화로 간주할 만하고, 또 나아가 소설도 일종의 선전교양매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상적인 모형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깃들여 있다.”(이은죽, 1993: 171)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지적한 바대로라 할지라도 이 글의 본론은 소설에 반영된 현실이지 실제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소설 분석이지 소설적 배경이나 주제가 현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이 논문에서 인용한 소설들은 시대적으로 방대하다. 하나의 주제에 1970년대 소설과 1980년대 소설이 많이 인용되고 있어서 시대적 변화상을 짚기가 곤란하다. 김재용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소설은 1970년대 소설과 창작기법, 소재의 발굴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김재용, 1994: 258). 김재용은 이러한 차이는 시대적·사회적 차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그러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아쉬운 바는 전반부에 상당한 양을 할애하여 정리한 사회주의 가족론이 북한 가족 분석에서는 별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논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서제진(1995)은 북한 '인민'의 일상생활을 소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동구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이를 설명하려는 틀로서 시민사회 개념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면서 대안으로 제2사회(the second society)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제2사회는 기존사회 밖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로서 구 사회주의권에서 발견되었던 암시장, 지하신문의 존재, 야학 등의 비공식 학습채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제2사회는 완전한 사회를 향한 변화이며 맹아라고 진단하고 이 제2사회는 제1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안전밸브라고 한다. 그러나 제2사회가 형성되면 제1사회에 대한 흥미나 신뢰가 쇠퇴하며 따라서 두 사회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되어 주민들의 가치의 이중성은 더더욱 커지게 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2사회의 정의를 내린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제2사회의 모습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즉, 소설을 통해서 북한에서도 이러한 제2사회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인텔리들의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 증가, 북한 사람들의 인성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인성의 증가 정후들, 이중적 인성의 형성, 직업위신의 이중성, 경제생활에서의 이중성 등과 제일 차적 관계 즉 가족, 친구, 애인관계등에서의 관계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외부정보의 유입, 어려운 경제상황, 사회적 불만의 축적으로 인한 복잡한 군중의 양산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외부로의 대거 탈출, 북한 지도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개혁·개방의 심화 혹은 반대의 경우인 통제의 강화, 마지막으로 제3정권의 출현등을 예견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제진의 분석은 소설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각 방면에서의 인식과 변화의 양상 그리고 전망등을 도출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그동안 귀순자들의 일방적인 증언에 따른 이데올로기 함축적인 북한 일상생활을 구체적인 북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제2사회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즉 제2사회가 주로 구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며 따라서 그들 사회와 북한 사회가 가지는 특수성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제2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오히려 더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이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의 분석에서 소설을 통하여 제2사회적 요소만을 간추려 냄으로써 그가 말한 것처럼 비록 북한에서 제2사회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어서 일면으로 치우친 분석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한편, 이찬행(1993)은 서제진과는 반대의 방향에서 북한의 주민생활에 접근하고 있다. 즉, 서제진이 주로 소설을 통해 그들의 하부영역에서의 현상들을 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이찬행은 반대로 북한의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이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들이 당의 방침을 받아들이는 의식수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정확히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몇가지 나타나는 실천적 자료들

통해 이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혁명화, 공산주의화의 방침과 이를 실현하기 조건으로서 사상교양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분석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논문, 그리고 북한 방문기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완전히 신념화된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사상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까지는 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공산주의사상을 신념화시키는데로 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의지적 단결과 신념의 공고화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 50년간 실시되어 왔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생활을 지지하고 영위해 왔던 북한 주민들에게서 급격한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찬행의 분석은 북한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근거와 분석없이 제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백육인(1990)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을 분석하기 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이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그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체제와 생산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구조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북한의 생산영역에서의 조직구조인 조직, 여가, 휴가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인 노동, 여가, 휴식이라는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노동현장에서의 사회관계도 계급관계가 아닌 직위 체계에 의해 규정되며 이것의 주도성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의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의 지침, 직업 집단의 관리 방식에 의하여 규정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주민 생활의 전영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상적 요세의 우위가 주민들의 물질생활과의 괴리를 발생시켜 사회 조직 원리에서 정치주의적, 주의주의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방비의 부담등으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문화비가 점차 하락하면서 북한 주민의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직접적인 북한의 일상생활 혹은 정치문화적 생활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일련의 보고물들이다. 특히, 1995년에 나온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上·下는 여러측면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은 북한의 '새 세대'들의 가치관을 소설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임순희의 글과 소설과 영화, 출판보도물을 분석하고 있는 이현경의 글을 들 수 있다. 이중 임순희의 글은 서재진과 거의 동일한 방

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임순희는 소설을 통해서 북한의 '새 세대'들이 전통적인 북한의 가치관에서 조금씩 이탈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생관에 있어서 집단중심에서 자아중심으로,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의 우선시, 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는 않으나 자기주장이 뚜렷한 것으로, 남성관/여성관에 있어서 남존여비의 강한 사상이, 교우관계에서 신의와 헌신의 중요성이, 연애관에 있어서 자유연애의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은 서재진의 분석과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서재진이 주로 북한사회의 제2사회적 측면에서 고찰되고 있다면 그는 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충실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설을 통해 분석되는 과정에 소설의 전반적인 목적과 주제보다는 인물묘사에 대한 지나친 대비를 분석의 초점으로 하고 있어서 소설에서 설정한 부정적 사례에 대한 과대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헌경의 글은 북한의 정치사회화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지배자들에게 효과적인 통치의 전술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강화, 상·하간의 위계질서의 강조등은 개인우상화를 통한 군신주의와 가신주의의 정치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교적 본질 및 전통의 뿌리가 없었다면 유교적 통치관의 변용에 의한 통치행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정치이념, 정치사회화의 과정과 결과를 유교적인 개념과 원리로 등치시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유교적 요소의 존재와 북한의 정치이념, 정치사회화의 과정이 도식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전통적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혼재와 복합의 양상은 언제든 가능하며 따라서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교적 내용의 본질적 부분 즉, 사회구조적 부분, 사람들의 의식 지향등의 분석없이 현상적인 모습을 통한 해석만으로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의 등장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연결지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위의 연구들이 거시적 혹은 미시적인 한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극복하고 두 수준을 연관지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1.3 연구 방법론 및 분석틀

1.3.1 연구 방법론 : 생활세계와 체계 이론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을 연관짓는 연구가 바로 생활세계와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생활세계, 즉 일상생활 연구는 근대성에 기반한 거시이론체계가 설명력을 잃은 오늘날 주목

을 받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의미는 분명한 것 같지만 학문적 용어로 규정하고 나면 생소한 개념인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 자체는 이미 사회학이 정립되어가던 20세기 초반부터 활성화되어 1920년대부터 시카고 학파의 버제스(E. Burgess), 40년대 르페브르(H. Lefebvre)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까지 거시 실증주의 학문에 밀려 일상생활 연구는 뒤로 밀리지만 곧 거시이론이 사회과학에서 정당성을 잃게 되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현상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시킨 슈츠(A. Schutz)와 고프만(E. Goffman)의 현상학적 사회학과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은 일상생활을 주요한 학문적 원천으로 복권시킨다. 하지만 일상생활 연구에만 치우쳐 일상생활영역이 전체 체계와 어떤 관계에 있고 후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며 현상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간과되어 버렸다. 이에 우리는 르페브르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을 인간의 특수한 분야로 설명하기를 거부한다. 그에게 있어서 일상은 전체적 삶의 외현화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회전체의 인식 없이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다. 일상성과 사회 전체의 비판이 없이는,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비판이 없이는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도, 사회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사회 전체 속에서의 일상생활의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없는 것”(H. Lefebvre, 1961: 17; 박재환, 1994: 32 재인용)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민속방법론의 일상생활 연구가 미시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분석될 때만이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세계 연구를 통해 현실의 전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맑스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총체성(totality)’이다. 맑스의 총체성으로서의 ‘사회구성체’ 속에서 생활세계는 경제적 관계의 반영물임과 동시에 토대로부터 규정받는다. 그러나 이론에 의해 파악되는 총체성이라는 이론은 현실과 일정 거리를 두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페졸리(M. Maffesoli)에 따르면 이론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현실을 고정된 상태로 인식하기 보다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부각되며 끊임 없이 변화·생성된다고 파악한다. 일상 세계가 단순한 이론적 도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론으로 환원해서는 안된다(박재환, 1994: 40). 이런 점에서 총체성의 주장이야말로 억압·강제·공포의 정치적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며 인간의 인식으로는 총체성에 도달할 수 없기에 작은 이야기(small narrative)에 주목해야 한다(문화와 사회연구회 편, 1994; 도종일, 1991)는 료파르(J. Lyotard)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세계, 즉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 북한이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생활세계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입각해서 인식하고 있다.

사람의 활동방식, 생활방식으로서의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활동과 생활의 어느 한 형태나 영역만 아니라 모든 활동과 생활을 다 포괄하고 있다. 생활양식은 세태풍속이나 가정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활동과 창조활동, 사회정치활동과 경제활동, 노동생활과 일상생활, 물질생활과 정신생활, 도덕행위와 교제 등이 다 생활양식에 포함된다. 생활양식은 활동방식, 생활방식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생활을 특징짓는 종합적인 개념이다(박승덕, 1985: 221).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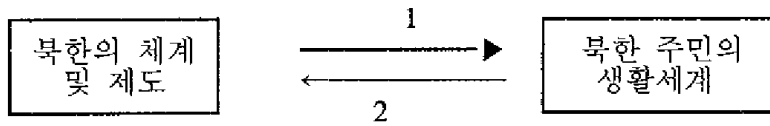
생활양식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만큼 그것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봉건사회에는 봉건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는 봉건적 생활양식이 지배하였다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주의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지배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그에 고유한 생활양식,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지배한다(박승덕, 1985: 222).

북한의 생활양식은 맑스적 총체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정치, 경제, 문화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의 생활양식론에 기반하고 있는 북한의 일상생활은 “사회전체의 인식 없이는 일상성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르페브르의 진술을 엄두에 둘 때 이해가능하다. 일상생활은 바로 북한 제도의 반영이며 제도의 성격이 일상생활의 성격을 지배하게 된다.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등과 같은 거시적인 제도적 성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만으로 볼 때는 북한의 일상생활의 변화상을 놓치기 쉽다. 북한은 1947년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여 1958년경이 되면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의 일상생활을 보면 1958년 이래로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주의 생활세계를 변화 없이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활세계 속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연속적이라고 보기 힘든 차이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체계의 일반적인 틀에서 보기 힘든 문제들, 예컨대 민족주의적 생활양식의 강조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르페브르식의 사회전체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생활세계 또는 일상생활은 전체의 반영이며 동시에 전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접근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마페졸리가 인명하는 것처럼 제도적 수준의 이념이나 이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세계는 존재하고 있음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와의 일정한 모순을 안고 있고 있으며 이 모순은 필연적인 차이를 낳고 있음을 이해할 때 북한 생활세계를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전체(제도,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받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생활세계는 전체에 대해 일정 정도 자율성을 가지며 반작용을 한다(L. Althusser, 1991: 82).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위 그림에 따르면 전체로서의 북한의 제도 및 체계가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차적이다. 하지만 생활세계에서 감지되는 차이나 모순은 역으로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일직선적이기보다는 피드백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생활세계와 전체로서의 제도 및 체계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체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세계(사회문화영역)를 정치, 경제 영역(체계)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며 비판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론을 독일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J. Habermas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그의 책 『의사소통행위론』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1987)에서 베버의 합리화론에 기초하여 세계를 체계 및 생활세계의 양대 개념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체계는 정치, 경제 하위체계로 나누고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는 3가지 차원의 분화과정에 따라 진화적 발전을 한다. 첫째,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재생산과정(즉 체계 system)이 의사소통행위의 맥락(즉 생활세계 life world)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을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 Entkoppelung’라고 한다. 둘째, 체계내에서 일어나는 분화현상이다. 사회 체계는 기능적 요건에 따르면 ‘매체조종’에 기초한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체계로서 작용한다. 친족체계로부터 분리된 권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응성과 함께 발달된 화폐제도는 각기 국가기구 및 시장경제라는 하위기능체계로 발달되어 나가게 된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하위 체계로 분화되어 나간다. 셋째, 생활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분화의 차원이 있다. 생활세계는 확실성, 배후성, 은둔불가능성을 특성으로 하는 ‘의사소통적인 발화들 사이에서 의미를 유지해주는 상호연관성의 장’ 혹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개인 각자의 배후에 놓여 있으면서 이해과정을 지지해주는 언어의 맥락’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생활세계는 문화, 사회, 인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성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표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재생산과정	문	화	사	회	인	성
문화적 재생산	합의유도적 해석도식 (타당한 지식)		정당화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유형, 교육목표	
사회통합	의무		정당하게 질서화된 개인관계		사회적 소속감	
사회화	해석적 성취		규범순응적 행위로 의 동기화		상호작용의 능력	

하버마스가 말하는 체계의 위기와 생활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사회의 근대화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진화적인 분화와 합리화 과정으로 일어난다. 사회체계는 분화하고 복잡해지는 반면 생활세계는 더욱 합리화 된다. 증대하는 사회체계의 복잡성은 생활세계의 합리화과정을 자극하며 새로운 체계발전은 새로운 생활가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체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개되어 간다.

한편 체계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생활세계에도 영향을 주어 위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체계의 위기는 정체성 및 동기부여의 위기를 낳게 되고 이는 또한 순환과정을 겪게 된다. 그가 『의사소통행위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체계 및 생활세계의 위기

종류	하위체계위기	체계 위기	정체성 위기
경제		경제적 위기	--
정치		합리성 위기	정당성 위기
사회문화		--	동기부여 위기

위의 표에서 가리키듯이 체계의 위기는 생활세계에 동기부여의 위기를 낳는다. 또한 동기부여의 위기는 다시 체계의 위기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모형은 원래 하버마스가 살고 있는 선진자본주의사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형을 북한사회, 특히 북한 생활세계에 적용시켜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그가 전제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개념을 북한이 지향하는 이념의 문제로 대처한다면,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며, 또한 생활세계에서 사는 주민들의 체계에 대한 지지는 주민들의 안정된 정체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경제·정치 체계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곤란이 생겨 이념과 현실에 거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 사회주의 주민으로서 스스로를 동기 부여하기 어렵게 된다. 동기부여의 곤란은 다시 체계 위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론을 빌어 북한의 생활세계에 적용시켜 찾아내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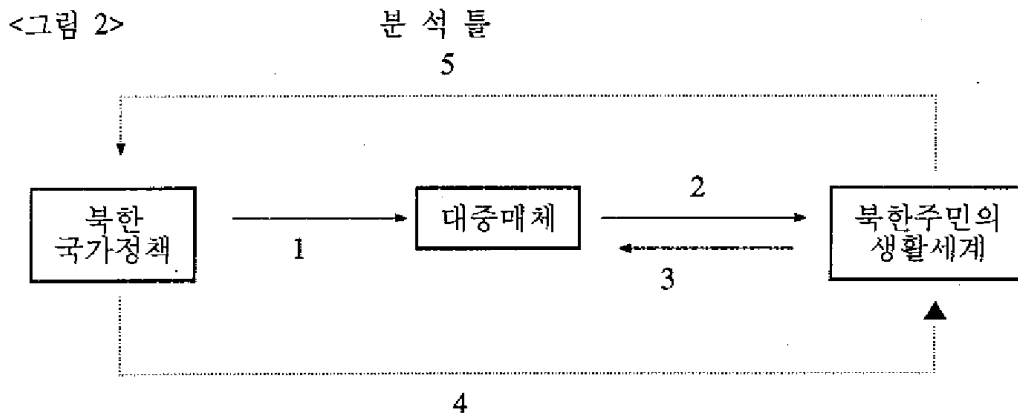
첫째, 북한의 생활세계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스스로 생활세계를 발전시켜 왔는가?

둘째, 북한의 주된 위기가 경제 체계에서 배태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체계 위기가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세계, 생활세계 주민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가?

1.3.2 분석틀

전체로서의 체계 및 제도를 국가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은 주민의 생활세계 또는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할 틀은 <그림 1>과 같다. 이 글에서는 생활세계에 접근하는 길로서 대중매체를 분석한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에 생활세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전자에 대한 연구를 거쳐 후자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림 1>에 대중매체 분석을 첨가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국가정책이 대중매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본다.
2. 대중매체가 북한주민의 생활세계에 어떠한 정보와 영향을 주는가를 본다.
3.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본다.
4. 부차적으로 국가정책이 생활세계를 어떻게 구축하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다.
5. 가설적 수준이지만 생활세계가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작용을 미치는가를 본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인민'의 생활세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생활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 개념을 검토한 뒤에 대중매체에 대한 면밀한 내용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즉, 대중매체에 나타난 담론 분석을 통하여 그것들의 내용을 충실히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은 북한의 대중매체이며, 국가의 대중매체에 대한 정책적 내용과 대중매체의 역할들을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과 대중매체, 인민들의 생활이 서로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대중매체에 대한 담론분석, 생활세계와 대중매체간의 상호작용, 국가정책과 대중매체, 그리고 국가정책과 생활세계간의 총체적 접근법이다.

2. 북한의 대중매체: 언론, 방송, 영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우리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대중매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된 계급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이념과 정책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선전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매체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국가권력과 대중매체의 유착과 공존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중매체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조직하려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해당사회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장은 대중매체가 일상생활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드러내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북한의 대중매체에 대한 정책과 역할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북한의 언론이론과 정책, 방송 그리고 영화이론 및 정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2.1 언론

2.1.1 언론이론

북한에서의 언론은 철저하게 당에 통제되고 그 임무도 선전자·선동자·조직자로서 위치지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레닌의 언론이론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시기가 지나면서 특히, 유일사상체제가 자리잡으면서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에 중점을 두고 김일성주의에 초점을 두는 혁명전통에 대한 강조 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서는 레닌주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레닌의 언론이론에 의해 지배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 때부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언론이론은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쳤으며, 언론에 선전자·선동자·조직자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맑스에게 있어 언론매체가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상부구조의 범주에 포함되며 개인적 소유물이나 영리추구 위주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정치적 기구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었던 것이라면(김경근, 1989: 21) 레닌에게 있어서 언론은 단순히 상부구조의 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아니다. 레닌은 오히려 신문을 혁명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신문을 당파적인 흑백논리에 따라 사용하도록 권

유했던 것이다.(김정근, 1989:27) 그는 언론매체를 선전자·선동가·조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전복과 민중봉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만 이것은 혁명이 성공하기 이전 혁명실천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혁명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못한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레닌의 언론이론은 스탈린에 의해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스탈린의 언론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1) 언론매체별 진로를 명확히 할 것 2) 불세비즘 역사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할 것 3) 당 생활을 소개할 것 4) 사회주의 경쟁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5) 인민들이 상호 스탈린주의적 우애를 다지도록 할 것 6) 편집자는 노동자, 농민통신원의 편지를 근거로 편집작업을 할 것 7) 문학과 예술을 소홀히 취급하지 말 것 8)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할 것 등이다.

결국 레닌과 스탈린에서의 언론사상은 단순한 상부구조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과정과 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민대중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교양하여 조직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을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정책과 노선으로 교양하고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당의 유력한 무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언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몸소 혁명적 출판물을 수많은 발간하시였으며, 혁명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정차사전, 1973:1202, 서울:지양사).

이렇게 항일혁명투쟁에서 그들의 언론사상의 출발점을 찾고 있는 북한은 당연하게도 북한 언론의 모든 활동의 기본지침을 여기에서부터 끌어오고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항일혁명기의 경험이 김일성의 위대성 선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장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언론이론과 북한 언론이론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맑스-레닌주의에서 신문은 선전자로서, 선동자로서, 그리고 조직자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북한에서도 『신문이론』에는 “맑스-레닌주의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정식화한 것으로써 우리 신문들의 활동에서 귀중한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배순재.라두임, 1967:24) 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문학』에서는 시대의 선진사상을 열렬히 옹호 선전하는 시대의 선구자로서의 역할, 인민대중의 참다운 지향과 의사를 진실하게 대변하고 적극 고무하는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고, 『신문학개론』에서는 시대의 선구자, 진정한 여론의 조직자를 제시하고 나아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가장 예리하고 강력한 사상적 무기인 당적 신문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로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자적 역

합, 문화교양자적 역할, 대중동원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 대적투쟁, 대적언론전의 강력한 무기로서의 역할, 대외선전과 외교의 수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주·이범수, 1994: 30-31) 이렇게 보았을 때 레닌이 말한 신문의 사명인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의 기능 이외에 북한에서는 교양자적 역할을 더 추가하고 있으며 이를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신문의 사명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나아가서 주체 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1985: 5; 유재천, 1989: 75쪽에서 제인용) 이라고 하여 절대적인 목표에 순종하는 것으로 위치짓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말하는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당성과 계급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신문이론』이론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는 “모든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에서는 신문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조선인민들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며 국제로동운동의 위업수행에 성실하는 여기에 우리 신문들의 계급성이 있다. 당은 계급의 전위대이며 뇌수이다. 그러므로 신문이 계급성을 떠나는 것은 곧 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순재·라두임, 1967:42-43)라고 하여 『신문학』이나 『신문학개론』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¹²⁹⁾ 이것은 아직 『신문이론』이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조선적 현실에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썩여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언론의 인민성과 대중성의 문제이다. 『신문이론』에서 인민성과 대중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민성의 원칙이란 우리 신문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전당의 조직적 의사인 당정책을 인민대중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중성의 원칙이란 신문사업에 광범위한 대중을 인입하여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치적 연단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배순재·라두임, 1967: 47-49)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학』과 『신문학개론』에서도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들의 창조적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규정하면서, ‘인민성은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며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만드는 데서 표현되며, 대중성은 신문보도사업에 광범한 대중을 적극 참가시키는 데서, 즉 노동통신원들과 열성필자들 그리고 광범한 독자들이 참가하는 데서 표현된다’(조형창·리준하, 『신문학』 김일성종합대

129) 『신문학』이나 『신문학개론』에서 당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며, 이것은 곧 수령이 제시한 당정책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신문의 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되게 하며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이론, 방침을 철저히 옹호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와 이긋나는 온갖 비당적·적대적 경향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나타난다라고 하여 김정일의 출판보도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당성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김영주·이범수, 1994: 27)

학 출판사, 1982:13)고 하여 『신문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전투성과 진실성문제이다. 『신문이론』에서의 정의를 보면 ‘진실성을 보장하는 기준은 객관적 현실을 건설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인식하는 세계관인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이다.... 진실성 원칙과 함께 전투성의 원칙은 우리 신문에는 역시 없어서는 안될 원칙이다. 우리 신문에서는 전투성이란 계급적 원칙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예리하게 폭로하여 당 정책을 기동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이악하게 관철시키는 데서 오는 본성을 말한다.’(배순재.라두임, 1967:53,57)라고 규정되고 있는 반면에 『신문학』과 『신문학개론』에서는 ‘진실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서 나타나며, 전투성은 새 것을 열렬히 옹호·지지하며 온갖 반당적, 적대적 경향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데서 표현된다’(조형창.리준하, 1982: 13)고 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진실성 보장의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의 언론은 그 기능과 사명, 그리고 성격에서 맑스-레닌주의와의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하며, 그것은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재정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김정일의 언론관

현재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의 이론적 기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특성상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이미 북한사회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는 그가 수령의 지위를 공고하게 한 이후부터라기 보다는 그가 후계자로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김정일의 언론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1970년대 후반부터의 언론이론과 정책은 거의가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언론관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언론이론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¹³⁰⁾

우선, 김일성의 언론관을 보자. 그의 언론관은 주로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김일성의 언론관은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레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언

130) 여기서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대로 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지 그의 마음대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란 사상과 국내적 조건 그리고 대외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임스 E. 앤더슨은 정책을 ‘문제 또는 관습을 다룸에 있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에 의해 추진될 목적 지향적인 행동경로’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분리시켜서는 적절히 고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E. 앤더슨, 이종수이대회 역, 『정책형성론』, 내영문화사, 1991)

론의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덧붙이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단상황으로 인해 남한혁명에 대한 언론의 기능과 계급성, 당성, 인민성, 대중성, 진실성, 전투성 및 반제연대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 등의 강조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원칙이라면 여기에 남한과의 관계에 따른 전투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반제연대성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언론관이 자신의 입으로 최초로 표명된 것은 1945년 12월 17일 열렸던 조선공산당 북조선 조직위원회 당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행한 '북조선 공산당 각급 단체들의 사업에 있어서의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란 보고서에서이다. 여기서 당면과업의 하나로서 당 기관지 「정로」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로」신문사의 기구를 확장하고 거기에 유능한 일꾼들을 파견하여 신문물의 질을 높이며 그 부수를 5만부에까지 달하게 하는 동시에 일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문이 집단적 선전자·조직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여 신문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선전자·조직자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김영주·이범수, 1991: 19)

이러한 북한의 언론관은 1967년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면서 점차 맑스-레닌주의를 탈각시키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론이론으로 확립해가기 시작한다. 그것을 주도한 이가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출판보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그간의 혁명수단으로서의 언론을 교정하기 시작한다.

우리당의 출판물과 통신, 방송은 김일성 동지가 쌓으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그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을 유일의 지도지침으로 하여 김일성 동지가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가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츠크첸코思想國際研究所, 1987: 141).

즉, 언론의 기본목적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여,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나아가 세계 혁명의 승리를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목적과 관련하여 언론이 가져야 할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정일, '우리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1974, 김영주·이범수, 1994에서 제안용)

- 1) 전사회의 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데 공헌할 것
- 2) 당원과 노동자를 당의 정책으로 교육하는 활동을 할 것
- 3) 혁명전통을 교육할 것
- 4) 혁명교육, 계급교양을 강화할 것
- 5) 경제와 문화등 공산주의 물질적 요소를 집령하는데 공헌할 것
- 6) 조국통일과 남조선 혁명, 세계혁명을 위해 투쟁할 것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적으로 인간개조의 과업을 제기함으로써 공산주의 인간을 창출하는 것에 신문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신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은 무엇일까?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당 출판보도물은 주체의 원칙을 자기활동의 근본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둘째로, 우리의 출판보도활동은 철저히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밑에 진행되어야 합니다....셋째로, 우리당의 출판보도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은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것입니다(김정일, 1974; 김영주·이범수, 1994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사업의 방식으로는 항일유격대식 방법과 속도전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혁명전통에서의 원칙과 그들 특유의 속도전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맑스-레닌주의적 요소가 점차로 탈각되어가고 주체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이에 따라 언론사상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산주의 인간형, 즉 김일성주의로의 무장과 항일혁명투쟁의 전통교양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즉, 북한의 언론은 이때부터 김일성-김정일의 후계구도에 맞춰지면서 그 임무와 원칙 사업방식등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1974년의 한 논문을 통해 김정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위업을 위해 새로운 혁명단계의 출판보도강령을 독창적으로 천명하고, 김일성주의 출판보도사상을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강령과 내용에는 언론의 임무, 목적, 원칙, 방법 그리고 언론인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까지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2.1.3 언론정책

이상에서 북한의 언론사상과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에 기초하여 나타난 북한의 언론정책을 살펴보자. 북한의 언론이론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언론정책도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 변해왔다. 즉, 초기에는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중에 대한 정책교양과 선전, 선동에 중심이 놓여 있던 언론이 점차로 후기로 넘어올수록 김일성에 대한 선전과 선동 및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선전, 그리고 경제선동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기별로 나타난 북한언론의 변화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북한언론의 연혁

시 기	주 요 발 간 물	주 요 내 용
해 방 전 후	신문: 새날, 불셰이크, 농우 잡지: 량조조선, 투쟁 정치간행물: 민중보, 반일보 항일유격대 출판물: 전투보, 첩보,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 기타: 청년투쟁, 농민투쟁, 소년선 봉, 해방전선, 서광, 종소리	* 최초의 신문으로 새날을 주장 * 항일혁명의 전통속에서 연관을 가진 신문의 역사만이 인정 * 서광은 민족해방동맹의 기관지 * 종소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대내 기관지

해방이후에서 한국전쟁까지	신문: 봉화, 평양민보, 정로, 진진, 로동신문, 민주조선	* 로동신문은 정로와 진진이 합쳐져서 만들 어진 조선노동당 기관지 * 북한발표에 의하면 49년까지 27종의 신문 과 1개의 통신사를 확보했다고 함 * 신문의 국유화
한국전쟁시기		* 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언론활동이 지 속되지 못함 * 각도의 도당기관지와 인민위원회 신문들 이 발행됨
전후복구시기 (1954-60)	신문: 조선인민군, 평남일보, 평북 일보, 자강일보, 함북일보, 함 남일보, 강원일보, 황해일보, 개성신문, 건설자, 조소친선	* 건설자는 평양시 건설복구 위원회기관지, 조소친선은 조소문화친선기관지 * 24종이 주요신문과 주요생산직장 자체로 약 120여종의 직장신문이 발간
1960년대	신문: 조국통일, 인민보건, 수산신 문, the Pyung Yang Times	* 조국통일은 조국통일 중앙위원회 기관지 * 인민보건은 보건성과 교육문화보건 및 공 무원 직업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 수산신문은 수산성과 정공업 및 사립 노 동자 및 노동자 직업동맹중앙위원회 기관 지 * the Pyung Yang Times는 1966년 창간
1970년대 이후	신문: 근로여성, 새날	* 근로여성은 여성동맹 기관지 * 새날은 사로창 기관지였던 소년신문을 개 명한 것

* 출처: 유제천, 1989 에서 내용을 정리

이러한 역사적 변천과정 속에서도 북한에서 「로동신문」의 지위와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그것의 역사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타 신문에 미치는 영향면에 있어서도 북한에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당의 기관지로서 북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침과 총적인 선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이 북한의 모든 신문중 중심이며 타 신문들이 거기에 하위체계를 이루는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그가 북한의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다 장악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행사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에 대한 충실성의 강조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강조의 글이 부쩍 늘고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장악과 무관하지 않는듯 하다. 즉, 「민주조선」의 책임주필인 김정숙은 조선기자동맹 제7차대회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이 없으면 혁명적인 신문, 방송, 통신 잡지들도 없고 우리기자, 언론인들의 생명도 없다. 때문에 우리 기자, 언론인들은 지난날에도 당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현세기의 가장 위대

한 정도자를 스승으로, 친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다시 없는 행운이다”(김정숙, 1993. 12: 80).

김정일 역시 언론이들에 대하여 “우리 당 사상선전의 일선을 맡도 있는 기자, 언론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 견결한 투사들이며 당의 참된 문필가들입니다”(김정일, ‘조선기자동맹 제7차대회에 보내는 서한’ 중에서)라고 하여 기자들이 당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선전가, 선동가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언론인들에게 가장 정당한 신문보도의 내용은 ‘모든 출판보도물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가 짝 들어찬 주체의 출판보도물로 위력떨치게 하는 것’(신주석, 1993. 12: 57)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 언론(신문)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설정했던 역사적 과업에 따른 변화, 북한 신문이론의 발전에 따른 변화 등으로 크게 두 가지의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주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문의 기본사명과 임무가 정해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후기에는 주체의 언론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일사상화를 위한 신문정책과 김일성-김정일 후계구도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내용과 사회주의적 사상교양이 중심을 이루면서 여기에 당면한 경제건설을 위한 노력동원운동이 나타났다면, 후기에는 주체사상에 따른 주체적 사회주의로 내용이 바뀌고 노력동원과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적 선전과 선동, 그리고 사상을 중심에 두면서 여기에 경제선동을 결합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자신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사상적 교양과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2 방송

현재 북한에는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이 당과 통제에 철저히 장악되어 통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역시 당과 국가의 정책과 노선을 그대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북한은 <평양방송국>이 ‘김일성 조국개선 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한 날짜인 1945년 10월 14일을 방송국의 개국일로 잡아 이날을 방송절로 삼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그리고 제3방송이라는 유선방송이 존재하고 있다. TV방송으로는 조선중앙TV와 만수대 TV가 대내를, 개성TV가 대남부분을 맡으며 출력되고 있으며, 라디오로는 조선중앙방송이 단파와 중파,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며, 평양방송이 대남과 국제용으로 존재하고 있다. FM방송으로는 평양 FM이 있다. 그리고 당통일전선부에서 운영하는 대남방송으로 구

국의 소리방송이 있다.¹³¹⁾

이중 조선중앙방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앙방송은 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평양방송이나, 조선통신사가 대외적으로 보도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평양방송이나 조선통신사의 보도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받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¹³²⁾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인민생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선중앙방송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이 어떠한 내용을 북한의 인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방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방송하는데 뉴스와 일기예보, 음악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찬양방송, 남한에 대한 비난방송 등이다. 이중 음악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 대한 보도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은 “우리 출판물과 통신·방송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 사회를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대로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함을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당의 의도와 당이 제시한 방침을 무조건 받아들여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출판·보도부문 활동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김정일, 1974,5,7)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언론정책에 보듯이 동일한 내용을 방송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방송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당과 국가의 방침을 ‘인민’들에게 해설·선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정하철은 기자동맹 7차대회에서 “방송이 오늘날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혁명적 성격에 합치하도록 영도자의 사상을 근본의 명맥으로 파악하여 방송전반을 철두철미 영도자 사상으로 일색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방송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한 방송으로 확고히 전환됐다. 위대성 선전을 주축으로 하여 건지해 가면서 방송의 특성과 지닌 맛을 잘 살림으로써 시청율과 실제의 효과를 드높여야 한다”고 하여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선전을 기본축으로 하여 방송이 인민들에게 영도자의 사상을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의 인민생활을 계도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131) 구국의 소리 방송은 남한의 독자적인 선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방송이라는 주장이 있다.

132) 일본에 있는 라디오 프레스의 조사에 의하면 평양방송에 보도되었지만 중앙방송을 포함한 대내방송으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1995년와 96년에 이렇게 집계하고 있다. 주요한 것만 간추려보면, 95년의 경우, “청진 대학생 반정부 데모”보도를 비난한 논평, 김영삼 대통령의 탈북자 증가 발언을 비난한 논평, 진 지군파인 다나카의 체포와 관련해서 북한의 탈러 위조시건 관여를 부인한 논평, 식량문제로 따른 북한의 위기설을 비난한 논평 등이고, 96년의 경우에는 주 잠비아 북한대사관 현충인서기관이 ‘마누리가 남한 당국의 책략에 속아 유괴됐다’는 답화, 미국의 200만달러 식량원조 시설을 북한에 봉고해왔다는 보도, 러시아 부역대표부 농성사건의 첫보도, 범인은 정신병환자라고 주장, 4차 회담을 검토중이라는 북한 대변인 답화 등이다. 북한은 지난해 대규모 홍수피해를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숫자로 보도했는데, 북한 국내에는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방송은 언론 분야와 거의 동일한 이론과 정책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수단이 되고 있다.

2.3 영화

북한에서는 언론 못지않게 영화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영화의 선전·선동적 성격을 중시하고 또한 이것이 가지는 국제적인 성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영화를 통해 실제의 인간들이 벌이는 구체적인 모습을 영상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영화를 행동의 예술이며 생활의 예술로 정의하고 일정한 역사적 과정속에서 생활을 객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며, 역사적인 문헌자료, 시사보도자료로 이용하는데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3.1 영화이론

북한의 영화이론은 김정일의 『영화예술론』¹³³⁾이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문학예술론의 기본은 바로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의 문학예술론을 살펴보자. 북한의 문예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인간형상과 생활화폭을 통하여 세계에서의 사람,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옹기 있게 보여주고 사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옹기 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11; 『북한의 문예이론』, 1989년 재출판)고 하여 예술의 역할을 사람들에 대한 계몽활동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여러가지 예술이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영화와 소설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여 문학예술 중에서도 영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영화에 대해서는 ‘당보의 사실과 같이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사회주의 문학예술론』, 114쪽)고 강조하고 있다.

133) 『영화예술론』은 1973년 김정일이 당선전선동비서로 있던 시절 발표한 문건이지만 1983년에야 공개되어 1980년대 널리 소개되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김정일의 많은 문건이 초기에는 공개시에 제목을 밝히지 않고 내용중심으로 소개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건의 제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김병로, 1993: 11)고 한다.

앞의 언론이론에서와 같이 영화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강조하는데, '당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로동계급성은 로동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함을, 인민성은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정당하게 표현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는 것'('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93-110쪽)으로 정의하고 '혁명적인 내용, 계급적인 내용을 담아낼 것을 주장하고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136)

또한 영화에서 표현되어야 할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전형화'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즉, 생활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생활에서의 전형적인 것을 예술에서 전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그것이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228) 이런 전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하고 있는 계급과 계층의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적 특질을 정확히 밝혀내고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그 계급과 계층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보여주며 그 계급과 계층에 대한 당의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표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작가, 예술인들의 판단이 주어져 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238,243)고 하여 순수성을 부정하고 항상 사회적 조건과의 밀접히 결부시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것을 필수적 요구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위주로 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계몽과 선도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은 "어떤 일꾼들은 부정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야 씨나리오도 되고 희곡도 되고 소설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무엇을 기본으로 삼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긍정적인 주인공, 모범적인 실례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256에서 재인용)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학예술작품에서 긍정적인 것, 모범적인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257)라고 하여 영화가 당의 방침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영화이론은 전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세 인간형의 창출과 주민들에 대한 당의 정책과 노선을 해설 침투시키고 주민들을 긍정적인 모범을 통해 감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2 영화정책

북한에서 실질적인 영화사업의 착수는 1947년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설립되고 첫번째 영화로 <내고향>(1949년)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첫 기록영화¹³⁴⁾는 <우리의

134) 북한의 영화는 예술영화,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술영화는 문학

건설>이라는 것으로 초기에는 이러한 기록영화를 중심으로 북한영화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표 2참조>

<표 2> 북한영화의 시기별 정책

시 기	주 요 정 책 내 용
1945-1950년 한국전쟁까지	* 북한영화의 태동기, 내용으로는 주로 공산주의 혁명 찬양과 대일전 의 무용담을 담은 중국, 소련의 영화 상영 * 시설과 제작편수의 절대적인 부족
전 쟁 시 기	* 기록영화제작에 주력, 중국과 소련영화 수입 상영
전후 1950년대	* 전후복구의 작품을 주로 제작 * 1956년의 중과투쟁으로 남한 출신영화인 배제
1960년대	* 천리마운동에서 나타난 인민들의 영웅적 모습 제작 * 인민무력부 산하의 2.8 예술영화촬영소 창립 * 과학영화촬영소 창립 * 60년대 후반 유일사상에 기초한 집체창작이 등장하고 전쟁물이 큰 비중을 차지함 * 김일성이 창작했다는 작품이 영화화되기 시작
1970년대	* 김정일의 『영화예술론』 발표(1973) * 수령과 당의 혁명전통, 전쟁에서 인민군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 사 회주의 건설모습 등의 내용이 주로 제작
1980년대	* 김정일에 대하여 ‘영화예술의 천재’, ‘주체예술을 개화시킨 위대한 영화예술가’ 등으로 찬양 * 수령의 혁명활동 역사가 우선되고 혁명전통에 대한 것, 전쟁에 대 한 것, 남한에서의 투쟁고무하는 내용 등을 영화화

* 출처: 김문한, 1989에서 노재승의 글을 재정리

현재의 북한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김일성의 위대성에 대한 것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은 당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이 곧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 선전이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후계체제의 완성과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드러내 주고 있다.¹³⁵⁾

작품이나 사실적 내용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의미하고, 기록영화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국가적 행사, 김일성-김정일의 현지지도, 외국수반의 방문활동 등을 기록한 것을, 과학영화는 과학기술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영화, 아동영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35) “오늘 우리 영화예술 앞에는 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우리당의 위대성을 잘 형상하자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형상

1995년 『조선영화』 1월호에는 ‘위대성 선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되는 다부작 예술영화 <만족과 운명>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판이한 두 제도하에서 살아온 각이한 인간들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조선영화』, 1995.1: 37)

이것은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 김정일로의 권력이양과 그가 내세운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떻게 영화부문에서 표출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김정일에 대한 선전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을 결합하여 영화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것은 영화예술 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이다’하고 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인민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할 것’, ‘이것이 당과 수령에 의해 마련되고 있으며 ‘인덕정치’를 잘 구현하고 있다는 것’, ‘‘인덕정치’의 형상에서 김정일의 혁명적 풍모를 그려낼 것’, 그리고 ‘관료주의와 세도,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정웅, 1995.3: 17-19). 다른 한편 청소년에 대한 영화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김택진, 1995.5: 41-43)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청소년이라는 세대상의 특징상 이들에게 계속적인 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끝까지 혁명과 건설을 해야한다는 것이 하나라면, 다음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혁명의 세대교체기에 이들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의 정당성을 교양하려는 것이 다른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북한영화에 대한 정책은 가장 중요하게는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교양, 혁명전통 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교양이 기본으로 되고 있으며 이를 사상적으로 표현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소재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¹³⁶⁾

이상에서 간단하게 북한의 인문정책과 방송, 영화등에 대한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라 그러하듯이 당과 국가에 의해 이것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

화하여야 한다.” 『조선영화』, 1995년 1월호.

136) 이러한 내용을 가진 영화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 사회주의 대가정에 대한 강조, 숭은 영웅들의 이야기, 경제건설에서의 영웅적 투쟁이야기 등등이다. 이러한 주제는 이전에 비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지만 모르나 이전에는 주로 전쟁을 소재 혹은 공장에서의 건설을 소재로 한것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소재 설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상적 선전의 내용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우월성,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끊임없는 선전과 교양에 의해서 북한 '인민'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인간으로의 가치관 주입이 지속되며 그들의 일상생활 역시 그렇게 조직되어 나가는 것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양·선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 1) 수령에 대한 위대성 교양과 당에 대한 충실성 교양
- 2)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교양
- 3) 집단주의 교양과 근로하는 생활에의 가치부여
- 4)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 교양
- 5) 민·관·군의 일체성 교양 등

3. 대중매체에 반영된 생활세계

198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단적으로 정리하면 거시적 수준의 견고성과 미시적 수준의 유연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영국의 한 사회학자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적이다.

북한이 걸치레 변화에는 익숙한 낯임을 알아야 한다. 옷이 좀 덜 군대식으로 바뀌었다든가, 방문객들에게 자기들도 변화를 원한다는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계산된 발언이고,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Aidan Foster-Carter, 1990:7; 이온죽, 1993: 290 재인용).

이 인용문의 저자는 북한의 변화를 다소 허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 학자들은 '북한은 점차 변하고는 있으나 아직 의미있는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 편이다(최항순, 1995: 570). 하지만 두 가지 점에 주목해 보자. 먼저, 북한의 변화가 걸치레이건 북한식 표현으로 3대 혁명의 결과이건, 무언가 변화가 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북한의 변화가 걸치레라면 북한사회를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들의 잠정적 결론이다. 그렇다면 1980, 90년대 북한 사회, 특히 생활세계를 이루며 움직이는 구성원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볼도록 하자.

3.1 생활세계 구성원리

최근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 중심이 되어 통치했던 북한사회와 기본 골간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일후계체계가 공언된 이후 북한의 주도권은 김정일에게로 넘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마침내 1991년경이 되면 김일성은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 앞에서 행한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내가 이제는 팔십고령이므로 최고사령관으로서 밤을 지새우며 전군을 지휘하고 통솔하기 곤란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평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김일성, 1994: 455).

1960, 70년대 김정일은 전면에 나서기 보다 당을 중심으로 비공개적이면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며 활동하였다면 1980년대에는 후계자로서의 공식적인 위치에서 전면에 나서서 포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사카이 다카시, 1991). 그러한 위치에서 김정일은 생활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구성원리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기반한 사회주의 대가정론, 둘째,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 셋째, 자력갱생의 원칙, 넷째, 대중운동 등이 그것이다.

3.1.1 '사회주의적 대가정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현

현재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을 이해하는 길일 것 같다. 전에도 '사회적 생명', '정치적 생명'과 같은 말을 했으나 정식화된 것은 1986년 김정일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부터이다. 그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정치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으로 규정하고 그 생명의 모태는 수령이며, 수령과 당, 인민대중으로 구성되는 모든 북한 구성원은 '한지붕, 한가족, 한몸'의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여기로부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수령과 당, 인민대중의 공동체는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설명하였다(김정일, 1986).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둘러싸고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다. 스즈키 마사유키(鈴木昌之)는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유교 및 주자학이 기초하는 동아시아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박한식 편, 1991: 244-248)고 지적했다. 그러나 와다 하루끼(和田春樹)는 그 사상적 연원을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찾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지혜를 짜내는 부분과 폐기를 내는 부분, 그리고 욕망을 내는 부분이 인체에도 있거니와 국가에도 있다'고 언급하며 생명유기체에서 사회유기체론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와다 하루끼는 이 점에 입각하여 북한사회의 성격을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비판하였다. 전자는 '사회주의적 대

가정론'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유럽적 유기체론 전통에서 온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그야말로 전통적인 아시아국가관의 맥락에서 설명하였다(와다 하루끼, 1993). 또한 전상인은 이를 주자학 전통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유교원리와 다른 한편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해석하였다(전상인, 1993: 57-8).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입각한 대가정론을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친밀성 영역'을 민주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서 파악하여 친밀성에 기반한 '생활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기든스, 1992). 그의 이론을 북한에 적용시켜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은 다른 지평에서 보일 수도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자신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현지교시 및 현지지도를 모든 당원들에게 끊임 없이 강조해왔다. 책상 앞에 앉아 지시하고 명령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내려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열의를 직접 느껴보라고 당원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는 동안 당과 '인민대중'은 서로를 육체적으로 느끼며 부모자녀와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당과 '인민'간에 분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무튼 북한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이기주의를 허물고 사회 전체를 가족 운명체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TV드라마인 『우리 딸(3부작)』¹³⁷⁾이나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2부작, 1992년작)』에서는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으로서, 외로운 노인들이나 독신의 부상군인과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도록 계몽하여 이런 것을 바로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홍보한다. 또한 최근 북한 방송, 대중 매체, 문예물들은 군민일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데 주력을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 녀맹원 김영순동무는 2차례에 걸쳐 인민군구부대를 찾아가 공화국기발과 <충효일심>, <군민일치>라고 쓴 축기를 넘겨주었으며 혈육의 정이 가득 고인 수많은 원호물자를 안겨주었다...현정숙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고 계시기에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슬픔을 힘과 용기로 가다듬고 집에서 7마리 돼지를 길렀다(『조선녀성』, 1996. 1호: 26).

심지어 북한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원호물자나 넘겨주고 정치사업으로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어준 다음 우리가 훌쩍 가버린다면 병사들이 얼마나 섭섭해할 것인가. 아예 몇 달동안 꼭 눌러앉아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성들의 적은 힘이나마 합쳐주자...이리하여 승정실외 26명의 녀맹원들은 건설장에 눌러앉아 여러 가지 형식의 정치사업과 예술활동, 로력지원으로 3개월이란 나날을 보냈다(『조선녀성』,

137) 이는 조선중앙텔레비전 상영드라마로서 제작된 연도를 통일원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즐거리에서 김일성 교시는 나오지 않고 김정일 교시만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김일성 사망 이후 작품으로 추정된다.

1996. 1호: 27).

다소 비현실적이까지만 이 수기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군민일치'의 사회주의적 대가정론 역시 당이나 지도부와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관료주의를 방지하는 홍보이면서 일반 주민들이 군을 사수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3.1.2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

김정일은 『영화예술론』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생활양식이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은 주로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김정일, 1989: 53).

생활양식은 단순히 세태풍속이나 가정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활동, 경제, 노동활동, 도덕행위, 교제 등 사람의 모든 활동과 생활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사회주의생활양식이 아니고 마치도 너절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사회주의생활양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나라의 경제토대가 약할 때에는 좋지 못한 옷이라도 입고 참아야 하였지만 경제토대가 허락하는 조건에서 무엇 때문에 너절한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좋은 집에서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74: 319).

그러한 김일성의 지적이 나오게 된 데에는 1970년대 초반, 비록 북한 경제적 조건면에서 높은 수준에 올라있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과거에 지녔던 검박한 - 집안팎을 들보지 않는 - 생활습관을 쉽게 바꾸지 않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어,

직업동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공장안팎을 문화적으로 꾸리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잘하고 다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서 비문화적이며 비도덕적인 생활인습을 뿌리빼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 그들이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김정일, 1984c: 211).

이러한 교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낡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하자 영화, 소설을 만들어 사회주의적인 문화생활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단속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한다(남인숙, 1990: 147). 북한은 낡은 생활양식을 '불건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잔재'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대에는 그것에 맞는 생활양식으로 살고 활동해야 한다(박승덕, 1985: 228)고 본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문화 테제처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현은 그 생활양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의 관련성이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 조선사람의 생활감정과 풍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 생활양식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적 미풍양속과의 관련성이다. 이웃간의 상부상조, 웃어른 섬기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정신,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 조선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심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민족생활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셋째, 우리식 사회주의가 유난히 강조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처한 국제적 현실과도 관련성이 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생활풍습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뿌리와 현재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주장현, 1994: 31-33).

3.1.3 자력갱생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은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계속 강조해온 것이다. 김정일이 1982년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도 주된 기조는 ‘주체·자주·자립·자위’노선이다. 1991년에 급박하게 변하는 세계정세와 남북 분리 유엔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여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나라들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살아남으려면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자면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김정일, 1991). 그 후에 나온 김정일의 모든 담화문에서도 유사한 논조가 흐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방송, 정간물들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못지켜 망해버린 사회주의 나라들의 주민들이 현재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를 열심히 선전하고 있다. 다음의 수기를 보자.

나는 지난해 8월에 어느 한나라를 다녀오는 과정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게셔야 조국도 있고 나도 있다는 이 투철한 진리를 다시한번 깊이 다지게 되었다. ... <<개혁>>과 <<개편>>의 비바람속에 혼탕이 된 그 나라에서 대학생들이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식당과 상점의 접대부로, 판매원으로, 지어는 범죄단체의 깡으로, 술집의 매춘부로 전락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 그는 수재였고 정열가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견잡을 수 없이 뛰여오르는 학비를 감당할수 없어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고 비리로 가득한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비내리는 어느날 저녁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그 가슴아픈 현실을 목격하며 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은 세대들인가에 대하여 사무치게 느끼었다. 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범한 노동자의 아들로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근심걱정을 모르고 과학탐구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공학부 김 동 춘(『천리

마』, 1994. 2호: 84)

최근 북한 방송들이나 정간물에도 이러한 류의 기사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1995년과 같은 대홍수가 일어난 후 자력갱생의 원칙은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시간에는 매번 자력갱생을 실천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1996년 5월 4일 방송 보도를 소개하면,

중앙방송 주경석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리원 애국수지일용품공장 노동자들이 4월 계획을 107%로 수행한 기세로 일용품 생산을 계속 늘이고 있습니다. 공장 일꾼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내부애비를 적극 찾아내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조선중앙방송』, 1996. 5.4, 12시 방송).

북한은 1980년대말부터 계속 되고 있는 사회주의의 좌절과 그로 인한 북한 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설령 모든 군민이 동원되어 산나물 뜯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지라도(『합흥방송』1994. 6.11일 14시 30분 방송) 자신의 나라에 있는 자연을 잘 이용하여 자력갱생 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끝까지 옹호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3.1.4 '대중운동'

대중운동은 위의 자력갱생의 원칙과 함께 대중의 열의와 창의성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서 해방 후부터 사용되어온 기제이다. 일반적으로 노력동원운동의 경우, 8시간 정상적인 일과를 마친 후에 과외로 참가해야 하므로 개인의 열의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김정일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운동은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그는 1973년 노동당내 조직·선전 선동담당 비서로 선출되고 나서 197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사카이 다카시, 1991: 29)¹³⁸⁾.

주민생활과 관련한 대중운동으로서, 그는 1984년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한 후 <8월3일 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방문한 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소비품생산운동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에 생활필수품(생활품: 글쓴이 주)공장, 생필작장, 생필작업반이 만들어지고, 인민반에도 가내작업반이 만들어지는 등 도시와 노동자구, 농촌에서도 가내생산협동조합과 가내작업

138) 1984년 9월 <3대혁명소조원대회>와 88년 2월의 <3대혁명소조결성 15주년 중앙보고회>에서 황장엽이 한 보고에 따르면 3대혁명소조는 공장·협동농장·각 기관과 학교 등에 적개는 2·3명, 많게는 30·40명 규모로 파견,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1973년부터 11년 반동안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은 연인원 총 10만 8천 7백여 명이며 1984년 9월 당시 파견 인원 4만6천6백여명이었다고 한다.

반¹³⁹⁾, 부업반이 조직되었다(신홍규, 1991: 76). 이 운동의 의의는 가정에 있는 유희노동력, 즉 전업주부들이나 노약자들에게 공장이나 생활에서 폐품으로 남아도는 물자들을 동원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해낸다는 점이다. 또한 부족한 생활필수품을 자체 주민들이 생산하여 가게에 수입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주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조선여성』, 1996. 1호: 32).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공급부문에 발생한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추진하고 운동의 하나가 <<정춘실운동>>이다. 북한은 주문제로 상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이다. 주문제하에서 상점 판매직원들은 공장에서 물건이 오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주민들의 생활은 윤택해질 수 없을 것이다. 정춘실은 ‘우리가정수첩’이라는 것을 발명하여 군 내의 손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시기에 맞추어 미리 장만해 놓고 손님이 주문하면 즉시 제공하였다고 한다(『조선여성』 1992. 제3호). 노동당에서는 그의 모범을 다른 판매원들이 따라 배우도록 했다.

나는 정춘실동무를 17살의 단발머리처녀로서 상점판매원을 할 때 처음 만나보았는데 이제는 그가 2중로력영웅이 되었습니다...정춘실동무는 내가 보증을 서서 입당시켰지만 그를 참다운 인민의 총복으로 키운 것은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조직비서입니다... 당의 방침대로 <<정춘실운동>>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정책을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정춘실동무가 보여준 헌신성과 희생성, 이신작칙, 자력갱생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것입니다(김일성, 1994: 544).

1991년경 ‘정춘실운동’이 본격화된 이래로 『조선여성』에서는 특집을 내어 당과 국가, 인민에 효녀인 정춘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국가 일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표시하였다. 그를 주인공으로 하여 『효녀』¹⁴⁰⁾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많은 대중운동을 제기하고 수행해 나갔다. 몇 가지만 열거하면 <<80년대 속도>>창조운동¹⁴¹⁾,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¹⁴²⁾, <<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 기대창

139) 가내작업반의 노동보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작업량(생산량)에 따라 지불된다(리창근, 1989: 71).

140) 이 영화는 정춘실을 주인공으로 삼아 1991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었다.

141) 김주석 탄생 70돐 맞이 기념 사업을 위해 각종의 창조물을 건설하는데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제2차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군중적 생산혁신운동으로 1982년 직업총동맹 제6기 3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 혁신운동을 통해 주체사상탑, 개선문 건립, 김일성 경기장, 인민대학습당, 창광거리, 평양산원과 병상관 등이 건설되었다.

142) 1961년 4차당대회 김일성수상의 훈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81년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화되었다. 7-8월을 ‘새기준·새기록 창조운동월간’으로 설정하여 북한 전역의 공장·기업소 및 개별 근로자들간의 노력경쟁운동을 집중적 전개한다. 정무원과 각 도의 행정·경제지도 위원회가 주요부문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의 ‘표준공장’을 설정한다.

조운동》¹⁴³⁾, 《1985년 6월 공장기계 새끼치기》운동¹⁴⁴⁾, 《다수확군쟁취운동》¹⁴⁵⁾, 《2백일전투》¹⁴⁶⁾ 등을 들 수 있다(김귀옥·김체윤, 1996).

‘속도’에 관련된 운동은 주로 노동력동원을 위한 대중운동인데, 김달홍같은 고려호텔 종업원은 18년 동안 ‘충성의 지원 돌격대’로 참가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천리마』, 1993. 제10호). 그러한 대중노력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중에서 중요한 허점으로 한 귀순지는 “70일전투, 200일전투 등의 노력경쟁운동도 며칠이 지나면 사들해져 시간만 때우는 일상이 반복되어 노동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 황광철은 200일전투에서 계획의 절반도 이루지 못” (민족통일연구원, 1994: 111)했다고 증언했다.

위와 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론, 자력갱생의 원칙 및 대중운동 등은 생활세계에 국가 정책이 가로지르는 운영원리라고 볼 수 있다.

3.2 식생활

위와 같은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칠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식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식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량문제이다. 식량은 전후에는 배급제로 주민들에게 배급되었지만 1957년부터 ‘식량공급제’¹⁴⁷⁾로 공급된다고 한다. 북한의 연간 알곡 생산량은 1983년 950만톤, 1990년 현재 1,000만톤이라고 했다(김일성, 1994: 418). 그러나 연합통신사에서 추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43) 평양방직기계공장의 26호선반에서 ‘설비관리’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발단이 된 군중운동으로 1982년 6월 17일 북한전역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노동자의 설비기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그들의 작업관리정신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144) 이는 50년대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에 기원을 두고 1985년 6월 김일성주석이 함북내 현지지도를 하던 중 공장기계새끼치기운동을 군중적 사업으로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진기계를 현대화하려는 의도에서 선진기계를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현대화시키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80년대 북한의 기계 설비의 노후와 경제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145) 1989년 알곡생산목표 1천5백만톤의 알곡생산기지를 점령하여 ‘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경쟁운동으로서 20만톤군, 18만톤군, 15만톤군, 12만톤군, 10만톤군, 7만톤군, 5만톤군 등으로 차별화시켜 목표 제시하여 군들간의 식량증산경쟁을 유발시키려는 운동이다.

146) 88년 2월 20일부터 그해 9월9일 정권 창립 40주년까지의 2백일 노력부쟁. 특히 이 운동은 1989년 세계청년축제를 앞두고 건축물들을 앞당겨 완공하려는 야심찬 운동이다.

147) 일반적으로 남한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배급제’로 주장하는 데 반해 북한은 ‘공급제’로 주장해왔다. 북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의 수급을 조정하는 제도가 배급제인데 반면 북한은 농민에게서 60전에 사서 노동자, 시무원에게 8전에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표 5> 연간 곡물생산량

년도	1991년	1992	1993	1994	1995
추정생산량	442만7천톤	426만8천톤	388만4천톤	412만5천톤	---
추정수요량	---	---	658만톤	667만톤	627만톤
부족분			- 250만톤	- 278만톤	---

* 출처: 연합통신사 편, 1995: 208. 본문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했다.

연합통신사의 자료에서 1991년 ‘곡물’생산량과 김일성이 발표한 1990년 ‘알곡’생산량 1,000만 톤은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김일성의 주장의 경우 멕시코IOC위원장과 의 대담이기 때문에 선전적 차원에서 부풀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합통신의 자료의 경우는 출처가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곡물’이 알곡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곡인 쌀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FAO 집계에 기반하고 있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곡물은 쌀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통계청, 1991: 138). 그런데 북한의 경우 식량의 개념은 이미 쌀이 아닌 쌀을 포함한 알곡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통용되므로 쌀의 수급만으로 과부족을 계산하는 것은 바현실적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농업생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쌀경작 면적당 생산량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는 호주보다도 능가한다는 점이다.

<표 6> 쌀경작 면적당 생산량(단위: kg/ha)

	북한	호주	일본	이집트	남한
단위생산량	8,259	8,026	6,328	6,288	6,259

* 출처: 1990년 FAO 연감; 통계청, 1991: 138-141쪽 제안용.

하지만 전통적으로 북한의 경지는 농사, 특히 논농사에는 부적합한 땅으로 알려져 왔었다. 게다가 북한의 골치거리인 한랭전선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천적이었다. 1977년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의 총결주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일 만큼 한해·냉해는 심각한 문제였다. ‘대농의 해’였던 1992년 농사도 결국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제3차 7개년계획(1987~93년)이 실패로 끝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완충기(1994~96년)를 설정하여 ‘농업제일주의¹⁴⁸⁾’방침을 앞세워 오고 있다(통일원, 1995: 288).

김정일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김정일, 1984a: 90)고 하여 식생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48) 1982년에도 ‘농사제일주의’를 방침을 세운 적이 있다(김일성, 1987: 44).

해결방도로서 1970년대부터 실시해오던 ‘다락밭’ 조성과 함께 ‘30만 정보의 간석지’와 ‘20만 정보의 새땅찾기’, ‘1,500만톤 알곡고지집령’과 ‘다수확군 쟁취운동’을 추진하였다(김정일, 1984b; 최운숙, 1992). 또한 숲은 영웅 제1호로 신 벼품종을 개량한 백설희 연구사를 선정할 만큼 한해나 냉해에 잘 견디는 품종 개발을 필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백설희 연구사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열네번째 겨울』(1993년))¹⁴⁹⁾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갱생1호’의 과제로 두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장기간을 줄인다. 둘째, 식물영양상태를 높여 당분도를 높인다. 과거 이론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배타적이다. 하지만 설정(주인공이름: 글쓴이 주)이 만들고자 하는 이 품종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특히 식물생육기간이 짧고 한해 기후가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성장기간이 짧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운의 『씨앗』(1992)이라고 하는 소설도 비슷한 소재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 방송들은 봄, 가을이면 보도의 1/4 정도를 농사에 관한 소식으로 채운다. 일손이 부족한 모내기, 수확철에는 ‘사회노동150’에 참가하는 당·국가기관일꾼이나 공장 노동자, 관리들, 학생들, 군인들의 소식을 전하기에 바쁘다. 심지어,

김정일동지께서 청산리를 찾으시어 뭍소 모를 내신 인민적 품모를 따라 배워 모내기와 강냉이 영양단지 모 옮겨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청산협동농장 농장원들의 사회주의 경쟁호소에 호응하는 열기모임이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평양방송』, 1996. 5.6).

라고하여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부족한 식량사정 속에서도 북한은 어린이들에게 먹거리가 우선 배정되도록 신경쓴다는 기사도 자주 볼 수 있다.

꽃타일을 붙인 넓은 영양실안은 구색에 맞게 찬장, 이동식조리대, 가사대, 가마 등 알뜰알뜰한 각종 주방도구들과 가공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고 깨끗한 위생복을 입은 취사원이 영양가높은 수십가지의 가공품을 만들고 있었다. 어린이 식료품 가공원료는 전적으로 국가로부터 배달, 배주 계획대로 보장받고있는데도 당에서는 농촌녀맹조직들에서 사회적인운동으로 생산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축산물들을 그 자녀들인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의 영양공급에 돌리도록 또다시 배려를 돌려주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실증이나 하듯 가공실과 잇닿아있는 간북도옆에 1호부터 6호 창고가 있었다. 알뜰하게 꾸러진 매 창고마다에는 품종이 다른 콩기름, 참깨기름 등 기름류, 까나리¹⁵⁰⁾, 새우, 조개 등 마른 수산물류, 도라지, 고사리, 버섯 등 산나물

149) 2부적으로서 1993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되었다. 그 영화는 주인공으로 ‘꽃피는 처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홍영희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북한에서 주목받을만 했을 것이다.

150) 북한에서는 연간 1,0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 기업소의 관리일꾼들은 60일간, 행정경리부 문 일꾼들은 48일간, 1,000명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 기업소 관리일꾼들은 72일간, 행정경리부 문 일꾼들은 60일간 생산노동(사회노동: 글쓴이 주)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리창관, 1989: 52-3).

과 남새류를 비롯하여 백여가지의 식료품원료가 차고넘쳤다(『조선여성』, 1996. 1호: 36)

우리가 현재 들고 있는 북한 소식에 따르면 1996년에 발표된 위의 기사는 경이에 가깝다. 만일 허위보도가 아니라면, 주·부식물은 탁아소나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는 귀순자 이옥금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 추론해 볼 때, 공급할 수 있는 물자들을 정주시 남호협동농장 유치원, 탁아소와 같은 곳에 우선 배정했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아무튼 남북문제연구소가 제작한 『특집 북한소식』(1996년 제작) 비디오물을 통해 5.1절 기념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체육대회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참가한 북한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문제연구소의 주석에 따르면 현재 3만개의 유치원, 탁아소의 70%가 폐쇄 상태라고 한다.

김정일이 하는 사업방법의 특징의 하나는 ‘통큰 사업’이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치르기 위해 북한에서 조성한 많은 건물, 조형물들도 ‘통큰 사업’에 따라 이루어졌다(유작촌, 1992). 그는 식당을 지어도 그러하다고 한다. ‘1991년 3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5천석으로 한 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국수집을 규모가 크게 잘 형성했다고, 국수집이 5천석이면 옥류관보다 훨씬 크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하시었다’(『조선여성』, 1991. 4호: 11). 김정일의 통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귀순자들이나 방북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제13차 평양학생축전을 통크게 벌리기 위해 외화와 물자, 식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결과 공장가동이 급감하고 국가로부터의 물자와 식량공급이 급감하였다’(민족통일연구원, 1994: 118)고 어떤 귀순자는 진술하고 있다.

한 편, 북한정권이 1972년 추석성묘를 허용한 이래로 그리고 1989년부터 민족명절인 구정과 단오 등을 부활(연합통신사 편, 1995: 301)시킨 이래로 북한주민들은 명절날이면 전통놀이를 하거나 전통음식을 해먹기도 한다고 한다.

(단오)명절놀이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더욱 흥겨웠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여앉아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춰 민족요리를 맛있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양탄광기계공장과 삼신탄광탄부가정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하는 썩떡과 부루쌈¹⁵²⁾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선중앙방송』, 1994.6.14.)

북한은 1990년대부터 TV방송프로그램에 요리시간을 편성(남인숙, 1990. 제1호: 152)했는데 주로 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음식재료나 민족음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주로 한다고 한다. 또한 각종 정간물에는 널리 식용되지만 좋은 줄 모르는 각종 건강식품들이나 그의 요리법을 소개하

151) 까나리란 바다고기의 일종으로 맛좋은 반찬감.

152) 부루란 채소로서 주로 부루쌈, 부루국, 부루생나물, 부루나물 요리를 해먹는다고 한다(주강현, 1994: 213).

기 한다. 『천리마』 1992년 7호에는 건강식품으로 ‘고구마’를 홍보하고 같은 책 1993년 5호에는 ‘민족요리기술’을 소개하기도 한다. 요리의 재료는 육류이기보다는 주로 채소류라고 한다(남인숙, 1990: 152). 이는 북한의 부족한 축산물 실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음식정책에도 자력갱생의 원칙이 반영되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동원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매체에서는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엿보기 어렵다. 최근 한 귀순자의 진술에 따르면 “30명이 굶어죽는 것을 직접 보았다” “게성에 살았는데 매일 1~2명이 굶어죽는 것을 보았다” “자식을 목졸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한겨레신문』 1996.7.12) 고 한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홍수피해를 보도했던 1996년 8월 중순의 폭우로 북한주민은 또 한 차례 수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적십자연맹 북한 주제관인 고프 데니스는 12개도 145개 시군이 1백50억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6.8.19). 현재 북한은 공개적으로 국제적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3.3 의생활

1960년대 중반까지 북한주민의 복장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에 맞는 의상으로서 남자의 것은 인민복(일명 ‘레닌복’)과 노동복, 여자의 것은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 노동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통일원, 1995: 285). 1960년대말부터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 김일성의 교시로 주민들의 복장이 다양한 색깔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10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춘추의류 전시회는 160여종의 남녀 성인복과 아동복이 진열되었고 여성복에 연분홍, 하늘색 등 밝은 색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박완신, 1989: 59).

1980년대 들어 김정일은 경공업발전과 의류산업의 발전에 관련한 정책을 제시한다. 1984년 2월 16일, 그는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중요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경공업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 척도로서 보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이 지난날 토스레웃을 입고 살던데 비하면 괜찮다고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인민들에게 빈 바그릇을 놓고 사회주의제도가 좋다고 교양하여서는 그들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인식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김정일, 1984a: 189-190).

그의 주장의 핵심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나은 의식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다.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개최된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방문한 김정일은 전시된 의류, 신발, 가정용품, 부업세간, 학용품 등의 생활용품을 둘러보며 의류 종류의 다양화, 세련화를 강조한다. 199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동안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 경공업대회’에 김정일은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라는 서한 한 통을 보냈다. 이 서

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며 그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문제,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소비품생산을 균중적운동으로 벌리는 문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공업을 적극 지원하는 문제...'('로동신문' 1990. 6.3)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주창된 '경공업제일주의' 정책에 따라 1996년 라디오방송에서도 경공업 공장이나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의 의류 및 신발, 화장품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자주 보도하고 있다. 김정일을 비롯하여 국가관리들도 공장을 방문한다는 보도도 간혹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문제를 김정일이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서 북한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소비품을 공급해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둘째, 일상적인 소비품, 특히 의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는가하는 사실이다.

첫째 해석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발전'노선을 취하여 중공업을 발전시키되 경공업과 농업에 연관되는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 생산을 발전시키는 노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제1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60년대 말에는 농업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김귀옥, 1991).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경공업이 저발전할 근거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및 농업은 1970년대부터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경공업부문의 발전이 낙후되는 기점은 언제인가? 1970년대 6개년계획기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오원철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1970년대 세계적인 에너지파동은 북한의 원유수입을 제한하여 석유화학섬유산업의 열세를 가져오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말부터 시작하여 6개년계획경제기간에 정유공장을 건설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유류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각종 화학제품 및 섬유를 생산하려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파동으로 원류값과 원자재값의 폭등을 가져와 북한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계획수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오원철, 1995). 결국 1970년대 세계경제불황과 1960년대 중후반 30%를 상회하는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은 직간접적으로 경공업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1980년대 김정일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나오게 하는 배경으로 된다.

둘째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다. '의복의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주민의 기호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정책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통일원, 1995: 285)는 주장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변화를 유도했다는 논리이다. 남인순에 따르면 김정일은 '1986년 주민복장규정을 지시하여 바야흐로 여성에게 바지착용이나 국방색, 검정색옷의 착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바지는 여성다운 풍모를 없애고 국방색이나 검정색은 외국인들이 군복으로 오해할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질서유지원들이 거리에 나와 바지입은 여자를 적발하여 벌금까지 물'리기도 하였다(남

인순, 1990: 147)고 한다. 이러한 근거로 보면 변화를 유도한 것이 사회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북한이 통제가 강한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정책이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 요구가 정책을 수반하기도 한다. 김정일도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춘실운동>이 결정되었던 배경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은 늘어났는데 주민들이 주문하면 그제서야 공급하는 과거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조선여성』, 1992. 1호). 다시 말해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알아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불건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의 변화를 인정하고 확산하는 과정이 있지만 현실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주민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은 중국이나 구소련을 통해 서방과 남한의 유행이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 1994)고 하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나친 사치와 건치장스러운 장식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일부 청년들처럼 옷을 길게 하거나 여름에 샤쓰 아래깃을 바지안에 넣지 않고 드러내 놓고 다니는 것은 단정치 못한 옷차림일뿐 아니라 신체의 균형에서 하체의 길이를 짧게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균형적으로도 맞는 옷차림이라고 볼 수 없다...옷차림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옷의 색깔과 장식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옷차림의 색깔과 장식은 계절적, 연령적 특성에 맞게 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김정분, 1991: 93).

심지어,

우리 인민은 민족적 감정에 있어서 유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것을 좋아한다. 화장에서 눈주위를 진하게 그리는 것은 구라파사람들의 얼굴형에 어울리는 것이지 조선사람의 얼굴형에는 잘 맞지 않는다. 지나친 화장은 사람의 인품을 떨어뜨리고 그의 문화수준의 저속성을 나타낸다. 우리청년들은 옷차림과 머리단장, 화장에 이르기까지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답게 소박하면서도 단정하게,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김정분, 1991: 95).

이러한 변화는 소설에도 반영되어,

학창시절과 달리 머리를 길게 드리운 동창생 처녀는 진한 화장에 얹은 맛달리 옷을 차려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있었다. 그와 마주선 청년 역시 잘 생긴데다가 아래우 연회색 옷차림을 하였는데 현대식으로 지은 양복 아래로 내려가면서 멋지게 퍼진 바지와 윤나는 구두에 이르기까지 흠잡을데 없이 비관하였다(김용한, 1990: 19).

이러한 변화를 반영이나 하듯 1990년대에는 패션화보 『옷차림』이 출간되기 시작했고 1992년 가을 강원도 원산에서는 패션디자인 공모전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여성들

의 ‘옷차림과 미용에는 자본주의세계에서처럼 패션현상까지 나타나 목걸이, 서구형 네글리제, 패션벨트, 화려한 화장술이 등장했으며 남성복에서도 콤비, 잠바 등 다양한 의상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연합통신, 1995: 211)고 한다. 『천리마』나 『조선여성』 등 정간물에도 옷차림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고 있다. 천리마에 실린 기사 제목만 몇 가지 소개하면, “양복과 와이샤쓰, 넥타이의 색어울림”(『천리마』, 1991. 5호), “옷차림과 몸단장”(『천리마』, 1993. 5), “옷차림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갓춤새”(『천리마』, 1992. 6호) 등이 있다.

한편 한복(북한식 ‘조선옷’)에 대한 소개도 많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옷”(『천리마』, 1993. 3호), “여성들의 조선옷차림”(『천리마』, 1990. 9호), “조선옷맞추기”(『천리마』, 1991. 10호), “치마저고리 책갈맞추기”(『천리마』, 1991. 8호), “어린이 첫돌과 색동옷”(『천리마』, 1993. 8호), “전통적인 신발과 치레거리”(『천리마』, 1993. 5호)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영화를 보면 여성의복이 198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달라짐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외출복으로는 한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85년작 『유원지의 하루』를 보면 유원지에 놀러가는 두 가족의 성인 여성 4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양장-양장이라기 보다는 대학생 유니폼-을 했다. 그러나 1993년작 『도시처녀, 시집와요』에서는 도시여성이든 농촌여성이든 노소를 막론하고 한복을 입은 여성이 별루 눈에 띄지 않았다. 조선옷은 주로 연장지들이나 격식을 차린 사교적인 모임에 가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듯했다(이은숙, 1993: 344). 하지만 남성이 조선옷 차림을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북한주민의 의생활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북한의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악화되어 있는 경제적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현재 식량문제는 고사하고 외출복 한 벌을 제외하면 집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최근 잇달은 북한 귀순자들의 진술에는 아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문건, 뉴스에서는 보고 들을 수가 없다. 단지 중앙경공업 공장의 생산실적보다 지방경공업 공장이나 가내작업반의 생산실적을 더 많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 중앙경공업 공장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3.4 대중매체에 비친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의 문제 역시 북한사회의 사회주의적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공장, 학교 등의 공공건물과 인민들의 주생활은 다시금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¹⁵³⁾ 따라서 북한은 파괴된 국토의 복구를 위한 전후복구건설기를 거치

153) 전쟁중 북한전역에서 파괴된 상황은 전 국토의 70-80%, 평양의 경우 90%라고 하며, 공장건물 8천7백개소, 60만호의 주택, 5천개소의 학교, 1천여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 263개 소의 극장 및 영화관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3개년계획에 관하

게 되었다. 이때 건설의 우선 순위는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공공적 성격을 띠는 것이 1차적이었고, 기관과 주택이 2차적이었다. 한편 북한의 주택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표준화와 규격화이다. 이것은 주로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데, 설계일꾼의 부족, 목재, 철재, 벽돌 등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다그치고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¹⁵⁴⁾ 또한 건설에서 규격화와 표준화가 제기되는 것과 동시에 그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였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그들의 문화정책이 건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1950년대에 진행된 북한의 주생활은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초기에 인민들에게 살림집 문제의 해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면, 80년대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건설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¹⁵⁵⁾

< 표 7 > 북한 주택건설의 목표 한국에서의 추정치

기 간	목 표	실 직
1957-1960년	도시 1,000만 m ² 농촌 20만세대	15만세대 (25%)
1961-1970년	120만세대	80만세대 (67%)
1971-1976년	100만세대	88만세대 (88%)
1978-1984년	연간 20-30만세대	70-105만세대 (50%)
1987-1993년***	연간 15-20만세대	16만세대 (11-15%)

* 출처: 『북한개요95』, 1995; 조현식(1990)에서 재구성

여」; 또한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은 북한에서 기록영화 '폐허 속에 솟아난 조선'을 보고 그 감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히로시마를 방불케했다. 남은 것은 시체들과 빈 폐허들뿐이다. 평양은 없어졌다. 고구려 천년의 수도가 제가 되었다. 함흥도, 진남포도, 신의주도 그 형적조차 찾기 어렵다"(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중, 주장현, 『북한의 민족생활 풍습』, 282에서 재인용).

154) 이러한 설계 및 건설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규격화, 표준화가 제시된 시점이 56년경이고 이때는 북한에서 소위 종파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김일성 그룹은 건설에서 주제적이지 못한 자세를 지적하면서 소련식의 일방적임 보방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155) 다음과 같은 말에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지바른 산기슭을 따라 세계의 부락을 이루고 아담하게 들어앉은 129동의 단층분화주택들에는 두칸방에 전실과 목욕탕이 있고 뜨락에는 창고와 집집승우리 들어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1996년 4월 30일 방송. 또한 '전해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통일거리의 살림집 구획마다에 탁아소, 유치원, 학교, 상업방들은 물론 영화관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피주시었다. 그 뜨거운 은정속에 통일거리에는 27개 동의 상업급양편의종합봉사당, 29개동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 그리고 12개동의 가스공급소와 9개동의 식량공급소, 16개동의 진료소가 매 구획마다에 적중하게 들어앉아 있다' (『조선녀성』, 1992년 4호, 11쪽).

** 조현식의 글은 1990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에 끝나게 되는 북한의 주택건설을 미리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계가 다른 책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주택건설에 대한 통일원과 그밖의 통계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 이 기간에 북한은 1992년에만도 11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동안(1972-1992)에 농촌마을에 국가 자금으로 건설된 문화주택은 근 100만세대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중앙방송』, 1996년 5월 14일자). 그러나 이처럼 1996년도에 1992년도의 실적을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주택건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그 결과가 부진하다. 이것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택건설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89년도의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의 그리고 고층빌딩(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건축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읍중심부로 넓게 뻗어나간 포장도로 좌우 양켄에는 온천물을 리용하여 난방화를 실현한 5층, 6층 탑식 아파트들,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꾸려진 문화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줄지어 일떠섰다... 양지바른 산기슭에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농촌문화주택들이 오붓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리소제지에는 아담하게 꾸려진 학교와 문화회관, 여러 가지 편의봉사시설이 그뿐하게 자리잡고 있다...그런데 군소제지 건설은 처음에는 예견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벌어지지 못했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군소제지에는 2-3층 짜리 다층주택이 몇동 있었을 뿐이고 5-6층짜리 탑식 주택이란 한동도 없었다.(김영섭, 1991:84)

라고 하여 농촌에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군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자 한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주로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⁵⁶⁾ 1980년대에 들어와 벌어진 주요건설사업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⁵⁷⁾

156) 1994년에 북한을 방문한 재미작가 이충렬씨는 상원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는 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역을 보면서 빨간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새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또 상원시멘트공장의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은 신형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음에 비해, 다른 상원시의 구역은 60년대에 성장이 멈춰버린듯한 낙후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충렬, 1995)

157) 1980년대에 들어와 건설되는 새도시 건설의 방침과 지도는 거의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표 8> 주요도시의 주택건설

지역	건설사업명	기간	규모
평양시	문수거리 건설	1981-1983	17,000세대
	창광거리 2단계 건설	1984	2,400세대
	비드나무거리 건설	1984	1,000세대
	천리마 2단계 건설	1984-1987	4,000세대
	북새거리 건설	1984-1987	
	광복거리 건설	1985-1989	20,000세대
	안상택거리 건설	1985-1989	
	광복거리 2단계 건설	1990-1992	30,000세대
	통일거리	1990-1992	20,000세대
	통일거리	1992-1993	30,000세대
원산시	북방산거리	1983-1987	7,000세대
함흥시	용남거리, 성천구역 동홍산구역, 사포구역 등	1983-1987	4,000세대
청진시		1984	6,400세대
		1987	3,000세대
		1990	300세대
개성시		1987-1993	5,000세대
남포시		1992-1993	1,600세대
신의주시		1991-1992	2,500세대

* 출처: 북한방송 및 신문내용 종합 (통일원, 1995에서 재인용)

여기서 1980년대에 보여지고 있는 북한건축의 기본적인 양식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족적 형식에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형식이 “건축에서 민족적 특징을 옹기 살리면서 현대적 미감에 맞게 형성하는 문제는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에서 집약된다고 한다면(주강현, 1994:398), 현대적 미감은 ‘건축도 현대적 미감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로 압축된다. 이 현대적 미감은 김정일이 제시한 ‘비만복성과 독창성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즉, ‘건축에서 모방과 도식, 유사성을 배격하고 모든 건축을 인민들의 사상미학적 감정과 시대적 요구, 그리고 자연사리적 조건에 맞게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제평, 1991: 주강현, 1994: 415에서 재인용) 그리고 민족적 형식과 현대적 미감을 강조한 것이 최근에 건설한 평양의 일련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다.

북한의 주택분류는 첫째로, 세대수에 의한 것이 있다. 이것은 적은 세대 살림집(한 동에 보통

1-4세대가 살며 1-2층으로 지음), 여러 세대 살림집(한동에 많은 세대가 살며 2층 이상의 여러층 건물)으로 나눈다. 둘째로, 건설 지역에 따른 분류로서 도시형 살림집, 도시주변형 살림집, 어촌 살림집, 임산마을 살림집, 농촌 살림집등이 있고, 셋째로, 세대별 보조실 규모에 의한 분류로 보통 살림집과 여관식 살림집으로 나누며, 넷째로 방 배치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외통형, 량통형이 있고, 다섯째로 뜰의 이용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개별뜰 살림집과 공동뜰 살림집등이 있다. 여섯째로, 평면 특성에 따른 분류로서 퇴마루형, 현간형, 바깥 복도형, 중간복도형, 섹시아형, 혼합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층수에 따른 분류로서 단층, 2-3층, 4-5층, 6층 이상의 고층, 약 18층 이상의 초고층 살림집등으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최근에 평양을 비롯하여 주요 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살림집은 초고층 혹은 고층 아파트형의 살림집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민족적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면서 초고층의 아파트를 중심으로하여 살림집을 건축하는 것이 현재 주체건축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북한의 구체적인 주생활로 들어가 보자.

북한은 “주택생활풍습은 사람들이 집을 쓰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풍습으로서 인민들의 생활 풍습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살림집은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근본조건의 하나인 것만큼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집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 여러 가지 형태의 살림집을 짓고 발전시켜 왔다”(사회과학원 민속학 연구실, 1990; 주장현, 1995: 276에서 재인용)고 하여 살림집을 중요시하고 있다.¹⁵⁸⁾ 북한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주택은 개인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그 이용권만을 가진다.¹⁵⁹⁾ 그러나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158) 북한은 ‘가옥’이나 ‘주택’이라는 표현보다는 ‘살림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살림집이 ‘사람이 살림을 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159) 북한법에 명시된 주택관련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에 채택된 헌법 제21조에는 ‘국가 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법에서는 제 9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제 10조에서는 “국가 소유토지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방면으로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50조에서는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민법에서 제59조에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0조에서는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요구에 맞게 자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 부분적으로는 살림집의 개인소유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살림집은 그 자체가 토지와 함께 국가소유로 되고 그 이용권만이 개인에게 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살림집의 자유로운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남는 토지에 건축을 하기도 하여 그것을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 공공성을 띠는 것으로 개인들의 소유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주택은 주택의 질과 양에 따라 개인들의 직급과 국가에 대한 공헌정도에 따라 차등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살펴본 공급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8 > 주택의 공급 기준

주택 형태	주택의 구조	입주대상자
독립고급주택 (특호 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냉온방장치, 수세식변소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신형고층아파트 (4호주택)	방 2개 이상, 목욕탕겸 수세식 변소, 냉온수시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정무원 국장급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3호주택)	방 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이상, 기업소부장
일반아파트 (2호주택)	방 1-2개, 마루방 1, 부엌 1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일반노동자, 사무원
집단공영주택 농촌문화주택	방 1-2개, 부엌 1 단층 연립주택, 방 2개, 부엌 1, 창고 1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협동농장원
구 옥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 출처: 통일원, 1995: 290쪽에서 재인용

황석영은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도시건설과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평양은 폐허위에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장애없이 사회주의적 당이 건설한 도시이며, 주거지와 혁명적 기념불과 공공건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조선노동당의 창건역사가 짧고 곧 뒤이어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전통적으로 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수도와 다른 점일 것이다. 서울과의 이질적인 요소를 들여보라면 주택구조면에서 집단주거지뿐이고 개인의 단독주택은 없는 셈이며, 개인사업이 없으므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유흥지는 모두 공공위락시설이나 녹지대와 공원으로 되어있고,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도 집단적으로 조정되고, 각 주거지는 계층과 직업에 따라 구분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황석영, 1993: 37-38)

즉, 그는 그가 본 평양의 주생활의 특징은 집단거주형태, 상가가 없는 녹지대와 공원의 구조, 공동체적 생활양식의 보편화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와 그밖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실제의 주생활을 추적해보도록 하자.

먼저, 영화에서 아버지가 교수이고 어머니가 교원인 가정의 주택은 초인종이 설치된 고층 아파트(중간 복도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모노륨이, 부엌에는 신식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주인공은 따로 한방을 쓰고 침대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탁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등근 밥상에서 식사를 하며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면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TV 드라마, 『우리딸』) 평양에서 거주하는 북송교포의 경우도 역시 고층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실에 쇼파가 설치되었고 전기포트까지 구비하고 있었다.(예술영화, 『철산봉의 아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주택사정이 도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속에서 비추어진 모습은 일반농민의 경우 구옥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협동농장 기사장의 경우도 역시 아파트가 아닌 단독 주택이지만 구옥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¹⁶⁰⁾ 한편 같은 영화에서 평양에 거주하는 국가과학 지도처의 간부인 경우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영화 『나의 어머니』에서는 전곡리라는 농장의 시골집은 우리의 시골집처럼 앞마당이 있고 거기에서 빨래를 너는 모습과 함께 부엌에는 불박이 솥(알미늄)을 걸어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영화만을 통해서 주택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교수나 북송교포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주택을 배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거의 없었으며(대부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요란한 가구와 가전기구, 화려한 장식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마다 꽃이나 채소등을 가꾸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집안을 정갈하게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을 꾸미는 일은 인민반을 통해서 경쟁으로 되고 있는데, 김정일은 가정을 꾸릴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모든 가정들에서 집을 알뜰히 꾸려 모범가정, 모범세대가 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림집 주변도 잘 정리하고 길도 포장하여 인민반을 규모있게 꾸려야 합니다(『천리마』, 1990.,1호: 73)

『천리마』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을 예로 들면, ‘마당, 꽃바자를 곱게 둘러친 마당에는 각종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가득, 탁구판 4개, 미끄럼대, 회전목마, 그네, 수평그네 등, 한 여름에 장기며

160) 위의 영화들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식적인 비교는 어렵다. 전자의 두 영화는 1990년대를 후자는 1970년대가 배경이다.

웃놀이를 즐길수도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게 네모진 상과 의자가 사이를 두고 있었다'(『천리마』, 1990, 1호: 73)고 표현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집안과 함께 집 주변에 대한 정리도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여성』에서도 함흥시 룡성구역 운동 1동 93인민반을 예로 들면서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언분홍빛의 외장재를 곱게 바른 탑식 고층문화주택의 벽체며 알뜰알뜰한 유리창들 그기로 마당에 하나와 같이 반듯하게 깔아놓은 블록, 마을앞 공지에 정성껏 기쁘히 둘러친 울타리며 휴식터,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동유희 놀이기구와 운동기재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마을은 규모있고 정돈되어 있다.... 하기에 오늘 이 마을의 그 어느 집을 둘러 보아도 윤기도는 장관과 무늬고운 박지를 바른 담벽, 정돈된 가구들에서 알뜰한 주부의 숨씨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면장과 창고, 세면대....등 어디라없이 규모가 있고 정돈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는 데는 거의가 자력갱생적 전략에 입각하여 동네 사람들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 혹은 인민군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리마』등에서는 "우리마을 - 우리초소"라는 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인민군대의 마을 시설들에 대한 건설과 정비를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역으로 마을 주민들의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인 인민반 건설과 정돈이 마을주민들 간의 협동적 혹은 인민군대의 노력협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인민반에 대하여 모범을 선정하여 <3.16모범가정>이나 <7월 11일 붉은기 인민반>의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반을 꾸리는데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인민반장은 각 가정을 세대별 집꾸리기 경쟁도표등을 통하여 마치 생산현장에서 생산실적을 표시하듯이 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주택의 배치는 살림집을 중심으로 구획마다에 탁아소, 유치원, 학교, 상업방들은 물론 영화관도 건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거리에는 27개동의 상업급양편의종합봉사방, 29개동의 학교, 유치원, 탁아소 그리고 12개동의 가스공급소와 9개동의 식량공급소, 16개동의 진료소가 배 구획마다에 적중하게 들어앉아 있다(『조선여성』, 1992, 4호: 9-11) 고 하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여러 기구들의 배치가 주택의 조성과 함께 배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북한에서 주생활은 살림집 건설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부터는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면서 고층, 초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80년대 초부터 김정일에 의하여 강조된 인민생활향상의 문제와 적절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등으로 해서 목표에 부합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모든세대들이 빈방에 불 켜두는 일, 낮에 전등을 켜는 일이 없도록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하며, '너맹원들이 가정에서 전기시설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다리를 비롯한 전기용품 사용과정에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물질약은 곧 전

기절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물이 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도 늘 관심을 돌리고 있다'(『조선여성』, 1996.2:27)고 하여 가정에서의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의 배분문제는 직급별 혹은 도·농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골의 처녀들의 경우 도시 총각과 결혼하여 도시로 이동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북한사람들은 주택문제로 인한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무료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주택의 사용에 대한 비용이 한달 생활비의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주택을 통한 생활상의 차이를 별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에서 가장 큰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에서 보여지듯이 주체적 주생활을 계속하여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고 있듯이 가정의 강조와 더불어 주생활의 향상에 쏟는 노력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방침으로서는 자력갱생적 전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회의 많은 부담을 가정으로 이관하고 농촌에서의 일정한 자본주의적 경리의 도입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그들이 생활향상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3.5 문화생활 및 사회의식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은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에 근거한 사회주의생활양식론에 따라 민족적인 특성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단군릉 발굴, 동명왕릉 복원 등을 통해 민족적 전통에 대한 강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일부의 논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문화적 상황을 유교적 전통 혹은 민족적 형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민족통일연구원, 1994)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일면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이 3대혁명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문화혁명을 중요한 하나의 혁명과업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이는 형태상의 유사성에만 비추어진 분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¹⁶¹⁾ 여기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사회의식에 대해 1980년대 이후의 모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생활이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자주성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참담게 누릴때만이 전면적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홍록, 1991:75) 특히, 문화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덕 품모를 갖추며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라고

161) 물론 현재의 북한 인민생활을 살펴볼 때 유교적 흔적이거나, 민족주의적 내용이 잔재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인민의 문화생활과 사회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속에만 그 의의를 제대로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에 대하여

사회주의문화생활 인민대중이 역사적으로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사상정신적 및 물질문화적 재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생활이다.(김홍복, 1991. 1호:76)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온사회의 인테리화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문화혁명의 성과적 수행여부는 인테리화에 의한 사람들의 정신도덕적 가치(사상적 가치)가 높아짐을 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생활에 대한 강조는 다시 문화혁명에 대한 강조로 연결되는데, 1994년에 나온 글에 따르면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나오는 중요과업으로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만 사회의 전반적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에 건전한 문화생활기풍을 확립하며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분명한 문화생활기풍을 더욱 활짝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천리마』 1994.1호: 124)

라고 하여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문화생활이란 사람들을 자주적 인간으로 육성하는 하나의 혁명적 과업이자,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문화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시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 즉, 인테리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문화혁명의 '중심고리'를 인테리화로 설정한 정책적 지침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생활의 중심을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문화(culture)'¹⁶²⁾가 아닌 사회주의적 인간양성을 위한, 즉, 주체형의 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정신사상적 수준의 향상을 본질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능력있는 일꾼을 키워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민들에게 사상 학습의 강화와 함께 모두가 대학이상의 학력정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162) 문화(culture)에 대한 정의는 인류학자 타이러(R. Tylor)가 정의내린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정원으로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로서 이해된다. 여기에는 물질 문화(인간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데 관련되 생산수단, 생활방식, 산물 등)와 정신문화(인간들의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어떤 관념이나 상징 등 정신적인 것)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쓰는 문화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서 정신문화를 지칭한다 (고영복, 1994: 308-309). 반면 북한에서 문화혁명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가 공산주의 인간육성이고, 둘째가 문화정서적 욕구의 충족,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 등이 해당분야의 직장들에 설립되어 있고, 야간 및 통신학부들이 조직되어 있다. 어장대학은 1970년대에 농장대학은 1980년대에 조직되었다고 한다.¹⁶³⁾ (리도형, 1991: 72-73) 그래서 룡양광산과 같은 곳에서는 모든 광부들이 다같이 고등교육을 받고 한날한시에 기사자격을 받았다고 한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장수원 협동농장에서도 농촌문화혁명의 일환으로 모두가 대학교육과정을 마치도록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결국 모두가 대학졸업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일을 해냈다고 선전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6.8.2 4면) 그러나 이는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반원들을 농업기사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여가생활을 살펴보자.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문화정서적 생활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가생활은 하루 노동 8시간, 학습 8시간, 여가 8시간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이 여가 생활도 조직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1인 1技 교육을 통한 예술적 자질의 향상을 어렸을때부터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소개하고 있는 화보집이나 방문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등을 통해 1인 1技를 갖추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⁶⁴⁾ 따라서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유희를 즐기거나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춤과 노래등을 자연스럽게 추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¹⁶⁵⁾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 여가생활의 기본은 노래등을 비롯한 공연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군중동원과 노력장에서의 근로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는 선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힘들다.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여객 유람선에서도 음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공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장이나 모든 직장들에서 예술소조가 꾸려져 일상적으로 노래, 연극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장에서도 예술소조들이 찾아가 공연등을 제공하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여가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또한 영화감상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동안 문학작품 7만여편과 주요 영화 및 무대예술작품 8천여편, 주요 가요작품 1천8백여편, 주요 미술작품 1만 2천여편등이 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4년 6월 16일 방송) 북한 발표 통계에 의하면 1987년 당시 1인당 영화 관람횟수가

163) 이에 반해 공장대학은 이미 1951년에 이미 창설되어 운영되었다고 한다. (최기룡, 1991: 78)

164) 북한이 1인1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예술이 가졌던 인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1인 1技를 갖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의 체제를 생각할 때 이런 김일성의 생각이 이런 1인1技 교육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 참조.

165) 『유원지의 하루』를 보면 할아버지와 어른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남한에서 놀이시설등이 거의 어린이들에게 독점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놀이에서의 세대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4편이라고 한다.(김문한, 1989: 391) 이렇게 보았을 때 북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은 영화관람편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양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인다. 단적으로 조선영화에서 영화감상이 고정란으로 되어있어서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써서 다른사람에게도 전파하는 효과를 내고있다. 북한은 이런 영화감상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당정책에 대한 교양과 사상의식의 고취, 문화생활에서의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등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중의 하나는 낚시이다. 이미 대동강변이나 보통강변에서 낚시하는 광경은 여러번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다.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도 한가하게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으며, 대동강에서는 수상스키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요일날에는 가족끼기 공원으로 놀러가거나 대성산 유원지 혹은 평양의 관광지로 유희를 가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도 방송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4년 9월 31일 방송)

또한 북한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것으로는 ‘사진찍기’가 하나의 취미생활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의 『천리마』에서 “오늘 우리나라 근로자들 속에서는 날을 따라 사진에호가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사진은 ‘기념이 되게, 자연스럽게, 생김생김이 그대로 나타나게, 사람의 크기와 위치를 바로정해서, 선처리를 잘해야 한다’등의 사진을 잘 찍기위한 구체적인 기법까지 소개하고 있다.(『천리마』, 1990. 10호,11호) 그러나 이런 취미는 북한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즐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속명절등에는 전래의 민속놀이도 즐긴다. 장기놀이는 보편화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 최근에는 바둑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속 씨름도 계속이어져서 1등에게는 황소를 부상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추석, 구정, 단오, 한식 등의 민속 4대명절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북한이 민족,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이것들이 인민들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사람들의 문화생활은 예술공연과 관람등을 한편으로 하고, 유원지와 공원등에서의 가족과의 유희를 즐기는 것 등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 스스로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무튼 공연예술과 관련한 여가생활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군중선전의 의미도 같이 갖는 것이라면 유희와 관련된 것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며 집단적 문화생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생활 자체도 조직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에서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보다는 오히려 가족단위로 혹은 집단적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와 문화시설로서 꾸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 인민의 문화생활의 이면에 깔려있는 그들의 사회의식, 혹은 사상의식을 살펴보자. 이마 식·의·주생활을 살펴보면서 1980년대 이후에 들어와 ‘현대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우리식’이라는 이름으로 주체의 고수와 변화의 흐름이 공존하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사상적인 의미를 갖는 사회의식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에서 현재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대가정론이다.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의 혼연일체의 모습을 강조하고 이를 교육에서, 그리고 인민들의 사상생활에서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우선 교육의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육의 목적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창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혁명가로서만이 아니라 수령에 대한 충실한 전사로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다... 그들이 말을 배우고 사물을 알기 시작하여 생활과 행동을 익히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여야 한다.(『천리마』 1995.2호: 83)

충실성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높이 우러른 말과 존엄있게 부르는 말을 정확히 배워주는 것이다.(『천리마』 1995.2호: 83)

위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단적으로 이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수령에 대한 위대성을 몸에 체현하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의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특히, 청소년기의 교육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교육의 핵심적 내용이 혁명위업계승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고 있으며,¹⁶⁶⁾ 특히, 김일성의 죽음 이후에는 사로청(사회주의 로동청년 동맹)을 김일성주의 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며 또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세대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북한 영화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영예군인부부의 딸로 스스로가 입양되어 혁명선배에 대하여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우리딸』이라든가, 신문과 잡지등에 자주 등장하는 영예군인과의 결혼

166) “청소년 교양영화에서는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를 기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청소년 교양영화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성스러운 임무를 직접 걸머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투쟁을 그려내기 때문이며 청소년 사업의 본질적 측면들을 기본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청소년 교양 영화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본문제의 제기에서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문제를 전면애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택진, 1995: 41-43).

이야기, 이들 영예군인에 대한 인민반의 협력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혁명선배, 영예군인, 군민일치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대간의 갈등의 흐름도 읽을 수 있다. 1994년에 북한을 방문한 이충렬에 의하면 그가 평양에 체류중 보았던 TV 방송 드라마(『어머나는 포수였다』)에서 평양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농촌봉사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것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둘째 아들을 설득하여 인민군대에 보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요즘 세대 아이들은 모든 게 다 저질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서 큰일’이라면서 걱정하는 현지 북한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하고있다.(이충렬, 1995:51-52)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도 세대간의 의식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두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의 공식주장처럼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서로가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매체상에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이러한 사회의식이 제대로 실천화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영예군인이나,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등은 대체로 무리없이 북한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예군인과 함께 건설장으로 간 한 처녀에게 책임자가 처녀에게 어떤 관계언자를 묻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전 아직 승낙을 받지 못한... 이 영예군인동무의...” 그러자 그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 알겠소, 알겠어, 몰라서 붙은게 아니요. 너무도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 여서... 영예군인 동무! 이게 바로 우리사회거든. 무엇인가 조국앞에 더 큰것을 바치지 못해 애쓰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위대한 주체사사의 빛발아래 활짝 피어나고 결합된 우리의 사회! 이게 바로 힘이야. 사랑의 힘!”(정명실, 1990.6:42)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이 북한사람들에게 하나의 사회의식으로 주입되고, 또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세대간의 갈등 혹은 세대간의 의식차이가 서서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사상교양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이들에게 혁명에 대한 계승과 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강조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이다. 대체로 최근에 귀순해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도저히 북한이란 곳이 경제난과 겹쳐서 살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최소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여다 본 북한은 그런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호만으로 표명되기는 하지만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것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후 이들 사회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더욱 강하게 사람들의 의식화로 연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선 이들은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 등

경멸, 증오, 야유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이름이나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이름말에 <<놈>>, <<자식>>, <<새끼>>, <<녀석>> 등을 붙인다.(p. 99)

직위 뒤에 ‘어른’과 ‘선생님’을 붙인 경우는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생’의 경우 ‘의사선생’과 ‘연구사선생’과 같이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화자가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²³³⁾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동무’나 ‘동지’를 사용하거나, 뒤에서 보겠지만 ‘반장아바이’, ‘반장아주머니’와 같은 가족 관계 호칭을 사용한다.

남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과장님’과 같이 직위나 직급 뒤에 바로 ‘님’을 붙이는 경우는 ‘낡은 사회에서 쓰이였으나 오늘 문화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김동수1983:98).

북한은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그대로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지칭으로 원용하여 쓰고 있다. ‘회사를 가정같이, 평생 직장, 사장을 아버지처럼, 사원들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과 같이 집단에서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대개 집단(의 목적)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북한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가족 관련 호칭·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특히 주체사상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맺어진 집단 관계를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집단에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같은 동네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르는 것에서 나타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직명 뒤에 가족 관계의 표현을 덧붙여 부르거나, 아예 혈연적인 가족 관계처럼 부른다.

낮선 동네에 이사 온 어린아이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동네 어른을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부르고(「생의 흔적」), 같은 동네에서 사는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 동네에 사는 중년 남자인 ‘반장’을 대개 ‘반장아주머니’라고 부른다(「종달새」). 또 인민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풍년이 왔다고 들뜬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춤을 춘다는 표현이 보인다. 남한식으로 하자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선말대사전」은 ‘③ 혈연적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여 놓고, ‘옆집아버지’를 예로 들었다. 남한에서는 ‘아저씨’라고 표현될 부분이 상당 부분 ‘아버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족 관계 호칭은 비단 같은 동네 사람과 같이 아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통한다.

“저기 웬 아버님이 오시네?”(「종달새」)

나이가 지긋한 낮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남한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님’이란 호칭·지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비교해 보면 주체사상이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얼마나 집단 관계에 원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거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혈연에 의한 친가족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 큰엄마, 큰아버지’인 것이다.

‘아바이’라는 표현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아바이’는 ‘아버지’나 ‘어머님’와는 전혀 다

233. 「조선말대사전」의 ‘선생’의 풀이에 ‘② <<일정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전부터 이미 김정일로의 권력양상이 전개되었고, 따라서 현재의 시책에 대하여 김정일로의 일방적인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인민'들의 직업관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은 이미 직업의 차별을 철폐하였으며, 따라서 직업에 대한 귀천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상당한 정도로 직업관이 평등화되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철산봉의 아들』에서 주인공 춘석을 둘째 아들의 평양거주까지도 말리면서 칠광산의 기사로서 일하게 하는가 하면, 『효녀』에서는 남편을 따라 평양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주인공이 『평양백화점』의 소장으로 가게 되었지만, 전천군의 상업관리소로 다시 돌아와 힘든일을 술선하여 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천리마』에서도 주인공 달홍이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구두수리공'일을 자원하는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천리마』, 1993.10호: 77-78), 역시 『천리마』에서 도로관리소의 담뱃가주머니의 말은 들은 처녀들이 자원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도로관리소에서 일하게 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천리마』, 1995.1호: 50-53)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직업의 귀천이 없어 어렵고 힘든일을 자원하여 일하는 기풍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역시 다음과 같은 말에서 직업의 차별의식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직업이 좋아야 빛이 난다고 하면서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관리공으로 배치받았을때 쑥스럽고 창피해하며 동창생들과 거리에서 만나도 자기의 직업을 선뜻 말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조선영화』, 1994.2호: 55)

다들 1선이요 중요전선이요 하면서 저기에만 배치해달라고 하는데 생활에선 있어야 하는 구두수리공 같은 일은 누가 한단말이요.(『천리마』, 1993.10호: 77-78)

그런데 군사복무를 마치고 군복을 벗으며 또다시 그런 빈거운 생각에 잠길줄이야. 어디에 배치받아야 할가? 농촌태생이어서 농촌에 배치하지 않을가. 이왕이면 시내에서 일하고 싶다(『천리마』, 1994.1호: 92)

즉, 위의 첫번째가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직업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면, 두번째는 빛이 나는 일 즉, 중요건설장이나, 주요 공장, 탄광등에만 지원받아서 드러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직업의식을 드러내준다. 세번째는 도·농간의 차이에 의한 직업배치의 차별을 걱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광산이나 농촌으로의 지원은 역으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북한은 직업에 있어서 두가지의 경향성 즉,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서 볼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자원과 참여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아름다운 소행으로 비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오히려 이런 일들을 자신을 드러내는 계기로써 이용하거나 혹은 아예 농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등이다.

다른한편 북한에서도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여전히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철산봉의 아들』에서 주인공 춘석의 둘째아들이 평양의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모두가 부러워하는(혹은 자랑스러워 하는)장면이 나오며, 또한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니 평양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조선영화』에 실린 영화감상문에 의하면 영화의 내용 속에 대학을 졸업한 연구사가 신발수리공 여성과 사랑을 하면서도 둘의 직업때문에 고민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조선여성』, 1994.2호: 55) 또한 영화 『열네번째 겨울』에서도 떠나가는 연구사들을 빗대어 농민들이 “빼꾸기 나는데 비둘기 안 날라고” 라면서 이들에 대한 불신감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식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불신이 여전히 혼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일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회의식 가운데 하나는 자력갱생적 의지이다. 우리가 북한을 평가할때 자력갱생전략을 이야기 하지만 이들의 사회의식으로도 이것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예술 영화 『열네번째 겨울』에서 주인공은 자력갱생의 표본으로서 내세워지고 있으며,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에서도 老노동자의 자력갱생의지가 모범으로서 세워지기도 한다. 이미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처럼 인민반에서의 자력갱생운동이 대중운동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 군을 중심으로 한 자력갱생전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¹⁶⁸⁾ 우선, 숨은영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백설희연구사를 영화화한 『열네번째 겨울』에서는 주인공이 주위의 만류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서의 당과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14년간을 혼자서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에서 대비되는 등장인물은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어기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사람이다. 즉, 이 둘을 대비하여 북한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상으로서 주인공의 자력갱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에서도 주인공이 낡은 전동기를 교체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이를 새롭게 보수하여 더 성능이 좋은 전동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가 전동기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전해준다. 여기서도 지식인들이 자력으로 전동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손쉬운 교체만을 생각하고 있을때, 주인공은 국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공장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전하면서 결국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자신은 또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자원을 떠난다. 여기에서는 손쉽게 국가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스스로가 소극성을 버리고 일을 자력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168) 이항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 요즘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소왕청 전위군 창조운동’입니다. 김일성이 최초로 소왕청 유격 지구를 만들었는데, 소왕청 유격 지구처럼 각 군에서 자생하고 자기 무장하고 자위할 수 있는 운동이 쏠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개방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의 난국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년 4월호: 24). 이것은 북한이 최근의 경제난 해결을 두가지 방향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 밖으로는 나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개방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군을 중심으로 하여 자력갱생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있다.

물론, 이러한 자력갱생의 실천에는 아직 모든 사람이 나서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예술영화 『평범한 사람』에서 전동기가 고장났을때 이것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바로 상부에 보고하여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생각, 『열네번째 겨울』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여 키워낸 종자를 다시 심지 않으려는 협동농장 위원회 위원장의 모습들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이다. 집단주의가 곧 사회주의라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은 집단주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김정일이 서 있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것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의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설득논리이자, 반박논리의 근거로 되고 있다. 예술영화 『칠산봉의 아들』에서 아들에 대한 대우에 불만을 품은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우리 잘라서던지 결단을 내자’라고 하자, 주인공은 아버지 수령의 가르침을 들이대면서 부인을 설득한다. 이에 부인은 아무말도 못하고 만다. 또한,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에서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이 14년의 연구끝에 성공한 종자를 결과가 두려워 심지 않고 농장으로 보내버리자, ‘리당비서’가 그를 찾아가 당의 방침을 들이대며 ‘당신의 이번 행위로 인해 우리의 과학이 단 하루라도 후퇴한다면 당앞에 책임을 지라’라는 말로 당의 권위를 빌어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다. 또한 TV 드라마 『우리딸』에서도 양녀로 들어가려는 주인공에 대하여 극구 반대하던 영애군인부부도 김정일이 대견한 일이라는 말을 리당비서를 통해 전하자 곧바로 ‘장군님이 보내준 딸’이라며 양녀를 승락한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 그리고 당위 권위가 가장 올바른 것이며 이에 반대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귀순자들도 이에 거의 일치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서 집단주의의 본질이 곧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령과 당을 떠나서는 올바른 집단주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은 그것이 강제로 주입되었던 혹은 자발적인 것이건간에 상당한 정도로 인식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⁹⁾

이렇게 보았을때, 북한 ‘인민’들이 가지는 사회의식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의한 모든 ‘인민’의 일치단결,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 평등한 직업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등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현 ‘인민’들의 생활의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아직은 ‘인민’들의 커다란 반발이나 갈등을 드러

169) 물론 북한의 대중매체가 당의 통제하에 있기는 하지만 김일성.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부하다. 그리고 귀순자들이 증언하는 것에 의해서도 당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4.1 생활세계, 대중매체, 국가의 상호관계

이 글은 르페브르의 생활세계 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구조는 생활세계인 미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반영된다고 하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활동이나 의식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연구는 집합행동을 개인적 동기의 사회적 총합으로 이해함으로써 구조와 구조의 역동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박종철, 1993: 178). 상대적 박탈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생활세계론은 개인적 행동과 의식 속에서 구조의 반영을 찾으려는 시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시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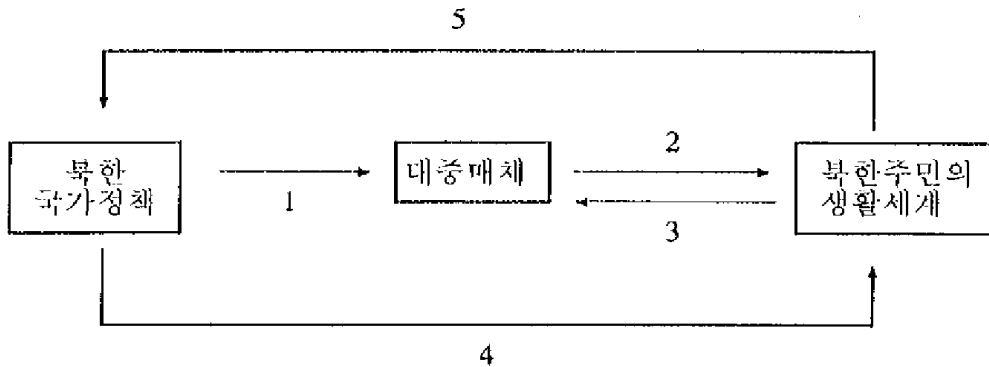
문제는 그렇다면 전체로서의 거시구조는 미시적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이다. 특히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시구조는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생활세계에 거시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거시구조에 대해 영향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보자. 군부 상층부에서 패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싸움이 미시적 수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때 권력층은 매개물을 통해 대민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정당성을 갖춘 세력과 갖추지 못한 세력을 판별해 정당성 있는 세력쪽으로 주민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중심과의 일치성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이 1996년 4월초에 도발한 휴전선 사건을 두고 여러 신문에서는 북한 군부의 강온 대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었다. 1990년대초 김정일이 군부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세력으로 들어간 측과 반김정일 세력간에 미묘한 대립이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한 문제가 정말 있는가는 확답할 수 없지만 북한 사회는 1990년대 이래로 유난히 사회주의 대가정 안에서 '군민일치'라는 구호를 강조하여 방송, 신문, 각종 정간물 및 영화, 소설 등 문예물에 이르기까지 '군민일치' 관련 기사 및 문예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 제작된 TV드라마 『우리딸』(1995)은 일반주민들은 자식 없는 영예군인들을 제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하는 길이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 등은 주민들이 군인들을 원호하는 미담을 계속 방송하고 있다.¹⁷⁰⁾ 다시 말해 국가적 차원의 행동은 대중매체를 통해 생활세계의 주민들의 행동을 촉발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분석틀 <그림 2>를 가져와 설명해보자.

170) 존 메릴도 이와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다. John Merrill, "North Korea in 1992", Asian Survey Vol. XXXIII, NO.1, JANUARY 1993.

분석틀

<그림 2>



과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현지도가 주민생활세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면(<그림 2>의 4 경로)¹⁷¹⁾ 김정일의 등장 이후 4 경로로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이 길보다는 1번을 통한 2로의 경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정책을 방송이나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고 주민들은 '독보시간'에 신문사설이나 당의 지사문을 읽으면서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을 현실 속에 어떻게 구현할까를 고려하고 검토한다. 그렇다면 3의 경로, 즉 북한주민의 생활세계가 대중매체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또한 3의 경로를 통한 국가정책의 변화 및 수정의 경로는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대중매체의 성격과 기능, 식의주 및 주민생활전반을 살펴보고 귀순자들의 증언을 비교하면 3의 경로는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¹⁷²⁾. 오히려 5의 경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주민의 현실적 요구'라는 언명을 자주 하고 있고, 간혹 '반혁명세력의 암해채동'이라는 말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서는 하버마스가 말한 국가 및 체제의 위기가 주민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과연 북한이 처한 국가의 위기가 생활세계의 위기, 특히 붕괴로까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4.2 체계 위기

하버마스에 따르면 사회학적 사회행위는 사회적 행위 일반의 형식적 특징들만이 아니라 또한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조정의 메커니즘도 중요하다고

171) 김연철은 이를 '수령의 직할관리'라고 명명하였다(김연철, 1996).

172) 하지만 이 경로가 완전히 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간부에게 배달되는 「참고신문」과 「비밀신문」을 통해 북한의 당간부는 일반주민들이 들을 수 없는 국내외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민족통일연구원, 1994: 134)고 한다. 이러한 신문에는 북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리들이 적지 않게 실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한다.(장은주, 1995: 148) 즉, 그에 의하면 사회적인 행위는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호연결망에 대한 탐구를 전제로 한다. 이는 노동도 사람들간의 하나의 사회적 상호합의로서 가능하다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그에 따른 일종의 합의로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국가적 수준에서의 거시적 정책의 측면과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생활의 문제로 구별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진화는 2층위로 구분되는 데, 사회의 진화는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생활세계의 합리성이 증대함에 따라 체계와 생활세계가 분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양자는 동시에 분화된다. 체계는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며 이것이 점차 규범과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회적 교통, 즉 목적합리적 경제행위와 행정행위라는 하위체계들을 조절한다.(장은주, 1995: 197)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분화는 규범준수적인 태도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사회적 귀속감을 주변으로 떨어버린다. 이렇게 하여 체계와 생활세계는 분화되는 것이다.(장은주, 1995:198) 결국 이러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다.¹⁷³⁾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체계의 통합은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경제난은 곧 북한의 체계통합능력을 약화시키는 정당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작동원리가 하버마스가 말한것처럼 화폐와 같은 교환관계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권력을 통한(국가조직을 통한) 매개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위기만을 체계의 위기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체계를 하나의 제도화된 물적토대로서, 혹은 제2의 자연으로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국가권력)와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생산이라고 할 수있다. 여기서 북한의 현재의 모습은 물적생산에서의 위기를 거치고는 있지만 국가(국가권력)의 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위기가 경제적 위기로부터 직접 파생한다기 보다는 이념과 현실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크다고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서 경제적 위기는 그 이념 실현의 요인중 물질적 조건에 장애를 조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위기가 자기 스스로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바로 인민들의 동의의 거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인 위기와 권력교체기란 점에서 체계의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체계가 발을 붙이고 있는 생활세계와의 접

173) 이런 의미에서 북한을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2분화된 사회로서 볼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 쟁점으로 들어오게 된다. 최근에 사회주의에서의 시민사회론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맥락에서 북한을 상대로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서재진이 그의 책(서재진, 1995)에서 규정내리고 있는 제2사회라는 개념은 일단을 경청할 만한 적용사례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늘려감으로써 이것이 심각한 사회통합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체제 그 자체도 체제권력의 분권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기구의 부분적인 자율성고양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북한사회의 위기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생활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접촉거리의 증대여부를 먼저 주목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4.3 생활세계 위기

생활세계란 하버마스에 의하면 곧 삶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원시부족사회가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유된 동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모든것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체로서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장은주, 1995: 203) 그리고 이러한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사회통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합리성의 위기 혹은 동기부여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북한에 적용시켜본다면 생활세계의 위기는 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북한인민들에게 동기부여의 위기로 발전하면서, 북한의 '인민'들이 자신들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생활세계에서의 체제와의 분리가 보다 더 심화되는 것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즉, 체제와 생활세계간의 일상적 접촉과 신뢰의 붕괴, 이념과 현실의 괴리감이 생기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에서 이러한 생활세계에서의 위기현상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규범적 가치의 전파와 이에 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하면서도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오히려 국가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한 생활세계와의 결합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때로는 위의 <그림 2> 에서처럼 4의 과정을 병합하고 있다. 즉,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국가권력의 핵심부 인사들의 현지지도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¹⁷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북한 '인민'들에게서 가치의 이완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즉, 신세대의 문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이완 현상, 자유주의 물결의 부분적인 유입현상이 가져오는 사상적 가치의 이완 현상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기존의 사회규범적 가치를 압도하게 된다면 사회통합의 위기현상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살펴

174) 중앙방송은 1995년도의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당 정치국원들이 각기 군부대 및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지지도 이외에 김정일은 모범단위등에 감사편지등의 형태를 통해 이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있는 효과를 주고있다.

본 북한의 모습은 아직은 이런 현상들이 압도적으로 혹은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¹⁷⁵⁾ 이것은 북한이 아직은 인민들의 일상사에 있어 위로부터의 사상적 교양과 일체감의 강조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우영(이우영, 1993)의 지적처럼 북한의 규범적 통제를 수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¹⁷⁶⁾

물론, 최근 김정일의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에서 수정주의와 행정화, 형식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의 부정적 모습이 체계의 위기수준과 생활세계의 통합을 위협할 수준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직 북한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부의 부정적인 현상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활세계의 위기로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북한에서 체계수준에서의 통합의 문제 즉, 체계의 위기는 경제난으로 대표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체계내에서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권력의 강화와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자율성 제고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규범적 통제 역시 아직은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면 현재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광범한 이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사상교양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위기의 극복을 최우선의 과제로(곧 체제생존을) 제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사상교양의 강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념 실현에 방해자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적 단결력을 더욱 높이는 것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75) 귀순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그루빠의 창설이나, 국가보위부의 위상강화, 군부의 권한증대 등은 이러한 생활세계의 위기에 대처하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생활세계에서 드러나는 비사회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전자는 아직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지만, 후자의 두가지 현상은 김정일로의 권력이양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드러났던 미국등의 위협에 대처하는 동원체제의 구축이라는 의미가 더 짙기 때문이다.

176) 이우영은 그간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분석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사회통제를 물리적 통제와 동일시한 나머지 제도적인 차원의 통제기구만 집중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둘째, 규범적인 통제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입장은 검토하지 못하였고, 셋째, 지배이념은 단지 물리적 억압에 의해서만 주입되었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는 오히려 북한이 사회통제에 성공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제도적 특성의 면에서 분석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규범적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수용자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5. 결론 및 과제

이상에서 북한 '인민'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국가와 생활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고찰해보았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선전·교양의 수단인 대중매체이며 특히, 영화는 당보의 사실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당·국가정책의 교양내용은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적(ideal) 사회의 모습과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국가정책 및 사상교양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로의 충실성 강화와 사회주의의 고수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선전은 인민들에게 단순한 선전만이 아니라 계몽의 성격을 강하게 띠므로, 북한인민들에게 바람직한 생활상, 혹은 현재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주의 붕괴이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견지를 위해 사회주의적 대가정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고양, 자력갱생의 실천, 집단주의의 발양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자, 또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집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중매체가 북한의 인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효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갈등과 모순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들이 설정한 이념과 이것을 위한 현실간의 투쟁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곧바로 체제의 위기 혹은 생활세계의 이완, 그리고 체제와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심각한 위기로 이어고 있지 않은 현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사회에서 발견되는 부정적 현상들이 1990년대,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공고한 결합을 유지해왔던 당과 인민, 수령과 인민의 결합이 점차 이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경제난과 개방에 따른 반작용, 그리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의 반사회주의적 사상의 발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은 이러한 경향이 증대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의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사회에 요구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제기되는 과제는 가장 크게 경제난의 극복이다.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¹⁷⁷⁾ 김정우의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의 국제관계는 자본주의시장으로 통합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사회주의 붕괴 이후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경제제건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국내에서의 생산구조의 문제, 경제규모에 비한 과도한 국방비의 부담 그리고 경제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함으로써 자체의 생산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경제난으로 인한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에 따른 부담과 개방을 하지 않고서 경제를 회생시키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이 역시 쉽지 않은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일본과의 수교를 통해 우선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난의 극복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변화의 흐름이 인민생활 향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면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에 우선하고 생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경제난 극복이 모색되어야 한다. 북한의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는 바로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재 주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에 대한 대책이다.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학력에 의한 차별현상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 정춘실 운동이나, 백설희 연구사의 영웅적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소극주의와 보신주의등의 형태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 현상도 보이고 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친 세대들이 소위 '세 세대'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의 중심에는 그들이 건설하고 발전시켜온 '조국'에 대한 걱정과 '새 세대'가 자신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경제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몇해전 북한을 방문한 교포가 안 내원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개방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의 연변지역 등을 통해서 밀려오는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물결에 대처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것처럼 아직 이러한 현상이 부분적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비사회주의적 사상의 유입과 경제난으로 인해 이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체제의 안정에 심각한(적어도 정권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최근들어 사상교양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방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기장'이론에 의한 개혁·개방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철, 1995).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스스로가 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하여 자체의 면역성을 길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과 인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결합과 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의 문제가 사상적인 문제라면 이것은 국가와 사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심단결의 보장이다. 또한 북한의 구조상 수령 일인을 중심으로 사회가 짜여져 있는 곳에서 수령의 공석은 심각한 정

177) 북한 방송을 보면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심각함을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외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간혹 접할 수 있다.

신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안고있는 공식적인 주석직의 공석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인민'들과의 계속적인 연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김정일의 한지지도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일치단결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형식주의 혹은 권위주의적으로 된다면 '인민'들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화가 요구된다.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는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은 따라서 북한에게는 그들 사회주의 체제의 앞으로의 진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치사상적 지침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구축해온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그들 체제의 유지는 체제와 생활세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부단한 접촉거리의 좁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체제와 생활세계의 급격한 분화를 수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북한의 신문, 잡지

- 『경제연구』
- 『근로자』
- 『금수강산』
- 『로동신문』
- 『조선중앙연감』
- 『조선여성』
- 『조선문학』
- 『조선영화』
- 『조선예술』
- 『천리마』
- 『청년문학』
- 『통일신보』
- 북한 TV물
- 북한 영화
- 『우리 딸』 삼부자, 조선중앙텔레비죤 편속극, 1995
- 『북한최고회의자료집 1-4』

2. 한글분헌

- 강정구, 1996.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 강능수,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근본특징에 대하여”, 『근로자』 1990, 제1호
- 강승춘, “주체적 민족관”, 『철학연구』 1991년 제4호
- 고뢰징(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 고승효(김한민 옮김), 『북한사회주의발전연구』, 청사, 1988
- 고영복,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 사회문화연구소, 1991
- 고영환, 『우리민족제일주의론』, 평양출판사, 1989
- 고평석, 『북한의 보험제도』, 보험감독원 조사부, 1992
- 고프, 김연명·이승욱 옮김,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0
-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서의 생활묘사』, 1979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경제론문집 6』, 같은 곳 펴냄, 1977
-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의 발전(론문집)』, 같은 곳 펴냄, 1954

- 권영민 외, 『북한 문화예술 인구의 현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 김정근, “Marx의 언론사상과 Marx주의 언론사상”,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1989
- 김귀옥, 1994. “통일을 향한 남북 사회·문화연구.” 기사연 통일연구위원회 편.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_____, “북한의 「지리적 민족경제건설노선」에 관한 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_____. 김재윤. 1996. “변혁기 북한의 계급과 계급정책.”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편. 『변혁기 사회주의 계급·계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덕,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평가”, 『동향과 전망』, 1993년 가을호
- 김남식, 『남로당연구1』, 돌베개, 1984
- 김분한,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1989
- 김병로. 1993.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상미,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분석과 개편방향,”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1호, 1993.2.
- 김선임, “북한 타아제도의 현황과 성격변화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993, 여름.
- _____, “북한 타아정책의 변화과정-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성일,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 정치경제학』, 한, 1990
- 김승준, 『우리나라 농촌문제해결의 역사적 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연철. 1996.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 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섭, “사회주의문화농촌 건설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근로자』, 1991년 1월호.
- 김영성a, “북한의 건축양식”①, 『국토와 건설』, 1993.7
- _____, b, “북한의 건축양식”②, 『국토와 건설』, 1993.8
- 김영주, 이범수,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나남, 1991
- 김영희, 『세금문제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88
- 김용한,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 김원, 『북한의 국토개발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1
- 김의원, 여홍구, 김창식, 강위훈,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구상,” 『국토계획』, 제24권 2호, 1989.7.
-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76
- _____,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근로자』, 1987. 1월호
- _____,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51년)”,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노동당 출판사, 1967
- _____,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1943년)” 『김일성선집1』, 대동, 1988
- _____, 『김일성저작집』, 20권,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 _____, 『김일성저작집』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정숙, “충성의 빛이 되리”, 『천리마』, 1993년 12월호.
- 김정웅, “사회주의와 영화예술”, 『조선영화』, 1995년 3월호.
- 김정일. 1991.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_____. 1989. 『영화예술론』. 평양: 외국문출판사.
- _____. 1986.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
- _____. 1984a.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_____. 1984b.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_____. 1984c.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_____. 1993. “조선기자동맹 제 7차대회에 보내는 서한”
- _____. 1974. “우리당의 출판보도수단은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3차 대회에서 맺은말
- 김창석, “남북한 도시정주체계의 비교연구”, 『국토와 건설』, 제28권 제2호 1993.5.
- 김창선 편역, 『사적유물론』, 새길, 80쪽
- 김택진, “청소년 교양영화에서 기본문제의 제기과 형상”, 『조선영화』, 1995년 5월호.
- 김홍록, “사회주의 문화생활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참다운 생활”, 『근로자』, 1991년 1월호.
- 남대현, 『청춘송가』, 공동체, 1988
- 남인숙. 1990. “북한의 가정생활 실태-의식주생활과 여성.” 『계간·북한연구』 창간호. 141-155쪽
- 노태돈, “한국민족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고대사총론』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대동편집부 편,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돌배개, 1988
- 도정일. 1991. “포스트모더니즘--무엇이 문제인가.” 『창작과 비평』. 제19권 제1호.
- 리도형,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것은 근로자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1991, 제3호
- 리창근. 1989. 『로동행정사업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분석』, 국토통일원, 1989

- 문화와 사회연구회편. 1994. 『현대와 탈현대』 서울: 사회문화사
- 민족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화연구(上), (下)』. 서울: 같은 곳 펴냄.
- 박수영, 『민족어를 발전시킨 경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승덕. 1989.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8』(1985.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울: 조국.
- 박완신. 1989. “북한의 의식주 생활문화.” 『북한』 10월호.
- 박재환. 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박종철. 1993. “북한의 국가·사회와 정치적 변화.” 『계간·북한연구』 가을호.
- 백남룡. 1988. 『빛』. 평양: 문예출판사. (1992. 서울: 살림터.)
- 백육인,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블라디미르 푸체크, “주체사상과 북한 문화”, 『북한의 실상과 전망』, 동화연구소, 1991
- 사카이 다카시. 1991. “김정일의 권력 기반 - 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서울: 동화연구소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북한의 문예이론』, 서울: 인동출판사 재출판, 1989
- 사회과학출판사 편,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백산서당, 1989
- 서관모,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프롤레타리아트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다산출판사, 1992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 2』, 인천; 자료원, 1995
- 서재진. 1991. “북한사회 계급구조의 제편과 사회변동,” 제1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1993.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관계”, 『개원2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_____. 1995. 『또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니남출판사.
- 서중석, “민족사학과 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론I』, 창작과 비평사, 1982
- 손전후, 『사회생활의 민주화 경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송건호, “8.15 후의 한국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론I』, 창작과 비평사, 1982
- 스즈끼 마사유키, 유영구 역,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1994
- 송창호, 『인민보건사업경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신복룡, “통일시대의 한국 민족주의”, 『통일문제연구』, 5권1호, 1993년 봄호
- 신용하,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5
- 신홍규. 1991. “지방의 잠재력을 적극동원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근로자』 제9호.
- 안동일, 『갈라진 45년 가사 본 민족』, 돌베개, 1990
- 오대호, 『협동농장관리운영경협』, 사회과학출판사, 1989
- 오정수, “남북한 사회정책 변천의 비교연구-국가성격에 기초한 사회정책 변천 동인의 분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우경식. 1993. “북한지배층의 담화와 인민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한양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오원철. 1995. “북한경제 무너진 까닭.” 『신동아』 1월호. 통권 424호.

유영구. 1990. “북한의 인텔리겐차.” 『말』 3월호.

유작춘, 『정통과 계승』, 현대사, 1992

유재천,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1989

윤여령. 1994. “북한의 공업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이경하, “『로동신문』, 『조선여성』에 나타난 북한의 여성상”,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이복수, “북한의 계급 구조에 관한 연구-불평등의 편재와 제도화-”, 『북한의 현실 II』, 아세아문제연구소, 1981

이복수, “북한의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북한의 현실II』, 아세아문제연구소, 1981

이은죽. 1993.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이우영, 『북한 정치 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1993

이은영, “북한 공장대학 연구-‘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3

이준희, “농민 수탈하는 농촌의료보험,” 『말』 1991.10월

이찬행. 1992.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 서울: 두리.

_____. 1994.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 서울: 열린세상.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남북한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93년 북한·통일연구 논문집(VII)』, 국토통일원 1993

장상환, “북한 농업의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1990

전상인. 1993.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정영철. 1996.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조현식, “북한의 주택현황”, 월간 『북한』, 1990년 9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조형창·리준하, 『신문학』,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2

주강현. 1994.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주종원, 김현수, 유영욱,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연구”, 『국토계획』, 제27권 3호, 1992.8.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통일원, 1993

최외출, 김철주, 김문식, 송두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의 배경과 실제-영천군을 중심으로”, 『환경연구』, 1992, 제2권 제1호

최주환, 『북한경제론』, 대왕사, 1992

최항순. 1995. “북한의 사회통제 메카니즘 - 조직적 관점에서-.” 경원대학교 교수세미나.

쿠지넨,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 민주주의론 I』, 창작과 비평사, 서울, 1992, 356-7쪽

크라체크 외(편집부 편역),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중원문화, 1990

- 통계청. 1991.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 서울: 통계청.
- 통일원 위음. 1991a.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 _____. 1991b.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 _____. 1995a. 『북한개요95』
- _____. 1995b. 『북한의 사회문화시설 현황』
- _____. 1984a.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
- _____. 1984b. 『북한의 산업정책 및 시설현황』
- 평화연구소·중앙대 '사회와복지연구회', 『한반도의 군축과 사회복지』, 한울, 1991
- 위르겐 하버마스, 장은주 역,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관악사, 1995
- 하정화, 『백양나무』, 협, 1990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199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갈은곳 펴냄, 1990
- 한운. 1992. 『씨앗』. 평양: 문예출판사.
- 허동철, "모더니티의 계승전략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하버마스와 기든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허선,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삼성복지재단, 1993.9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6년 4월호.
- 和田春樹. 1993. "유격대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 12월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황은주, "북한 성인여성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황제평,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건축에서 비반복성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과 그 구현방도". 『조선건축』 1991년 4호
- 鐸木昌之,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북한의 실상과 전망』, 동화연구소, 1991

3. 외국어 문헌

- Althusser, L.(김동수 역). 1991. 『아미앵에서의 주장』. 서울: 숲
- Anderson, James. E.. 이종수·이대희 역, 『정책형성론』, 대영문화사, 1991
- Eberstadt, N. and J. Banister, North Korea: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s, 1990
- Eberstadt, N. and J. Baniste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2
- Eberstadt,N., "Population and Labor Force in N.K.:Trends and implications", 『한국인구 학회지』, 제14권 제2호
- Esping, G-Anderson,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olicy Press, London, 1990
- Foster-Carter, Aidan. 1990. "Still Waiting for Chang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6.
-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7

- Grand, J.L. and Saul Estrin, Market Socialism, Clarendon Press, Oxford, 1988
-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ifeworld and System :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1987
- Lefebvre. H. 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t.2. Paris: L'Arche Editeur.
- Merril, John, "North Korea in 1992", Asian Survey vol.XXXIII, NO.1, JANUARY 1993.
- Ossowski, S., Class Strun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 The Free Press, N.Y., 1963
- Parkin, F., Class Stratification in Socialist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20, December, 1969; 이복수, 206-8쪽.
- Zordan, Z. A. "사회계급, 계급분화와 계급투쟁", 박현우편역, 『사회계급론』, 백산서당, 서울, 1986

4. 예 술 영 화

- 『나의 어머니』(199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 『노래 속에 꽃피는 가정』(199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 1, 2부』(199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도라지꽃』(1987).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도시처녀 사집와요』(1993).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 영화창작단.
- 『마음에 드는 청년』(1989)
- 『사랑의 물소리』(199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보천보창작단.
- 『열네번째 겨울』(1993).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우리딸 1, 2, 3부』(1995). 조선중앙텔레비죤 편속극.
- 『있을 수 없는 추억』(199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철산봉의 아들』(199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왕재산창작단.
- 『평범한 사람』(1986).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흥단창작단.
- 『하얀꽃』(1991) 조선예술영화촬영소.
- 『효녀』(1991). 조선예술영화촬영소.

5. 기 록 영 화

- 『조국기행』. 총련영화제작소. 1986
- 『폴란드기자가 본 북한 실상』. 스위스: TSR-TV. 1988
- 『우리가 본 평양』. 총련영화제작소. 1987
- 『평양의 모습』. 1989.
- 『조국기행: 함경남도·북도』. 총련영화제작소. 1985.
- 『해외동포들과의 첫합동미사와 관광』. 미국: 신한민보사. 동방예술기업사. 1989.
- 『전해영독창회 2』. 총련영화제작소. 1993

北韓의 話法 研究

研究責任者：任 七 星(全 南 大)

목 차

<요약문>	253
1. 서론	259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9
1.2. 연구의 범위	260
2. 주체사상과 언어 생활	263
2.1. 주체사상과 민족어	263
2.2. 언어 생활 규범화	264
3. 북한 화법의 양상	267
3.1. 발음	267
3.1.1. 자음	267
3.1.2. 모음	273
3.1.3. 숫자	276
3.2. 언어적 표현	277
3.2.1. 어휘, 어미	277
3.2.2. 호칭·지칭	281
3.3. 소리마루	288
3.3.1. 높이마루, 길이마루, 세기마루	289
3.3.2.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	292
3.4. 감정의 형상화	294
3.4.1. 감정의 사회계급적 성격	294
3.4.2. 감정 형상의 규범화	296
3.4.3. 감정 형상의 이중적 양상	298
3.5. 설득 전략	300
3.5.1. 설득의 규범성	300
3.5.2. 설득 전략의 이중적 양상	300
4. 북한 화법의 방향: 화법 교육	302
4.1. 주체사상과 화법 교육	302
4.2. 북한 화법 교육의 양상	304
4.2.1. 발음	304
4.2.2. 언어적 표현	306
4.2.3. 소리마루	309
4.2.4. 감정 형상	312
4.2.5. 규범적 판단	315
5. 통일을 위하여	317
<참고문헌>	320

<요약>

북한의 화법 연구

1. 서론

북한 화법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나는 화법의 차이가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느끼는 이질감의 일차적인 바탕이 된다는 측면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질감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이 편향적이라는 측면이다. 실제로 북한 화법은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된 목적의식적인 인위적 요소들 - 생경한 어휘, 선동적인 억양, 웃을 듯 말 듯한 이상한 표정, 규격적인 몸 동작 등 - 과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한 자연적 요소가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소개되는 북한 화법은 북한에 의해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되고 다시 남한 언론에 의해 남북한의 차이가 극적으로 부각되도록 선별된 것들이다. 따라서 남한에 소개된 '북한식' 화법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편향성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과 거부감을 낳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화법과 관련된 제반 저작물과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회화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등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북한 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을 위한 정책 결정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 글은 첫째, 주체사상의 언어 생활 문제로 북한 화법 규범화의 배경과 방향, 둘째, 북한 화법의 실제 양상, 셋째, 북한 화법의 방향 제시로서 의의를 가지는 북한의 화법 교육 양상, 넷째,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에 대한 정책 제안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2. 주체사상과 언어 생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를 민족의 공통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아 중요시한다. 특히 언어를 혁명 투쟁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사상 의식 개조와 언어를 통한 선전 선동이란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문화어를 바탕으로 언어 생활을 규범화하여 놓고 이를 학교를 통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

북한의 언어 정책이 주체사상적으로 변한 1960년대 이후 이런 언어 규범화와 주체사상적 언어 생활 교육은 특히 강조되었다.

3. 북한 화법의 양상

3.1. 발음

북한의 발음에서는 두음법칙이 무시되고, '분분, 여자'와 같이 이두에서 'ㄹ, ㄴ'이 발음된다. 그러나 이것은 1966년 규범집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에서 새로이 나타난 발음 현상으로서 1966년 이것을 규범화하긴 하였지만 1975년에 발간된 자료에서 이런 현상을 무시한 발음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까지 '분분, 여자'와 '분분, 여자'가 함께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런 규범적인 발음이 일반화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두부엌[두부푹], 봄단장[봄판장], 랑장꼬[랑장꼬]'와 같이 된소리가 가능한 거의 모든 곳에서 된소리 발음을 '문화어 발음'으로 규범화 하여 놓고 있다. 주의해야 할 발음에 '조건[쫘건], 수건[쫘건]' 등과 같이 된소리가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의 예를 든 것으로 보아 된소리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된소리화 현상은 일음절에 발의 세기가 주어지는 북한의 소리마루 현상과 연관되고, '말을 힘있고 막리있는 생기발랄한 말로 불러게'하여 감정 정서의 직극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친전 전통의 복지와도 연관되는 듯하다.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와 같이 모음 / ɪ/는 [ㅈ]로 발음되는데 이것은 몇 가지 사실로 보아 ' ɪ > ㄴ > ㅈ '의 변화라는 의심스러운 가정을 해 보게 한다.

'어미니[오머니]'와 같이 / ɪ/가 [ㄴ]에 가깝게 소리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된 발음 현상으로서 이런 발음 현상이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북한 여성의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모음이 이어 날 때 나타나는 '소리빠지기' 현상은 '왜 때리니? 왜 때-나!'와 같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통속적인 입말에서 쓰이는 허용 발음을 정해 놓고 있는데 '-고, -도' 등과 같이 / ɪ/로 끝나는 이머는 모두 [ㄴ]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아라비아 숫자는 '225g'은 '이백스물다섯그램'으로 읽어야 하고 '이백이십오그램'으로 읽는 것은 틀린 발음으로 규정하여 놓았듯이 가능한 한 '고유어'로 읽도록 하고 있다.

3.2. 언어적 표현

북한의 어휘 정리 방향은 '인민성, 주체성, 당성'으로서, 이것이 인민어, 고유어, 원수에 대한 의존성과 원수에 대한 극단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드러난다. 인민어관 통속어의 성격을 띠어 '망탕, 제끼'와 같은 말들이 김일성 교시에서도 나타나며, 고유어란 어휘적으로 고유한 우리말이 아니라 '오래 옛날부터 인민들이 만들어 써내려오는 어휘'로서 '학교, 방' 같은 어휘는 한자말이 아니라 고유어로 본다.

북한의 언어적 표현은 어휘 단위가 아니라 관용적인 분장 단위 표현에서도 남한과 차이를 보이는데 '일없다<<괜찮다>>, 안됐다<<미안하다>>'와 같은 경우가 그 예이다.

전체적으로 북한 높임법 의미는 '하오체'가 많이 쓰이는데 명평분 칭유분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어데 가나?'와 같이 '-나?' 표현은 이런 아이가 형, 어머니, 아저씨 등과 같이 해요체가 쓰여야 할 상황에 두루 쓰는 표현이다.

원수에게는 '만수부강을 삼가 축원하옵니다'와 같이 '인민어, 고유어'의 원칙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마치 조선시대 왕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도록 한 반면, 원쑤에게는 원쑤들이 한 행동, 원쑤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도 ‘대가리 쌍통을 싸쥐고 몸뚱이를 비틀었습니다, 웨저라’와 같은 표현을 쓰도록 인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호칭과 지칭은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띤다, 셋째, 김일성 부자와 ‘계급적원쑤’에 관한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방언 표현이 규범화 되었다라는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는 표현은 ‘숙모, 숙부, 백부, 춘부장’과 같은 한문투 호칭·지칭과, ‘서방님, 아가씨, 도련님’과 같이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계층의 계급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판단한 호칭·지칭, ‘작은덕, 첩’과 같이 낡은 문화와 관련된 호칭·지칭을 가리킨다.

집단성은 ‘동지, 동무’ 등과 같은 표현이 매우 일상화되었다는 것과, ‘분조장, 당위원장, 반장’ 등과 같이 집단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지칭이 시골의 동네 사람들과 같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호칭·지칭으로 쓰인다는 점, 집단 관계의 호칭·지칭에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동무’는 ‘*아버지동무’와 같이 친족 호칭에 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호칭으로서 전체 어휘 빈도수 순위에서 50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동지’는 상대방의 직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고, 화자보다 호칭이나 지칭 대상의 지위가 높은 경우 공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가족 관계 표현을 집단 관계 표현으로 원용한 것은 ‘반장아주버니, 반장야바이’와 같이 직급 뒤에 가족 관계 호칭을 붙이는 것과, 동네 사람에게도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저기 웬 아버님이 오시네’와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버님’이란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은 ‘김일성아버지’를 모시고 사회주의 체제라는 한 가족으로서 살고 있는 집단 가족이란 측면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붙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 수령, 장군, 친애하는, 지도자’ 등과 같은 표현들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당어머니’의 ‘어머니’에도 해당된다.

원쑤들의 호칭·지칭에는 대부분 ‘놈’이 붙는데 이 ‘놈’은 전체 어휘 빈도 순위에서 44위에 이르고 있다.

3.3. 소리마루

북한 화법의 소리마루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과 전투적 생활감정’을 고양하여 선동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다듬어진 것이다.

높이마루는 대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주어진다. 세기마루는 단어의 첫음절에 주어진다. 이런 소리마루는 문장 단위까지 적용된다. 소리마루는 세기, 높이, 길이 뿐만 아니라 억양, 끊기, 속도, 울동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억양의 경우 ‘있습니다, 아니에요, 끝났어요’와 같은 경우 ‘다, 요’ 앞의 소리마디가 다른 소리마디보다 높게 발음되어 이른바 ‘북한식’ 억양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실제 북한 영상 자료를 통해 보면 중년 이후의 남자 대부분과 여자 상당 부분은 남한과 거의 다름없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체사상적 교

육과 훈련을 받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북한식' 발투이다.

3.4. 감정의 형상화

주체사상에서는 감정도 '사회계급적성격'을 띤다. 따라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보다는 규범화된 감정 형상화의 기교에 의해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끝없는 흠모의 감정을 드러내어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야 하고 원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증오심과 적개심의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감정 형상화는 '얼굴에 알릴듯말듯한 웃음빛을 띠고 눈을 반쯤 감고'와 같이 표정, 음색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범화가 실제로 모든 사람의 인상적인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일상 생활에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은 '주체사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개인 감정 표현이 주종을 이룬다.

3.5. 설득 전략

주체사상에서는 모든 설득 전략이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거나, '김일성 원수님의 말씀에 따라'라고 하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그대로 반동적 사상을 가진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의하면 설득을 하기 위해 혈연지간의 정리를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을 동원하는 장면이 아주 당연스레 등장한다.

4. 북한 화법의 방향: 화법 교육

4.1. 주체사상과 화법 교육

주체사상에서 교육은 인간 개조의 수단이다. 특히 언어 생활 교육은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고 사상 무장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언어 생활의 중추를 이루는 화법 교육은 북한 학이 교육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4.2. 북한 화법 교육의 양상

북한은 낭독과 구연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발음 교육을 중시한다. 남한의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는 고등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코안소리닦기, 입천장소리닦기'를 설명하라는 연습 문제가 나올 정도로 그 수준도 매우 높다.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는 구체적인 묘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수에 대한 흠모의 표현과 원수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매우 많은 부분에 등장한다. 인민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지주놈의 상통, 미제놈이 뉘졌다'와 같은 표현을 가르

친다.

인민어의 사용은 통속어의 사용으로 이어지는데 ‘있수다, 왜 그러슈, 먹끓아’와 같은 표현들이나 ‘미군 닭쏘는데 무슨 상관임네까’와 같은 표현들이 국어 교과서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한다. 고유어 표현을 강조하여 ‘십삼세’가 아니라 ‘열세살’이라고 하도록 하고 ‘서점, 랭차, 오침, 노트’ 대신에 ‘책방, 찬단불, 낮잠, 학습장’과 같은 표현을 쓰도록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

소리마루 교육은 특히 강조되어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첫단원부터 높이, 세기, 길이,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반복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 형상화도 음색, 표정 등에 대해 일정한 규범화를 해 놓고 이를 반복 훈련시키고 있다.

모든 판단은 규범적으로 하도록 교육한다. 규범의 근거는 김일성의 교시로서 토론, 글짓기, 이야기, 편지, 일기, 짧은글짓기 등 모든 부분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먼저 인용하고 거기에 따라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것을 연습 문제를 통해 반복 훈련시키고 있다.

결국 북한의 화법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장 주체사상적인 화법으로 무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통일을 위하여

남한의 북한 화법에 대한 인식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체사상적인 것을 거의 맹목적으로 민족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일부 학생들을 비롯한 태도와 섬찝함을 느끼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느끼는 태도다. 이 둘 모두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먼저 주체사상에 의한 목적의식적인 인위적 요소와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한 자연적 요소라는 북한 화법의 이중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

학교 교육을 통하여 북한 화법의 실체를 교육함으로써 북한 어린이들이 김일성이나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교육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울먹이지만 자신의 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교육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먹이지 않는다는 것, 주체사상의 인민어, 고유어가 인간 개조라는 교육의 기본 명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알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등장하는 북한 화법이 주체사상적으로 무장하여 남한과의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난 것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등장하는 화법, 즉 자연스러운 방언적 차이에 의한 화법까지도 확대되어, 북한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주체사상적인 별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우리 민족의 화법을 구축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상호 인정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에서 한문투의 말이나 영어투의 말을 고유어로 고치려는 노력은 남한에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런 작업에 긍정적인 일

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 화법에 대한 일정한 인정은 통일로 인한 왜배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 '일정한' 말이라는 인식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체사상에 의해 교육 훈련된 북한의 어린 세대들이 통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1. 북한 화법에 대한 남한의 인식은 편향적이다. 우리가 접하는 북한 화법은 대체로 북한 언론에 의해 '주체사상적'으로 무장된 것들이고 이 가운데 다시 남한 언론에 의해 선별된 것들이다. 남한 화법과의 차이가 극적으로 부각된 것들로서 주체사상적인 화법이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것이 북한 화법의 전부인 양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북한의 화법은 남한의 텔레비전에서 말의 내용은 물론 화법 그 자체로 코메디로 다루어졌다.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분단 50년이란 세월이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분단 이후 남한 화법이 언중들의 언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시간적 변화의 소산이라면, 북한 화법에는 주체사상에 의한 목적 의식적인 작위의 요소가 깔려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법에 존재하는 이런 목적 의식적인 작위의 결과가 북한 화법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법은 어찌되었든 과거의 유산을 계승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 말 생활은 분단 이전부터 존재해 온 방언의 시대적 소산이라는 자연적 요소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요소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생경한 어휘와 이상한 억양과 부자연스러운 표정의 선전 선동 화법이나, 유치원생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의 규격적인 몸짓 등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위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장년층들의 일상 화법은 남한과 거의 비슷하거나 분단 이전의 북한 사투리 정도로 그 차이가 인식된다. 이것은 자연적 요소들이다.

1.1.2.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일차적으로 느끼는 이질감은 화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화법의 차이는 곧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의 생활 양식의 차이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한 화법의 차이가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일차적인 이질감을 조성하며, 남북한 화법의 차이는 삶의 방식의 차이로 확대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코메디물로 소개된 북한 화법은 한순간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통일이나 전쟁과 연관되면 섬뜩함을 자아내는 바탕이 된다. 분단 전의 북한 사투리가 드라마에 등장하면 향수를 자아내지만, 어색한 표정, 딱딱한 몸자세와 제스처, 이질적인 억양을 동반한 '북한 말'이 등장하면 북한 사투리와는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저항감은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조장할 수 있다.

1.1.3. 북한의 화법에 대한 연구가 의의를 갖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 화법의 실태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남북한 화법 동질화를 위한 터를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한 인위적인 요소만이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알려진

복한 화법의 실제 양상을 밝히는 것은 화법의 동전성 회복의 차원을 넘어 한편으로는 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1.2.1. 복한 화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화법’의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화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화법이란 말 생활의 방법과 원리를 가리킨다. 현재 ‘화법’이란 말은 영어의 ‘speech, the art of speech, speaking’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듯하다. 이것을 ‘화술’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話術이란 용어는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話法이란 용어를 선택하여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영우 1991:2). 화법이 지금은 대중을 상대로 한 연설이나 발표의 범위를 넘어 대화, 설득, 토의 등 말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규칙 혹은 그 이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법의 내용에서 주로 연설(혹은 대중 발표)이나 설득의 이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기에서는 ‘화법’을 ‘대인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¹⁷⁸⁾의 개념으로 쓰이고자 한다. ‘대인 의사소통’이란 ‘자기 내적 의사소통, 대량 의사소통, 조직 의사소통’ 등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줄고(1996)에서 ‘대인 의사소통’이란 ‘말을 중심 매체로 두 사람 이상이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의미, 즉 삶을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바탕하여 이 글에서 ‘화법’은 대화자가 상대를 직접 대하는 상태에서 상대의 반응에 유념하면서 말을 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킨다.¹⁷⁹⁾

화법이 단순히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구성하고 발음을 정확히 하는 차원을 넘어 대인 의사소통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복한 화법의 발음과 어휘 표현과 같은 언어적 요소는 물론 억양, 소리의 세기, 높이, 장단과 같은 준언어적 요소, 표정, 제스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nonverbal communication) 요소, 설득의 전략과 같은 대화 경영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다.¹⁸⁰⁾

기본적으로 대량 의사소통에 속하는 방송 언어는 그것이 방송의 기능이나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전 선동을 위한 말하기라는 측면과 관련된 때는 화법의 범위에 넣이 함께 다룬다.

이것은 ‘화법’이 마땅히 대인 의사소통의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는 주장에 일차적으로 근거한 것이지만 복한의 화법 중 우리에게 이질감을 조성하는 요소가 발음이나 어휘와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마찬가지로 억양,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와 김일성의 교시에 근거한 설득과 판단이라는 경영 전략적인 요소에도 있기 때문이다.

178. 줄고(1995)에서 intrapersonal communica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을 각각 자기 내적 의사소통, 대인 의사소통, 조직 의사소통, 대량 의사소통으로 번역한 바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차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줄고(1995)와 줄고(1996)를 참고.

179. 기타 대인의사소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1996)를 참고.

180. 언어적 요인, 비언어적 요인, 의사소통 경영의 전략적 요인에 대해서는 줄고(1996)와 줄고(1996)를 참조.

1.2.2.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 화법의 현실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 생활 규범화의 문제 둘째, 방언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구조의 북한 화법의 양상 셋째, 북한 화법의 인위적 요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북한 화법 교육의 양상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실태와 원인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심리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의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북한 화법 교육에 대해 다루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 화법 가운데 목적 의식적인 인위적 요소가 대부분 학교 교육을 통해 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위적 요소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하고 중년 이상 세대에서는 드물다.¹⁸¹⁾ 남성우·정재영(1990:12)에 의하면 ‘특히 ’60년대 후반 일종의 어학 혁명으로 야기된 문화어 운동 이후부터 민족어의 이질화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해방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민족의 재통일과 민족의 장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학 혁명은 곧 사상 교육과 규범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어 교육이다.

둘째, 북한 화법 교육은 북한 화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북한 화법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3. 북한에서 발행된 책에 실린 내용을 본문에서 ‘ ’ 안에 넣어 인용하거나 인용문의 형태로 인용할 때는 인용 원문의 표기대로 인용하였다. 다른 표식 없이 본문의 한 부분으로 인용할 때는 남한의 맞춤법에 따랐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는 북한의 출판물에서 모두 고딕체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본문의 글자체와 같은 체로 고쳐 인용하였다.

1.2.4. 이 글에서 일차적인 자료로 이용한 출판물은 북한에서 출판된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론적인 저작물들인 「조선말규범집」, 「조선말례절법」, 「조선문화어문법」, 「조선말화술」, 「조선말대사전」 등과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 등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언어 생활에 관한 논문들, 남한의 북한 언어에 관한 각종 저작물들과 주체사상이나 북한의 교육에 관한 각종 저작물들이다.

다음으로 북한 화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다음과 같은 영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영상 자료에 대한 해설은 편의상 조총련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1) 북한 제작 영화

1) “금강산으로 가자”

- 1988년 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상영 시간: 80분
- 영화문학: 리희찬 ○연출: 박상복 ○주연: 조명선, 전정희
- 내용: 무병장수에 효과 있는 약초를 찾아 금강산에 오른 젊은 남녀 과학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웃음 속에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젊은 과학자가 가진 또

181. 이런 사실은 197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법 교육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룬다.

거운 조국애를 보여준다. 젊은 과학자는 마저막에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것을 사랑하라."

2) "생의 흔적"(전·후편)

- 1989년작 ○ 조선2.8영화예술촬영소 ○ 상영 시간: 130분(전편 70분, 후편 60분)
- 대본: 리춘구 ○ 연출: 조정순 ○ 주연: 오미란
- 내용: <<김일성상>>계관인들인 리춘구와 조정순, 인민배우 오미란이 펼쳐 주는 감동의 화폭, 이 영화는 남편이 희생된 충적을 이겨내고 20여 년 간 꾸준히 힘겨운 농사일을 해오다가 영웅관리위원장으로 된 어느 여성의 실제한 사실을 뜨겁게 형상한 대작이다.

(2) 텔레비전 드라마

"종달새<텔레비전소설>"

- 1990년작 ○ 조선중앙텔레비전 ○ 상영 시간: 100분(1부 55분, 2부 45분)
- 극본: 손광수 ○ 연출: 신정남 ○ 주연: 조은숙, 장정란
- 내용: 1990년에 조국에서 대인기를 끈 텔레비전연속소설을 비데오로 묶어낸 작품이다. 어느 한 농촌을 무대로하여 노래를 무척 사랑하는 두 처녀와 그 애인들이 보수적인 마을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전변시켜 나가는 과정을 재미나게 형상하고 있다. 사랑스럽게 그려진 주인공 두 처녀가 인상적이다.

(3) 조총련 제작 회화 교육 영상 자료

1) "조선어강좌"

- 총련영화제작소 ○ 상영 시간: 126분
- 내용: 이 비데오는 현재 청년학교와 각종 우리 말교실들에서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조선어강좌1>>의 내용을 비데오화한 것으로서 우리 말의 기초와 일상적인 회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 "우리 말 교실(회화편)"

- 총련영화제작소 ○ 상영 시간: 30분
- 내용: 우리 말의 초보적인 회화를 배우기 위한 교재용 비데오. 내용은 <공원에서> <문명> <동포집방문> <식탁에서> <학교방문> <아침> <자기전> <갈가에서> 등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인사말들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우선 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했다는 것과 둘째 이들이 갖는 의의 때문이다. 영화 '금강산으로 가자'와 '생의 흔적'은 북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 '종달새'는 북한 농촌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을 살피기 좋은 자료로, 이 작품도 북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시대적 배경이 현재라는 점이 자료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다. 회화 영상 자료는 북한 말의 표본을 고찰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 남한에서 방영된 '통일전망대'와 '남북의 창'에 등장하는 북한 자료와 귀순자들의 말을 자료로 살폈다.

이 글에서 인용된 말들은 이들 자료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일이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2. 주체사상과 언어 생활

2.1. 주체사상과 민족어

2.1.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1947년 어문연구회의 본부를 김일성대학에 두고서 이를 강화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영근편 1990:13-4). 그 이후 북한의 언어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이 문화어 운동을 주축으로 한 주체적인 언어 정책의 양상을 띠어 결과적으로 남한과 심각한 이질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주체사상이 확립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1964년과 1966년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¹⁸²⁾ 이 때 형성된 언어 정책의 골격이 주체사상 언어 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1960년대 중반은 김형찬(1990)의 분류에 의하면 주체사상 확립기에 속한다.¹⁸³⁾ 주체사상 확립기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사상에서 주체를 표방하였다.¹⁸⁴⁾ 스탈린 사망 이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김일성이 취한 반소 입장이¹⁸⁵⁾ 북한 내외적인 정치 경제적 배경 하에서 민족적 주체 입장으로 변함으로써 주체사상이 자리를 잡아 가게 된다.¹⁸⁶⁾

2.1.2. 주체사상은 크게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체사상 내에서는 주체사상이 민족주의와 전연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¹⁸⁷⁾ 주체사상이 국수적인 민족주

182. '이 교시들은 그 이전까지 전개되어 왔던 북한의 언어 정책과 스탈린의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여러 문제"에서 제시된 언어 도구관, 언어의 비계급성, 국제어 합류설 등 사회주의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언어학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완성한 것으로 생각된다.'(남성우·정재영 1990:253)

183. 김형찬(1990:129)에서는 주체사상의 변화 발전에 대하여 '현재 북한에서 군림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그 창시자가 1930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 한 번에 체계화된 사상도 아니다. 이 사상은 1955년에 출판된 「4월테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 하지는 사상으로 대두되었고 이런 사상은 공산주의교양이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0년대를 거치며 주체사상은 그 내용면에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및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고 1970년대에 와서는 자주성과 창조성이 인간의 사회적속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한 논리적 체계성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1970년대 말에 들어서 주체사상은 철학적인 탈을 쓰게 되었고 1982년에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는 것에 근거하여 주체사상을 마르크스주의의 도입기(1945-1955), 주체사상 창시기(1955-1960), 주체사상 확립기(1961-1972), 주체사상 이론 정립기(1972-1980)의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84. 주체사상 확립기에 관한 내용은 김형찬(1990)을 주로 참조

185. 이런 반소 입장은 1957년 11월 소련 10월혁명 40주년 기념 모스크바선언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등의 원칙, 민족적 자주성과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 상호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에 힘입어 민족적 주체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듯하다. 이런 모스크바 선언은 1960년 각국 공산당 및 노동자 대표회의에서 재차 확인되어 김일성이 자기 고유의 노선을 가는 데 힘이 된다. 여기에 중국의 문화혁명으로 김일성 격하 운동이 중국 홍위병들에 의해 전개되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마저 악화되고, 더욱이 1961년 이후 중소분쟁으로 외국 원조가 격감되자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자주 노선을 택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형찬(1990)을 참조

186. 이 가운데 사상에서의 주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1958년 이후 교육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다.

187. '김일성은 1966년의 연설에서 주체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 언어 및 전통을 사랑하는 것이 주체이지만 민족주의는 아니라는 김일성의 정의는 아직도 주체사상과 민족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한계를 노출

의를 이용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¹⁸⁸⁾ 따라서 주체사상에서 언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입니다. 피쫓이 같고 한 령토안에서 살아도 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75년 조선로동당 창당 30주년 기념으로 발간되었으며, 주체사상과 언어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아 주고 있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에서도 김일성의 ‘교시’를 바탕으로 언어와 민족의 관련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¹⁸⁹⁾

민족문제와 관련되는 언어란 민족의 공통성을 유지하며 민족의 번영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표식으로서의 언어이다. 언어의 공통성을 떠난 민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성도 보장할수 없다.

언어의 존재가치는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언어는 구체적으로는 민족의 언어로 존재한다.

특히 주체사상에서 민족적 특성으로서 언어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 생활 개조의 문제는 민족 자주 투쟁의 문제와 직결되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민족어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민족해방투쟁의 한 고리’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 p. 42)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2.2. 언어 생활 규범화

2.2.1. 주체사상에서 언어는 혁명 투쟁을 위한 목적적 도구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 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의 연구도 결국 언어의 실천에 관한, 언어 실천을 위한 연구이어야 한다고 본다.¹⁹⁰⁾

하고 있다 (김형찬 1990:87)

188. 박호성(1983)에 의하면 제3세계의 사회주의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운동이라는 마르크스의 기대와는 달리 ‘예외 없이’ 민족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189. 언어와 민족을 연결 짓는 데에는 언어 정책의 변화점이 된 1967년 김일성 교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서는 해방 직후 북한 의 김두봉에 의한 언어 개혁을 비판하고 있는데 언어 문제를 민족 문제와 연결 짓지 않았다는 것을 그 비판의 첫째 항목으로 삼고 있다(남상우·정재영 1990:254).

남영희(1985)의 ‘공산주의이념의 언어생활규범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는 ‘언어 생활’의 본질적 특성을 ‘사회적성격과 개성적성격을 가진다, 철저히계 계급적성격을 가진다, 민족적인 성격을 가지고있다, 시대적인 성격을 가지고있다’라는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민족적인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족에만 고유한 민족공동소유물인 민족어를 떠나서는 그 민족이 이루어질수도 존재할수도 없다. 따라서 언어생활을 떠나서는 민족생활도 있을수 없다.

언어생활에 외재적요소가 많이질수록 순결한 민족정신이 찬양을 당하게 되고 민족적단결력도 높일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주적인 민족생활을 누릴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0. 김성일은 교시에서 ‘모든 언어학자연구의 목적은 언어생활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에서는 지금까지 언어 이론이 언어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식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어이론은 언어현상을 사람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으며 너무기는 지주적이며 창조적인 립

이것은 언어 생활을 낡은 봉건 잔재 사상이나 사대주의적 태도를 뿌리뽑는 투쟁의 한 고리라는 목적 의식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¹⁹¹⁾

언어는 먼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크게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에 이바지한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론〕 p. 32)

언어 생활, 특히 화법이 일상 생활에서 막중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인 생활의 필요로서 화법이 부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인간 의식 개조 혹은 사상 교양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규칙적인 ‘총화’를 통해 당과 군중의 통제를 강화하고 자기 비판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당 정책에서 이탈한 것을 시인하여서 당의 통제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¹⁹²⁾ 북한에서는 생활총화, 자기비판, 토론회가 일상화되어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민학교 2학년에 입단하는 소년단 시절부터 「생활총화」라는 토론을 통해 반성과 비판을 한다.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생활총화에서 학생들은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장이나 마을별로 계속되는 이 토론회를 통해 북한 학생들은 청산유수같은 말솜씨를 배운다.¹⁹³⁾

이 글이 자료로 삼은 영상 자료에서도 불구가 된 ‘전쟁영웅’과 불구라는 이유 때문에 헤어진 여성을 집단 토론시 자아비판을 하게 하고, 새로 만든 기계나 영농 방법을 ‘토론’을 통해 발표, 토의하는 상황들이 등장한다. 북한에서 이처럼 말을 중시하는 것은 말이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창조’해서 ‘자연현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가공하고 정리해서 체계를 이룩하게 하고 정신현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형성하고 규제하면서 일정한 형태를 통해 의식화’(이규호 1985:90)하기 때문이다.

2.2.2. 통제의 구체적인 틀은 규범이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목적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틀인 언어 생활 규범은 북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¹⁹⁴⁾

장에서 언어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까지 보지 못하였다. 종래의 언어리론은 우리 시대 언어분야에 나선 모든 리론실적문제들에 해답을 줄수 없었으며 식민지나라의 언어문제를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언어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길을 다 밝혀지 못하였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론』 p. 11)

191. 따라서 언어의 발전을 위해 ‘민족적 계급적 해방’이 선결 문제로 된다.

“주권이 제국주의자들이나 그 앞잡이들에게 있고 민족적자주성이 보장되어있지 않는 조건에서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이 이룩될수 없다.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지 않고 <<계몽운동>>이나 <<모국어보급>>으로 민족어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론』)

192. 김일성은 이러한 당과 군중의 통제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개인 영웅주의와 이기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소부르쵸이사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김일성의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1965년 연설)

193. 유교신보 1996년 7월 1일자. 특집 기획 「세계로 가는 교육」 ② 忠誠을 강요하는 북한의 교육 “철저한 이상화교육 人性 教育은 뒷전” 제하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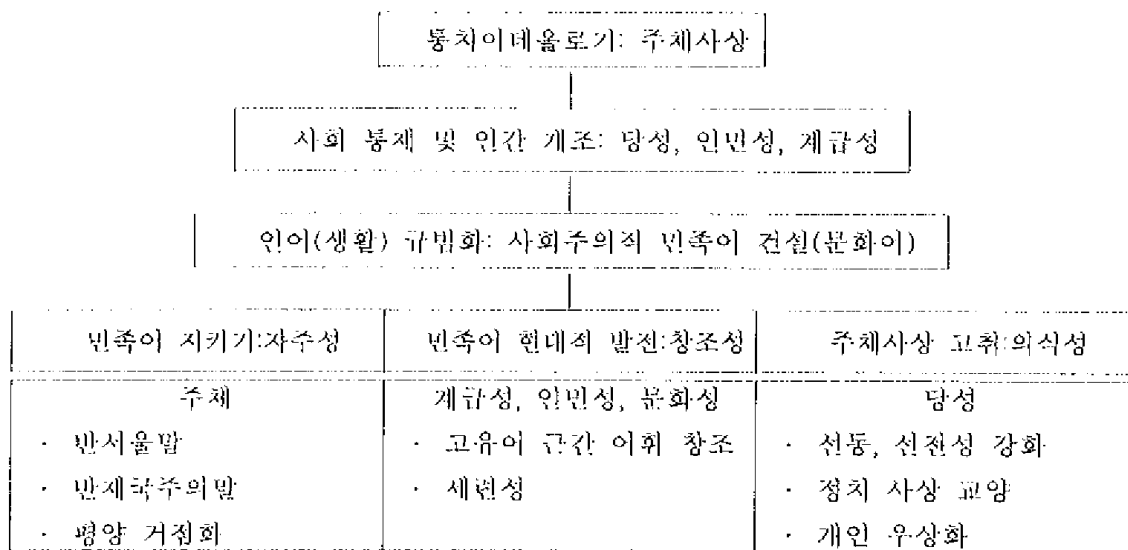
사회주의적민족이건설에서 언어규범화분제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언어규범화가 언어에 대한 인민대중의 목적 의식적 적용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하나로서 노동계급의 당의 언어정책 관철의 중요한 공간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강창조 1990:25)

그리고 북한¹⁹⁴의 언어 생활 규범은 남한의 언어 규범과는 달리 언어 생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며 모든 인민이 의무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한다.¹⁹⁵

말을 얼마씩 개화적으로 고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에 실린 김일성의 교시)

2.2.3.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¹⁹⁴의 언어 생활 규범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일성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사회 통제와 인간 개조를 목표로 한다. 사회 통제와 인간 개조의 기본 원칙은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성이다. 사회 통제와 인간 개조의 일환으로 언어 생활을 통제하게 되고 언어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문화어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성, 인간의 창조성, 인간의 의식성을 골자로 하고 언어 규범

194. 남영희(1985)에서는 언어 생활 규범화의 발원성을 '인어생활에서 나온 사회의 유희를 잘지하 없애기 위한 필연적 요구, 언어생활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기 위한 성숙된 요구, 언어생활의 완성을 위해서도 성숙된 요구, 언어생활을 비로잡기 위한 조선어교육에서도 필수적인 요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준칙을 세우는데서도 필수적인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195. 김일성의 교시에서도 이런 사회 통제와 인민이 보인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비방의 모든 사입과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할수 있는 권력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비방사(비방)의 틀이라도 있으면 국가와 사회의 진보는 파괴될수 있습니다."

화의 방향은 ‘주체성을 기본으로 하여 로동계급성, 인민성, 문화성을 관철하는 것이며, 당성은 언제나 모든 생활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언어 생활 통제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주성은 평양을 거점화하여 반 서울말, 반 제국주의(미국, 일본)말의 형태로 나타난다. 창조성은 형식적으로는 공산주의 도덕 함양이나 고유어를 근간으로 한 어휘 창조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성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와 ‘계급적원썹’에 대한 중요성 고취, 선전 선동성 중시, 정치 사상 교양 중시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어휘 정리, 문화어 규범 확정, 소리마루 법칙,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어 애절 창조 등의 구체적인 언어 정책으로 나타나게 된다.

3. 북한 화법의 양상

북한 화법은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한 자연적 요소와 주체사상에 의한 인위적 요소가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적 요소는 인위적 요소에 의해 상당 부분 사라져 가거나 특이한 양상으로 변모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북한 화법의 구체적인 양상을 발음, 언어적 표현, 소리마루, 감정의 형상화, 설득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3.1. 발음

3.1.1. 자음

3.1.1.1. 북한의 발음 가운데 남한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두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ㄹ’과 ‘ㄴ’이 발음되는 것이다. 1966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의 ‘표준발음법’ 제2장 단어 첫머리의 발음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¹⁹⁶⁾¹⁹⁷⁾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론문 락하산 리론
 리 로 린¹⁹⁸⁾

196. 이 글에서는 1966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과 1988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1966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에 일치적으로 근거한다. 이것은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 대해서는 1971년의 「<<조선말규범집>>해설」이 나와 있어 북한 화법의 양상을 살펴는 데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197. 198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개정한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문화어발음법’의 ‘제2장. 첫 소리 자음의 발음’에 어두 ‘ㄹ’과 ‘ㄴ’의 발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고 있다.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라자오, 러관, 론문, 루각, 리론, 레루, 용광로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례: 남녀, 남남, 녀사, 노소, 뉴튼, 니탄, 당뇨병

결국 1966년의 규범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단지 예만 몇 가지 달리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198. 화학 기호 인(隣: 분자 기호로는 P)을 가리킨다.

라지오 로케트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니탄, 뇨소, 니켈, 뉴톤

그런데 1971년에 발간된 「<<조선말규범집>>해설」에서는 이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는 새로운 발음현상이 발생하여 우리 말의 발음을 더욱 풍부화시키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발음현상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단어 첫머리의 발음법을 규정하고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두음법칙을 무시하는 현상은 새로이 등장한 현상이라는 말이다.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이 발음되게 된것은 우리 말 발음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의 하나이다.

그전에는 단어 첫머리의 <<ㄴ>>은 제대로 발음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실지 언이실전에서 단어 첫머리의 <<ㄴ>>을 그대로 발음하는 새로운 발음현상이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말 발음에서 일어난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이 제5항에서는 단어 첫머리에 오는 <<ㄴ>>은 뒤에 어떤 모음이 오든지 상관없이 모두 [ㄴ]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예: 로동, 라관주의, 라유, 료해, 류형...

이 조항도 제5항과 같은 성질의것이다. ...<중략>...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모음앞에서 [ㄴ]을 발음할수 있으며 실지로 발음되고 있다. ...<중략>...

<<ㄴ>>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서 우와 같은 모음앞에 놓이는 단어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예: 남남, 너자, 너사, 년도, 년월일, 녀(99), 녀두, 녀려, 녀원, 뉴대,...

이두 ‘ㄴ’과 ‘ㄴ’의 발음은 ‘우리 말의 발음을 더욱 풍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반들이 낸 발음법이라는 사실은 리상백(1975)의 「조선말화술」의 설명에서도 확인된다.

<<ㄴ,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 ㄴ]로 발음하는것이 원칙이나 역사적으로 한자말에서 온 첫소리 <<ㄴ>>은 입말에서 첫소리 <<ㄴ>>가 홀모음앞에서 <<ㄴ>>로 발음되며 집모음앞에서는 발음되지 않는것들을 볼수 있다.

집모음앞의 첫소리 <<ㄴ>>도 발음되지 않은것을 볼수 있다. 이렇게 지난날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나 <<ㄴ>>를 발음하지 않는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왔던것이다.

「조선말규범집」이나 「<<조선말규범집>>해설」에는 그 규범적 성격 때문에 이른바 ‘허용발음’이 없지만 「조선말화술」에 보면 이러한 이두 ‘ㄴ’과 ‘ㄴ’에 대해 몇 가지 ‘허용발음’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허용발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99. ‘남’이란 발음 북한에서 두 가지로 쓰인다. 한 가지는 ‘갈남하다, 막음남하다, 발남하다’의 경우처럼 쓰이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지는 ‘중요의 남, 감사의 남’과 같이 쓰이는 경우다. 특히 첫번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선말대사전」에 풀이되어 있다.
남(남) (불완전) (<<ㄴ남하다>>의 형으로 쓰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

홀모음앞이라 하더라도 생활에서 이미 굳어진 단어들은 <<ㄹ>>를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례: 래일 - [내일], 람용 - [남용], 랭장고 - [냉장꼬]²⁰⁰, 로인 - [노인], 람색 - [남색], 퇴성벽력 - [퇴성벽력]

<<ㄹ>>가 홀모음앞에 오더라도 다음 소리마디가 <<ㄹ>>로 이어질 때 첫소리 <<ㄹ>>를 <<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례: 료력동원 - [노력동원], 로련하다 - [노련하다], 랑랑하다 - [낭낭하다], 래력 - [내력], 랭랭하다 - [냉냉하다], 림림하다 - [늑늑하다], 롱락하다 - [농낙하다]

이러한 관습으로 하여 <<ㄱ, ㅋ, ㆁ, ㆏, ㆑>> 등 겹모음앞의 <<ㄹ>>은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는바 이것을 허용발음으로 한다.

례: 량강도-[양강도], 력력하다-[영역하다], 룡백-[육백], 례절-[예절], 료리-[요리], 락력-[양력], 런락-[열낙], 름성-[융성], 령감-[영감]

우와 같은 어음조건임에도 불구하고 <<ㄹ>>과 <<ㄴ>>이 올 때는 <<ㄹ>>이 발음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바 이것을 허용발음으로 한다.

례: 대렬-[대열], 치렬-[치열], 라렬-[라열], 규률-[규율], 비률-[비율]

단어 첫소리 <<ㄴ>>는 모든 모음과 어울릴 수 있으나 겹모음앞에서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허용한다.

례: 녀성-[여성], 념변-[영변]

이렇게 보면 1966년의 규정은 어두에서 ‘ㄹ’과 ‘ㄴ’을 발음하도록 했지만 이 규정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나 1970년대까지 많은 경우에 어두 ‘ㄹ’과 ‘ㄴ’이 발음되지 않았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언어 규범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규범적인 발음과는 상이한 ‘허용 발음’을 규정하여 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어두의 ‘ㄹ’과 ‘ㄴ’ 발음은 상당 부분 남한과 동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두 ‘ㄹ’과 ‘ㄴ’을 거의 규정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의 조사 자료가 되었던 영상 자료의 경우 대부분 ‘ㄹ’과 ‘ㄴ’이 어두에서 발음되고 있다. 이들 자료에 ‘왜 그럴때까’와 같은 비규범적인 말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이 규범적인 의도에서 현실 발음을 무시한 것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어두 ‘ㄹ’, ‘ㄴ’이 남한과 달리 그대로 발음되는 쪽으로 변화를 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 실려 있는 ‘바른 발음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발음규범을 바로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음상 주의하여야 할 경우에 그 바른 발음을 [] 안에 넣어서 표시’하여 놓고 있다. 그렇다고 바른 발음이 현실을 전연 무시한 발음은 아니다. 이것은 ‘대렬, 치렬, 라렬, 규률, 비률’ 등의 발음이 각각 ‘[-열]’과 ‘[-율]’로 실린 것과 ‘람색’의 경우

200. ‘랭장고’는 「조선말대사전」에 ‘랭장창고’의 준말로 표기되어 있다. ‘창고’의 발음을 [창꼬]로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랭장고’의 ‘고’는 [꼬]로 발음된다.

‘람색’이란 말을 잘못된 말로 규정하고 ‘남색’을 올바른 말로 규정하여 놓은 것²⁰¹⁾을 모아 알 수 있다.

위에서 든 예들 가운데 ‘허용 발음’이 「조선말대사전」의 ‘바른 발음’과 다른 것들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규범집」(1966) 예	「화술」(1975) 허용 발음	「대사전」(1992)바른 발음	비고
같이진 것	레일	내일	레일	
	람용	남용	람용	
	랭장꼬	냉장꼬	랭장꼬	
	로인	노인	로인	
	람색	남색	남색	람색→남색
	외성벽력	녀성벽력	외성벽력	
고 고	로력동원	노력동원	로력동원	
	로련하다	노련하다	로련하다	
	랑랑하다	낭낭하다	랑랑하다	
	래력	내력	래력	
	랭랭하다	냉냉하다	랭랭하다	
	름름하다	눔눔하다	름름하다	
	롱락하다	농낙하다	롱락하다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ㆅ, ㆁ, ㆅ	랑강도	양강도	<실리지않음>	
	력력하다	영역하다	령력카다	
	륙백	육백	륙백	
	레질	예질	레질	
	료리	요리	료리	
	략력	양력	략력	
	련락	열낙	련락	
	름성	음성	름성	
	령감	영감	령감	
	녀성	여성	녀성	
녕변	영변	녕변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서는 1975년의 허용 발음이 대부분 1966년의 규

201.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람색’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람색 -> 남색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는 ‘->’ 기호를 ‘비규범적인것을 규범적인것에 보내주는 경우에’라고 풀이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이밖에 ‘ㄹ’과 ‘ㄴ’으로 구성되는 한자말의 경우 한자의 원발음에 충실하게 표기하고 없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것은 ‘람색’의 발음이 완전히 ‘남색’으로 굳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 발음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실은 위에 나타난 예들 외에도 ‘롤법, 룰동, 락락스럽다, 런런하다, 런루, 런립’ 등과 같은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듯하다.

허용 발음이 없어진 것은 이음절에 나타나는 ‘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 예들은 「조선말화술」에서 이음절 ‘ㄹ’이 ‘ㄴ’으로 허용되었던 것이 「조선말대사전」에 그대로 ‘ㄹ’로 규정된 것들이다.

「규범집」(1966) 예	「화술」(1975) 허용발음	「대사전」(1992)바른발음	비고
랑랑하다	낭낭하다	랑랑하다	
랭랭하다	냉냉하다	랭랭하다	
름름하다	눔눔하다	름름하다	
룽락하다	농낙하다	룽락하다	
럭력하다	영역하다	렁력카다	
략력	양녁	랑력	
런락	열낙	렐락	

이음절의 ‘ㄹ’이 그대로 ‘ㄹ’로 발음되는 것은 ‘략략스럽다, 런런하다, 런루, 런립’과 같은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3.1.1.2. 북한 발음에는 된소리가 많다. 남한은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말에 대하여 표준 발음에서 된소리가 아닌 글자 그대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전, 조건, 초점’ 등과 같이 비이음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된소리 발음을 바른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예들은 리상벽(1975)에서 고른 것들이다.

두부국[두부꺾], 밤거리[밤꺼리], 국수[국쑤], 저고리감[저고리꺾], 연필감[연필꺾], 안건[안꺾], 지도원격[지도원꺾], 간부급[간부꺾], 승차권[승차꺾], 시계방[시계꺾], 당성[당꺾], 감사장[감사꺾], 모범적[모범꺾], 문제점[문제꺾], 공민증[공민꺾], 나무짐[나무꺾]

북한에서 된소리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된소리가 ‘감정정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말을 힘 있고 박력 있는 생기발랄한 말로 들리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감정 형상화를 통한 선전 선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의 언어실천에서는 순한소리를 된소리로 내어 감정정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중략>…

우리 말의 된소리법칙의 적중한 쓰임은 언어실천에서 말을 힘있고 박력있는 생기발랄한 말로 들리게 하며 따라서 강조하는데서도 이 법칙을 잘 살려 말소리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리상벽 1975:54)

된소리가 지나치게 많도록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든 예(리상벽1975:54)와 ‘사투리의

영향에서 오는 그릇된 발음' 가운데 한 가지로 '순환소리를 된소리, 거센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은 그릇된 발음이다'고 한 뒤 된소리와 관련하여 는 예들(같은책:71)의 변모는 북한의 된소리화가 상당히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들을 지나치게 략용하여 문화어발음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다>>를 <<싸다>>, <<질기다>>를 <<쩨기다>>로 발음하는것은 문화어발음이 아니다...<중략>...

그렇다고 하여 근거없이 <<참고서>>를 <<참꼬서>>로, <<조건>>을 <<쪄진>>으로 발음하여 문화어발음규범에 혼란을 주거나 인어의 문화성을 낮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음	그림
래: 교과서-[교과서]	(교과서)
뒤지다-[뒤지다]	(뛰지다)
꽤지-[꽤지]	(꽤지)
잘잔다-[잘잔다]	(잘잔다)
잘산다-[잘산다]	(잘싼다)
세다-[세다]	(쌌다)
수진-[수진]	(쑤진)
사온다-[사온다]	(싸온다)
올바른-[올바른] ²⁰²⁾	(올빠른)
주인다운-[주인다운]	(주인따운)
참다운-[참다운]	(참따운)

이 예들 가운데는 남한의 경우 전혀 된소리로 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것은 결국 남한에서는 전혀 된소리가 될 수 없는 말들까지도 북한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남한의 경우 일부러 틀리게 말하지 않는 이상 된소리가 될 수 없는 예들이다.

사다[싸다], 참고서[참꼬서], 조건[쪄진]
 뒤지다[뛰지다], 잘잔다[잘잔다], 잘산다[잘싼다], 수진[쑤진], 사온다[싸온다], 올바른[올빠른], 주인다운[주인따운]

다음의 예(『조선말규범집』 제11장 43항)들도 남한에서는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곳까지도 북한의 된소리화 현상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발음의 표본이 되는 『조선어회화』의 발음 가운데 '수고하십니다'는 거의 '쑤고하썩니다'로, '소식'은 '쑤식'으로 들린다.

앞질[앞질] 몸단장[몸단장] 봄소식[봄쑤식] 랭기[랭끼] 랭장고[랭장꼬]

이런 된소리화 현상은 일음절에 발의 세기가 오는 일반적인 북한의 소리마루 현상과

202. 『올바른』은 『올빠른』의 오타로 보인다.

관련지어 볼 때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음절에 반드시 말의 세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센 소리는 된소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경우는 남한에서 많은 경우 ‘교과서’로 발음되는데도 북한에서 ‘교과서’로 발음된다. 「조선말대사전」을 살펴 보면 ‘교과, 교과과정, 교과목, 교과서, 교과서종이’ 등의 이음절 ‘과’가 된소리 ‘ㅍ’가 아닌 예사소리 ‘과’로 발음 규정되어 있고, 1988년 발행 「조선말규범집」에도 ‘교과서’는 순한소리의 ㄹ에 실려 있다.²⁰³⁾ ‘교과서’ 대하여 「<<조선말규범집>>해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와 어울려 만들어진 말에서는 제대로 순한소리로 나는 경우가 많다.

<<과학, 과목, 과업...>>과 같이 단어의 첫소리에 올 때는 말할것도 없고 <<교과서, 일과표>>와 같이 단어 가운데 오거나 <<제1과, 제3과>>와 같이 교과서의 차례를 나타낼 때 단위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도 순한소리가 제대로 난다.

이러한 발음현상과는 달리 규정조항에서 든 ㄹ을 비롯하여 <<조선어과>>, <<역사과>>, <<안과>>, <<신경과>>...와 같은 경우에는 [과]로 되지 않고 [ㅍ]로 발음되며 나아가서는 부서의 이름들인 <<일과, 이과, 삼과, 사과...>>도 [일과, 이과, 삼과, 사과...]로 발음된다.

‘교과서’는 북한의 된소리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대목이다. 이것은 남한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북한에서 그대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된소리 발음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발음은 ‘원쑤’와 ‘원수’의 발음이다. ‘미제, 일제, 남조선괴뢰’를 지칭하는 ‘원쑤’나 김일성을 지칭하는 ‘원수’의 발음은 모두 ‘원수’이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표현이 잘못될 수 있는 우려와 전자의 경우에 대한 적개심의 고취가 이유인 듯하다.²⁰⁴⁾

3.1.1.3. 평안 방언의 자음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음에서 /ㅈ·ㅊ/의 주변이음이 [tʃ·tʃʰ]가 아닌 [ts·tsʰ]인 동시에 /ㄷ·ㅌ·ㅍ·ㄴ/의 조음점도 齒齶보다는 앞인 齒裏 내지는 齒間인 점 등으로 해서 ㄷ구개음화 현상이 수용되지 않은 것’(김영배 1992:339)이란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조사 자료의 경우 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현상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²⁰⁵⁾

3.1.2. 모음

3.1.2.1. 모음 / ㅛ/는 [ㅟ]로 발음된다.

203. 「조선말규범집」의 ‘제11장. 한자어에서의 된소리 발음’의 ‘제4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를 내어 발음한다.’라는 규정의 첫번째로 ‘~과(科, 課)’의 항에서 ‘내과, 외과, 경리과’의 경우는 모두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204.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최근의 경우 신문에서 김일성에 대한 지칭인 ‘원수’가 ‘원쑤’로 잘못 표기된 현상이 권력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북한 사회의 증거로 제시된 적이 있다.

205. 구개음화와 관련한 특색으로는 자음보다는 모음의 경우가 더 눈에 띄는 것 같다. ‘아디, 그러십니까’ 등이 ‘오메, 그러십니까’로 발음되는 것은 이것이 ‘어디, 그러십니까’의 발음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물론 ‘ㄷ, ㄴ’의 조음점이 치경이 아니라 치간인 이유이겠지만 현실적인 실현으로는 자음보다는 모음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현상은 ‘ㄷ, ㄴ’ 이외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음 항을 참조.

어디 [어데]
 왜 그렇니까 [왜 그럽네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네까]
 누이 [누에]

이것은 자음 ‘ㄷ, ㄴ’ 등의 조음 위치가 남한과 같이 치경이 아니라 치간이라는 방언적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누이’가 ‘누에’로 발음되는 것에서 보듯이 ‘ㄷ, ㄴ’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자음의 경우로도 확산되어 가는 것 같다.

/ ɲ /는 [ɲ]로도 발음된다.

인니 [안네]
 할아버지 [할아비디]

이런 현상은 / ɲ /가 [ɲ]를 거쳐 [ɲ]로 발음되는 것이란 의심스러운 가정을 해 보게 한다.²⁰⁶⁾

어디 -> 어디 -> 어데
 그렇니까 -> 그럽니까 -> 그럽네까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네까

‘누이’의 경우만 제외하면 모든 현상이 ‘ㄷ, ㄴ’과 관련하여서만 나타나고, 1988년의 「조선말규범집」에는 ‘제2항. <<ɲ>>는 짐모음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²⁰⁷⁾ 어두의 /-ɲ/는 그대로 [ɲ]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어서 북한에서 /-ɲ/가 이중모음으로서의 발음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1.2.2. / ɲ /는 [ɲ]에 가깝게 발음된다.

어머니[오머니]	걱정[꼭정]
여보[요보]	민지[민지]
넘있어요[눔았어요]	여기[요기]
여럿이[요럿이]	네[도]
먹어라[모거라]	너의[노에]

리상비(1975)의 「조선말화술」에서 잘못된 발음을 언급하면서 / ɲ /에 대하여 ‘입술을 옆으로 벌리거나 오무리면 <<어머니>>가 <<오르니>> <<오모니>>로 되므로 입술을 아래우로 자연스럽게 벌려야 한다’라고 한 집이나, 위의 예들이 광범위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런 현상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인다.²⁰⁸⁾

206. 김영배(1992)에서는 평안 방언에 ‘표준어의 이중모음인 ㄴ이 없고 [ɲ], 또는 [ɲ]로, 원형적의 ㄴ-와는 [ɲ]로 대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표준어 ㄴ에 관한 발음이지 다른 모음이 ㄴ으로 발음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다.

207. ‘붙임’에서는 된소리자음과 결합될 때와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있을 때 ㄴ이 ‘ ɲ ’로 발음되는 것을 허용하고, 속격토로 쓰인 경우 일부 ‘ ɲ ’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 소설집 「의리」에서 ‘어머나’를 ‘어마나’로 표기한 부분이나 위의 <<오모니>>의 표기가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현상은 어두만이 아니라 어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⁹⁾

/ ㅁ/가 [ㄴ]로 발음되는 현상은 둥그런 입술을 연상시키는 복한 말의 전형으로 인식된다.

3.1.2.3. / ㅁ/는 [ㅁ]나 [ㅁ]로 발음되고, / ㅁ/는 [ㅁ]로 발음된다.

명령[명녕]
 유복녀[유봉네]
 녀석[녀석]
 놀러오너라[놀러오너라]

리상벽(1975: 69-70)에서는 ‘<< ㅁ >>를 << ㅁ >>로 발음하는 것은 그릇된 현상’이며 ‘ㅁ, ㅁ, ㅁ, ㅁ가 홀모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그릇된 현상’으로 사투리의 영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¹⁰⁾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방언의 잔영이라는 사실을 김영배(1992)의 예들을²¹¹⁾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1992)에서는 평안 방언의 경우 ‘음소 연결에서 상승적 이중모음은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고는 자유로우나, 자음이 선행되면 상당한 제약이 있어 소수의 예만 있고, 語中에서도 /ㄴ·ㄹ·ㅅ·ㅈ·ㅊ/ 다음에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3.1.2.4. 북한에서는 입말과 글말을 어휘, 발음 등에서 상당히 구분하여 사용한다. ‘소리빠지기’ 현상과 ‘입말 허용 발음’은 발음의 예이다.

소리빠지기는 모음이 이어질 때도 일어난다. 그것은 입말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서 두 개의 모음가운데서 뒤의 모음이 줄고 그대신 앞의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말에서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자재를 내여준다
 [자재를 내-준다]
 벼를 베여드린다
 [벼를 베-드린다] (리상벽 1975: 61)

위의 예들은 단일 단어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ㅁ+ ㅁ’나 ‘ㅁ+ ㅁ’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ㅁ’는 모두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결합 어미들이다. 그런데 이 글의 조사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리빠지기’가 다른 경우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208. ‘어머나’는 그대로 [어머나]로 발음되고 남한에서 흔히 쓰이는 [오마나]라는 ‘복한’ 발음은 없었다.

209. 한진권(1990)의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에서는 ‘어마나’에 대하여, ‘<<어마나>>는 <<어머나>>로부터 변하여온것인데 <<어>>는 그냥 보류되고 <<머>>는 <<마>>로, <<나>>는 <<나>>로 변화되었다. <<머>>가 <<마>>로, <<나>>가 <<나>>로 변하게 된것은 감탄할 때 높은모음이 낮은모음보다 더 세기때문이다.(p. 239)라고 풀이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똑같은 말이 ‘어머나’인 점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ㅁ’가 [ㅁ]로 되는 것은 ‘ㅁ’의 발음이 [ㅁ]에 가깝기 때문이다.

210. ‘ㅁ’가 ‘ㅁ’로 발음되는 예로 ‘녀성->녀성’을 들고 있다.

211. 선녀[선네], 축령[축랑], 수료[수로], 가섯대[가셋대], 가면서[가면서], 녹여서[녹게서], 양편[양편], 잣대[잣대], 벼[베], 벼벼서[벼벼서], 천년[천년], 면장[면장]

수 있다.

왜 때리나[왜 때-나]

북한에는 입말 허용 발음이 있다. 이 가운데서 ‘통속적입말에서 쓰이는 허용발음’은 남한과 상당한 발음 차이를 보인다.²¹²⁾

토<<-고, -도, -로>>를 그대로 발음하는것이 원칙이다. 통속적입말을 할 때 특히 대화할 때에 <<-구>>, <<-두>>, <<-부>>라고 발음하는것을 허용한다.

예: <<가구>>, <<가두>>, <<가기부>> (리상벽 1975: 65)

3.1.3. 숫자

리상벽(1975:65)은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북한의 발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자를 읽을 때는 될수 있는대로 고유조선말로 읽으며 굳이전것만 한자말로 표현한다. 수자는 세가지로 발음한다.

1	2	3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	이	삼	사	오	륙	칠	팔	구	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아라비아숫자를 언제나 표기대로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년, 월, 일 발음은 고유말로 표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한자말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수사와 단위를 발음할 때에도 될수 있는대로 고유조선말로 읽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년 - [다섯해], [오년]²¹³⁾

3개월 - [석달], [삼개월]

10말 - [열말] (십말)²¹⁴⁾

50그루 - [원그루] (오십그루)

225g - [이백스물다섯그램] (이백이십오그램) (리상벽1975)

212. 이것은 언어의 인민성과 관련된 것으로 언어의 인민성을 곧 인민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로 대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속적이고 미분법적일지라도 쉽고 많이 쓰이는 발음 그대로 입말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두, 땅탕, 재껴’과 같은 어휘들이 김일성의 교시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쓰인다.

이런 입말과 남말의 차이는 문체적인 부분까지 확산되어 있다.

“남말에서는 <<박물과 같은 갑갑한 밤>>, <<안개와 같이 모양다>>, <<수줍김이 많은 눈동자>>, <<강철과 같이 굳센 의지>>, <<숨빌과 같이 보드라운 살결>> 등으로 비유법을 써서 형용을 강조하나 입말에서는 의양으로 빗갈을 내어 강조하므로 구태의 비유하러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갑갑한 밤>>, <<모양다>>, <<빡은 눈동자>>, <<굳센 의지>>, <<보드라운 살결>>

로 길게 힘을 주어 그 정도를 나타낸다.”(리상벽1975:205)

213. [다섯해]가 원칙이 되는 발음이고 [오년]은 허용 발음이다.

214. () 속의 발음은 틀린 발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숫자를 한자말로 읽는 것은 사대주의 경향이다.

지금 우리 사람들속에는 말을 하는데서도 사대주의경향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좋은 우리 말이 있는데도 한자말을 섞어쓰고있으며 그래야 유식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부를 때도 <열다섯살>이라고 하면 듣기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오세>라고 합니다.

숫자의 한자말로 읽지 않는 것은 잘못 알아듣기 쉬운 숫자의 구분에도 적용된다.

수자의 발음은 천천히 불러주고 철저한 복창과 확인을 하는것이 좋다.

섞갈리기 쉬운 <<1>>과 <<2>>(<<일>>과 <<이>>), <<3>>과 <<4>>(<<삼>>과 <<사>>), <<1>>과 <<7>>(<<일>>과 <<칠>>)은 고유한 우리 말로 <<하나>>와 <<둘>>, <<셋>>과 <<넷>>, <<하나>>와 <<일곱>> 식으로 말하는것이 좋다.

또한 다음과 같은 수자도 고유한 우리 말로 발음할수 있는것 발음하는것이 알기 쉽고 섞갈리지 않는다.

예: 121% -<<백이십일프로>>는 <<백스물한프로>>로,

347사람-<<삼백사십칠사람>>은 <<삼백마흔일곱사람>>으로... (리상벽1975)

3.2. 언어적 표현

3.2.1. 어휘, 어미

3.2.1.1.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에서는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원칙’을 ‘낡은 사상 잔재를 버리는 언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일’, ‘근로대중이 즐겨쓰는 말, 주체성있게 발전한 언어요소를 쓰는것’,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언어의 표현방식을 세련시키는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휘 정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조선말배결법」에서는 언어 사용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분야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이 그것을 쓰는데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며 그것을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것이다. 이것은 언어안에 있는 외래적인 요소와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버리고 자기의 고유한 말을 살려쓰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며 특히 민족어에 고유한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려 그것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실천에 맞게 더욱 세련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을 말한다.(김동수 1980:10)

이런 입장에서 서울말은 못쓸 말이 되어 있다고 보아 어휘 정리가 반서울말의 성격을 띠다 보니 남북한 어휘 차이의 심화는 가속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쓰고있는 발에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신문같은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쓰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사람들도 쓰지 않는것까지 망탕 쓰고있습니다.

서울말은 잘먹고 잘사는 놈들의 부르조아적취미를 반영한 말이다...<중략>... 미국식영어와 일본말, 한자말이 마구 뒤섞여 잡탕말이 된 서울말은 썩어빠진 부르조아 생활풍조가 풍기고 고루한 색채가 짙은 퇴폐적인 말이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 pp. 81-82)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에서는 '사회주의적인어규범화의 원칙'으로 '주체, 계급적립장, 인민성, 문화성'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인민성'이란 모든 말과 글은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민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인민 대중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영희(1985)에서는 언어의 인민적인 특징에 대해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까다로운 말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인민어의 특징을 '알기 쉬우면서도 뜻이 깊은것, 생활적이면서도 문화적인것, 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 솔직하고 명쾌한것'이라고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어에는 통속적인 어휘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북한에서 입말 어휘로 '똥땅, 망탕, 제끼' 등이나 '정신이 뽕뽕 들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인민성'에 바탕을 둔 것들이다.

「조선말대사전」은 '고유어'를 '본래 우리 말 어휘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만들어 써내려오는 어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고유어란 어원적으로 고유한 말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굳어져 익숙한 말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자말이더라도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 버린 말들은 고유어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리론」에 인용된 김일성의 교시다.

한자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인식되고 우리 말로 완전히 굳어버린것은 그냥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방> 같은것은 한자말이라고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며... 따라서 그런 말들은 고쳐지 않아도 됩니다.<땀줄은 땀자>

3.2.1.2. 남북한 어휘 사용의 차이는 이미 여러 곳을 통해 지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 쓰임이 아주 다른 문장 단위의 관용적 표현, 몇 가지의 의미, '계급적원썹'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일상적인 문장 단위의 관용적 표현도 남북한에 차이를 보인다.

일없다 - 괜찮다
안됐다 - 미안하다

이 글의 조사 자료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야 할 상황은 모두 '일없다'로, '미안하다'라고 할 상황은 모두 '안됐다'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사용에서도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방언적 요소이다.

(1) 아테 가나? 아프나? 아저씨는 누구나? 정말이나? 놀러가도 되나?

- (2) 조용하랴요, 농으랴요, 왜 때나요
- (3) 찾아보기요, 꾸리기요, 가기요
- (4) 찾자요, 공개하자요, 떠나자요, 방조를 받자요
- (5) 먹읍세
- (6) 가겠수다
- (7) 어디 도망간?

(1)은 일민학교 어린이가 사용하는 반말체의 말투로 형, 어머니, 남모르는 아저씨 등에 두루 쓰이는 표현이다.²¹⁵⁾ (2), (3)은 명령형으로 남한의 ‘하오’체에 해당하는 등급의 명령문이다. (4), (5)는 청유형인데 특히 (4)는 격식을 갖춘 자리가 아닌 경우 윗 사람은 물론 대중을 향해서도 쓸 수 있는 두루 쓰이는 말투다. 비격식 상황의 ‘-비시다’ 정도에 해당된다.²¹⁶⁾ (6)은 의도형이다. (7)은 ‘어디로 도망 갔나?’의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

다음에 보이는 선어말어미 ‘겠’도 남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 (1) 만나겠으면
- (2)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게 문제요, 도와줄수 있겠는지
- (3) 주겠지

(1)은 50대의 여자가 20대의 남자에게 ‘만나려면’의 의미로 쓰인 말이다. (2)는 ‘있을지 없을지’와 ‘도와줄 수 있을지’의 의미로 쓰인 경우다. (3)은 ‘주었거든!’의 의미로 쓰인 표현이다.

북한에서는 명령문에서 ‘-소’와 같은 ‘하오’체의 어미가 아주 많이 쓰인다.

- (1) 먹소, 앉소, 농소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라’체나 ‘해’체가 남한에 비해 적게 쓰인다. 이것은 ‘동지들사이에서는 직위여하를 가리지 말고 서로 높이는 말로 주고받아야 한다’(리상벽1975: 296)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여자의 말투에 쓰이는 어미는 남한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녀성의 말은 남자와 다른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있다. 이마부터 잘 아는 사이거나 처음 만나는 대상이거나 할것없이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습니다>>, <<-습니까?>>, <<-십시오>> 대신 <<-예요>>, <<-어요>>, <<-세요>>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본래 <<-예요>>, <<-어요>>, <<-세요>>의 말투는 친밀감, 상냥감, 반가움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어감을 나타내야만 녀성적인 표현으로 된다.(리상벽1975: 296)

215. 김동수(1983:188)에 보면 예문으로 ‘운전수동무! 올해 짐을 얼마나 실어나를 계획이나?’가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의 ‘-나’는 ‘계획인가?’의 ‘하체’ 정도로 보인다.

216. 남한에서는 ‘하랴요, 가기요, 찾자요’와 같은 ‘-라, -기, -자’ 뒤에 ‘-요’가 붙을 수 없다. 특수조사 ‘-요’의 연구에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해 주는 형태이다.

3.2.1.3.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게 극단적인 존경과 숭배의 표현을, ‘계급직원쭈’에게는 극단적인 증오의 표현을 사용한다. 특히 김일성에게는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 하옵니다’와 같이 조선시대의 왕을 연상할 만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친다. 또 김일성 부자에 관한 표현은 고유어, 인민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일성 부자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는 남성우·정제영(1990)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계급직원쭈’에 대한 표현들을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급직원쭈’들은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자, 미국제국주의자, 남조선괴뢰도당, 지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 그들에 대한 행동, 그들이 한 말, 그들에 대해 한 말에서도 자극적인 표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본문에서부터 등장한다.

다음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가운데 일부이다.²¹⁷⁾

가. 계급직원쭈들이 한 행동

교장은²¹⁸⁾ 이렇게 지랄이며,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 사과나무에 뽕뽕 묶어 놓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고 글자를 새겼습니다. 청강수방울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뿌적뿌적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간사한 웃음, 머리채를 거머쥐고 뽕뽕 땅바닥에 짓쫓기까지 합니다. 절박하게 피를 내 쏟고 쓰러진 아이들의 시체를 밟아거리며, 대가리 쌍통을 싸쥐고 몸뚱이를 바틀었습니다, 괴뢰군놈이 사퍼런 칼로 할머니의 목을 내라쳤습니다, 땅크들은 사람들을 깔아놓히고 짓이겨놓았습니다, 시퍼런 총창으로 누나의 앞가슴을 쿡쿡 찧러 후비대고 내동댕이쳤습니다

나. 계급직원쭈들에 대한 행동

지주 아들놈을 때려눕히고 힘껏 밟아주었습니다, 그놈의 대가리를 쳤습니다, 지주놈을 후려쳐 그 자리에 끼꾸러뜨렸습니다, 처죽이고 말았습니다, 세번째에는 눈알이 빠지고 네번째에는 귀가 달아났습니다, 발로 막 짓밟개버리시었습니다. 곤봉으로 그놈의 뒤통수를 힘껏 후려치시었습니다, 일제놈들을 을 풀짜가에 붙여놓고 죽치실전술, 마치고 낮, 총을 잡은/ 믿음직한 로농직위대/ 원쭈 마제 죽친다, 싸창으로 앞의놈을 썩갈기시었습니다. 그놈은 대가리를 땅에 푹 박으며 너부러졌습니다, 지주놈을 당장 처죽여라, 미제원쭈놈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날창을 박고 또 박았습니다, 그놈의 낮쪽에 힘껏 뿌렸다, 봉땅 녹아난 일제놈들, 장교놈의 몸뚱이가 허공을 날았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 제 배를 채우는 악독한 원쭈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쫓아버리고야 말, 럽치없는놈아 돼져라, 짓어냈습니다.

‘계급직원쭈’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표현은 규범적이다.

217. 고등중학교에 들어서면 인민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표시되던 내용들이 설명적 서술로 많이 바뀌고, 이런 표현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218. 교장이 ‘계급직원쭈’가 아닌 경우에만 ‘교장선생님께서’라고 쓰고 있다.

아래와 같은 저속한 말을 쓰거나 무추한것에 비유하는 말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 배때기, 모가지, 눈깔, 아가리, 턱수가리, 대갈통, 손목치, 다리갱이, 메스깎다...(리상벽1975: 249)

3.2.2. 호칭·지칭

어떤 집단의 호칭·지칭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언어는 세계를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규정하고 창조한다는 측면이다. 호칭·지칭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 좀더 확대하면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일반적인 관계망의 양상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관계 양상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의해 삶의 양상이 창조된다. 특히 북한처럼 목적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언어를 통제하는 집단에서는 호칭·지칭의 규범화가 곧 삶의 규범화로 이어진다.

둘째, 호칭·지칭이 일상 언어 생활, 특히 구어에서 차지하는 양적인 크기의 측면이다. 줄고(1996)에서 텔레비전 드라마인 「일일영상소설 일출」의 대사 어휘를 계량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만여 개의 전체 대화 어휘 가운데 호칭·지칭이 12% 이상을 차지하였다.²¹⁹⁾ 이것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호칭·지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북한 입말 생활의 동질성 회복에 호칭·지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의 호칭·지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호칭·지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집단적 성격을 띤다.

셋째, 김일성 부자와 '계급적원썹'에 관한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방언 표현이 규범화되었다.

3.2.2.1.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호칭·지칭들을 '숙모, 숙부, 백부, 질녀, 춘부장'과 같은 한문투의 호칭·지칭, '서방님, 아가씨, 도련님'과 같은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계층의 계급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판단한 호칭·지칭, '작은덕, 첩'과 같은 낡은 문화와 관련된 호칭·지칭을 가리킨다.²²⁰⁾

219. 조사의 대상이 된 어휘의 수는 총 105,252개였다. 이 가운데 기본도 순위 1000위에 들어 있는 어휘 중 호칭이나 지칭과 관련된 어휘들을 양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명사류	가족관계류	인명	기타	계
운용어휘수	5,000	3,908	1,795	187	10,890

이들 어휘가 10,890개이고 기본도 1000위까지의 운용 어휘 수가 90,615개이니 이들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02%나 된다. '미쓰 김, 오 선생, 김씨...' 등과 같은 부류를 조사의 편의상 계량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우리 입말에서 호칭이나 지칭 관련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남영'의 경우 이 호칭과 지칭 관련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자세한 내용은 줄고(1996)를 참조

220. "오늘 남조선에서 봉건유교적, 자본주의적 관계를 반영하는 레질적표현 수단과 수법들이 그대로 쓰이고있는것은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고있는 남조선사회체도의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성격과 관련된다. 남조선에서는 <<가진, 계부장, 계씨, 선교장, 선모친, 선자당, 자당, 자씨, 매씨>>와 같은 이름말과 <<-상, 노인장, 노형, -씨, 생원, 아가씨, -양, 나오리,

「조선말대사전」에는 ‘숙부, 숙모, 백부, 백모, 질녀, 춘부장’과 같은 한문투 호칭·지칭은 쓰지 않아야 할 어휘로 나와 있다.²²¹⁾

숙부 ⇒ 작은아버지 [叔父]

숙모¹ ⇒ 작은어머니, 삼촌어머니. [叔母] (2)

「조선말대사전」의 일러두기에 ‘⇒’는 마땅히 고유어로 다듬어 써야 할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고유어에 보내 주는 표시다.

이것은 ‘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²²²⁾

근대] ① <<자네>>를 옛스럽게 이르는 말 ② 전날에, (친한 사람이나 손아래사람인 남자의 성이나 이름 밑에 뒤붙이로 쓰이어) 허붙없고 친근한 사이임을 나타내는 말.

「조선말대사전」에 ‘계부’² : 끝 작은아버지 곧 삼촌인 아버지의 막내동생’과 같은 풀이가 있고, ‘숙모’의 경우 마지막에 명기된 어휘 빈도수 ‘(2)’는 이것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 언어 생활로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 언어 생활이 갖는 규범과 현실 사이의 이중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서방님, 아가씨’ 등은 조선시대 양반 계층의 문화와 관련된 호칭·지칭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방님 전날에, ① <<서방>>을 높여 이르는 말. ② <<머슬 없는 젊은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말.

아가씨 전날에, <<시집갈 나이의 처녀 또는 젊은 색시>>를 높이어 이르거나 대접하여 부르는 말.²²³⁾

‘할아버, 할멈, 아범, 아주범, 아주범’과 같은 표현들도 ‘하인을 낮추는 말’(김동수 1983:32)로 보아 쓰이지 않는다. 「조선말대사전」에서도 ‘할아버, 할멈’ 따위는 ‘낡은 사회에서’ 쓰이던 말로 규정하여 놓고 있다. ‘아범’에 대해서는 낡은 사회에서 쓰이던 말 이외에도 ‘지난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나 한문투의 말에 대하여서는 오늘날 그것을 일반 언어생활에서 될수록 쓰지말라는 뜻’(「조선말대사전」의 일러두기)으로 붙인 ‘(X)’ 기호가 앞에 붙어 있다.

할아버, 아범>> 등과 같은 부류말들이 계속 쓰이고있으며 지어) <<미스터, 미담, 미세스, 미스>>와 같은 외래말씨끼기들이 망탕 쓰이고 있다.”(김동수 1983:33)

221. 김일성 부자에 관한 호칭·지칭에서는 고유한 우리말보다는 ‘元帥, 首領, 領導者, 指導者’와 같은 한문투를 그대로 사용한다.

222. 김동수(1983:33)에서는 ‘(女) 嬪’도 봉건 잔재가 남아 있는 말로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말대사전」을 살펴 보면 이 둘은 실제로는 다 쓰이고 있다.

“-씨 [뒤] ① 사람의 성이나 이름 밑에 붙어 존칭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② (태평사로 쓰이어) <<그사람>>의 뜻으로 좀 짐작케 이르는 말. [뒤]

양(불완전) (나자의 성이나 이름 아래에 쓰이어) <<치녀>>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19)“

223. 「조선말대사전」의 본래 표기는 다음과 같다.

“아가씨[2312] [명] 전날에, <<시집갈 나이의 처녀 또는 젊은 색시>>를 높이어 이르거나 대접하여 부르는 말.”

이 가운데 [2312]는 소리의 높낮이(북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높이머’)를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벌의 높낮이로 기계로 분석하여 이것을 사전에 명기하여 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뜻풀이에 관한 내용만을 인용하였다.

양반 문화가 아니더라도 주체사상의 측면에서 '낮은 문화'와 관련한 호칭·지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작은댁, 큰마누라, 본마누라, 본처, 작은마누라'와 같은 표현이 그 예이다. '작은댁'은 첩과 관련 없이 '작은아버지의 집'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이것이 낮은 문화의 소산이란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²²⁴⁾²²⁵⁾

3.2.2.2. 북한 호칭·지칭의 집단적 성격은 집단 목적에의 동질성을 강조하는²²⁶⁾ '동지, 동무' 등과 같은 표현이 다른 어느 호칭·지칭보다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과, '분조장, 당위원장, 반장' 등과 같이 집단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지칭이 시골의 동네 사람들과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도 일상 호칭·지칭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우선 드러난다. 그리고 집단 관계의 호칭·지칭에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지칭 가운데 특히 많이 쓰이는 것은 '동지, 동무'다.²²⁷⁾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100만여 개 어휘를 대상으로 한 빈도수 조사 가운데 '동지'의 빈도수는 1,332로 빈도 순위에서 볼 때 70위를 차지하고 있고,²²⁸⁾ '동무'의 빈도수는 1,598로 빈도 순위로 볼 때 50위를 차지하고 있다.²²⁹⁾

특히 '동무'는 「조선말대사전」의 '㉓ 일반적으로 남을 무관하게 부를 때에 쓰는 말'이라는 풀이에서 보듯이 매우 광범위한 호칭·지칭이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이어서 남한에서는 당연히 '너'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도 '너' 대신 '동무'라는 호칭이 쓰인다(「종달새」).²³⁰⁾

224. 그러나 '큰댁'에 대해서는 '<<큰집>>을 높이며 이르는 말'이란 뜻과 '낮은 사회에서 남을 높이며 그의 <<본처>>를 이르는 말'의 두 가지 뜻 풀이가 있어 '큰집'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어휘 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 주는 한 면이다.

225. 이런 측면에서 '어른'이라는 말을 '결혼한 성인'의 뜻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된 것도 눈에 띈다. '어른'에 대해 '㉕ 전날에, 관례를 한 사람'하고 전날 쓰이던 예로 '우리 삼촌도 장가를 갔으니 어른이 됐단다.'를 들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른'이란 표현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226.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기들이 지켜야 할 가장 혁명적인 언어레절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 서로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통일단결되어있는 공산주의적인인간관계의 본질적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김동수1983:108)

227. '<<동지>>(동무)는 오늘 문화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말로 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서로 혁명동지를 믿고 존경하면서 싸워나가는 혁명하는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관계를 반영하며 고상한 도덕적품모를 보여주고있다(김동수 1983:98-99)

228. 「조선말 대사전」은 부록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고, 빈도가 높은 어휘마다 풀이말 마지막에 괄호 속에 그 낱말의 빈도를 표기하여 놓고 있다. 이 빈도 일람표는 '104만 7,376개의 단어를 가진 여러 분야(문학예술, 사회정치, 과학기술, 신문보도 등 180여개 분과와 과목)의 현대조선말 본문을 분석 조사하여 얻은 어휘빈도수목록기운에서 절대빈도수가 102까지에 이르는 어휘들을 빈도수크기차레로 배열하여 묶은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빈도수와 순위는 이 일람표에 근거한 것이다.

229. 「조선말대사전」의 어휘 빈도수 조사표에 나와 있는 호칭과 지칭 관련 어휘의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	순위	빈도수	어휘	순위	빈도수
우리	7	7,766	일군	148	795
나	26	2,550	어머니	165	754
자기(자신)	36	1,884	아버지	248	541
놈	44	1,653	너	286	483
동무	50	1,598	제	362	384
내(조국)	59	1,424	안해	414	339
동지	70	1,332	영웅	421	335
수령	125	890	딸	438	323
전사(혁명-)	136	850	당신	450	318

230. 위에 제시한 대화는 여자 애인이 노래를 잘 불러 시골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손뽕금으로 반주를 하는 젊은 남자가 반주를 일부러 틀리게 하려는 생각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남자의 친구가 하는 말이다. 장소는 들판이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두 사람만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당연히 '너'라고 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사적인 분위기'보다는 '비판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분

“동무같은진 자적이 없단말야”

김동수(1983:189)에서는 ‘<<너>>’는 주로 사적인 분위기에서나 가정적인 환경에서 쓰며 사회집단 분위기나 공적인 환경에서 쓰는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때에는 <<동무>>나 상대방을 이르는 다른 말을 쓰고 사람대명사 <<너>>의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예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비판’ 때문에 가정적인 분위기나 사적인 분위기보다 사회적 분위기나 공적인 분위기가 우선하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동무’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낯선 사람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50대 남자가 자식 또래의 낯선 젊은이를 부를 때도 ‘동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종달새」).

실제로 ‘동무’는 남한의 경우 ‘김씨, 이철수씨, 영미씨’와 같이 ‘씨’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김동무, 이철수동무, 영미동무’와 같이 쓰인다. ‘동무’가 쓰이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동무, *삼촌동무, *인니동무’와 같이 혈연적인 가족 관계에만 한정되는 듯하다.²³¹⁾

그러나 ‘동지’는 쓰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조선말대사전」의 풀이말로만 보면 ‘동지, 동무’가 ‘혁명 동지’를 일컫는 말로 모든 경우 쓰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동지’는 일반 노동계급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은 아니다. ‘동지’는 대상이 자신보다 높고, ‘사령관, 연구사, 인민위원장, 책임비서’ 등과 같이 대상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경우일 때, 공적인 분위기에서만 쓰인다. ‘연구사’를 부를 때 보조 연구원들은 ‘연구사동지’라고 부르지만 같은 직위끼리는 ‘연구사동무’, 일반인들은 ‘연구사선생’이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이 당과 직접 관련된 책임비서나 인민위원장에 대하여 ‘책임비서동지, 위원장동지’라고 부르지만 ‘반장’에 대해서는 ‘반장동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당 위원장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책임비서를 ‘책임비서동무’라고 부른다. ‘동지’의 풀이 ②(‘존함아래에 쓰이어’)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말’에서 보듯이 김정일을 가리킬 때 ‘김정일동지’는 가능하지만 ‘김정일동무’라는 표현은 쓰지 못한다.²³²⁾

김동수(1983)에 의하면 ‘동무, 동지’와 같이 사회적 직급 뒤에 붙는 명칭은 일정한 체계를 유지한다.

존경과 관련한 이름말에서는 또한 <<+어른>>, <<+선생님>>을 붙여 쓸수 있다.

사회적 직급이나 직위에 <<어른>>을 붙여 이름말로 쓰이기도 한다.

기사장이른, 사무장이른

이것은 대체로 나이든 사람이 사회적직위가 우연 사람을 높여 이룰 때 쓰인다.(p.99)

사회적인 직위나 직급, 칭호와 관련한 이름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지>>를 붙인다.

...<<총략>>... <<동지>> 대신 <<동무>>를 붙이는것은 이름이나 지위, 직급을 가리키는 이름말만 쓰는것보다 조금 높이는것으로 된다.(p. 98)

위기쪽은 택한 듯하다.

231. ‘동무’라는 표현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를 ‘동무 따라 강남 간다’로 바꾼 것에서 보듯이 속담에 나타난 ‘친구’라는 표현을 거의 모든 경우 대신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이나 인교에 의한 관계인 ‘친구’를 모두 집단의 목적을 같이 하는 동지의 뜻으로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32. ‘동지’라는 표현이 (‘존함아래에 쓰이어’)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된 것은 ‘김정일’을 가리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한정된 풀이말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존함’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숙과 같이 그의 친족일 경우에만 한하기 때문이다.

경멸, 증오, 야유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이름이나 직위, 직급을 나타내는 이름말에 <<놈>>, <<자식>>, <<새끼>>, <<녀석>> 등을 붙인다.(p. 99)

직위 뒤에 ‘어른’과 ‘선생님’을 붙인 경우는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생’의 경우 ‘의사선생’과 ‘연구사선생’과 같이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화자가 전문직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²³³⁾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동무’나 ‘동지’를 사용하거나, 뒤에서 보겠지만 ‘반장아바이’, ‘반장아주머니’와 같은 가족 관계 호칭을 사용한다.

남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과장님’과 같이 직위나 직급 뒤에 바로 ‘님’을 붙이는 경우는 ‘낡은 사회에서 쓰이였으나 오늘 문화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김동수1983:98).

북한은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그대로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호칭·지칭으로 원용하여 쓰고 있다. ‘회사를 가정같이, 평생 직장, 사장을 아버지처럼, 사원들 간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과 같이 집단에서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대개 집단(의 목적)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북한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에게 가족 관련 호칭·지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특히 주체사상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맺어진 집단 관계를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집단에 가족 관계를 원용하는 것은 같은 동네 사람들을 가족처럼 부르는 것에서 나타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직명 뒤에 가족 관계의 표현을 덧붙여 부르거나, 아예 혈연적인 가족 관계처럼 부른다.

낮선 동네에 이사 온 어린아이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동네 어른을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부르고(「생의 흔적」), 같은 동네에서 사는 중년 아주머니들이 그 동네에 사는 중년 남자인 ‘반장’을 대개 ‘반장아주머니’라고 부른다(「종달새」). 또 인민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풍년이 왔다고 들뜬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춤을 춘다는 표현이 보인다. 남한식으로 하자면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선말대사전」은 ‘③ 혈연적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여 놓고, ‘옆집아버지’를 예로 들었다. 남한에서는 ‘아저씨’라고 표현될 부분이 상당 부분 ‘아버지’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족 관계 호칭은 비단 같은 동네 사람과 같이 아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통한다.

“저기 웬 아버님이 오시네?”(「종달새」)

나이가 지긋한 낮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남한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님’이란 호칭·지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비교해 보면 주체사상이 가족 관계의 호칭·지칭을 얼마나 집단 관계에 원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거나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혈연에 의한 친가족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 큰엄마, 큰아버지’인 것이다.

‘아바이’라는 표현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아바이’는 ‘아버지’나 ‘어머님’와는 전혀 다

233. 「조선말대사전」의 ‘선생’의 풀이에 ‘② <<일정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는 표현이다. ‘아바이’는 일본의 대판외국어대학 조선어연구소에서 펴낸 『朝鮮語大辭典』에 보면 북한 방언으로 ‘할아버지, 영감’을 뜻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바이’는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 또래인 경우에 사용하여서 남한의 ‘아저씨’쯤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붙는 표현이다.²³⁴⁾

‘아바이’라는 호칭은 친근한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호칭이다.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그냥 ‘아바이’라고 부르며, 같은 동네의 젊은 여성들이 아버지를 되는 ‘반장’에게 ‘반장아저씨’와 ‘반장아바이’를 같이 섞어 쓴다(『종달새』).

남편을 ‘세대주’라고 하는 것도 집단적 성격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세대주랑 한마당 오셨어요.”

간호원이 퇴원을 기다리는 출산부에게 남편을 비롯해 가족들이 많이 왔다는 것을 전하는 말이다(『생의 흔적』). 자신이나 남의 남편을 ‘세대주’라고 표현하는 것은²³⁵⁾ 일차적인 가족 관계보다는 집단적인 목적 관계가 더 중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3.2.2.3. 북한 호칭·지칭의 성격으로 김일성 가족에 대한 표현과 이른바 ‘계급직원 쭉’에 대한 표현이 서로 극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호칭·지칭은 마치 조선시대의 왕을 연상케 할 정도로²³⁶⁾ 극단적이고, 부모보다 더 지극한 사랑을 배풀어 주는 대상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계급적 원쑤에 대해서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극도의 증오심과 적개심의 대상으로 표현된다.

김일성 가족에 대한 호칭·지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예들은 모두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온 호칭들이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아버지원수님, 원수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이바이수령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장군님,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김정일선생님,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지도자선생님, 선생님

이런 태도는 김일성 부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해당된다.²³⁷⁾

강반석어머님,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원수님의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김형직선생님

이들의 호칭·지칭에는 반드시 ‘님’을 붙인다. 북한에서 직위 뒤에 바로 ‘님’을 붙이

234. 『종달새』에 등장하는 ‘민장아바이’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다.

235.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해 남존미비적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반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남편에 대한 호칭과 지칭에는 ‘주인’이 붙어 있다.

236. 김일성이 조선시대 왕에 비유할 만한 곳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교시를 말로 인용할 때는 발부를 따내지 않고, 김일성의 교시를 글로 인용할 때는 앞뒤 여백을 두어리는 등의 내용이 북한의 화술 규범서라 할 수 있는 리장비(1975)의 『조선말화술』에 보인다.

237. 강반석은 김일성의 어머니, 김정숙은 김정일의 어머니,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다.

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과장님’과 같이 직위 뒤에 바로 ‘님’을 붙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원장동지, 반장동무, 반장이주버니’와 같이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님’을 붙이는 것은 이들의 나이나 화자가 누구냐와는 전혀 상관없다.²³⁸⁾ 어린 나이의 김일성, 김정일에게도 극존칭의 표현과 ‘님’을 붙인다. 마을 할아버지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 부인인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어머님께서는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었습니다.’²³⁹⁾라고 묘사하고, 할아버지의 젊은 강반석에게 대한 생각도 ‘(강반석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어머님이시구나!)’라고 표현된다(인민학교 2학년 국어 ‘어머님의 정성’).²⁴⁰⁾

김일성 부자 이름 앞뒤에 붙는 ‘아버이, 아버지’ 등의 표현들은 김일성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친애하는,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 수령, 지도자’와 같은 표현들은 기존의 뜻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갖거나 실제의 뜻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²⁴¹⁾

아버이 ②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는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높이어 이르는 말.

친애하다 (주로 <<친애하는>>형으로 쓰이며) ① <<가장 친근히 대하고 따듯이 사랑하다>>를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이르는 말.

반대로 ‘원썩’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사용한다.

가. 계급적원썩들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지주 아들놈, 미국놈, 일제놈, 일제순사놈, 미제송냥이놈, 원썩놈, 남조선괴뢰놈, 왜놈, 지주놈, 전두환괴뢰도당, 황지주놈, 지주녀편네, 털보놈, 악착한놈, 녀편네, 송냥이, 백정놈.

나. 계급적원썩들이 한 말

거지같은 자식, 이년, 저년, 죽일년,

‘계급적원썩’들에게는 ‘놈’이라는 접미사가 대부분 붙는데 ‘놈’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가는 「조선말대사전」의 전체 어휘 빈도수 조사에서 ‘놈’이 1,653회로 빈도수 순위

238. 김일성을 대명사화 할 때는 반드시 ‘그’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이께서는 밀림속 호수처럼 그윽한 그의 눈에 수심이 어린 침중한 빛이 떨고있음을 보시었다.”(『의리』 p. 222)

“한두번만 그이를 만나봐옵지 않았건만 비올게 될 때마다 흥분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는 그였다.”(『의리』 p. 190)

대신 3인칭 존대를 나타내는 ‘당신’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사용했던 표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39. 밀줄은 필자.

240.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극존칭의 말을 사용하는데 인민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제2과 높이 우러러모시는 말’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보인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러모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또한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친히, 몸소, 손수, 삼가, 교시, 말씀, 만수무강, 계시다, 올리다, 모시다>>와 같은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241.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호칭·지칭 때문에 많은 어휘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수령’도 마찬가지다. ‘수령’은 김일성에게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受領 機關, 守令, 講辭’과 같이 ‘首領’과 같은 음을 가진 동음이의어의 사용도 못하게 하고 있다. ‘怨讐’를 ‘원썩’라고 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에서 44위에 올라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원쭉'은 304회로 478위에 올라 있다.²⁴²⁾

3.2.2.4. 문화어 규범에서는 사투리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지만 북한 방언의 호칭·지칭이 상당 부분 규범어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방언적 요소를 보이는 호칭·지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²⁴³⁾

가시어머니(장모), 가시아버지(장인), 삼촌어머니(고모 등), 삼촌아버지(고모부 등), 가시할아버지(처할아버지), 가시할머니(처할머니), 외삼촌어머니(이모 등), 아가딸(시집 가지 않은 딸), 아저씨(형부), 사둔어머님(안사둔), 시둔어머님(바깥사둔), 아세끼(자식을 낳추어 부르는 딸), 아이어머니('성숙한 처녀. 시집을 가제 간 여자 <<안해>>를 남에게 이룰때')

그러나 이 표현들은 국립국어연구원(1995)의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에 의한 것들로서 이 분석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고향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규범어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들이 모두 「조선말대사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말들로서 수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이 규범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²⁴⁴⁾

3.3. 소리마루

소리마루란 말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 억양, 끊기, 속도, 울동성과 같은 소리의 흐름을 말한다. 북한에서는²⁴⁵⁾ 우리 말이 '발음이 류창하며 억양의 요소들의 민족적특성이 뚜렷하고 듣기에 좋으며 발음의 요소와 단위가 풍부히 발전되어있었다는 것은 우수한 말소리의 본질적특성'일뿐만 아니라²⁴⁶⁾ 우리 말의 선율은 '발음의 요소들이 풍부하고 말소리구조가 인본대중의 민족적감정에 맞고 현대적요구에 맞게 발전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수한 말의 발음법은 민족어의 기능을 훨씬 높이는데 크게 작용한다'

242. 「조선말대사전」의 '원쭉'에 대한 풀이에서도 주체사상이 '원쭉'에 대해 얼마나 작게삼과 중요심을 고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원쭉 해를 끼치며 피맺힌 원한이 사무치 용서할수 없는자 또는 해를 끼치어 원한이 맺히게 하는 사물현상"

243. () 안의 표현은 남한의 상대 표현.

244. 남한과 달리 '총각, 처녀'가 나이 어린 '사내아이, 여자아이'의 뜻으로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방언적 요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큰 총각은 여섯살아라지"(「조선말대사전」 '총각'의 예문)

"다섯살에 난 총각애기"(「의리」, p218)

'포마'라는 표현도 상당한 생산력을 가진 접두어로 쓰이는데 이것도 방언적 요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포마 ① <<키가 작은 나이 어린 사람>>을 정답게 이르는 말 ② (다른 단어앞에서만 쓰이며) <<작은 사물>>을 귀엽게 이르는 말"

이 '포마'가 접두어로 쓰인 표현들: 포마가상대, 포마진코리취, 포마게획, 포마들찌귀, 포마들양, 포마대원, 포마방송, 포마별, 포마비단털원숭이, 포마배우, 포마수레빌레, 포마전사, 포마포뭇나무, 포마동쌀과, 포마쌀과, 포마알라희롱나무, 포마유죄대원(「조선말대사전」)

245. 북한에서 소리마루를 강조하는 것은 서울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즉 반 서울말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극단적인 서울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반영된다.

246.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총각>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고 설명한다. 그래서 ‘발음법을 더욱 완성하여 민족어 말소리의 우수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며 그 리용 규칙과 규정을 정밀화하는것은 말소리의 주체적발전을 위하여, 바른 말을 쓰는 기풍의 확립을 위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언어규범화를 위하여서는 말소리분야에서 발음법을 더욱더 완성해나가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164-165)고 설명한다.

그러나 리상벽(1975)의 설명을 보면 이런 소리마루는 우리 말의 아름다운 특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혁명적지향과 전투적생활감정’을 드높이기 위해 강조되고 있으며, 전에 없던 소리마루 현상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기마루, 높이마루, 길이마루, 억양 등 소리마루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마찬가지다.²⁴⁷⁾

세기마루는 매 단어의 첫머리에 힘을 줌으로써 말소리흐름의 절도와 물동미를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백을 나타내고있다. 말하는 사람의 패기가 있을 때는 세기마루가 더 뚜렷해지고 의욕이 없는 말은 세기마루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조선말 소리마루의 힘있는 수단으로 보충되고 있는 세기마루는 우리나라 로동계급의 혁명적지향과 전투적생활감정을 반영한것으로서 소리마루현상의 특징을 이루고있다.(pp. 88-89)

오늘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이룩된 문화어소리마루는 높이마루와 길이마루의 한계가 뚜렷하고 박력있는것으로 발전했다...<중략>...

이처럼 문화어소리마루는 해방후 공화국복반부에서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생활감정에 맞게 세련되었으며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이 높이 발양된 주체가 선 소리마루로 더욱 다듬어졌다.(p. 90)

이리하여 조선말에서는 세기마루가 급격히 발전하고있다...<중략>...

세기마루는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나타내려는 적극성과 높은 사상감정이 작용하는데로부터 생긴것이다.(p. 100)

조선말말소리흐름은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반영한 씩씩하고 락천적인 특성으로 일관되어있다...<중략>...소리빛갈도 바로 그것이 로동계급의 소박성과 진실성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말소리흐름전반을 로동계급의 구미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속도의 조절에서도 문화성이 철저히 보장되고있다.(p. 109)

문화어억양은 조선말발음의 모든 좋은 특성들을 살리고 더욱 발전시킨 아름다운 억양이며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로동계급의 사상감정과 혁명적지향에 맞게 다듬어진 세련된 억양이다.(p. 111)

3.3.1. 높이마루, 길이마루, 세기마루

3.3.1.1. 리상벽(1975: 91-94)의 높이마루 규칙을 보면 높이마루는 보통 끝음절에서

247. 북한의 화법 교육에서 소리마루가 강조된 것은 대개 1975년 이후라고 짐작된다. 1973년 출판된 「국어교수법」에는 소리마루란 명칭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1975년 「주체」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고, 1975년 출판된 「조선말화술」에서도 소리마루가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음절의 위치에 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⁸⁾

조국 나라 당원 혁명
 혁명화 조국에 나라일 감사말
 재생산 첫열매 봄보리 친자식
 해바라기 도루메기 고슴도치 딱다구리
 아버지가 밥그릇과 도라치국 개구리때
 조국통일 대안체계 방송순서 밥상머리
 친리마운동 확대재생산 붉은기증대 부러뜨리다

높이마루는 이절을 끝맺기 바로 전에 있는 음절을 높여 소리내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예를 들어, ‘밥그릇’ 등이 그 자체로는 ‘그’와 같이 둘째 음절에 높이마루가 주어지지만 뒤에 ‘과’ 등이 붙으면 끝에서 두번째 음절인 ‘릇’에 높이마루가 주어진다. 「조선말 대사전」에 나타나 있는 이들의 높이마루는 다음과 같다.

밥그릇 [2][3][2]
 아버지 [2][3][2]
 도라치 [2][3][2]
 개구리 [2][3][2]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깃들이다 [2][3][2][1]
 나무그릇 [2][3][3][2]
 높다 [2][2]

3.3.1.2. ‘세기마루는 매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것이 전형적현상’(리상벽1975: 239)으로 ‘세기마루는 높이마루 길이마루와 관계 없이 첫마디에 힘을 주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리상벽1975: 100).

혁명의 주인공께 모든 일을 이악하게 칸지고 알뜰하게 하여 6개년계획의
 모든 고차들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 점령하자

248. 높이마루는 「조선말 대사전」에 붙어말 뒤로 상형량의 표제어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조선말 대사전」의 일러두기(p. 3)다.

“높낮이는 올림말뒤에 수자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이 수자는 고성능스펙트로분석기(2003)로 측정된 결과를 평균한 것으로서 1은 낮은소리, 2는 보통소리, 3은 높은소리를 의미한다.

장기[~꺼] [2][2] [명]
 아들모 [2][1][2] [명]
 세말게지다 [2][3][3][2][1] [동(자)]”

3.3.1.3. 길어마루는 ‘고정된 길어마루’와 ‘형상적길어마루’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일정한 단어의 일정한 소리마디에만 나타나는 일반적인 길어마루는 고정된 길어마루라고 하고, 길어마루가 고정된 것을 무시하고 임의의 소리마디에 길어마루를 만드는 것은 형상적 길어마루라고 한다. 형상적 길어마루는 ‘주로 모양, 행동, 정도를 정밀하게 묘사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대로는 사상, 감정의 정도를 보여주는 어조에도 복무한다.’(리상벽1975: 94).

정리해 보면 세기마루는 모든 경우 어절의 첫마디에 오고, 높이마루는 대체로 어절의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 오고, 길어마루는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상적 길어마루가 있어서 임의의 강조하고자 하는 위치에 온다. 이러한 세 가지의 소리마루는 결국 오늘날 북한 말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특이한 울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울조는 ‘소식’을 ‘쏘식’으로, ‘수고하십니다’를 ‘쑤고하십니다’로 들리게 하고 있다.

3.3.1.4. 또 소리마루는 단순히 어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도 작용하는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발전하고 있는 문장소리마루의 표현방식’을 리상벽(1975: 103-108)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첫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단어에 비하여 소리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둘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하여 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다.

셋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가 있는 부분을 다른 단어에 비하여 세게 발음하는 방식이다.

넷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앞에서 긴끊기를 두는 방식이다.

다섯째 방식은 문장소리마루의 말마디들을 다른것에 비하여 급격히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리마루는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북한 말에서는 이러한 소리마루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은 긴 문장의 소리마루 표현 방식의 한 예이다(리상벽 1975:107).

3.3.2.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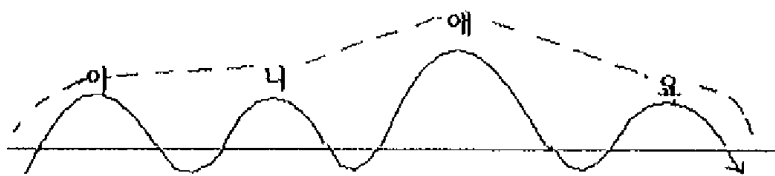
3.3.2.1. 소리마루는 단순히 높이, 길이, 세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억양, 끊기, 속도, 율동성도 모두 소리마루에 포함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 북한 말의 소리 율조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몇 가지 억양은 우리가 귀순한 사람들의 말에서 느끼게 되는 특이한 북한 말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습니다’와 같은 경우 ‘공손히 대답할 때 <<니>>가 약간 도드라지면서 흐름억양이 포물선을 그리게’(리상벽1975: 122)되어 특이한 율조로 들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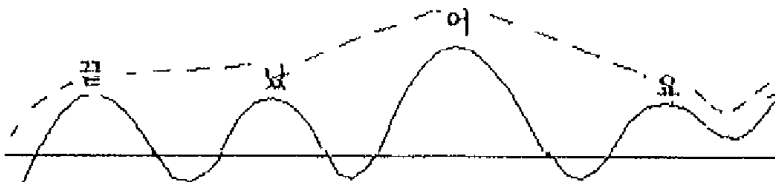


(공손히 대답하는 억양)

특히 ‘분화어억양에서는 <<했어요>>, <<몰라요>>, <<가자요>>, <<오시러요>> 등에서도 <<요>>의 앞소리마디가 다른 소리마디보다 높은소리로 발음’(리상벽1975: 123-124)된다.



(공손한 대답의 억양)



(감탄을 나타내는 정서적 억양)

세기마루가 첫음절에 주어지고 높이마루가 ‘-이요’, ‘-니다’의 경우 끝에서 두번째 음절인 ‘어’, ‘니’에 주어지 이런 율동성이 생기났고 이런 율동성은 ‘북한말’로 들리게 하

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3.3.2.2. 끊기에 관한 내용도 중요시 되어 다음과 같은 네 갈래의 끊기를 설정하고 있다(리상백1975: 124).

- ① 긴 끊기(///)
- ② 보통끊기(//)
- ③ 짧은끊기(/)
- ④ 순간끊기

끊기는 낭독과 같은 경우에 특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규범화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끊기의 예이다.

아// 그 어떤 폭풍속에 선다해도// 나의 심장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숨결로/ 고동 치리라/// (리상백1975:127)

3.3.2.3. 말의 속도는 내용에 따라 노동자, 농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기준 속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기준 속도는 다음과 같다(리상백1975: 132).

종류	단위시간	글읽기	말하기
진달하는 글, 말	1분	250-260자	
설명하는 글, 말	"	240-250자	260-270자
선동하는 글, 말	"	230-240자	250-260자
예술적산문의 글, 말	"	220-230자	240-250자
신문독보	"	240-250자	230-240자
운문율기	"	150-170자	
보고, 연설	"	250-260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으로 일관된 말은 빠르지 않고 정중하게 발음한다’(리상백1975: 136)고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관련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인용할 때 최대의 정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시원문 앞뒤에 공간을 뒀으로써 교시와 자기 말을 뚜렷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리상백 1975: 245)

결국 김일성의 말은 앞과 뒤에 상당한 끊기를 한 뒤에 느린 속도로 정중하게 발음하도록 되어 있다.

3.3.2.4. 말소리 흐름의 울동성에 관해서는 ‘우리 말 억양이 듣기에 매우 아름답고 힘

이 있어보이는 요인의 하나는 발소리에 불동성이 있는것과도 많이 관련되어있다(리상벽1975: 137)'고 보고 있는데, 이런 울동성은 발소리의 높이, 세기가 대조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어 소리마투의 기본적인 울동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어소리마투에도 기본적인 불동은 있다. 즉 두개의 소리마디에는 첫소리마디에 힘이 생기고 세개의 소리마디에서는 둘째소리마디, 네개의 소리마디에서는 첫째와 셋째소리마디에 힘이 생기게 된다. (리상벽1975:137)

결국 세기마투가 어절의 첫마디에, 높いま투가 어절의 끝에서 두번째 마디에 주어진다 는 점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확인된다.

집에는 부모도 아이도 있다.
 조국통일, 해바라기 도루메기
 천리마기수, 천리마작업반
 공산주의적품성 (리상벽1975: 139)

3.4. 감정의 형상화

3.4.1. 감정의 사회계급적 성격

3.4.1.1. 북한에서는 감정도 '사회계급적성격'을 띠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시말하면 같은 사물현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사상관점, 태도, 지향성이 다르면 그것에 의하여 야기되는 정서적성격도 달라진다. 하기에 감정은 사회계급적성격을 띤다.

사람들의 감정은 인간의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전면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한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람들의 감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 그이를 수명으로 모시고 사는 무한한 영예감과 행복감, 혁명적동지에, 집단주의감정,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당지감과 자부심,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감과 같은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 일관되어있다.(리상벽 1975:143)

북한의 화집의 방향이 규범화에 의한 인간 개조인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인용문 가운데 마지막 표현 '일관되어있다'는 '일관되어있어야만 한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화집 교육에서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으로 일관되어있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선전 선동을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윤진·최상진역

1992:127-135).

대중 화법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하게 요구된다.²⁴⁹⁾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의 사상심리적내용을 반영하는 방송원, 강사들이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화술창조의 첫째과업으로 된다.(리상벽1975: 153)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소리빛갈’을 매우 중요시한다. 소리빛갈은 ‘심리세계, 객관적현실의 본질을 생동하게 표현하는데서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리상벽 1975:185)로서 말하는 이의 사상을 드러내는 목소리의 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로동 계급의 귀맛’에 맞아야 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집단을 위한 감정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말한다. 사상적인 당위성이 개인적인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로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개인 감정이야 어찌되었든 김일성 부자의 은혜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제나 행복감을 느껴야 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표현할 때는 항상 기쁨에 차고 만족한 얼굴 표정과 음색을 드러내야만 한다.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이 간고하지만 혁명가들은 언제나 명랑하고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습니다. (김일성의 교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211)

기분은 외적작용이나 환경의 영향에 전적으로 의존되지 않는다. 매개인의 사상의식과 지향성은 기분의 발생변화에 결정적작용을 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우울과 비관을 모르고 언제나 낙천적이고 명랑하였던것처럼 우리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에서 언제나 건전하며 전투적이며 명랑한 기분을 가진다.(리상벽1975: 149)

이처럼 북한의 감정 표현, 북한 화법의 표현대로 ‘감정형상화’가 철저히 선전과 선동을 위한 사상 무장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최고점은 언제나 김일성에 대한 것이며 다음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것인 반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감정은 가장 저급한 감정이다.

우리의 감정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끝없는 흠오의 감정이다.(리상벽1975: 142-3)

249. 이런 측면에서 서울말은 ‘인민들의 혁명적 미감’에 맞지 않는 말로 규정한다.

“<<서울>>방송에 나오는 여자들의 코맹맹이소리, 간드러지게 아양떠는 소리, 남자들의 웰레웰레하는 소리들은 모두 가공된 소리빛갈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미감이 맞지 않는다.”(리상벽1975:183)

사회와 인민, 집단과 혁명동지의 이익을 위하여 체험하는 걱정은 도덕적걱정으로서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걱정이다.

그러나 개인리기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걱정은 가장 지렬한 걱정이다.(리상백1975: 149)

그리고 김일성 '원수'에 대한 감정이 극단적으로 숭고한 것이라면 주체의 '원수'에 대한 감정은 극단적으로 증오심, 적개심에 차 있어야 한다.

3.4.2. 감정 형상의 규범화

3.4.2.1. 북한의 언어 생활 규범화는 언어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규범화는 감정의 형상화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리상백(1975: 162-169)에서는 이런 규범적인 감정 형상화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²⁵⁰⁾ 이 부분에서는 '감정의 형상기교'라는 제목 밑에 '1) 도덕적감정의 형상기교, 2) 미지감정의 형상기교, 3) 지직감정의 형상기교, 4) 후각, 미각, 촉각적 감정의 형상기교, 5) 정서적표현들에 대한 형상기교'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이들 해당 분야를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한 뒤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정 형상화 기교를 규범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 화법의 이해에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감정

이러한 경우를 화술로 형상할 때에는 깊은소리빛깔을 기본으로 한다. 집중표현단위에서는 더 깊은소리를 내며 머리울림으로 띄울수 있다. 이때 우울한 발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간 미소를 담고 승엄한 표정으로 하면 말소리도 밝아진다.(리상백1975: 162-163)

말의 속도는 느린편이나 사랑송과 혼돈되지 않도록 빠르고느림을 조절해야 한다.

벉음도에 약간의 여운을 둔다.

높낮이가 미미하나 그대신 깊은 소리빛깔이 높いま루를 대신하는것을 볼수 있다.

긴 문장에서는 드문드문 맑은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것이 좋다.

억양에서는 느낌식입말투, 느낌식읽기투가 전형이다.

○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만족과 긍지

이런 경우에는 맑은소리가 기본으로 되면서 밑줄부분에서와 같은 집중표현단위에서는 깊은소리로 바꾸어 강조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족과 긍지를 나타낼 때의 목소리빛깔을 맑은소리에 깊은소리빛깔을 약간 볼들인감을 준다.

분체에 따라 느낌식입말투, 입말식읽기투로 할수 있다.

만족의 미소로 가득찬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면 감정표현도 이율리게 된다.

전반적으로 격조가 높으나 웨치는것과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심장은 높뛰고 소리는 억제한다 하는 기분상태를 유지하는것이 좋다.

○ 기쁨과 자랑으로 가득찬 걱정

250. 여기서는 '화술에서의 감정표현은 목소리의 다양한 빛깔과 발음양식(발음법, 억양, 속도, 끊기, 활동 등을 포함)이 아울러 나타나서 복잡한 발음현상이다'라고 감정 표현을 목소리 빛깔과 발음 양식에 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기교에서는 일괄의 표정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레문에서는 맑고 힘있는 목소리빛깔을 배치한다. 밑줄 부분에서는 더 높고 힘이 있어야 한다. 깊은소리나 굵은소리 같은 것은 이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발음상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와 비슷하다. 눈은 미소를 띠고 입은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다. 입술모양이 앞으로 나오거나 평평하면 기쁨과 자랑의 감정이 담긴 발음을 할수 없다.

자랑하는 대목은 격조를 높이고 문장에 따라서는 속도를 내어 즐기치게 내리엮을수도 있다.

○ 사랑의 감정

발음은 또렷하게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 눈도 웃고 입술도 웃는 상태이므로 둥근모음발음이 모호하나 허용될수 있다.

○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적개심, 증오의 감정

이런 내용을 형상할 때에는 적개심과 증오의 목소리는 맑고 탄력있는 소리빛깔이다. 어둡고 우울한 빛깔은 섞이지 않는다.

밑줄부분은 입술과 목을 긴장시키는것으로 증오감을 더 크게 한다.

모든 발음에 힘을 주며 증오를 나타낼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는 모양으로 씹듯이 발음한다.

말소리의 높낮이는 비교적 굴곡이 심하고 일반적으로 기준음정이 높다.

한마디한마디 조리있게 힘을 주어 따지는 식의 말투로 하는것이 전형이며 때에 따라 속도를 내어 즐기치게 엮을수도 있다.

○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

얼굴에 알릴듯말듯한 웃음빛을 띠고 눈을 반쯤 감고 명상에 잠겨 아름다움에 도취하는 때의 형상

감정은 사상을 바탕으로 표현된다고 규정하고 감정의 형상화를 이처럼 규범화하여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일성에 대해 말하면서 ‘약간 미소를 담고 승엄한 표정으로’ 말하지 않거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말하면서 ‘만족의 미소로 가득찬 표정’을 지으며 말하지 않으면 사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짜증나고 피곤할지라도 감정의 태도를 바꾸어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감정 형상화의 극치는 ‘감격에 목매여 울음을 터뜨릴수 있으며 흐느낄수도 있다’는 김일성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북한의 어린이들이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울먹이던 장면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어머니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격에 목매여 울음을 터뜨릴수 있으며 흐느낄수도 있다. 이때의 눈, 코, 입은 적극적인 표정으로 변한다. 이 표정은 수백마디 말보다도 더 큰 격정을 자아내어 대중을 울리게 된다.(리상벽1975: 247)

「종달새」에는 밤을 새워 남모르게 노동을 한 뒤에 김일성의 모습이 담긴 대형 건조물 앞에서 ‘수령님 수령님 모시고 싶어’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수령님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릴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김일성에 관한 규범적인 감정 형상화가 상황적인 맥락과 전

히 상관 없이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3.4.2.2. 이러한 규범적 감정 형상화는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심도있게 구현할 것을 요구받고있는' 대중 매체나 대중 연설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된다. 방송 화술에서 '형상 기교는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등의 개성을 나누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상감정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소리빛간의 적극적인 작용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는데 있다.(리상벽1975: 162)'고 강조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감정 형상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한다.

대중앞에 출연할 때에는 원고를 보는 주의, 내용을 형상하는 주의, 몸가짐에 대한 주의, 군중을 마음속으로 보는 주의 등 3-4개의 주의로 배분된다. 이는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주의이다. 그러므로 어디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는가 하는것은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용형상에 집중하는 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을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	글씨보는 주의	안송 및 기억하는 주의	내용형상의 주의	대상과 교감하는 주의	표정, 행동에 대한 주의
라디오방송원	20%	--	60%	20%	--
텔레비전방송원	20%	--	40%	30%	10%
대중강연	20%	20%	30%	20%	10%
무대배우	--	10%	30%	30%	30%
영화및텔레비전배우	--	10%	30%	20%	40%
라디오배우	10%	--	60%	30%	--

(리상벽1975: 158)

위의 표에서 '글씨보는 주의, 안송 및 기억하는 주의'를 제외한 '내용형상의 주의, 대상과 교감하는 주의, 표정, 행동에 대한 주의'는 감정 형상에 관한 주의이기 때문에 60%에서 90%에 이르는 '주의'가 감정 형상에 배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3. 감정 형상의 이중적 양상

북한에서의 감정 표현, 특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화법이나 영화나 대중 연설의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개인 내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마땅히 표현해야 할 규범적인 감정 표현의 실연이다.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북한 이련이, 아나운서 등의 웃는 듯 마는 듯한 기교한 얼굴 표정, 상황에 맞지 않게 감정에 북받친 듯한 음색과 억양, 이련이들이 김일성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통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던 장면들은 이련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규범화 하였다고 하여 인간의 모든 감정 표현을 통제할 수는 없다. 북한 사회에도 규범화된 감정 표현 외에 자연스러운 개인 내적 감정 표현도 있다. 또 감정의 규범성은 세대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의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감정 표현은 이런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일반 성인 남자 대부분과 일반 성인 여자 상당 부분의 입말 가운데 김일성이나 사회주의와 관련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의 감정 표현은 실제로 남한의 감정 표현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들의 음색, 억양, 태도, 표정이 ‘북한식(=주체사상식)’으로 변하는 것은 이들이 김일성 부자나 사회주의 체제에 관하여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때이다. 또 그러한 내용일지라도 개인적인 대화의 상황일 경우에는 ‘북한식’ 감정 표현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대중적인 말일지라도 대상들이 아주 절친한 동네 사람들일 경우에는 ‘북한식’의 선전 선동조의 말투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밀폐식탈곡기’를 개발한 젊은이가 이것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우 전혀 ‘북한식’ 감정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종달새」). 노래 공연에 앞서 자신의 고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수많은 청중 앞에서 하는 처녀들의 말투도 일상적인 말투이고 감정 표현이지 특별히 선전 선동식의 ‘북한식’ 말투나 감정 표현이 아니다(「종달새」).²⁵¹⁾ 할아버지도 예외 없이 김일성의 은혜를 찬양하기는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말투나 표정은 일상적인 것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금강산으로 가자」).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일단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대중적인 연설(‘북한식’의 표현에 의하면 ‘토론’)의 장면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북한식’ 감정 표현이 강조되어 드러난다(「생의 흔적」).

위에 든 예들은 모두 최소한 20대 중반 이상의 성인들이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와 아주 다르다. 어린이들은 이런 ‘북한식’ 감정 표현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통일, ‘원썩’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극단적인 ‘북한식’ 표현이 드러난다.

이것은 이런 ‘북한식’ 감정 형상화가 규범적인 제시와 교육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 준다. 성인 남녀의 경우 이런 ‘북한식’ 감정 형상화는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되고 일상적인 대화의 상황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적 화술, 특히 소리마루와 같은 감정 형상화 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다는 점은 이것이 규범적 제시와 교육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북한식’ 감정 표현이 규범 제시와 교육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 김일성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사상 교육을 목적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일성 부자와 사회주의 체제의 찬양과 계급적 ‘원썩’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라는 화법 감정 형상화의 목적과 대상이 통일을 통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화법에 있어 ‘북한식’ 감정 표현도 당연히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 이것이 일상화되고 몸에 밴 어린아이들의 경우일 것이다.²⁵²⁾

251. 그러나 이 경우 두 여자 주인공의 말투는 일상 생활이라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북한식’이다. 다만 대중 앞 연설이라고 해서 말투가 특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252.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것임.

3.5. 설득 전략

3.5.1. 설득의 규범성

북한에서는 설득 전략도 대체로 규범화된 듯하다. 설득 전략의 규범성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모든 설득의 근거는 김일성의 교시(당의 정책)에 바탕을 둔다.

둘째, 모든 설득은 기본적으로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다.

모든 설득의 근거를 김일성의 교시에 둔다는 내용은 저작물의 경우 대부분의 저작물이 김일성의 교시를 앞세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김일성의 교시는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면서 모든 사고, 가치, 믿음은 물론 감정 영역까지에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 당의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따라서 '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것인가?'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저항하지 못한다.

모든 설득은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다.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 가치만이 존재해야 하고, 이론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당성, 인민성, 계급성이 투철한 사람들은 도덕적 모순이나 잘못이 전혀 없다. 이것은 이 글의 영상 조사 자료의 내용 속에서 잘 드러난다. 영화나 드라마의 갈등은 언제나 상대에 대한 오해나 충성의 방법에 있어 차이로 인해 빚어질 따름이다. 등장 인물 가운데 악역을 맡아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주의 가치 판단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갈등도 전혀 없다. 당성, 인민성, 계급성은 결국 모든 '인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모든 설득이 행해진다.

3.5.2. 설득 전략의 이중적 양상

주체사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삶의 양식을 한끼민에 바꾸거나 인간 생존의 자연스러운 발로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사고 판단이 규범적으로 제시되고 의사소통의 전략이 규범적으로 전형화되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의사소통 전략이 이런 규범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혈연이나 인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본 조사의 자료에도 보인다.

다음의 두 대화 상황이 그것을 보여 준다.

<상황1>

여: 아이, 그러니까 00 동지한테 알리고 군에 살짝 갔다오지요

남: 쉬는 날도 아닌데 승락해줄가?

여: 야, 00 동지야 동무하고 오존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차, 이런, 말끝마다 오촌, 오촌 그러네

<상황2>

남: 탈싸움 그만 하세요, 시간이 없소.

여: (애원)

남: 장동무, 이 동무들 빨리 정문 밖으로 내 보내세요.

여: (계속 애원)

남: 이 동무들 여기 잡아 두세요. 내 보위대에 전화하겠소.

(여자들이 미리 연락해 놓은 연구사 등장)

남: 연구사 동무가 어떻게? 아는 사이요?

(연구사의 설명)

남: 그렇소? 노래 공연 참가자들이란 말이지? 그게 정말이요? 아니, 왜 그걸 언제야 말하오. 나도 노래를 사랑하오. 해 줍시다.

첫번째 상황은 노래 공연에 나가떨어질지도 모르니 공식적으로 리당에 허락을 받지 않고서 살짝 다녀오겠다는 것인데 오촌시간이라는 연출을 이용하려는 태도이다.

두번째 상황은 노래 공연에 참가한 여자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밀폐식탈곡기'의 부품 제작을 직장장(남)에게 부탁하는 장면으로 직장장이 보위대에 전화를 할 정도까지 안 된다고 하다가 '연구사 동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과, 노래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 부탁을 들어 주는 경우다.

선전, 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와 같은 장면이 방영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도덕적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은어를 살펴 보면 '백, 사바사바, 구멍수'와 같은 은어들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성우·정재영(1990: 199)에서는 이들 은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구멍수

물품 구입·주택 배정·노동·여행 등 일상 생활의 모든 분야가 순리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안면으로 통하는 경향이 팽배, 이를 '구멍수'라고 부르고 있음.

△ 백·사바사바

사바사바라는 외래어가 유행이 될 정도로 북한 사회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구멍수·백·사바사바는 북한 주민 생활의 방편이 되고 있다고 함.

4. 북한 화법의 방향: 화법 교육

4.1. 주체사상과 화법 교육

4.1.1. 주체사상에서 국어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하나는 교육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다. 북한의 교육 이론가들은 교육 사업은 '인간 개조 사업'²⁵³⁾으로서, 주체사상이 주체 인간 개조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개조를 곧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⁴⁾²⁵⁵⁾ 그리고 이런 인간 개조는 사상 교양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사상 교양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 교양, 당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혁명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이라고 확정짓고 있다(김형찬 1990:82).²⁵⁶⁾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 혁명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이 교육의 내용이라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는 민중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크게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낳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며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부장시키는 사상혁명에 이바지('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 p. 32)'하는 것으로서 혁명과 투쟁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지식 기능의 형성은 본질에 있어서 정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구현인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능력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교양과정이다.

읽고 쓰고 말하는 지식기능이 없이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무장하는 사업도, 그를 해설선전하는 사업도,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도 생각할수 없다. ('국어교수법', p. 165)

다음으로 언어와 언어 규범화가 주체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이다. 주체사상이 언어의 공동성을 바탕으로한 일종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체사상에서 언어의 위치는 막중하다. 또, 앞서 보았듯이 언어 생활을 규범화하는 것이 선전과 선동 및 사상성의 고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형식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언어 생활은 곧 규범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에 입각한, 그리고 주체사상을 위한 언어 규범화는 주체사상 자체의 수용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253. '인민대중이 주체를 이론과 제도 그들은 혁명을 위하여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며 이런 지도는 수령인 김일성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이 지도자를 충실히 따르며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간개조를 하여야 하는데 이 인간개조과정은 곧 북한의 혁명 교육이론이며 선전이다'(김형찬1990:127).

254. 북한의 교육학은 두 개의 중요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물론 인텔리를 혁명화, 농민을 노동계급화하여서 모두가 공산화되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공산혁명에 북한교육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김형찬1990:90)

255. 1975년 10월 사회과학원에서 "사회주의교육이론 - 주체사상에 기초한"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데 지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으로 1) 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할 것, 2) 주체를 세울 것, 3) 노동계급전진을 세울 것, 4) 과학성을 보장할 것, 5)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할 것을 들고 있다(김형찬1990:107).

256. 김형찬(1990:83)에 의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교양, 혁명전통 교양, 인간 개조의 문제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를 열어 1973년 11월 14일 8개항을 포함한 4개조로 된 교육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의 김일성의 두 차례에 걸친 교시 이후 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교수 요강을 새롭게 작성하고 우리말의 정리 방향에 따라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조선어 과목 시간수를 늘이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영근편 1990:21).

4.1.2. 그러므로 국어 교육에서도 특히 언어 생활의 증추를 이루고 있는 화법은 아주 막중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어 교과서 전체가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 단위 가운데 화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해설 단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⁵⁷⁾²⁵⁸⁾

- 묻는 말에 대답하기(인민1-2 제5과)
- 인사말하기(인민1-2 제20과)
- 말할 때는 몸가짐을 바로 가져야 한다(인민2 제8과)
- 차례대로 말하기(인민2 제20과)²⁵⁹⁾
- 존경을 나타낼 때에는 토 <<시>>를 써야 한다(인민2 제23과)
- 높이 우러러모시는 말(인민3 제2과)
- 느낌말하기(인민3 제11과)
- 토론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인민3 제14과)²⁶⁰⁾
- 문화어로 말하기(인민3 제21과)
- 입말의 특성(인민4 제24과)
- 조리있게 말하기(인민4 제38과)
- 국어소조활동과 구연(고등중1 제17과)
- 말하기와 언어레질(고등중2 제24과)
- 문학작품에서의 대화(고등중3 제2과)
- 선전글과 선전활동(고등중3 제7과)

4.1.3. 북한의 교육에서는 모범이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본다(김형찬 1990:113). 그런데 여기서 모범은 강제적인 규범의 성격을 띤다.

김일성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자기의 실지 행동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렇게 모범을 보이려면 교원들이 먼저 “고상한 혁명가적 도덕성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1977년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김일성은 교양사업에서 깨우쳐주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안되면 모범을 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첫번째의 모방과 두번째의 모방사이의 거리가 먼 것으로 두번째의 모방은 강

257. 낭독에 관한 모든 해설도 궁극적으로 선전, 선동을 위한 화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낭독에 관한 해설 단원의 수도 아주 많은데 이것은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다.

258. ‘인민’이란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고등중’이란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가리키며, ‘인민1-2’의 ‘1-2’는 1학년 2학기를 가리킨다.

259. 여기서 ‘차례’란 말 순서 취하기의 차례가 아니라 말의 내용에 있어 차례를 말한다.

260. 이 단원은 작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론(선동)을 잘 하기 위한 연설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특히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분을 따르라는 교시를 저질한다는 것이 학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며 교원이 다 공산당의 당원이라는 북한의 사정 밑에서 교원의 분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김형찬1990:84)

따라서 모범의 근본 바탕이 되는 국어 교과서의 화법 양상은 그것이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화법의 양상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화법의 양상이고 강제 규범으로서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화법 교육의 내용은 앞으로 북한이 나아가고자 하는 화법의 이상적인 모델 제시이다. 그리고 이 모델은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모델을 통해 북한 화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볼 예측할 수 있다.

4.2. 북한 화법 교육의 양상

4.2.1. 발음

4.2.1.1. 북한은 국어 교육에서 낭독과 구연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다. 인민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과정의 국어 교과서 본문은 낭독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북한의 국어가 낭독을 중시한다는 것은 교과 단원 가운데 낭독에 관한 해설 단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은 직접적인 낭독과 관련된 해설 단원들이다.²⁶¹⁾

말은 꿰어읽어야 한다(인민1-2 제17과)
 동요, 동시의 읊기(인민2 제11과)
 읽기에서 읽기(인민3 제18과)
 분장끝에서의 높낮이(인민3 제38과)
 표현적인 읽기(인민4 제2과)
 읽기에서의 속도(인민4 제11과)
 국어소조활동과 구연(고등중1 제17과)
 산문을 어떻게 읽는가(고등중1 제28과)
 시를 잘 읊자면(고등중2 제3과)
 읽기에서 감정 정서살리기(고등중2 제24과)
 선전날과 선전활동(고등중3 제7과)²⁶²⁾
 읽기투와 회곽읽기(고등중3 제13과)

이처럼 낭독이나 구연이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 선전 선동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²⁶³⁾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제17과에서 구연의 이런 역할을 설명하고

261. 만민에 말의 이해에 관한 해설 단원은 '말은 잘 새겨읽어야 한다(고등중1 제9과)'가 유일하게 보일 뿐이다.

262. 이 단원은 선전날(대중을 선동하는 날)을 어떻게 쓰고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263.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구연을 통해 구연자 자신의 사상적 부장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있다.

구연이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생동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연은 듣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느낌을 주어 아버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관철하는데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고등중1:79)

4.2.1.2. 낭독이나 구연의 강조는 소리마루, 소리빛갈, 속도, 표정 등의 훈련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발음 훈련으로도 나타난다.

북한의 발음 교육은 두 가지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한 가지는 발음 교육이나 훈련이 일상적인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연을 위한 발음 교육, 즉 글자를 정확히 읽기 위한 발음 교육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발음 교육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는 것이다.

글자를 정확히 읽기 위한 발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인민학교 1학년 2학기부터다. 인민학교 1학년 2학기 발음 교육은 단원 내용이 주어지고 난 다음 주어지는 ‘련습’에서 밑줄 친 글자를 바로 읽는 것과 단어들을 발음법에 맞게 읽는 것의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에게서 제시된 낱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언제 봐도, 우리 모두, 손잡어주실, 기다려, 배워
언제나, 피여난, 활짝,
뽀뽀빵빵, 고운, 씩여서

입고, 밝게, 웃으라, 햇빛안고, 웃는
물어봤더니, 곱고, 헐벗고, 찾아간대요
빼앗으려고, 강기슭, 옳지, 강가, 됐다. 엮어전니라, 엮고, 들어서자

주어진 단어들은 모두 본문에 제시된 문장 가운데서 뽑은 것들이다. 이들 발음 교육이 일정한 규칙이나 체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정확히 읽기 위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인민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도 낭독을 위한 발음 교육이 ‘련습’에 다음과 같은 지문을 통해 반복 실시되고 있다.

다음 단어들은 읽을 때 어느 말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말하고 그대로 읽고 바로 쓰시오.

다음 단어들에서 쓴대로 읽는 단어와 쓴대로 읽지 않는 단어들을 찾아 발음법에 맞게 읽고 바로 쓰시오.

다음 단어들에서 바르게 읽는대로 쓴 단어들을 찾고 그대로 읽으시오.

북한의 발음 교육은 남한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학교 4학년에 해당되는 인민학교 4학년 수준에서 발음 변화의 규칙을 묻는 ‘련습’ 문제들이 주어지고 있다.

다음 단어에서 바르게 읽는대로 쓴 단어들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하십시오.

	수천리		단풍잎
수천리	수천리	단풍잎	단풍님
	수천리		단풍님 <밑줄은 쉼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코안소리닦기, <<ㄹ>>소리닦기, 입천장소리닦기’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런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1. 코안소리닦기란 어떤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2. 다음 단어에서 코안소리닦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시오.
박물권, 이튿날, 꽃모양, 목란꽃, 읽는다, 짓누르다
3. <<ㄹ>>소리닦기란 어떤것인지 예를 들고 설명하십시오.
4. 입천장소리닦기란 어떤것인지 예를 들고 설명하십시오. <이하 생략>

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된소리되기’와 ‘ㄴ첨가, ㄷ첨가’의 ‘소리 끼우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4.2.1.3. 북한에서는 입말 허용 발음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4학년의 제24과 입말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인다.

둘째로, 입말은 토를 쓰는데서도 글말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말에서는 주로 입말에서만 쓰이는 토를 많이 씀으로써 입말의 맛이 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글말인 <<나에게 이야기하라 합니다.>>라는 문장에서는 글말에서 주로 쓰이는 <<-에게>>라는 토를 쓰고 있지만 이것을 입말로 할 때는 입말에서 주로 쓰이는 토인 <<-더러>>를 써서 <<나더러 이야기하라 합니다.>>라고 함으로써 입말의 특성이 살아나게 합니다.

입말에서 주로 쓰이는 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지, -군, -구려, -구만, -네, -누만, -질, -다구, -라구, -세요, -더러, -하고, -처럼

...

4.2.2. 언어적 표현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에서 세운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원칙’인 ‘남은 사상 잔재를 버리는 언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일’, ‘근로대중이 즐겨쓰는 말, 주체성있게 발전한 언어요소를 쓰는 것’,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언어의 표현방식을 세련시키는 것’이란 원칙은 학교 교육의 이휘 사용에서 그대로 강조되고 있는데²⁶⁴⁾ 학교 교육에서는 첫번째 원칙은 고유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의 사용, 두번째 원칙은 인민어의 사용, 세번째 원칙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흠모, ‘계급적원썹’들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⁵⁾

264.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이론」을 통해 보면 학교는 언제나 언어 규범을 모범적으로 지켜서 대중을 교육하기 위한 기점으로 자리잡는다.

4.2.2.1.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에 관한 태도를 잘 보여 주는 글이 인민학교 2학년 제15과에 실려 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또 물으시었습니다.

<<지금 몇살이지?>>

<<십삼세입니다.>>하고 나는 얼른 대답을 올렸습니다.

<<십삼세? 그건 조선말이 아니지, 열세살이 조선말이야.>>²⁶⁶⁾

‘열세살’을 ‘십삼세’라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 경향에 빠져 반인민적인 사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인민학교 3학년 제21과 ‘문화어로 말하기’에서도 이런 내용은 설명되어 있다.

<<서점>>, <<랭차>>, <<오침>>, <<노트>>와 같은 말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대신에 다듬어진 문화어들인 <<책방>>, <<찬단물>>, <<낮잠>>, <<학습장>>과 같은 누구나 알아들을수 있는 말을 써야 합니다.

고등중학교 1학년 ‘어휘의 갈래’ 단원에서는 ‘한자말과 들어온말’을 다듬는 방향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 ① 고유어와 뜻이 같은 한자말이나 들어온말은 버리고 고유어를 살려써야 한다.²⁶⁷⁾
- ②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진 한자말이나 들어온말은 쓰되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③ 한자말이 기본적으로 고유어와 뜻이 같더라도 고유어와 달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냥 써야 한다.
- ④ 뜻이 같은 고유어가 없는 한자말이나 들어온말 가운데서 못쓸것은 버리고 고유어를 만들어써야 한다.

4.2.2.2.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보면 인민어의 사용은 대체로 격식을 차리는 말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²⁶⁸⁾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표현이 아니고는 인민 대중이 쓰는 일상적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고 이를 통해 그런 말을 항상 쓰도록 주장하고 있다.²⁶⁹⁾

고등중학교 1학년 제19과 ‘황금덩이와 강낭떡’에는 지주와 머슴의 대화가 등장하는

265. 세번째 원칙에 대해 ‘혁명적인 문풍이 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대중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는것이 그 이야기내용의 혁명성과 진실성에도 달려있지만 언어의 표현형식의 전투성, 호소성, 통속성, 생동성 등과도 관련되어있다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266. 북한 화법에서는 숫자는 되도록 ‘고유조선말’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고유어로 된 단위 명사와 어울린 수사는 고유한 셈법을 따라 발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말’은 ‘열말’이 옳고 ‘십말’은 틀리며, ‘20마리’는 ‘이십마리’로 읽으면 틀리고 ‘스무마리’로 읽어야 한다. 또 ‘25ㄱ’은 ‘이백스물다섯그람’으로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리상벽 1975:66).

267. 예로 든 낱말 가운데 ‘홍수->큰물, 골격->뼈, 금년->올해, 일식->해기림, 탈곡->마당질’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통제는 자연스러운 언어 발전을 막는 것으로서 언어의 이질화를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본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이런 말들은 조선말대사전에서 풀이를 달지 않고서 ‘채소->남새’와 같이 되어 있다.

268.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에 관한 표현은 ‘만수수강을 축원하옵시다’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269. 사투리는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평양을 문화어의 기점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

데 미슴의 대화는 '있수다, 왜 그러슈, 모르우, 하시우, 락꾼아'와 같이 표현되고 지주의 대화는 '자네, 보내게나, 이 사람'과 같은 하계체로 표현되어 있다.

또 '계급직원쭈'로 분류되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의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말을 흉내내는 식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많은 돈이나 벌이가지고 고향에나 가고싶은 마음이나 없느냐?>>(고등중2학년 제11과 '피뻘뻘 원쭈' 중에서 일본인의 대화)

우리 미국사람 조선사람 위해 고생 많이 많이 합니다.

미군 닭쫓는데 무슨 상관입네까?

히히히... 닭새끼두 잘두 죽었지, 히히히...(고등중2학년 제27과 '다시 학교로 가는길' 중에서 미국인의 대화)

직식을 차리지 않는 일상이 표현은 대화가 아닌 곳에서도 '배에는 쪼르륵 소리가 나고 정신은 펑펑 들었습니다'와 같이 등장한다. 특히 입말적 표현을 중요시하여 입말에서는 '모두'가 '똥똥'으로 표현되고, '하구, 가두'와 같은 표현이 쓰이며, '망탕, 제격'과 같은 표현이 쓰인다고 설명한 뒤 이것이 대화가 아닌 교과서의 본문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4.2.2.3 김일성과 김정일을 가리키는 말과 부르는 말은 물론 그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까지도 극단적인 존칭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언어예절'로써 규범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민학교 3학년 제2과에서는 '높이 우러러모시는 말'이란 제목하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언어 예절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존함을 정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중략>...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러모시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또한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친히, 몸소, 손수, 삼가, 교시, 말씀, 만수무강, 계시다, 모시다>>와 같은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이런 언어 예절은 반복 설명되어 있고 교과서 내의 모든 표현이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드리는 인사말을 잘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인사를 드릴 때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말을 하여야 합니다.(인민1-2:54)

반면에 '계급직원쭈'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도록 규범화하고 있다.²⁷⁰⁾

270. 분화어를 사용하면서 속된 말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계급직원쭈'에게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물론 원수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지주놈의 상통>>, <<미제놈이 됐다>>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인민3:58)

미제놈들과 계급적원수들에 대해서는 <<대갈통>>, <<모가지>>, <<상판대기>>, <<돼지다>>, <<죽치다>> 등과 같은 멸시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써야 한다.(고등중 1:14)

4.2.3. 소리마루

4.2.3.1. 소리마루에 대한 훈련은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인민학교 1학년 1학기 국어는 주로 글자 익히기를 위주로 짜여져 있다. 그런데 글자 익히기를 위해 제시된 본문의 형식은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1학기 교과서에는 단원의 구분이 없지만 그 내용과 구성에 따라 대개 3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34개의 단원 가운데 단어로만 된 단원이 하나 있고²⁷¹⁾ 구로 구성된 단원이 하나 있으며²⁷²⁾, 나머지는 단문, 동시, 이야기, 산문, 동화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동시가 17개를 차지하고 있다.²⁷³⁾ 이들 동시도 살펴 보면 형식면에 있어 일정한 율격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가야 아가야/ 고운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라/ 고운 아가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이 오면
원수님 우러러/ 설인사 드려요.

인수도 그려요/ 남이도 그려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기발을 그려요.

나라 위해 싸우시는/ 아버님을 도와서/ 원수님은 비밀련락/ 다시켰지요.
일제놈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시며/ 원수님은 비밀련락/ 다니시켰지요.

앞에 나온 세 편의 문장은 시라는 표식 없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단원들이다. 비록 시라는 표식은 없지만 이들은 동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율격의 시를 연속해서 몇 개씩 본문으로 제시하여 읽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정한 리듬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네번째 시는 ‘비밀련락 다니시켰지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이다. 다른 시들도 이 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율격과 리듬을 가진 시들이다.

인민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인민학교 4학년까지는 시 단원이 나오면 대부분 ‘끊기부

271. 단어로만 구성된 단원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원인데 여기에는 “아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 있다.

272. 이 단원은 두번째 단원으로 “누기누가 이기니”인데 이것을 구로 보는 것은 다른 문장 단위의 단원은 반드시 끝에 마침표가 표기된 반면 여기에서는 마침표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273. 이들의 전체적인 구성 양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어	구	단문	동시	이야기	산문	동화	계
개수	1	1	5	17	3	3	1	34

호'와 '높낮이부호'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읽기부호'가 주어지고 이것에 따라 일정한 선율을 타고 읊도록 반복 훈련시키고 있다. 다음은 인민학교 4학년 제13과에 실린 '정다운 그 소리 똑 똑 똑'이란 제목의 시의 '연습' 부분 중 일부이다.²⁷⁴⁾

4. 다음 시편을 읽기부호에 맞게 읊으시오.

아버지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그 작은 손으로
 반드는 소리///
 나이런 살림군의
 정다운 소리/
 높이높이 울려라
 똑/ 똑/ 똑///

이런 읽기는 시 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문 단원에서도 반복 훈련된다. 다음은 인민학교 4학년 제7과 일기 단원의 '연습' 중 일부이다.²⁷⁵⁾

방금 기차에서 내렸는지/ 한 할머니가 건늬길을 건너오더니/ 사방을 두
 리번거리고있었다.///
 <<평양에 처음 오십니까?>>///
 <<아니/ 늦해전에 왔었는데두 똥 모르겠구나./// 문수거리로 가려면 어
 느 배스를 타야겠는지 . . . >>///

이런 훈련은 설명문이나 일기문, 기행문 등 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반복 훈련된다.

특히 이런 식의 훈련에는 반드시 먼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놓고 그에 맞추어 따라 읽도록 함으로써 규범화된 방식을 반복하여 훈련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4.2.3.2. 고등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읽기 훈련은 반복 훈련된다. 특히 고등중학교 1학년 제11과 '유서깊은 봉화혁명 사적지를 찾아서'의 '연습'은 이들 읽기가 일정한 율동과 리듬을 강조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274. 이 '연습'은 네 가지 형으로 이루어졌는데 1번은 발음에 관한 것이고, 2번은 끊기 부호에 맞추어 끊어 읽기에 관한 것이고 3번은 끊어 읽기와 휘주어 읽기에 관한 것이다.

275. 이 '연습'은 네 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1번과 2번은 띄어쓰기 단위(예: '늦선, 해야겠는지' 따위)의 발음위에 관한 것이고, 3번은 끊기 부호에 맞게 읽는 것이고 4번은 읽기 부호에 맞게 읽는 것이다.

1. 다음의 내용을 속도표식에 맞게 살려읽으시오.

<전략>

마침 마당에 나왔던 한 일꾼이 차에서 내리서는 그이를 보고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이오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오시었다는것을 알리었다.

그이를 맞이한 도서관일꾼들의 감격은 비길데 없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책임일꾼들에게 알리려고 하였다.

(----- 빠른 속도

----- 느린 속도)

그런데 속도에 관해 특이한 점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의 속도에 관한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된 내용은 정중하게 느린 속도로 읽도록 가르친다.

여기서 아버지원수님의 말씀은 천천히 정중히 읽으면서 그에 잘 어울리게 비탄할도 보통속도로 읽어야 합니다.(고등중3:136)

선전글에 인용한 아버지원수님의 교사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은 독보식으로 읽을것이 아니라 좀 느린속도로 사상이 잘 전달되도록 정중히 읽어야 하며 앞뒤에 긴급기를 두어야 한다.(고등중3:27)278)

먼저 글을 읽을 때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나타내는 문장들은 빠르지 않게 정중히 읽어야 합니다.(인민 4:30)

4.2.3.4. 소리마루, 소리빛갈 등 낭독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방식이 일정한 규범을 제시하고서 이들 규범에 맞추어 읽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기 나름의 감정과 정서에 맞추어 개성 있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맞추어 낭독하도록 반복 훈련함으로써 일정한 규범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아이들은 마치 마스게임을 하듯이 받을 하고 있는 것이다.279)

이것은 언어 생활의 규범화가 표기나 정서의 규범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내용에 대한 감정도 규범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280) 즉 주어진 글에 대한 개인의 그때 그때의 감정은 무시되고 당연히 느끼야 할 감정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4.2.4. 감정 형상

4.2.4.1. 북한 화법 교육에서 다루게 되는 감정은 개인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가

278. 이 부분은 왕의 이름을 적을 때 한 칸을 비우고 썼던 옛 표기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279. 이런 규범화는 이 낭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 선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80. 물론 모든 감정 정서가 규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규범화의 대상은 앞서 감정정서에서 설명된 네 가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감정정서는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족 간의 화목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선전 선동과 관련되는 감정이고 이런 감정들은 규범화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북한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은 감정 형상을 철저히 규범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감정정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며 아버지원수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충성다하려는 감정정서를 비롯하여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학습과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격,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사랑의 감정,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 등이 있다.(고등중2: 93)

실제로 국어 교과서에서 예로 들거나 설명의 대상이 되는 감정들도 크게는 이런 감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화법 교육에서는 이런 소리빛갈도 규범화된다. 고등중학교 2학년 제24과 ‘읽기에서 감정정서살리기’ 부분에는 말소리 빛갈을 ‘맑은소리, 속삭임소리, 깊은소리, 얕은소리, 거센소리, 쿼은소리, 가는소리 등’으로 나누고 어떤 경우에 이들 소리가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앞서 말한 대로 언어 생활이 규범화되어 있다는 것과 주어진 내용에 따라 느껴야 할 감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종의 규범화다. 즉, 앞서 언급한 감정정서의 종류와 관련하여 어떤 장면에서 어떤 소리빛갈을 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그것을 보여 준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깊은소리빛갈로 읽는다.(고등중학교2:95)²⁸¹⁾

거센소리는 부정인물들²⁸²⁾의 말을 읽을 때 많이 낸다.(고등중학교2:95)

그러므로 처음련에서는 맑은소리에 깊은소리빛갈을 조금 물들인 기쁨과 의혹의 감정정서를 살려줄어야 하며 다음 련은 맑고 힘있는 소리빛갈로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 긍지와 자랑의 감정정서를 잘 살려줄어야 한다.(고등중학교2:11)

소리빛갈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러 곳에서 규범화되어 반복 설명되고 있다.

례를 들면 <<꽃신과 짚신>>에서 은덕이가 아버지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맵시있는 선물옷에 꽃신까지 받쳐신고 거울앞에서 기뻐 어쩔줄 모르는 대목은 맑은소리빛갈을 바탕으로 하면서 행복과 기쁨에 넘친 어조, 억양으로 된 입말투로 구연해야 할것입니다.(고등중1:82)

²⁸¹⁾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 설명된다.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의 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깊은소리빛갈로 읽는다.”(고등중2: 95)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깊고 맑은 소리로”(고등중2: 10-1)

²⁸²⁾ 북한 국어 교과서에서 부정인물들이란 ‘일본 제국주의자, 미국 제국주의자, 남조선피뢰도당, 지주’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에서 실례로 든 분장에는 원썩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정서가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집중하여 똑같은 흐름으로 읽어야 한다.(고등중2:94)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의 감정을 나타내거나 기쁨과 자랑으로 가득찬 감정을 나타낼 때 맑은소리빛갈을 기본으로 읽는다.(고등중2:95)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위대성에 몹시 감동되었을 때의 <<아>>는 성대를 열마 울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북구멍소리비슷하게 길게 뿜아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고등중2:12)

‘권습’에서 소리빛갈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일단 어떤 소리빛갈로 읽어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나서 그것에 따라 읽도록 하는 훈련을 한 뒤 이를 다른 경우에 응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다음 파들에서 아래와 같은 소리빛갈을 잘 살려읽으시오.

ㄱ. 구연교재 <<꽃신과 짚신>>에서 다음의 대화를 북음표안의 소리빛갈대로 살려읽으시오.

할머니와 은덕이의 성격과 감정을 살려읽으시오.

<<야! 쪽맞네. 할머니!(높고 깊은 소리) 이 꽃신이 참 곱지요?>>(맑고 얇은 소리)

소리빛갈은 인민학교에서는 ‘마음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라는 ‘권습’을 통해 반복 훈련된다. 이런 반복 훈련은 인민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고 있다.

2. 다음 이야기에서 밑줄을 친 발과 밑줄을 치지 않은 발은 어떤 마음이 드러나도록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시오.

인민학교 2학년의 제15과, 제34과, 3학년의 제12과, 제17과, 제30과, 제39과는 이런 소리빛갈의 반복 훈련이 ‘권습’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고등중학교에서는 ‘소리빛갈을 잘 살려’나 ‘감정정서를 살려’라는 지문으로 ‘권습’에서 소리빛갈이 반복 훈련되고 있다. 고등중학교 1학년 제18과, 제29과, 고등중학교 2학년 제25과, 3학년의 제6과가 그것이다.

그러나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모든 본문이 결국은 낭독을 위한 대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소리마루와 마찬가지로 매 시간마다 반복 훈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4.2. 감정의 규범화와 그것의 반복 훈련은 표정과 태도에서도 보인다.²⁸³⁾

레를 들면 <<꽃신과 짚신>>에서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원수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불웃음 받아안은 기쁨으로 설레이는 구연의 첫 대목에

283. 혁명가, 공산주의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며 항상 명랑하며 쾌활하며 정열로 차있다(리상매1975:142)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의 마지막 부분 ‘정열로 차있다’는 ‘정열로 차있어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란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이런 아이들이 혁명과 투쟁에 대해 말하면서 갖는 이색한 웃음의 표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는 행복과 기쁨, 감격으로 물결치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연을 듣는 사람들도 뜨거운 어버이사람에 감격하여 구연하는 사람과 어울리며 듣게 됩니다. 이것은 수백마디 말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주놈이 기름진 배를 슬슬 문지르며 <<이건 실날부터 궁상맞게, 그건 다 제명이 짧아서 그런거야, 나무나 해지고 와서 죽을것이지.>>라고 하면서 도끼눈을 부릅뜨는 것을 보고 부엌녀가 참을수 없어 지주놈을 쏘아보는 대목은 계급적원수놈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증오를 가지고 이를 가는 표정으로 구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써는 다할수 없는 힘있는 표정으로 됩니다.(고등중1 82-3)

원수놈들을 꼭 죽치고야말겠다고 할 때에는 주먹을 굳게 들어쥐고 내흔들게 됩니다.(고등중1 83)

4.2.5. 규범적 판단

북한의 국어 교육에서는 감정의 규범화 교육만이 아니라 판단의 규범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사고 판단을 규범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 판단의 규범화 교육은 주로 말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4.2.5.1. 북한의 국어 교과서 ‘련습’의 주종은 ‘무엇 무엇에 대해 써라’보다는 ‘무엇 무엇에 대해 (자기 말로) 이야기하라’이다. 이처럼 말하는 것 자체를 연습의 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는 대개의 경우 규범화되어 있으며 그 규범화에 맞추어 자신의 말로 옮겨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학교의 경우 글을 읽고 난 느낌을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결의를 말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련습’ 문제에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인민학교 3학년 제22과 ‘배움의 종소리’의 ‘련습’ 중 일부이다.

3.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옷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영실이의 모습에서 느낀 점을 다음 차례에 따라 이야기하십시오.

(□ 안에 자기의 느낌을 넣으면서 이야기한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새 옷과 학用品을 받아안은 영실이는 장군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여기서 □ 을 가슴뜨겁게 느꼈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버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소년단생활도 잘 하고 공부도 더 잘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등중학교의 경우는 주어진 글의 내용에 대한 사상을 분석하여 말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다음은 고등중학교 1학년 제26과 ‘은희에게 행복을’이라는 단원의 ‘련습’ 중 일부분이다.

2. 다음 글에서 보여주려 하는 사상적내용을 교재내용을 들면서 말하십시오.

1. 감상문 <<은희에게 행복을!>>에서 은희의 모든 희망과 행복을 깡그리 짓밟은 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놈들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은희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하여서는 바로 그놈들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것을 급희와 은희의 서로 다른 생활을 통하여 말하시오.

[말하기내용]

- 급희의 행복한 생활
- 남녘땅에서 살고있는 은희의 비참한 생활
- 급희의 행복한 생활과 은희의 비참한 생활의 대비

2. 우화 <<빼기던 바위>>에서 까치, 수리개, 바람, 둥근 달의 말을 귀담아들지 않은 바위의 신세를 통하여 조직과 동무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혁명대오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시오. <이하 생략>

4.2.5.2. 북한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다. 따라서 모든 말과 글을 시작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인용하고 이에 비추어 말과 글을 전개해 나가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토론, 선전 선동에서부터 편지, 일기를 비롯하여 심지어는 짧은 글 짓기와 같은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과 글에 해당된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줄의 글을 쓰더라도 언제나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높이 우러르며 흠모하는 말을 꼭 찾아써야 합니다.(인민3:6)

이런 토론글에서는 먼저 무엇에 대하여 토론하겠다는것을 씁니다.

그다음에는 아버지원수님의 교시를 인용하거나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 깊은 뜻을 이야기합니다.(인민3:38)

토론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자로 하여 자신의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할 일을 찾아야 하며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려는 결의가 뚜렷이 나타나게 써야 합니다.(인민3:39)

본이야기부분에서는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을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등중3:25)

먼저 짧은글은 내용이 좋게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글을 하나 지어도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우러러받드는 마음이 나타나게 지어야 합니다.(인민1-2:40)

무엇보다 먼저 편지내용에 정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에 대한 충성심이 잘 나타나도록 써야 합니다.(인민3:24)

일기를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일기쓰기에 앞서 아버지원수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루생활을 돌이켜보고 솔직하게 총화해보아야 합니다.(고등중1:71)

5. 통일을 위하여

5.1. 1996년 8월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 농성 사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서 이른바 '좌경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차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동조 성향과 거부 성향은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로 대변되는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성향일 것이다.

여기서 심각하게 닥아오는 문제는 이들의 성향이 두 가지 모두 다 극단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은 그 어느 것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북한 화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스런 몸짓, 딱딱한 표정, 선동적인 억양, 생경한 어휘 등이 한편에서는 민족적 주체성이 살아 있어서 반미 반제 국주의적인 것이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모습이라고 보는 반면 한쪽에서는 코메디물로서 웃음을 자아내거나 섬뜩함을 자아내어 대단한 저항감을 불러 일으킨다. 입수경의 방북에 관한 영상 자료 가운데 어린 유치원생이 통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보고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까지도 가슴으로부터 저렇게 간절히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저렇게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한 예이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화법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과 지역 방언의 시대적 변천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일반적인 화법이 그것이다.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은 평양을 거점으로 한 반서울말 언어 정책과 사상성 강화와 적개심 고취를 위한 각종 언어 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두음법칙을 무시한 어두 리, ㄴ의 발음이라든지, 소리마루에 의한 선동적인 억양의 강화라든지, 김일성에 대한 극단적인 찬양과 '원썩'들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증오심을 담은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규범적인 감정 형상화라든지, 김일성의 교시와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 사교 판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적 요소들이다.

반대로 방언의 언어적 표현, 선전 선동과 무관한 일상적인 억양,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 인간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혈연이나 인연에 의한 설득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시대적 변천 과정을 거치며 내려온 화법적 요소들이다.

5.2. 통일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 화법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적합하고 좀더 바람직한 화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북한 화법의 이중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코메디물로 등장하는 '북한 말'이 북한 화법의 전부가 아니라 이중적 구조의 한 측면을 알도록 해야 하고, 특히 이런 '북한 말'이 일상 생활의 화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북한 화법의 방언적 요소들마저도(예를 들어, '이서 가지요, 먹자요' 등과 같은) 모두 선전 선동을 위한,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북한 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써 '북한 말'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무조건적인 거부감은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주체사상적인 '북한 말'이 선전 선동을 위해 목적으로 규범화되고, 교육 훈련(세뇌)된 발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어린 유치원생의 말은 그렇게 하도록 교육된 것이기 때문이지(혹은 그렇게 길러져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맹목적인 동조 성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규범화되어 있고 길러졌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이지만 자신의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범화되어 있지 않고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화법이 학교 교육의 내용으로서 자리잡아야 하고 북한 방송 내용 선별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북한 화법의 실체를 학교 교육을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북한 화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런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맹목적인 동조보다는 규범적 사고와 감정 형상화와 발투와 언어적 표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면역 효과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에서 주로 방영되는 북한의 방송이 선전 선동을 위한 장면, 즉 주체사상적으로 무장하여 남한과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대화와 같이 비목적적인 화법의 장면들, 즉 남한과 거의 같거나 북한 사투리의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로 인식되어 주체사상과는 거의 무관한 내용이 함께 방영됨으로써 북한 화법이 코메디물로만 취급되거나 거부감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일을 위한 대비의 과정은 남북한 화법의 단순한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바람직한 우리 민족 화법의 정립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

북한 화법의 두 축 가운데 한 축인 방언적 요소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은 당연히 그것을 '북한 말'보다는 '북한 사투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호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로 인한 패배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쓰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보다 '열등한' 말이라는 생각이 실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북한 화법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 화법의 한 축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목적적인 선전 선동을 위한 화법이다. 이 화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은 앞서 살핀 대로 결국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정리, 선전 선동의 언어적 표현과 소리마루와 감정의 형상화, 김일성의 교시와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 사고 판단의 규범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전 선동을 위한 언어적 표현과 소리마루와 감정의 형상화, 김일성의 교시와 당성, 인민성, 계급성에 바탕을 둔 사고 판단의 규범화 등은 통일 이후에는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통일을 통해 선전 선동의 의의와 대상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김일성의 교시나, 당성, 인민성, 계급성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이런 대상의 상실로 인한 갈등에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특

히 1960년대 중반 주체사상적 언어 정책 확립 이후 교육 받은 세대들에게서 심각하리라고 본다. 이런 상실감은 심할 경우 자아 정체성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정리는 남한에서도 대학가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서 많은 언어적 표현들을 우리 고유어 중심으로 고치려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것은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 민족의 화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려 할 때 긍정적인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고영근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김민수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녹진.
 김영배(1992).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김형찬(1990).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사.
 남성우·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박호성(1989).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까치.
 송기환역(1994).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신일철(1993). 「북한주체철학 연구」. 나남.
 윤진·최상진역(1992). 「사회심리학」. 탐구당.
 이규호(1985). 「말의 힘」. 제일출판사.
 이만우역(1994). 「언어와 유물론」. 백의.
 임철성역(1996).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진영우(1991). 「한국근대토론의 사적 연구」. 집문당.

* 북한 자료

- 인민학교 국어 1-1부터 4, 교육도서출판사, 1990년 발행(1-1, 1-2) 1991년 발행(2,3)
 고등중학교 국어 1부터 3, 교육도서출판사, 1990년 발행(3), 1990년 발행(1,2)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이론」(1975). 사회과학출판사.
 「조선어학개론」(198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국어교수법」(1973). 교육도서출판사.
 강창조(1990). 사회주의적만족어건설의 원칙적문제들에 관한 주체의 언어이론의 심화발전. 언어학론문집 8.
 김동수(1983). 「조선말배결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남영희(1985). 공산주의적인간의 언어생활규범에 대하여. 언어학론문집 6.
 리상비(1975). 「조선말화술」. 사회과학출판사.
 한진건(1990).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인민인민출판사.
 「조선말규범집」(1966). 사회과학원출판사.
 「<<조선말규범집>>해설」(1971). 사회과학출판사.
 「의리」(1991). 문예출판사.<단편소설집>

三次元的 文化構造를 통해 본 北韓住民의 價値定向 研究

- 南北韓 文化統合을 위한 試論 -

研究責任者：吳 基 城(北韓研究所)

목 차

<요약문>	325
1. 서 론	331
1.1 연구의 목적	331
1.2 개념적 틀	334
2. 북한 문화의 3차원적 구조와 양태	336
2.1 이념(체제)문화의 차원	336
2.2 행동문화의 차원	340
2.3 용구문화의 차원	344
3. 3차원적 문화구조에 따른 주민의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347
3.1 공식적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347
3.2 비공식적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350
4.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인식의 전환	353
4.1 남북한 사회·문화체제의 기본적 특징	353
4.2 문화통합의 가치 정향 재인식	357
4.3 '우리'의식을 통한 문화통합 再考	359
4.4 가치정향의 변증법적 통합	360
5.결 : 문화통합의 위한 정책 방향 재언	364
5.1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문화교류 및 협력의 개선 방향	364
5.1.1 남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체제중심적 사고의 지향	364
5.1.2 문화 교류 및 협력의 개선 방향	367
5.2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371
5.2.1 전통적 윤리의식의 측면	374
5.2.2 민족공동체교육의 측면	375
5.2.3 평화교육의 측면	377
5.2.4 민주시민교육의 측면	379
※참고문헌	382

〈요 약 문〉

I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일반에 대한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적 관점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문화를 구조적 차원에서 분류하여 봄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 체제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의 관계를 통해 공식적 가치정향과 비공식적 가치정향을 구분하여 북한문화와 주민들의 비교적 최근의 가치정향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시안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를 구조적 분화양식에 따라 이념(체제)문화, 행동문화, 用具文化라는 3차원적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이념문화는 사회성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의 문화로서 이는 체제를 구축한다. 반면 행동문화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규범이나 관습의 문화이다. 그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용품, 시설 등의 생활수단에 관련된 문화이다. 여기서 이념문화는 관계적 정치문화(상위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개의 하위문화는 주민생활문화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에 있어 이념문화를 살펴보면,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1980년대에 도입되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기초가 되어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행동문화는 사람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한다. 북한에 있어 행동문화는 주로 집단주의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상부상조적 관습, 금욕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용구문화는 생활용품과 시설 등 생활수단, 즉 衣 食 住 등의 생활분야를 말한다. 우선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해방 이후 부족한 옷감과 피복 생산시설은 의생활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기왕에 입던 조선옷을 기반으로 하여 양복(현대복)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작업복이 늘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사회의 옷 종류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이 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은 국가의 의류 공급체계에 따라 배정된 것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자체 조달하는 방법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배정품이고 후자는 자유판매품이거나 농민시장에 유통된 물건이다. 배정품은 세대별로 지급된 공업품목카드에 기록된 한도내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공급된 양과 질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물론 기준량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특히 속옷류의 사정이 심각하다.

두번째로 식생활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일치된 결론은 북한의 음식에서 전래 토속적인 입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

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식문화는 절대생계비와 공급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여 욕망의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먹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보다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일정하게 배고픔이 변해지면 보다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된다.

세번째로, 주생활문제를 보면, 북한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주생활의 기본은 집단살림집인 아파트 개념이다. 북한 건축의 현재도 대개 아파트식의 공동주거양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공동주거양식을 채택하면서도 온돌 같은 민족적 주거양태만은 여전한 것이다. 건축에서의 민족적 형식이라는 문제는 북한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현재 주택 보급률은 약 65% 수준인데, 북한은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는 100% 주택을 배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 특히 노동자의 주택배정은 57% 수준밖에 안되고 있어 1주택 2세대 거주가 흔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대규모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아파트 건설도 미진한 상태에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례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3차원적 분석을 통해 볼 때, 북한에 있어 문화는 체제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특히 이념문화의 영향이 클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문제 등은 체제가 지향하는 문화, 특히 이념문화가 규정하고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념문화에 의한 공식적 가치정향이 주민들에게 수용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와는 별도로 행동문화와 용구문화와 관련된 비공식적이면서 실제적인 가치 정향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공식적 가치정향은 우선 사회주의적 이상적 인간관. 둘째로, 공산주의 윤리도덕, 세째로, 인성주의와 열정적 헌신의 강조, 네째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비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 사회의 주민의 비공식적 가치정향은 주로 두 측면에서 공식적 가치정향과 차별성을 나타낸다. 하나는 이념이나 정치·경제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치정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와해, 동구 공산권의 몰락, 중국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유학생이나 북한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으로 인한 비공식적 가치정향 형성이 그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비공식적 가치정향의 형성은 체제내의 일탈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김일성 일인독재구축과 김정일 권력세습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박해,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기본권의 박탈 등 북한체제의 철저한 억압과 통제에 기인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생활기회의 불평등과 북한경제의 원천적인 낙후성에 기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심화 등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김일성 일인독제의 비인도적

인 주민생활의 통제, 만성적인 북한정권의 관료주의적 병폐 및 계층간 차별대우, 일반주민의 노동동원과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소환 조치와 방북인사 초청, 그리고 해외교포의 초청으로 인한 자유사회에의 노출이 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II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양문화는 각기 상이점을 지나는 동시에 공통점을 보이는가 하면,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남북한 문화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상품화, 외래 사조의 부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민족문화의 적극적인 유지, 통합기체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도구화, 획일화, 강제적 문화수용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의 문화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두가지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다. 물론 남북한 어느 쪽도 지배모델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에 의해 대립이 두드러질 경우 상호의존적 통합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 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가지 문화통합의 모델에서 그 장점을 취하여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하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론의 모형은 ‘나’와 ‘너’의 통합으로서 ‘우리’ 모형이다. 즉 남북한 통합의 역사 문화접근 모형이다. 이 통합과정은 쌍방간의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속에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발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체제에서는 전통문화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었으나, 공산주의의 이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통적인 우리의 식을 이용하여 ‘우리’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체제는 전통문화에 자유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토착화되었다기 보다는, 이질적이고 혼합된 상태에서 전통적인 ‘우리’의식의 파괴로 이기주의적인 ‘나’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양 문화에 있어 전통적 요소와 근대화의 결과에서 많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외부로부터의 거의 강제적으로 부과된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가 주로 이질화의 요인이었다면, 인

위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전통과 근대성이라는 동질성이 쉽사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타당하게 보인다. 바꾸어 말해서 이념적, 체제적 이질화는 인위적인 것이었으므로 비록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듯이 보이는 이질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것들은 또다시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에 비하여 동질적인 것은 그러한 이념적이고 체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전통과, 근대화를 치르는 사회라면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격어야 하는 종류의 변화에서 결과한 공통성이 같다면, 이는 의식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연속성과 변화인 만큼 앞으로 통일후에 동질성의 회복을 시도할 때 적극적인 기여를 할 성질의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통합모델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문화교류 및 협력의 개선방향의 측면을 살펴보면, 그 논의에 있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체제중심적 사고의 지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분야의 논리가 그외 여타 분야의 개별성과 특이성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남북한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면, ① 궁극적인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이 부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②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화와 의식주의 주민생활문화가 교류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③ 반면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남북간 이질화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통합에의 장애물로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④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의 시공간적 분리이다. 즉 정치적으로 대결적 의식이 침해화되는 시공간적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로 인해 모든 교류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보면, 먼저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 문화를 보아온 우리의 인식의 틀을 자각·수정하고,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식을 중대시키는 동시에 이질화를 극복하며, 양문화의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러한 측면이 통일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가운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살려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질성회복을 위해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전통적 윤

리의식의 측면, 민족공동체교육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으로 설정하여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상의 네가지 영역은 서로 독립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와해, 그리고 냉전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패권화에서 다극화로 이행, 상호의존에 따른 국제적 경쟁과 협력, 유럽의 국가통합과 미국주도의 북미경제권 형성 등 블록화 추세와 이에 따른 대응블록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의 가운데 남북한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통일 환경은 미북한간의 핵문제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의 전환기적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독의 갑작스런 통일은 우리에게 부러움과 동시에 놀라움으로 다가왔으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와 더불어 동서독의 통일 이후 발생하고 있는 후유증을 복격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통일을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감지하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단순한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귀가 아니며, 또한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체제간의 통합일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데에 그 중요성을 두게 되었다.²⁸⁴⁾

그러나 기존의 통일 연구 및 논의는 특정분야의 학문영역, 특히 정치학이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로 이루어짐으로써 때로는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이룩된 남북한의 대결구도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편향적 시각과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반면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그 연구 관심이나 연구내용의 축적이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두가지의 왜곡된 형태로 형성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글이나 대중매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북조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과 ‘촌스럽다’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⁸⁵⁾ 여기서 ‘불쌍하다’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며, ‘촌스럽다’는 것은 이미 남한 안에서 거처온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이제야 거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즉 근대성을 성취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중심적

284) P.J.Opitz와 D.Herz는 동서독의 통합문제를 다루면서,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화는 독일의 실패에서 보듯이, 어려운 점이 많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진적 과정으로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 본다. 반면 그들은 한반도가 (통일문제에 있어) 독일보다 더 쉽게 동포애라는 관념에 의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Peter J. Opitz and Dietmer Herz,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Sino-Soviet Affairs, Vol. XVIII, No. 4 (Winter, 1994 / 5), p.237 ; 이러한 지적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문화적 통합의 문제가 어려운 과정임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통일후의 동서독간 문화통합보다 한반도 문화통합문제에 있어 동포애라는 장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285) 조혜정,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만족주의와 진보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1995. 11. 28), pp.25-26.

자본주의 발전의 적도로 자신들이 거처온 시대, 60년대를 연상시키는 '낙후된' 북한을 '촌스럽다'든지 '불쌍하다'라면서 우월감과 동정으로, 지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이들은 더 이상 근대화가 유토피아의 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지점에서, 근대화 이전의 '목가적 분위기'와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향수를 북한을 통해 달려고 싶어한다. 이때 이들이 들먹이는 북한에 존재하리라고 믿고 싶어 하는 '민족성'이나 '고유문화'의 정체성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상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시선은 민족주의자의 시선이다. '장구한 세월'에 비해 40여년의 분단이 무슨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냐고 묻는 이 시선은 순진한 낙관론으로 차 있다. 이 순진함은 80년대 통일운동을 지배했던 '그날이 오면 죽어도 좋으리'라는 식의 정서에 혈육과 원초적 집단, 그리고 '순수한 민족정기'로 특징지어지는 민족의 존재를 결합시킨 것으로 통일을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그 실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동서냉전 구도하에서 대결상대 내지 경쟁상대를 전제로 한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²⁸⁶⁾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통일연구나 통일정책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는 쉽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통일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나머지 문화를 정치, 군사에 대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²⁸⁷⁾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문화 개념의 복잡성과 추상성 때문에 연구별로 개념정의 및 연구의 초점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우선 통일문제에 있어서 문화분야의 연구는 문화예술계 내지 인문학계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들은 문화의 개념과 연구의 초점을 구체적인 표현의 양식에 대한 부문별 연구에 두고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⁸⁸⁾ 반면에 사회과학계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부문별 행동양식을 포괄

286) 이러한 경향은 남한이 보는 북한측 체제와 통치자에 대한 호칭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 2, 3공화국 시대에 남측은 북측체제를 '북괴' 또는 '김일성 괴뢰집단'이라고 불렀으며, 북측 통치자에 대해서도 '김일성괴수'라고 불렀다. 제4공화국 초기에는 '북괴'와 '북한'이 혼용되다가, 이후 점차 '북한'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어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북측 통치자에 대해서는 4, 5공화국때는 그냥 '김일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6공화국에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북방, 통일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북측체제에 대한 호칭도 공식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북측 통치자에 대해서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김일성주석'이라고 부르는 등 보다 공식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즉 긍정적인 은유로의 전환은 통일연구 및 통일논의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 Yoo Young Ock, "Promoting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North Korea ; A Shortcut to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V, No.4 (Win, 1993), p.49 참조.

287) 윤덕희,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민족통일(민족통일촉진회), (1995. 1, 2월), pp.72-73 참조.

하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가치관, 삶의 양식 등을 초점을 맞추어 조망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289) 따라서 통일연구에 있어서도 문화개념이 통일되지 못하고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인문학계와 사회과학계가 상호 협조하는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통일과 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다. 통일이란 unification 또는 reunification이란 영어 낱말이 시사하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영토통합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통합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한 국가를 형성할 때, 즉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말할 수 있다. 문화통합은 통일이 만들어 내는 상황이고 통일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통일이 완성되면 문화통합이 시작된다. 반면 통합은 integration이란 낱말이 시사하듯이 두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290) 동시에 여기서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라는 의미에는 체제 구성원의 조화로운 생활세계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세째, 기존의 통일관련 문화 연구는 주로 민족사적 정통성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 문화의 이질화 규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아울러 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문화적 동질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통합의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 관심은 어디까지나 현존체제를 명분화하는 연장선상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이 수완 좋은 정치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민족의 장래라는 담보물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수의 정치가들이 연출하는 해결사적인 몸짓이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작품의 전체적 제작과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즉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은 바로 민족공동체 전체가 살아온 삶 그 자체인 것이고, 이 삶으로부터 통일을 향한 원동력과 추진력이 생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민족공동체를 근거로 하고 있는 통

288)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로는 북한의 문화정보 1, 2 (고려원 간행, 1991),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간행, 1995),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대동신서, 1995) 등을 들 수 있다.

289)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저는 주로 통일원 (예 ;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남북한 사회문화체계 비교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 통일문화지향과 문학예술,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동향)과 민족통일연구원 (예 ;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에서 주로 출간되었다.

290) 차재호, 남북한 문화통합의 심리학적 고찰, 북한문화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제1집 (1993), pp.79-80 ; 이러한 측면에서 차재호 교수는 통일의 형태를 완전한 통일을 연방식의 통일, 기능주의적 통일 등의 몇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은 형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질된 통합과 잘 안된 통합, 그리고 그 중간의 여러 수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통합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통합의 모델 예컨대 지배적 모델이나 공존모델에 대한 고려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의 개념일 것이다.²⁹¹⁾

그래서 통일이라는 작품은 일회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일 수 없으며, 통일 이후에 전개될 민족공동체의 삶에 관한 충분한 문제의식의 전제위에서 숙고되어야 한다. 정치군사적으로 해결된 통일이라는 상황이 곧바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통일국가의 국민과 시민의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이한 문화적 구조속에서 40여년간 형성되어 온 가치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일반에 대한 문화인류학과 민속학적 관점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문화를 3차원적으로 분류하여 묶으로써, 북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 체제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의 관계를 통해 공식적 가치정향과 비공식적 가치정향을 구분하여 북한문화와 주민들의 비교적 최근의 가치정향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시안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1.2 개념적 틀

일반적으로 시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세가지 존재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향유해 오던 것을 이어 받은 문화와 외국에서 받아들인 문화, 그리고 주체적으로 지어낸 문화가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는 전승적인 것(전승문화), 수용적인 것(수용문화), 창조적인 것(창조문화)이 병립적으로 존재한다.²⁹²⁾ 또한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가에 따라서 그 문화의 존재 양식도 일정하지 않다. 즉 한 민족 집단 내부에서 어느 계층이 주로 향유하는 문화인가에 근거하여 민중문화, 엘리트문화, 대중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가 생성되고 유통, 축적되려면 전승매체가 있어야 한다. 문화의 전승매체는 실로 다양하지만 크게 언어, 행위, 물질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의 문화, 글의 문화, 전파문화로 분류될 수도 있다.

반면 우리는 문화의 통시성과 공시성을 포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문화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화개념이 지니는 적어도 두개의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보다 통상적이고 제한된 의미의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서, 여기서 문화란 '상징적 형식의 영역'이다.²⁹³⁾ 종교적 형식들을 포함하는 문학, 공연예술, 미술, 음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하나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의미의 영역'이다. 일련의 상호 정합적이고 통일된 태도, 가치, 믿음, 관습 및 행동양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정돈된 우주로 질서지워지며, 그 안에서의 인

291) 전경수, 서명철, 통일사회의 제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5), pp.4-5.

292) 林在海, 민족문화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9), pp.38-55 참조.

293) 김이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제1집 (1988), pp.20-21.

간의 위치가 규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톰슨은 문화의 개념을 기술적(descriptive) 개념과 상징적(symbolic) 개념으로 분류한다.²⁹⁴⁾ 전자의 경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테일러(Tylor)와 말리노프스키(Malinowski)가 포함된다. 그들의 경우 “사회 또는 집단의 문화는 일련의 신념, 관습, 이념 및 가치 뿐 아니라 물질적 가공물, 대상과 수단이며, 이것들은 집단 또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획득되어 지는 것이다”라고 정의된다. 반면 상징적 개념에 있어서는 기어츠(Clifford Geertz)와 화이트(L. A. White)가 포함된다. 이들은 “문화란 행동, 토론 및 의미있는 다양한 류의 목적을 포함하는 상징적 형식으로 구체화된 의미의 유형이다. 이는 구성원들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경험, 개념, 신념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 진다”고 정의된다.

이와 같이 문화를 두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은 공히 양측면의 문화를 소유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는 당의 일원적 통제하에서 자유로운 시민사회나 시민문화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에서 존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북한에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그 변형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면 관념적으로나마 그것을 ‘주민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문화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주민생활문화를 상징할 경우에, 이것과 대칭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문화구성요소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제적 정치문화’일 것이다.²⁹⁵⁾ 물론 주민생활문화는 하위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삶의 방식이라고 해도 상위문화가 규제하는 테두리안에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이러한 성격을 지닌 북한 문화를 우리는 구조적 분화양식에 따라 이념(체제)문화, 행동문화, 用具文化라는 3차원적 분석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북한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이념문화는 사회성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향의 문화로서 이는 체제를 구속한다. 반면 행동문화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규범이나 관습의 문화이다. 그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용품, 시설 등의 생활수단에 관련된 문화이다. 이념문화는 앞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관제적 정치문화(상위문화)라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두개의 하위문화는 주민생활문화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⁶⁾

문화인류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화는 학습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즉 인간은 특정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학습할 능력만을 갖고 태어난다. 그가 그런 능력

294) Thompson, John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pp.127-132.

295)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484.

296) 이와 같이 문화를 3분류하고 보면 남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질화는 이념문화에서 발견된다 ; 고영복, 문화와 성격구조의 이질화, 통일정책(평화통일연구소), 제3권 제4호 (1977), p.172

으로 어떤 문화를 학습할 것인가는 성장과정에서 그가 접한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²⁹⁷⁾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가 인간의 의식구조나 가치정향을 제약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니는 체제문화를 가질 경우, 문화는 인간의 가치정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반대적인 작용은 극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가 교호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상하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념문화(상위문화)가 하위문화(행동문화와 용구문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반드시 기계론적 질정론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에 따라 우선 북한 문화를 3차원, 즉 이념문화와 행동문화, 그리고 용구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조와 양태를 살펴보고, 둘째로, 이러한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북한 주민의 가치정향을 공식적 측면과 비공식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의 문화를 보는 시각 내지 인식의 틀에 대한 제고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화 양태와 동질성의 잔존형태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을 위한 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 문화의 3차원적 구조와 양태

2.1 이념(체제)문화의 차원

북한에 있어 이념문화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1980년대에 도입되어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 기초가 되어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북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이 당연사 된다. 왜냐하면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의 내용은 그 자체로 누구나가 습득하고 체화해야 하는 사회적 담화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이 이론구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²⁹⁸⁾ 동시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근본원리로서 인간중심론과 인간관으로 대별되는 '철학적 원리', ②사회역사운동의 본질과 성격 그리고 추진력을 설명했다고 하는 '사회역사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종합해 볼 때, ① 주체의 확립은 주인다운 태도의 견지, ②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의 견지를 의

297) 한상복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pp.70-71.

298) 이종석, 북한의 이해 -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60.

미하여, ③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사상 체계라는 세함으로 집약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어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데 확고히 견지해야 할 최고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 ‘유일사상체계’도 주체사상체계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체사상은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원칙’이며 ‘유일사상체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란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복종’하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설명,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이념(체제)문화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체사상은 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의 측면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②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원칙으로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로 나타나게 된다.²⁹⁹⁾

그러나 1980년대에 주체사상체계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도입됨으로써 주체사상은 내용 변화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현재 북한의 이데올로기에서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자기 체계의 이상향인 동시에 수령제를 정통화하고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또 그것은 대내적,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강고한 단결을 구성원의 내면신조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였다.³⁰⁰⁾

김정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였다. ‘수령론’이 권력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려는 논리라면, ‘정치적 생명론’은 시간적 측면을 해설하였다. 양자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통합된 것이다.³⁰¹⁾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하여 김정일은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중심적 개념은 혁명적 수령관이 된다.³⁰²⁾ 따라서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것은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가 이루고있는 본질적 관계의 하나이다. 수령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올바른 혁명로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대오에 묶어세워 굳게 뭉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으로써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형성된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고유한 충성의 관계

299) 오기성, 북한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북한, 5, 6, 7월호, (1990), pp.195-196 참조.

300) 스츠카 사야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명구역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p.158.

301) 이러한 측면은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김정일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체, 즉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 김정일,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제7호 통권 534호 (1987) 참조.

302) 김정일, 상계논문, p.13.

가 가지는 본질적특성을 그대로 체현할 때 참다운 것으로 된다”고 주장된다.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고유한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성의 관계는 신념적이고 낭상적인 관계인 동시에 중요하게는 도덕의리적관계이다.”³⁰³⁾

따라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그 실현방법을 밝히는 혁명 사상을 창출하는 존재, 당·혁명조직을 건설하고 인민대중을 단결시키는 존재,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 건설사업을 지도하는 존재, 그리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총괄하고 하나로 통일시키는 단결의 중심인 존재이다. 따라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였다.³⁰⁴⁾

이상의 주체사상을 토대로 하여 북한은 『현대조선말사전』에서 문화를 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력사발전의 행정에서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의 총체, 특히 사회발전의 매단계에서 이룩된 과학과 기술, 문학과 예술, 사회도덕과 풍습등을 말한다. 매개 나라의 문화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사회에서 문화는 철저한 계급적 성격을 띤다. 둘째로,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세째로 현대적 요구에 맞는 문명한 생활양식³⁰⁵⁾”이다.

또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에 의하면 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문화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의 것이며 사회적 인간의 발전역사와 함께 발전해왔음을 밝히면서 문화의 세가지 존재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⁰⁶⁾

첫째로, 문화에는 우선 사람이 창조한 정신적 및 물질적 재부가 속한다.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창조물인 물질적-정신적 부, 문화적 가치의 증대과정이다.

둘째로, 문화에는 사유으로 자연적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고유한 활동방식이 포함된다. 문화의 발전과정은 그리하여 바로 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방식의 발전행정이다.

세째로, 문화에는 또한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포함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람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화의 개념적 내용을 이루는 사람의 활동방식을 규정할

303) 백성향,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된 충실성, 철학연구, 제3호 (1994), p.26.

304) 김형인,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 글로자, 제1호 통권549호 (1988), pp.19-21 참조.

305) 반민 『문학예술사전』은 문화를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물질문화란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이룩한 생산수단과 기타 물질적으로 가지있는것을 통틀어 이르는것이고 정신문화란 사회발전의 매 단계에서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도덕 및 기타 정신생활분야에서 이룩한재부를 통틀어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정신문화만을 문화라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사회과학출판사편, 문학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66과 사회과학원 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서울 : 백의, 1988) 참조.

306)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서울 : 조국, 1989), pp.19-21.

뿐만 아니라 물질적 및 정신적 부인 문화적 부에도 체현되게 된다. 이러한 자주성은 자주의식으로, 창조성은 창조적 능력으로 인간활동에 작용한다. 그리하여 자주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떼어 놓고는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으므로 문화는 그것들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북한 문화건설의 주요 목표는 민족성과 계급성 그리고 혁명성에 그 바탕을 둔다. 민족성의 차원에서 문화건설의 목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것과 민족을 문명화하는 것’³⁰⁷⁾에 두어진다. “문화건설이 민족을 문명화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을 더욱더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³⁰⁸⁾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문화를 더욱 더 문화적인 사회적 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³⁰⁹⁾ 따라서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합된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주체적으로 건설할 때 인민대중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성장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적 특성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문화론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는 계급성의 차원에서 두 형태로 분류된다. 하나는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하는 문화로서 진보적인 문화이며, 다른 하나는 착취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담고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복무하는 문화로서 반동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계급적 문화를 건설하는 것 만이 사람들을 낡고 반동적인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³¹⁰⁾

이러한 민족적 계급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문화는 혁명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혁명은 사상, 기술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여기서 문화혁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혁명이란³¹¹⁾ 첫째, 근로인민대중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을 능력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낡은 문화의 잔재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이룩하는 것이며, 셋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사회주의의 모든 문화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곧 문화혁명이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진실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여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의 힘

307) 박승덕, 상계서, pp.28-29.

308) 민족의 문명화는 민족의 물질문명을 이룩하는 사업과 정신문명을 이룩하는 사업으로 이루어 진다. 전자의 중요한 측면은 자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며, 후자의 중요한 측면은 자체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 자체의 예술을 발전시키는 일, 도덕의 진보를 이룩하는 일이다 ; 상계서, pp.29-35 참조.

309) 이춘길, 북한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p.14.

310)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p.313.

311) 김일성저작선집, 7권, p.272.

있는 개조자,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만들며 인민대중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분야에서의 변혁을 의미한다.

2.2 행동문화의 차원

전술한 바와 같이 행동문화는 사람들의 규범이나 관습을 의미한다. 북한에 있어 행동문화는 주로 집단주의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유대의식,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상부상조의 관습, 금욕주의와 인내의 정신, 배타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집단주의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유대의식을 살펴보자.

북한에 있어 집단주의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자아의식을 버리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³¹²⁾ 이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이기때문에 집단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뗄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이 지배하게 된다”³¹³⁾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사회와는 달리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거기에서는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이 지배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될수 없으며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하고 물질적 부가 늘어나도 사람들은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할수 없다”³¹⁴⁾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살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된다.³¹⁵⁾

이러한 측면은 협동, 신의, 겸손, 동료애, 규칙준수, 공익봉사, 책임감 등의 덕목에 대한 강조를 통해 집단주의적 가치정향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미리 정해진 사회전체의 목표에 맞게 조직화하여 전체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인간으로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³¹⁶⁾

또한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은 김정일에 의해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통해 더욱 강조되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생명 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

312) 이서행,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이질적 가치관의 극복과제, 정신문화연구, 제15권 2호 (1992), p.122.

313) 방정학,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활동방식, 근로자, 제3호 (1989), p.60.

314) 상개서, p.60.

315) 김일성저작집, 제29권, p.35.

316) 박성희, 교과서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1994, 겨울), p.205.

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수 있습니다”³¹⁷⁾

나아가 이러한 집단주의 의식은 집단주의를 신앙화시키고³¹⁸⁾, 집단주의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학습을 계속하고 노래와 춤을 동원하고 계속 감동적인 일들을 고취시키는 경향이 있다.³¹⁹⁾ 동시에 이러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북한 사회는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른바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³²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체적 유대의식이 형성되기도 한다.³²¹⁾

다음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의 형성이다.

북한체제는 아버이를 수령으로, 로동당을 어머니로, 국가를 사회주의적 대가정으로 변환시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를 체제화시켰다. 즉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여 개체가 매몰당한 집단성과 전체성을 강조한 ‘우리’만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³²²⁾ 따라서 횡적 구조인 ‘나’는 존재할 수 없으며 종적인 구조인 ‘우리’만이 존재하는 수령 아버지체제로서의 가부장적·가족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하였다.

물론 정권수립 초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족주의에 대해서 북한은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을 강조한 시기부터는 오히려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족 또는 가족주의는 경로사상과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³²³⁾ 이는 경로사상의 연장이 바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시에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사회는 수령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수령이 세계관의 핵

317)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64.

318) 이러한 측면은 북한청소년의 성향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들의 성향은 주로 ① 단결력이 강하다, ② 침착하다, ③ 사리분별이 강하다, ④ 집단을 먼저 생각한다, ⑤ 맺고 끈는 것이 명확하다, ⑥ 임무에 충실하다, ⑦ 참을성이 강하다는 보고에서 잘 나타난다 ; 최현, 김지영, 청소년 성격 형성 과정에 관한 남북한 비교연구,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1993. 6. 11-12), pp.187-188.

319) 조광동, 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 (서울 : 정보믹스, 1994), p.135.

320) 특히 노동신문에서는 항상 3-4면에 각계 각층의 모범적인 노력영웅이 소개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321) 집단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려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과업, 근로자, 제5호 (1991) 참조.

322) 한정일,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1994. 7. 19-20), p.11.

323) 고성준, 북한정치이념과 전통정치문화의 상호관련성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0호 (1991), pp.160-161.

심이 되는 수령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³²⁴⁾인 것이다. 이는 왕이나 황제가 사회구성의 중심이 되고 세계관의 중심이 되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교적 전통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아같은 개인숭배를 아무런 꺼리낌없이 수용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명백해질 알게 된다. 주지하듯이 유교적 가치관 및 세계관은 善과 함께 무엇보다도 특히 忠(존경, 충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유교는 혈연적 공동체내에서 효를 중심에 두고 개인에게 영원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그 중심에 수령에 대한 충성을 두고 개인 생명의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에 연계된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수령에 연계된 북한사회, 즉 민족에까지 확대되었다.³²⁵⁾ 민족의 태양은 김일성이고 자신들이 태양민족이며 따라서 김일성민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라는 호칭은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와 자식간의 혈연적 관계를 국가차원으로 확대시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는 부모의 역할과 인민에 대한 자상함을 지닌 신과 같은 이가 바로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김일성이며 이를 바로 김정일이 계승하고 있는³²⁶⁾ 것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충효관을 ‘국가가부장제’에 교묘히 적용시켜 ‘유기체적 가족국가관’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³²⁷⁾ 이것은 즉 인민대중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된 효도의 연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사회, 즉 가족국가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⁸⁾

결국 북한의 경우 충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전까지의 대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던 충성을 전체국가에로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³²⁹⁾ 즉 북한은 단일의 거대한 가문으로 구성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배의 안정장치라는 의미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강요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든간에 모든 북한 주민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 내부집단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는 충성이 제1의 계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³³⁰⁾

324) 도홍렬, 북한사회변화와 주체사상, 동아연구, 제13집 (1988), p.159.

325) 스톱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전개서, p.184.

326) 박성희는 가부장적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이에 대한 인민의 끝없는 감격과 열정적인 헌신을 지나친 인정주의의 한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 박성희, 교과서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전개논문, p.199.

327) 유교문화가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논의는 이문웅, “남북한 사회의 민천과 전통유교문화 :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 국동문제연구소, 1996), pp.135-160 참조.

328)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육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전개서, p.394.

329) 고성준, 전개논문, p.163.

세째로, 금욕주의를 들 수 있다.

귀순자나 북한사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때묻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이라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상고백과 함께 방문기나 취재기사 속에는 북한사회의 금욕주의적 면모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상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탐욕주의적 규범과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사회가 상당할 정도로 금욕주의적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³³¹⁾

특히 교과서에는 근면과 반성 등의 가치덕목을 통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특히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억제하거나 거부하는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³³²⁾ 물질을 탐하거나 그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않으면서 항상 검소한 생활가운데서 자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개인,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하고 비판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개인 등 마치 중세기의 수도승같은 개인의 상이 가장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금욕적인 생활속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적 가치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가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외현적인 가치, 즉 실질적인 생활규범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네째로, 배타주의적 측면이다.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미군으로부터의 피해의 경험이다. 이것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적 문화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윈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된다.³³³⁾ 이는 김일성에 의해 그리고 북한 지도층에 의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은 자신의 신정적 지위를 정당화할 때도 그렇지만, 대중을 선전선동할 때도 주요 준거집단을 과거에 두도록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삶이 그들 준거집단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나아졌다는 믿음을 지니도록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하층주민에게 있어서 비참한 과거는 봉건사회였던 조선조말의 피폐했던 사회와 일제시

330) 김일성 사후 북한의 『청년문학』을 검토해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한 인민들의 흥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은희의 “문수봉기슭의 효녀”에서 “……이는 수령님과 령도자의 심려를 어떻게 하나 덜어드리려는 충성과 효성의 넋이 골자로 배겨있는 배짱, 당에서 하라고 하면 죽어도 해낸다는 무조건성의 신념이 숨배여있는 배짱이다.”라는 구절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김은희, “문수봉기슭의 효녀”, 『청년문학』 (1995.3), p.56.

331) 유재천, 사회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1)-21세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 11), p.71-72 참조.

332) 박성희, 교과서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 전개논문, p.199.

333) 1960년대부터 1995년까지의 소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소설들이 그 비중이 있어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예는 조용득, “어느 한 전구에서”, 『조선문학』 (1972. 8-9)와 정영종, “사공령감”, 『조선문학』 (1995. 6)을 참고할 것.

대와 한국전쟁의 기간이다. 특히 전쟁은 북한을 미공군의 공격으로 거의 초토화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런 전략의 효과는 군중동원을 위한 동기화라는 면에서도 나타났지만, 대외세력에 대한 중요성을 핵으로 하는 자폐적 민족주의의 자극이라는 데서도 얻어진다.³³⁴⁾ 이러한 비교는 주민을 심리적으로 통합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대외중요성의 고취를 통해 대내적 갈등해소와 통합에 이바지한다.

2.3 용구문화의 차원

전술한 바와 같이 용구문화는 생활용품과 시설 등 생활수단, 즉 衣 食 住 등의 생활분야를 말한다.

우선 의생활 분야를 살펴보자. 북한사회에서 의생활은 조선옷의 계승과 발전, 양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하여 왔다. 해방이후 부족한 옷감과 피복 생산시설은 의생활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기왕에 입던 조선옷을 기반으로 하여 양복(현대복)이 등장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작업복이 늘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사회의 옷 종류의 골간은 조선옷과 양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민족적 형식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생활에서 조선옷을 강조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계에서 서구 중심의 패션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립경제를 표방한 북한 입장에서 이들 외래 복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의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최소한의 일차적 문제 해결이 시급했던 처지에 패션 따위의 개념들은 차선으로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츰 현대적 미감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조선옷에 담긴 민족성을 잘 살리는 것이야말로 오랜 역사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온 민족옷의 우수성을 빛내면서 인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옷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원료를 가지고 인민의 체질과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입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작 권장되는 옷은 여성의 조선옷에 해당한다. 여기서 여자 조선옷만 입고 남자 조선옷이 입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 조선옷이 거추장스럽다는 것에서 요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것의 계승도 선별적 선택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북한 의생활은 민족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현대적인 미감을 넓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민족적인 품모는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국제패션산업이란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할 뿐 아니라 일견 답답한 요인으로 등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북한 사회가 가꾸어 온 민족적인 입장을 지켜나가면서 현대적이면서도 국제 감각이 있는

334) 이윤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pp.48-51 참조.

의복산업을 이끌어내는 두가지 문제의 병립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³³⁵⁾

반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스스로의 개인적 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³³⁶⁾

여성복의 경우 북한은 질물생산량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의생활의 통제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주의건설 동원으로 작업복 착용시간이 많다. 유행과 디자인보다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옷차림을 하게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의복 선택의 여지는 있으나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일부 특수층에서만 의복선택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일 뿐 대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남성복 보다는 여성복이 그 종류가 많은 편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른바 신식양장을 많이 하며 색상도 화려한 것을 입는다. 여자들은 집에서는 보통 막옷이라고 하여 일하기 편한 옷으로 바지를 입기도 하나 외출복으로는 바지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 여자가 바지를 외출복으로 입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하여 당에서 벌금까지 물린다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 남성복은 통상 근무복에 의존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당원과 사무원은 테크복이 유니폼화되어 있으며 규격화된 낮은 질의 작업복과 내의가 계절에 따라 지급 되고 또 다소 염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주민들이 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국가의 의류 공급체계에 따라 배정된 것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자체 조달하는 방법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³³⁷⁾ 전자는 배정품이고 후자는 자유판매품이거나 농민시장에 유통된 물건이다. 배정품은 세대별로 지급된 공업품목카드에 기록된 한도내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공급된 양과 질은 신분에 따라 다르다. 물론 기준량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특히 속옷류의 사정이 심각하다.

나아가 경공업 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일반주민들의 증가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³³⁸⁾ 북한은 농어촌의 일반주민들이 양복과 양장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나와 착용시에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아직 인민복과 한복을 계속 입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 식생활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면, 북한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일치된 결론은 북한의 음식에서 전래 토속적인 입맛을 느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는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는다. 남한에 비해 개방의 정도가 낮고 모든 면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사회에서 식문화가 전래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된다. “흡사 고향집에

335)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연구, 통일문화연구(하), 전계서, pp.314-320 참조.

336) 이선재, 북한주민의 복식에 관한 고찰,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참조.

337) 내외통신사편, 북한실상 종합자료집-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 내외통신사, 1995), p.235.

338)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1983-1993),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p.575.

서 먹는 음식 같다”는 방문객들의 한결같은 소감을 통하여 전래음식의 입맛이 북한을 통해서나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북한 식문화가 지닌 미덕이라고 후한 점수를 주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식문화는 주지하듯이 절대생계비와 공급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여 욕망의 상한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먹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보다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일정하게 배고픔이 면해지면 보다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된다.

식생활이라는 것의 기초도 따지고 보면 경제살림의 문제이다. “강냉이 딱다가 어밥 먹으니 행복하지요”라는 전후 혁명 1,2세대의 입장이 ‘고생모르고 자란’ 3세대에게는 전폭적으로 실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 역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³⁹⁾ 이른 바 양과 질의 문제이다. 또한 방문자가 맛 본 음식 맛과는 달리 방공장에서 집단적으로 밥을 공급한 것은 별로 맛이 없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식량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며, 각 직장에서 배급받은 배급카드에 의해 리, 동 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비율 등이 달라진다.³⁴⁰⁾ 쌀과 잡곡의 비율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는 반반이며 지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산간오지에서는 쌀 2할에 잡곡 8할이라고 한다.

세번째로, 주생활문제를 보면, 북한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주생활의 기본은 집단살림집인 아파트 개념이다. 북한 건축의 현재도 대개 아파트식의 공동주거양식을 보여준다. 그러한 공동주거양식을 채택하면서도 온돌 같은 민족적 주거양태만은 여전한 것이다. 건축에서의 민족적 형식이라는 문제는 북한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이다.

건축에서도 주체문제는 중요하다. 건축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체적 입장에 서서 설계하고, 건설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창조한다는 점을 말한다.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건축,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보장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건축이란 다른 어떤 자기 나라의 조건과 자기 나라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는 건축이며, 나아가서 주체가 철저히 선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 건축은 혁명과 건설의 수단이자 인민대중에게 생산조건과 생활조건, 휴식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므로 인민의 요구와 높은 시상에술성과 실용성이 담보된 편리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이 창조되어야 한다.³⁴¹⁾ 즉 건축가들은 자기나라의 역사와 지리, 경제

339)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전게서, pp.175-274 참조.

340) 통일연수원편, 북한이해, 전게서, pp.175-176 참조.

341)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인구, 통일문화연구(하), 전계논문, pp.328-30 참조.

와 문화, 인민들의 생활풍습을 잘 알고 그것에 정통하여야 민족적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주생활문화에서 주택배정이다. 주택배정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각급 주택을 임대형식으로 배정함으로써 주택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를 배제시키고 있다.³⁴²⁾ 일정한 배분원칙은 없으나 새로 건설되는 비교적 현대적인 문화주택은 시급 이상의 장, 과장, 3급 기업소 기사장 등의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 우선 순위는 유가족세대, 후방가족, 당원 및 간부가족, 일반노동자, 농민, 월남자가족, 불순계층의 순서로 하고 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은 약 65% 수준인데, 북한은 지방기관 간부급 이상에는 100% 주택을 배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 특히 노동자의 주택배정은 57% 수준밖에 안되고 있어 1주택 2세대 거주가 흔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역 대규모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의 경우는 여전히 낡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아파트 건설도 미진한 상태에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아직도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³⁾

3. 3차원적 문화구조에 따른 주민의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이상에서 북한의 문화를 3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 있어 문화는 체제 구성원들의 가치정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특히 이념문화의 영향이 클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내의 정치경제적 문제 등은 체제가 지향하는 문화, 특히 이념문화가 규정하고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이념문화에 의한 공식적 가치정향이 주민들에게 수용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와는 별도로 행동문화와 용구문화와 관련된 비공식적이면서 실제적인 가치 정향이 나타나고 있는 징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3.1 공식적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

공식적 가치정향은 우선 사회주의적 이상적 인간관을 들 수 있다.

주지하듯이 북한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 집단주의와 사회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적합한 소비에트 교육학을 도입하였다. 그 바탕위에 그들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자랑하는 주체철학을 가미했다. 이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이라고 부르고 1977년 이래 현재까지 그 원리를

342)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08.

343)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1983-1993)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p.579.

교육에 적용해 오고 있다.³⁴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북한주민을 ① 혁명화, ② 노동계급화, ③ 공산주의화³⁴⁵⁾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인간」(공산주의적 혁명인제)을 육성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서 ①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④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 진행,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에 의해 길러 내는 혁명적 공산주의 인간은³⁴⁶⁾ ①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을 습득하여 김일성 유일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 ②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③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한다는 집단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④ 당성과 계급성이 투철하고 공산혁명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 ⑤ 공산주의는 놀고 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⑥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함양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받아 들이는 사람, ⑦ 사회주의 준법사상에 투철한 사람, ⑧ 지식의 터득과 체력을 골고루 갖춘 균형된 사람이다.

둘째로, 공산주의 윤리도덕을 들 수 있다.

북한에 있어 공산주의 윤리도덕은 물론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해서 북한문헌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방식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존재방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자신의 국가를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가는 가족의 이미지가 확대된 실체로서 인식된다. 즉 북한에는 혈육을 구성하는 가정과 수령을 아버지로 하는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두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표시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비서를 화복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집안이다.

한편 사회주의 대가정내 가족들이 지켜야 할 윤리로서 북한에서 대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일심단결이며 수령의 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수령에 대한 대중의 충성과 효성이다.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한 믿음과 사랑,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과 효성은 수령과 전사사이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써도 끊을 수 없는 혈연적 유대로 표현한다. 그리고 인민에 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이 인민의 수령이 지니는 공산주의적 인간애, 혁명적 동지애의 최고 표현이라면, 수령

344)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 북한개론 (서울 : 을류문화사, 1990), p.383.

345) 國土統一院編,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북한개요(서울 : 국토통일원, 1983), p.399.

346) 김형찬, 김일성주체사상과 교육비판 : 그 중요 문헌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집 (1989), pp.89-90 ; 이은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p.261에서 재인용.

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인민이 지녀야 할 혁명적 의리와 도덕의 최고 표현이다.³⁴⁷⁾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도덕의 정수이며 가장 기본적인 행동규범이다. 공산주의도덕에서는 가장 깨끗한 혁명적 양심과 의리를 간직하고 수령에게 충성 다할 데 대한 요구가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집단주의, 혁명적 동지애, 공산주의적의리,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인민적인 레의도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 등은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내용을 이룬다”³⁴⁸⁾고 이해된다.

세째로, 인정주의와 열정적 헌신을 강조한다.³⁴⁹⁾

인정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적·정감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적 반응은 공동체를 위한 일에도 그대로 연장·적용되어 열정과 뜨거운 가슴으로 일에 임하는 헌신적인 파토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정향은 상당한 정도 우리의 전통적 문화요소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정감주의의 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특히 김일성이 대국민 접촉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그러한 모범에 따라 모든 인민이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라는 호칭부터가 이미 그러한 감정적 인정주의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이의 아버지 사랑’, ‘크나큰 사랑’, ‘뜨거운 사랑’, ‘봄별과 같은 따사로운 사랑’, ‘우리 인민을 가장 사랑하시는 수령님’, ‘어머니 젖줄인양 가슴깊이 젖어들었던 그 사랑’ 등으로 김일성의 인정주의를 묘사한 보기를 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도 김일성의 사상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인정주의도 김일성의 본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며, 일에 대한 헌신몰입이나 집단을 위한 자기희생도 김일성의 은덕에 감복하여 은혜를 갚기 위해 흔쾌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³⁵⁰⁾

또한 열정적 헌신의 차원에서는 최용규의 소설 “넓은 구내길”³⁵¹⁾에서 잘 나타난다.

“기춘을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뚝뚝뚝뚝 벽시계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빨리하자! 빨리하자!》하고 기춘이를 재촉하는 것만 같았다.”

네째로, 자본주의와 관료주의 비판이다.

347) 이종석,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비교, 남북한의 이질화 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pp.13-14.

348) 김경숙, 공산주의도덕에 대한 주체적리해, 사회과학, 제1호 (1986), p.19.

349)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전개서, pp.266-268 참조.

350) 이온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p.289.

351) 이글의 배경은 닭알목장 설비공장이며, 주제는 수령의 교서관철과 생산속도 증대이다. 그 줄거리리는 닭알목장설비 생산을 하는 공장에 부임한 생산지도원 김기춘과 공장의 생산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수령의 원대한 뜻을 꽃피우기 위해 닭알목장 설비생산에 대한 힘찬 속보를 내걸고 작업기일을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 최용규, “넓은 구내길”, 『조선문학』, 10월호 (1969), p.97. 동시에 이러한 열정적 헌신은 현재에도 북한 소설에 있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사회주의권 붕괴와 더불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품팔이가 더 박하게 되자 바인간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기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가들이 사치와 부화방탕한 생활을 조장시키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각종 수단을 만들어 냈으로써 인간의 정신생활을 빈곤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시에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의 사상이나 문화가 사회주의 사회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진다. 특히 그 영향을 받기 쉬운 지식인 및 청년학생에 대한 사상, 선전공작이 가장 중시된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세도와 관료주의는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입니다.”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³⁵²⁾

라고 강조하였고, 또한 최근에는 주체사상의 순결성 그리고 기회주의사상과 관료주의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 것이며 당의 위업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부르쥬아반동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이 우리 내부에 발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썩먹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고 검소하며 청렴결백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⁵³⁾

3.2 비공식적 가치정향과 실태 분석³⁵⁴⁾

북한 사회의 주면의 비공식적 가치정향은 주로 두 측면에서 공식적 가치정향과 차별성을 나

352)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전개서, p.372, 374.

353)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노동신문, 1995. 10. 5.

354) 이하 내용은 유석렬, “일탈 : 원인, 유형, 통제방법”,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62-92 및 이운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 법문사, 1993), pp.273-285, 그리고 통일원정보분석실, 최근 북한주면의 의식구조 변화 (서울 : 통일원, 1992), pp.18-41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타낸다. 하나는 이념이나 정치·경제체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성되는 가치정향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와해, 동구 공산권의 몰락, 중국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유학생이나 북한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으로 인한 비공식적 가치정향 형성이 그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비공식적 가치정향의 형성은 체제내의 일탈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김일성 일인독재구축과 김정일 권력세습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박해,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기본권의 박탈 등 북한체제의 철저한 억압과 통제에 기인한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생활기회의 불평등과 북한경제의 원천적인 낙후성에 기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심화 등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가치정향이 형성되는 요인으로서 김일성 일인독재의 비인도적인 주민생활의 통제, 만성적인 북한정권의 관료주의적 병폐 및 계층간 차별대우, 일반주민의 노동동원과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소환 조치와 방북인사 초청, 그리고 해외교포의 초청으로 인한 자유사회에의 노출이 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정향의 구체적인 측면을 최근의 귀순자들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체제 및 정권 비판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도층은 북한의 경제적 낙후, 지나친 사회통제, 주체사상의 맹점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체제 및 정권에 대한 냉소나 좌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제체제 개혁 건의 및 기념비적 건축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외부세계에 대해 무지했던 일반 주민들도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외국관광객 유치, 해외동포들의 방북초청, 그리고 유학생 소환 등으로 외부세계로 조금씩 노출되면서 외부세계와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교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둘째로, 反 김부자 동향과 관련해서 볼 때, 최근 북한 지도층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에 대해서는 항일 빨치산 경력, 북한정권 창건 업적, 초기의 경제재건에 대한 인정과 친화력 등으로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형성되어 충성심이 대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일부 핵심층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경제정책 실패와 변태적 행실, 비인간적 태도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 결여, 그리고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내부 불만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구 공산권 붕괴 이후 내부적으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주민들도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맹목적인 정도로 절대적이고 신격화되어 있다. 그러나 80년대들어 경제난과 지나친 우상숭배, 남북대화를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대한 노출로 인해 신격화의 이미지가 조금씩 격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의 실패, 지도자 자질 등에 대한 불만 및 비판여론이 일반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비등해 있는데, 최근에는 그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생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세째로, 체제위기의식과 관련하여 볼 때, 북한 지도층은 동구의 사회주의체제 몰락과 구소련의 와해, 중국의 개혁과 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제편과 내부의 경제적 궁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북한체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째로, 반체제 조직 정후와 관련해 볼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상유례가 없는 부자권력세습 체제, 그리고 최근들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관료, 군부, 학계 등 중간 엘리트 중심으로 불만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집단세력화는 비록 미미한 것이기는 하나 태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의하면 소환된 소련, 동구 유학생 중심의 지하조직이 적발되는가 하면 함흥, 신의주 등지에서 식량사정 악화로 비롯된 학생데모가 발생하는 등 체제불안에 따른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다섯째로, 정책변화 정후와 관련해 볼 때, 북한은 72년 남북대화 이후부터 추석을 기해 인근 조상묘소를 허용하고 있으며, 88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지정한데 이어, 89년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식일로 정하는 등 민족고유 명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80년대 들어오면서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 및 상영도 허용하는 한편, 84년 5월 김일성의 소련 및 동구 순방 이후 김일성 자신이 양복, 넥타이를 착용한 것을 계기로 인민복 대신에 색상과 무늬 등에서 다양화된 옷차림도 허용되었다. 또한 90년 9월 5일에는 민법을 제정, 가정용품, 문화용품, 승용차 등의 개인 소유를 명문화한 것도 중요한 정책변화의 정후로 보인다.

여섯째, 자유개방풍조의 만연과 관련해서 볼 때, 대부분의 북한 간부들은 서방제품을 선호하여 양담배를 신분 과시용으로 애용하는가 하면, 서방 자본주의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남한가요를 애창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평양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매춘부를 고용하는가 하면 선정적인 장면의 공연을 허용하고, 일부 지도층에서는 頹廢쇼를 강요하는 등 자본주의 사회의 부산물인 퇴폐문화를 향락하는 경향도 노정되고 있다.³⁵⁵⁾

일곱째로, 일반주민의 종교에 대한 의식변화와 관련해 볼 때, 과거에는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으로 인해 종교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방북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민화됨으로써, 비록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래의 사회주의의 적으로 간주되던 운명철학, 무속신앙 등도 당국의 단속완화와 중국 및 동구유학생들의 서적반입 등을 통해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정일이 "미신행위를 근절할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평양

355) 물질주의 확산 문제에 대해서 최근 다룬 논문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민화와 김정일 정권의 장래, 통일정세분석 94-19의 pp.14-19를 참조할 것.

등지에서 점을 보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증언된다.

북한은 과거에 미산을 “전날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그것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³⁵⁶⁾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민들이 부적을 소지하거나 쌀 등 생필품을 주고 관상, 손금, 점 등을 보는 것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³⁵⁷⁾

여덟째로, 사회일탈 조짐의 측면과 관련해 볼 때, 경제가 파폐해지고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최근 북한에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일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증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 전역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강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일부 특권층과의 생활격차는 이들에 대한 증오심, 반발심으로 연결되어 각종 범죄가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간의 顔面, 금품수수에 의한 업무처리 등 부조리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노동기피 풍조가 만연, 공산주의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집단주의, 협동주의 정신이 오히려 극도로 결여되어 있는 등 사회일탈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아홉째로, 북한의 새 세대³⁵⁸⁾에 있어서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인생관보다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의 새 세대는 당의 공식적 가치정향인 당과 수령의 의지관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희생, 헌신 등의 원대한 이상 내지 지향보다는 돈과 물질적인 가치, 일신의 출세 및 안락함, 생계유지 등을 중요시하며, 정신노동의 직업을 선호하고, 물질적인 충족과 개성적인 삶, 인격적인 존중 등을 행복의 요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4.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인식의 전환

4.1 남북한 사회·문화체제의 기본적 특징

주지하듯이 남한의 사회체제는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제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이다.³⁵⁹⁾ 다원주의적 사회체제하에서는 개인의 역할이 중시되며 창의성과 독립성이 이상적 가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민생활에서도 개인중심의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사회유동성이 높으므로 대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356) 사회과학출판사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219.

357) 이현경, 최대석, “남북한 문화예술정책 및 교류현황 분석”,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전계서, p.507.

358) 새 세대란 이른바 혁명의 4세대로서, 현재 20대의 연령층에 속하고 이제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는 세대들을 지칭한다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p.80, p.206 참조.

359) 국토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 국토통일원, 1994), p.15.

역사적으로 볼 때 분단후 남한의 사회변동의 정향은 서구 근대문화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근대화'라는 일반적인 이상 아래 남한 사회구조는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평등화 등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문화변동의 정향도 전통적인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아와 권리를 해방하는 개체화의 이상을 추구하여 왔다.³⁶⁰⁾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라는 물질은 그것이 자생적이고 기저로부터의 변화라기 보다는 외래적 요인의 자극과 충격에 따라 다분히 타율적이고 위로부터의 구조변화가 내재해 있던 전통적 체제를 보존하면서 선진 자유진영국가들의 대중사회적 문화가치를 수용한 한국은 새로운 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남한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유교적 도덕관에 바탕을 둔 신분적 위계 질서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도입된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평등성이 중시되는 자유와 권리를 허용하였다. 따라서 개인으로 하여금 전통적 유교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확립되었던 부의 개념, 정치권력의 개념, 전통적 도덕·윤리성 등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결과로 현재의 한국인에게는 전통적으로 신성시되었던 도덕성이나 정신적인 것 보다는 세속적인 개념으로서의 경제적 부가 존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남한주민의 가치체계의 특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불평등구조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적 이익추구와 전통적 도덕성의 상실에서 오는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그동안 달성해 온 경제성장에 따른 보다 적절한 부의 분배와 통치과정에서의 보다 많은 대중참여, 그리고 보다 평등한 교육기회의 증진 및 주거, 의료, 고용 같은 복지분제 등이 사회적 요구로 나타나고 있어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인 가족주의, 혈연주의, 귀속주의와 근대적·서구적 가치관인 개인주의, 능력주의간의 갈등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³⁶¹⁾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는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모순구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가치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³⁶²⁾

이에 비해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남한의 개방사회와는 전혀 다른 체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북한의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요약해 보면,³⁶³⁾ 첫째, 북한사회는 전체주의적 독재모형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사회는 김일성

360) 民族統一研究院編, 南北韓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 社會文化的 同質成 增大方案 중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p.78, pp.85-86.

361) 白種億, 「統一教育의 課題와 再定立方向 探索」,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1992), p.203.

362) 배규환,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모색」, 國家發展의 目標와 理念 (21세기위원회 제3차 종합세미나, 1990.10.25-27), p.373.

363) 閔丙天編, 北韓共產主義 (서울 : 대왕사, 1983), pp.189-191 참조.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인 사회라는 점이다. 세째,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체제는 이데올로기적 무장집단인 노동당에 의한 인조적 사회를 획일적으로 동질화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북한의 문화는 집단성의 이념에 근거하여 가치론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해 왔다고 볼 수 있다.³⁶⁴⁾ 그러므로 북한의 문화·예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초하에 종자론, 주체문예이론 등에 입각하여 체제유지, 김일성우상화 및 공산주의 인간개조를 위한 철저한 도구적 기능을 하고 있다.³⁶⁵⁾ 결국 북한의 사회·문화정책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정치적 예속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념문화)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⁶⁾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사회·문화정책은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외형적으로는 인민들의 실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지만, 내재적으로는 북한의 전주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양시켜 새로운 수령인 김정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반면 양체제를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선 남한의 경우 권위주의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정치적 상징이나 윤리적 의식을 자주 활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통합의 핵심기제로 직접 발전할 수는 없었다. 근대화, 특히 산업화에 의해 산업구조가 분화되고 사회적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적 갈등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용해되었는데, 그 바탕은 경제적 시장원리와 정치적 다원주의였다. 무의식과 잠재적인 차원에서 남한의 사회구성원들이 신봉한 것은 시장과 다원주의의 합리성이었다.³⁶⁷⁾

반면 북한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통합 자체를 최고의 체제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사회갈등을 비자연적, 반사회적, 비도덕적, 그리고 반윤리적인 일탈현상으로 치부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국가가 사회에 일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더불어 分任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종교적 상징이나 정서적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체제에 대한 지지와 동의를 사회구성원의 잠재적이고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負荷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근대화는 추진하면서도 사회통합을 위하여 근대성을 배격하는 태도를 취했다. 다시 말해 산

364) 권영민, 「문화·예술통합의 과제」, 韓民族共同體의 摸索(I) (21세기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11), p.96.

365) 劉元東外, 共產圈體制論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p.312.

366) 「김정일시대의 전망(I.사회문화정책)」, 내외통신, 921호 (1994.10), pp.A1-A2.

367) 전상인, 남북한 체제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비교연구, 남북한 이질화와 통합모델 모색, 세종연구소 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pp.32-33 참조.

업화에 따라 사회주의체제에서도 구조분화와 사회적 밀도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나 북한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유기적 연대 대신 기계적 연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 때문에 북한사회의 통합은 점차 불안전해 질 수 밖에 없다.³⁶⁸⁾

또한 북한과 남한의 문화를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양분화는 자기 상이점을 지니는 동시에 공통점을 보이는데 하면, 서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차이점을 보면³⁶⁹⁾, 첫째,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작의 주체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 예술 창작은 특정집단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국가가 문화 예술에 개입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도 문화체육부가 문화 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일정한 제약을 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부와 당이 직접 문화 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 남북한간에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사회가 또한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강하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 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문화는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외부 사조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예술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유지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여덟째, 예술을 감상하거나 수용하는 대중들을 비교한다면 남한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반면 북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홉째, 문화선택권에 있어서 남한이 자유의사에 의해 특정문화를 선택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북한 주민들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 이상과 같이 남북한 문화를 비교해 보면 자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상품화, 외래 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민족문화의 적극적인

368) Craig Calhoun에 의하면, 기계적 연대의 성격을 가진 사회는 1차적, 직접적 관계가 형성된 생활세계(life world)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기적 연대의 성격을 가진 사회는 이차적, 간접적 관계로 형성된 체계세계(system world)이다 ; Craig Calhoun, "Indirect Relationships and Imagined Communities : Large-Scale Inte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N.Y. : Westview Press), pp. 99-101 참조.

369) 차세호, 통"일한국의 조화를 위하여", 공성진외, 미리가본 통일한국(서울:동화출판사, 1994), pp.129-131.

유지, 통합기제로서의 문화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도구화, 획일화, 강제적 문화수용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2 문화통합의 가치 정향 재인식

사회·문화통합을 이야기 할 때 이상의 남북한의 사회·문화의 상이한 기본적 특징을 서로 배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한 문화통합의 가치정향은 민족 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족생활공동체의 정립이며, 그 통합의 수행 주체는 남북한 주민 전체, 즉 보수적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는 시민대중이며, 그 통합의 접근방법은 의식 및 태도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적 작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³⁷⁰⁾ 다시 말해 문화적 통합의 초점은 통치체제의 통합보다 호혜적 생활무대의 형성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정치역학 관계의 함수 및 그 대응력만이 아닌 주로 민족주체적인 자율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뿌리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질적인 이념(또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지닌 동포들끼리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치제도적 통합 후에 사회적·심리적 통합을 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반세기 동안의 대립적 이질성 때문에 정치제도적 통합 자체를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사회·문화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분단 상태 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개의 문화의 통합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의 틀은 두가지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나는 지배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상호의존모델이다.³⁷¹⁾ 지배모델은 어느 일방의 붕괴 또는 몰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과정 자체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혼란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호의존모델은 두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관련성과 영향관계에 기초한 통합을 뜻한다. 이는 통합되는 문화가 서로 비슷한 기반에서 출발하여 그 양식과 가치와 이념이 각각 유사한 양상을 드러낼 경우 효과적이다.

물론 남북한 어느 쪽도 지배모델을 선호하지 않는다. 더구나 체제와 이념에 의해 대립이 두드러질 경우 상호의존적 통합모델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 기반을 바탕으로 앞의 두가지 문화통합의 모델에서 그 장점을 취하여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문화통합의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건설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극심한 이질화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질화는 북과 남 사회의 공통적이고 동일한 형상이다. 그 변화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도와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건 또는 다른 원인에 결과이건, 사

370)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 (1993. 6. 11-12), pp.125-126.

371) 권영민, 남북한 문화통합, 21세기논단 (1992, 겨울호), pp.16-17 참조.

실상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이 변질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도 변질하였다.³⁷²⁾ 즉 남과 북이 변질의 측정을 남한의 현대를 기준(잣대)으로 삼는 까닭에 모든 변질은 북한의 현상으로 보인다. 소위 환상적 변질의식 또는 변질감이다. 분단 이전의 상태인 과거의 공통기준점에서 보면 북이 남에게 쫓긴 만큼, 북에게는 남이 쫓 한것으로 비칠 것이다. 소위 이질화의 상대성이다.

반면 이러한 이질화의 상대적 진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고서, 북한의 상대적 이질화를 반공주의 냉전의식 논리로 절대화하게 된다면, 북쪽 사회의 이질화는 실제의 두배(남쪽 사회의 이질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3배 또는 그 이상으로)로 환상적 인식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반면 어떤 면에서 남한이 민족의 전통적·특수적 고유의 생활양식이나 풍습 가치관 등으로 포기한 측면이 많은 것을 볼 때, 북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감각하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에서 남한 사회가 변하고 떠나버린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이들이 신봉하는 개인들의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³⁷³⁾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의 사회적 위치, 즉 사회구조나 제도내에서 그들의 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에 구속되어 사회문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틀이 상이해도 그리하여 상충되더라도, 만일 그들의 인식이 특정한 인식의 틀에서 얻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때는 각자 자기의 인식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갈등을 통합적인 문제해결 양식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당사자들이 범하는 인식의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에서 갈등상대의 인식의 틀이 인식된 연후에 그 인식의 틀에서 자기를 되돌아 볼 때 자기의 인식의 틀이 인식되는 것이다. 이때 소위 역할 취득이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는 슈츠가 '시각의 교호성'이라고 칭한 것이다.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키거나 또는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데 사용된다.³⁷⁴⁾

결국 이러한 역할취득을 통해, 자신의 갈등상대의 인식의 틀인 사회적 정체가 인식의 대상이 되어 이를 반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갈등관계에 있는 모든 사회집단의 목표에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역기능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절대적으로 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사회구조나 제도를 개혁해 나가게

372)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 교수 학술 세미나 (1993. 9. 23), pp.5-6.

373) 이수원, 신진호,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남북의 장비를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한국심리학회 주최 1993년도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3. 6. 11-12), pp.101-108 참조.

374) J. H. Turner, "Analytical Theorizing",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eds., *Social Theory Today*,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1987), p.178.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양 제도의 순기능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역기능들은 최소로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게 된다. 갈등관계에 있는 주 집단이나 사회범주, 즉 정과 반을 함께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합을 낳는 것이다.

4.3 ‘우리’의식을 통한 문화통합 再考

통합론의 모형은 ‘나’와 ‘너’의 통합으로서 ‘우리’ 모형이다.³⁷⁵⁾ 즉 남북한 통합의 역사 문화접근 모형이다. 이 통합과정은 쌍방간의 교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적인 역사문화속에 우리 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발한다는 의미이다.

현상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회과학의 대상인 사회적 세계는 인간행위로 환원되며 또한 인간의식의 세계이다. 즉 ‘나’와 ‘너’의 의식의 상호작용체계이다. 사회적 세계는 ‘나’만의 세계가 아닌 ‘나’와 ‘너’의 상호주관적 세계이다.

훗설에 의하면, 생활세계안에서 우리는 관점의 상호교환과 동일한 대상에 대한 관련성의 체계의 이념화를 통해 나와 타자의 사적 경험을 대신하는 사고대상을 형성한다. 내가 타자와 위치를 바꿈으로써 그의 <거기>가 나의 <여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물들을 그와 같은 거리에서 그리고 동일한 定型性으로 보게 되며, 우리들의 고유한 성장과정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생기는 관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와 그는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공통의 대상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슈츠는 이 사유작용을 관점 혹은 상호교환의 일반정립이라고 부른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계의 일부를 너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다.

생활세계에 있어 풍습, 관습, 그리고 전통적 행태들은 고도로 사회화한 구조의 정형화된 지식이며, 이것은 나와 이웃의 사적 지식을 초월한다. 이 지식은 고유의 역사를 지니며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유산의 일부이다.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마련된다. 제도는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의 복합체이며, 생활세계는 바로 이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 세계안에서 나는 다른 개인과 언어 그리고 기타 상징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나눈다. 일상어의 낱말과 어구는 사회적으로 유래하는 지식이 전파되는 정형화의 매체이다.³⁷⁶⁾

결국 생활세계는 ‘활동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다.³⁷⁷⁾ 비록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지라도 생활세계의 이러한 특성은 실제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근자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은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 그 아질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

375) 한정일,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전계논문, pp.4-6 참조.

376)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 (서울 : 민음사, 1992), pp.113-116 참조.

377)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 Ohio Univ. Press, 1993), p.7.

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이질화가 심화되었다는 말은 남북한을 횡적으로 비교했을 때 타당한 말일 것이다.³⁷⁸⁾ 한국사회를 종적으로 역사적으로 비교한다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질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이념문화에 의해 채색됨으로써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가 표출되고 있다면, 장구한 민족사의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분단사와 분화적인 이질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민족 이질성은 농질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를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에 있어 이러한 측면을 훗실의 생활세계에 적용시켜 보면, 우선 우리는 분단 이전의 한민족의 생활세계와 분단 이후의 남북한간의 생활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분단 이전의 생활세계는 한민족이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제도를 형성했으며, 풍습, 관습 및 전통적 행태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문화의 3차원적 구조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분단 이후의 단절된 생활세계는 양측의 지향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상이한 사회제도를 형성시켰고 이는 이질화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말하자면 선정된 상위문화(이념문화)에 의해 하위문화가 채색됨으로써 이질화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통합모형으로서 '우리'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체제에서는 전통문화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었으나, 공산주의의 이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통적인 우리의 식을 이용하여 '우리'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체제는 전통문화에 자유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토착화되었다기 보다는, 이질적이고 혼합된 상태에서 전통적인 '우리'의 식의 파괴로 이기주의적인 '나'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논리는 사회적 세계와 생활세계의 원형이다. '나'없이 '너'가 존재할 수 없고 '너'없이 나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가 '너'를 인정하고 '너'가 '나'를 인정할 때, 이미 '우리'라는 생활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이루며 그때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나'와 '너'의 통합으로서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 뿐 아니라 분단된 민족 국가와 국가 그리고 대립된 이데올로기, 문화 등 그 모든 것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현재를, 아님보다는 민족의 이익을, 개념보다는 실정을, 제공-지원 형식보다는 상호작용적 교류를, 그리고 '그것', '그사람', '그네들'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태도 변화와 실천적 행동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³⁷⁹⁾

4.4 가치정향의 변증법적 통합

378) 朴再柱, 民族同質成 回復을 위한 統一教育, 교육연구, 제12권 제9호(1992.9), p.25.

379) 이장호, 전개논문, p.132.

40여년 이상 서로 다른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을 갖고 있는 체제하에서 살고 있던 이산 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는 그 이질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문화는 이념문화를 제외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행동문화 및 용구문화적 측면이나, 비공식적 가치정향의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남북한간의 많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우기 장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성과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갖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은 대체로 민족문화의 하위체계속에 잔류되어 여전히 비공식적인 생활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공통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비슷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공통의 심리적 특성 및 동질적인 의식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민족은 민족의 생활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공통의 언어구조와 축적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메카니즘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³⁸⁰⁾ 따라서 오늘날 남북한 체제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배치될 수도 있는 이념(체제)문화에 의하여 채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삶을 지배하였던 공동생활의 원리(전통적인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공동생활의 원리를 제도적인 의미의 총체의 민족문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적 의미의 총체인 민족문화는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킬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민족공동체문화의 하부구조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한민족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속에서 형성된 제도적 의미의 총체인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의 특성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북한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가 모든 북한문화를 특징지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지표이며, 그 밑에는 남북한의 동질적인 문화저층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표의 바로 밑에는 수백년간 형성된 유교문화, 그 밑에는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 그리고 가장 밑에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기전 수천년간 축적된 巫敎문화가 地核을 구성하고 있다.³⁸¹⁾ 따라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체계, 세계관, 그리고 행동양식은 남북한이 표방하는 현행 이데올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부분은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전통문화와 전통의식, 그리고 행동문화와 용구문화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380) 姜愨錫, 「民族共同體 倫理體系의 再定立을 위한 統一敎育의 接近方向」, 공주대학교 교육연구, 제9집 (1993), pp.130-131.

381)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서울 : 연세대출판부, 1975) ; 鄭世九, 「統一敎育의 實態와 問題點」,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제26호 (1993.8), p.24에서 재인용 ; 이는 통일교육에 있어 동질성의 제고를 위한 중대한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할 것이다.

결국 남한이고 북한이고 간에 민족적인 전통은 부분적으로 간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남한에서 계승되고 있는 민족문화와 같이 북한에서도 민속예절, 고유언어, 고전의 국역 등에서 민족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의 단편을 이해할 수가 있다. 다만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족문화가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북한도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한 점이 있을 것이다.³⁸²⁾ 예컨대 명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북한에서는 명절을 두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하나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족적으로 즐기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와 민족의 융성발전에서 매우 의미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축하는 기념일이다. 전자는 민속명절을 뜻하고 후자는 사회주의 명절을 가리킨다. 특히 일반주민들의 의식속에는 구정, 한식, 단오, 추석과 같은 전래의 음력 명절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잔존해 왔다. 더우기 근년에 이르러 북한은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을 공식적으로 다시 살리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민족명절의 부활과 함께 설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자치기, 단오와 추석에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를 권장하고 있으며 각각 새로운 운영방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³⁸³⁾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에 의외의 동질성이 보존된 측면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의 사회·문화통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전통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가령 위에서 제시된 실례 이외에도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 몇가지를 들어 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유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정주의’와 ‘인고주의’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강하고,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회질서를 지배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상당한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작용하면서, 두사회 모두에서 좋은 뜻의 가족유대강화, 인정스러운 관계유지 등의 면에서 순기능을 하기도 하는 반면, 정실주의, 파벌주의, 남녀차별과 권위주의 등의 역기능도 하고 있다.

가치지향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물질주의와 금욕주의 같은 차이가 표면상 있음에는 틀림없지만, 역시 일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과보호,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강렬한 권력과 지위지향성, 관공민비, 남존여비 같은 공통적인 것들이 계속 눈에 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최근 소설을 예로 들어보면,

“(아들의) 편지를 받는 날이면 안해는 품보기를 드리우고 고작 16절지 한 장에 불과한 종이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또 보았으며 회답을 쓰느라 온밤을 뜯눈으로 세우다싶이하였다. 안해는 한번 편지를 받으면 두번 회답을 하고 소포를 보내느라 극성이었다.”

382) 한만길, 「민족문제와 통일교육의 방향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 민족혼, 제6집 (1992), p.144.

383) 김기환, 북한의 명절, 통일한국 (1995.1), pp.46-48 참조.

“옛날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십분의 하나라도 다르면 효자라고 하지않았는가? ……자기들도 젊었을 때는 그랬었다. 자식들이 자라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에 대한 정은 자연히 자기 안해와 자식들에게 옮겨지 기마련이었다.”³⁸⁴⁾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동일민족으로서의 정체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분단으로 인하여 과격하다 할 만큼 강한 민족감정은 더욱 고취되어 있고,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 가슴을 열기만 하면 동일문화민족의 동질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³⁸⁵⁾ 이러한 민족감정은 때로 정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지나친 감정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개선에 지장을 받을 때가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공통성임에는 틀림없다.³⁸⁶⁾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라고 부른다. 즉 현대사회란 산업화가 경제조직에 있어서 지배적인 형태를 지닌 사회구조를 일컫는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 역시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양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측면을 우리는 공산권 사회의 이론적 접근을 위해서 사회변동론 일반에서 그 틀을 빌어 온 보기로 근대화론, 발전론 내지 수렴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근본적인 공통의 관심사는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일반적인 근대화를 경험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수렴론의 기본가정에 의하면 공산주의사회의 변동도 비공산권사회, 즉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사회와 마찬가지로 공업화라는 변동을 주축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중국에는 이념적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가 세계적인 공업화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으로 변질하여 세계가 동질화될 것이라고 본다.³⁸⁷⁾

따라서 이러한 수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남북한체제는 상이한 이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단과 대결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양체제 역시 모두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양체제에서의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이념적인 차이가 극복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동

384) 림병순, “막내아들”, 조선문학, 제3호 (1995), p.34, p.35.

385) 소설 “막내아들”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의 조국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즉 소설의 내용중에서 “최두삼아바이에게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생전에 고향에 돌아가 혈육들을 만나고 송아지동무들과 얼싸안고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것이였다.……몇달이면 통일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부모님들에게 큰절을 하고 나왔건만 백발이 성성해진 오늘까지 고향은 마음 속의 동경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 상계서, p.34.

386) 李濶竹,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전계서, pp.301-303 참조.

387) 이운죽, 북한사회연구, 전계서, p.55.

질성이 확보된다면,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도 쉽게 재통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양체제는 수렴론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전통적 요소와 근대화의 결과에서 많은 공통성을 발견하고, 외부로부터의 거의 강제적으로 부과된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가 주로 이질화의 요인이었다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전통과 근대성이라는 동질성이 쉽사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타당하게 보인다.³⁸⁸⁾ 바꾸어 말해서 이념적, 체제적 이질화는 인위적인 것이었으므로 비록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듯이 보이는 이질화가 일어났다 해도, 그것들은 또다시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에 비하여 동질적인 것은 그러한 이념적이고 체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전통과, 근대화를 치르는 사회라면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격어야 하는 종류의 변화에서 결과한 공통성이 같다면, 이는 의식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닐 뿐더러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연속성과 변화인 만큼 앞으로 통일후에 동질성의 회복을 시도할 때 적극적인 기여를 할 성질의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³⁸⁹⁾ 이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통합모델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5. 결 : 문화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5.1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문화교류 및 협력의 개선방향

5.1.1 남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체제중심적 사고의 지양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³⁹⁰⁾는 의사소통적으로 행위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그에 게 삶의 세계는 상호이해 가능성의 조건을 갖는 영역이다. 삶의 세계는 ‘말하는 이’와 ‘듣는 사람’이 만나는 선형적 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사람들은 생활세계라는 장소에서 상호 삶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생활통합의 확고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것은 남북한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의 맛’을 통일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 통과례에서 갖는 공통적인 삶의 양식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생활세계 개념은 민족동질성 회복의 첫걸음이고 통일 후의 새로운 사회화의 중심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문화적 요소들이 이질화되었지만, 그래도 분단사회 이전의 유전적 연속성(genetic continuity)에 대한 의사소통행위는 결국 사회통합의 이해지향적 행위로

388) 姜愷鎬, 전계논문, p.138.

389)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전게서, pp.302-303.

390)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은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행위의 배경이 되며 이해의 과정을 도와주는 언어의 맥락이다 ;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1987), p.153-156 참조.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 의미에서 반성적으로 남북한 모두가 과거의 전통, 삶의 세계를 가볍게 지나쳐버리거나 스스로의 위치를 비역사적으로 규정했는지 아니면 논의의 회피를 취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남북한이 이런 생활세계의 가치일반화, 혈연의식, 민족동질성, 전통문화가 인식되면 의사소통적 행위는 더욱 구체화될 수 있다. 두 체제간의 가장 어려운 핵심은 정치, 군사문제이지만, 쉬운 것부터, 즉 생활세계의 표상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⁹¹⁾

이와 연장선상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의 가치 정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민족생활공동체'의 지향이며, 그 수행 및 수혜의 주체는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변화를 수용하는 남북 주민대중이다. 동시에 그 접근방법은 의식 및 행동양식의 전환을 포함하는 '과정적 작업'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사회'로 가는 길은 민족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단순 대응적 거리가 아닌 호혜적 중장기 교류를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질성에의 개방적 수용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손쉬운 가시적 실적주의가 아닌 힘든 기초 '뿌리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뿌리 작업에서는 정치·경제 체제 개혁 및 풍토의 개선 뿐만 아니라,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남북한 주민에 의한 자율적 '의식개혁의 틀'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개혁의 작업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개체적 이념보다는 공통적 이익을, 제공·지원의 형식보다는 상호적응적 교류를, 즉각적 보답이나 현실적 명분보다는 장기적 총족 및 실천적 과정을 강조하는 발상 및 처리 방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³⁹²⁾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은 각기 상극적인 '자족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변화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정도까지 사회적 성격 또한 대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의 현실은 분단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양극구조가 형성된 것 이외에 민족의 단절화와 이에 따른 동족의식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문화적 상극성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의 수렴적 사회변화도 발견된다.³⁹³⁾ 사회주의권 전체의 대변동에 이어서 북한사회 역시 나름의 자체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체변화(주체적 개조)속에서 개방적 변화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주목되는 '개방적' 변화가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한 사회변화는 상호 배타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호수렴적 변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감지한다. 즉 이질적 산업화와 사회변화가 일정단계에 도달하면서부터 남북한이 서로 닮아가는 측면이 분명하게 나

391) 우 정, "남북한 체제접근에서의 재구성적 현실성의 이론화(II)", 북한, (1991, 11), p.123.

392) 이장호, "문화와 사람의 통일에 대한 논평 및 답변", 송 자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6), p.118.

393) 도홍렬,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 사회변화의 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28-29.

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수렴적 변화조짐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변혁, 외부세계의 개방압력, 중산층의 비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 내부로부터 대두된 주체적 시민문화 및 실용주의적 사고 등 여러 조건에 힘입어 사회체제변화의 조짐들이 점차 두드러져오고 있다.

또한 신중간층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가 하면 이와 더불어 추석이나 단오, 설날 같은 전통 명절이 새롭게 살아났고 자본주의 문화의 일정한 요소들까지도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에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남북한 체제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배치될 수 있는 이념(체제)문화에 의하여 채색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의 삶을 지배하였던 공동생활의 원리(전통적인 행동문화와 용구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동질적인 문화지층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수백년간 형성된 유교문화와 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문화, 또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 수천년간 축적된 무교문화이다. 특히 이러한 동일한 문화지층은 현재에도 인정주의, 연고주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상호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개인 및 집합적 이기주의 등은 통합을 유도하는 친화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분리와 해체, 갈등을 유발하는 동질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물론 가족주의적·집단주의적·권위주의적 성향의 분리성 및 갈등성은 타당한 것이지만, 그러한 전제는 이들 성향의 통합적 동인으로서 잠재적 요소들을 간과하게 하는 우려를 낳는다. 이들 성향은 생산적으로·비생산적으로, 또 비생산적·생산적으로, 즉 상호연결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⁴⁾ 또한 이념(체제)문화와 용구 및 행동문화간의 단순한 기계론적 결정론을 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 사회문제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국가의 공식적 견해와 똑같은 말을 하다고 해서 체제가 치가 주민들 개개인에 완전하게 내면화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³⁹⁵⁾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주민들의 속마음은 비록 표출되지는 않지만 정권의 공식적 목표문화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술한 바 있는 비공식적 가치정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북한사회에는 정권의 이념(체제)문화와는 별개로 제한적이거나 의식과 행위를 지배하는 다층적 정치·사회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문화현실을 바라보면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은 체제중심적 사고에 의하여 병주화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진다. 어느 점에서 외제적 접근법이 이

394) 이장호, “문화와 사람의 통일에 대한 논쟁 및 답변”, 송 자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6), p.120.

395) 김학성, “‘통일문화’ 연구의 방향”,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상)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p.252-253.

러한 연구결과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체제중심적 사고를 초래하게 하는 데 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외재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문화적 이질성을 체제이질성에서만 찾으려는 기존의 인식방법상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적절한 인식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듯이 북한 역시 오랜 세월동안 남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것은 역사적 현실이다. 그것이 체제내적 정당화를 위해서 이루어져왔는지 아니면 정권차원에서 정통성확보를 위한 정치적 메카니즘에 의해 표출되었는지 간에 이제 그러한 차원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진단과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주지하듯이 연구자는 항상 연구대상을 자신이 설정한 가정이나 인식틀로 재구성하기 마련이다. 인식의 존재구속에서 완전하게 탈피하고자 하는 경우, 즉 사실을 어떤 가치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치판단이고 현상의 가치를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행태주의자들이 경험적으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와 외재적 접근방법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구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상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 자신은 연구대상을 볼 때 일단 자기 자신의 가치관, 선입관들을 배제하고 연구대상의 주관적 세계에 스스로 위치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 태도의 판단중지와 괄호안에 넣는 행위를 통해 본질직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법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이분법을 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북한 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현상학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것에 토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진정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정치적 그외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1.2 문화교류 및 협력의 개선 방향

남북한 문화교류 및 협력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면, ① 궁극적인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이 부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② 부분적으로나마 문화적 동질성이 남아 있는 전통적 민족문화와 의식주의 주민생활문화가 교류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③ 반면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남북간 이질화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 자체를 통합의 장애물로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④정치적 영역과 지정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의 시공간적 분리이다. 즉 정치적으로 대결적 의식이 첨예화되는 시공간적 환경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로 인

해 모든 교류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비정치적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 발전 시키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과거에도 어떠한 것이 주목적이었던 간에 남북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과거의 교류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문화교류의 결과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준다.

과거 1985년 예술단 교환방문사 북한측이 남한측의 공연을 관람하고 북고주의 또는 봉건잔재라고 혹평한 것은 사회주의적 미학의 관점에서는 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공연물의 선택이 북한의 문예이론과 미학적 관점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오로지 남한의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³⁹⁶⁾

반면 우리측에서는 북한 출현자의 독특한 미소에 대해서 '획일화된 억지 미소'라고 단정짓고, '그것은 작품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어느 특정인을 향한 교태같이 여겨져서 역겨움마저 들었다'고 하든가 심지어 '가슴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예술의 감동은 전혀 없는 살가어린 똑같은 웃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 웃음이 남한 사람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살기가 어려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부측 체제에 대한 반감과 先認識(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인간적인 독재사회, 숙청과 음모적인 정치적 살인이 자행되는 곳이라는 식의)이 결합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예술의 전반적 흐름은 애초의 발의와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건 간에 그 사회의 예술사적인 흐름과 예술문화 구조의 분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미소 역시 인민의 정서를 깨끗하며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삶을 희망적으로 형상화하며 조화로운 미를 추구하는 북한 예술론과 미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술 내적인 분석을 결여한 채, 일차적인 거부감을 그대로 북한 독재자 때문이라고 단순하고 손쉽게 설명해 버리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 답지 못한 평가라고 할 수 밖에 없다.³⁹⁷⁾

또한 1985년 9월21~22일 양일간 남북한 예술공연 당시, 남한측의 프로그램 구성의도가 설사 이처럼 북한측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해도 체제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울산아가씨'가 불리어질 때 그 배경에 울산의 정유광장이 보여지는 것이나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으로 '아리랑'이 불려질 때, 자동차 전시장이 그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 등은 거리의 탄압을 축하하는 것 보다는 북한보다 발전된 남한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면서 과시하려는 의도로 밖에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 40년만에 성사된 남북한 교환공연이 이렇듯 철저하게 비교 우월 감정에서 비롯된 왜곡된 비방은

396) 최대석,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하), (1995. 12), p.277.

397)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편, 남북 교류공연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 한국예술연구소, 1995. 8), pp.61-62.

리로 일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공연이 전혀 성과가 없는 참담한 실패였다고만은 할 수 없다.

반면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교류의 반도와 형태면에서 문제가 많음으로써 미미한 성과였다는 평가를 검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³⁹⁸⁾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그 동안의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상호이해의 구축을 위한다기 보다는 행사를 위한 행사, 이른바, 한견주의로 끝나거나 행사주최측의 공명심 경쟁으로 치닫고 체제중심주의 그리고 외화내빈의 상업주의적 행사로 전락하기 쉽다는 경고는 주의깊게 성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 문화예술교류가 장기적인 안목의 문화예술교류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의 경쟁의식의 발로 때문에 교류협력의 성실한 프로그램 작성과 차근한 추진보다는 일단 접촉하고 보자는 자기선전성이 많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는 우선, 정부주도식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는 문화예술인과 국민들의 문화교류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체감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문화교류가 중단되지 않고 물밑 교류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후원자격으로 남고 민간주도에 의한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때, 통일조국의 실현은 그 만큼 앞당겨 지리라고 본다. 그것은 통일 이후의 혼란상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자발적인 방북 신청이나 교류 등에 대한 통제의 자세에서 개방의 자세로의 시각 교정이 절실하다.

둘째로, 북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남북한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공동협의체로서 '문화교류 연구 및 교육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의 각 영역에서 협력 단체로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원칙으로 삼아 민간부문에서 실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교류를 원하는 남한 내 민간 단체들에게 북한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교류에 암하는 속성이나 입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보는 시각이나 낭만적인 친북적 입장에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교정시켜줌으로써 바람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 기구에서 교류 신청의 현실성과 통일에의 기여도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방북이나 교류의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문서상의 승인과 실질적인 후원을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98) 김영준, "통일문화 창조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타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연구(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p.439.

셋째로, 남북한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교류만큼이나 국제적인 화합에서의 만남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남북한 합동의 국제적 문화행사는 무엇보다도 정치성과 이념의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동안 서울과 평양에서 일련 남북공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문화를 일방적인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등 대결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해외에서의 합동공연은 해외교포들에 의해 두 문화가 동시에 접해짐으로써 상대방 문화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³⁹⁹⁾

현재 세계 도처에서는 각종 문화 및 예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로를 객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지는 못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예술축제들을 우리가 직접 조직하여 그 기회에 문화교류를 병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을 단독으로 초청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문화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게 하는 가운데 북한의 예술도 초청하고, 또 우리도 그런 기회가 스스럼없이 참가하게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체육을 통한 인적교류는 스포츠가 지니는 비정치성과 국제성으로 인하여 타분야에서의 교류보다 가시적 성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공경기를 개최할 경우, 실황보도를 위해 기자단의 방문과 방송교류가 가능하며, 또 상호 합의만 되면 방송 및 보도기술 그리고 장비지원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체육교류는 선수들의 직접접촉이 불가피하고 감정유발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스포츠 자체의 승패보다는 남북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우선한다는 내부 정책지침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과거에 예술공연 및 작품 중심의 교류가 있어왔지만, 이제부터는 생활문화 중심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교류의 사례를 반추해 보면, 예술작품의 경우에는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연히 체제경쟁을 부추길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생활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교류와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의 경우 각 지역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장 및 김치담그기 전시회, 각 지방 음식의 전시 및 판매, 공예가구의 전시 및 판매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생활문화의 교류는 추석, 단오, 설날 등을 통해서 한복, 한옥, 한국 음식에 대한 지역별 공동 전시회, 발표회 개최, 장류 담그기 공동자료집 발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대략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 문화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상호신뢰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399) 최대석,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하), (1995. 12), p.107.

그리고 자기 점점과 상대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 문화교류의 궁극적이 목표는 민족 화합이고, 근본적인 정신은 문화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고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야 한다. 예컨대 목적의식이 결여된 채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음악회를 열었다는 데에만 의의를 둔다면 그것은 40여년 동안이나 이질화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남북문화교류는 한민족이 하나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그 매체가 갖는 정서적인 힘 때문에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심성을 바르게 이해시켜 주며,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통일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5.2 문화통합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이러한 노력과 함께 문화통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이다. 통일담당세대가 될 수도 있고, 통일후의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 주역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인 것이다.

물론 과거에 한국내부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국가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반공교육, 승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 知共教育 등의 다양한 명칭하에 통일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에 남한체제하에서 실시되어 온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이념과 체제 및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반성하여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실시된 제6차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개정에 따른 도덕과와 국민윤리과의 개정방향과 1993년 문교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도자료』는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교육과정과 지도자료에서 강조된 점은 과거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계심 보다는 남북통일이나 북한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과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그 강조점을 두었고 동시에 통일국가의 실현의지를 형성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교과과정 개정과 『지도자료』에서 제시된 시안은 이전에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비해 여러 가지면에서 개선과 진일보한 측면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난점은 통일교육의 핵심적 내

용이라 할 수 있는 이질화극복과 동질성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개발되지 못했고 따라서 실제로도 거의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⁴⁰⁰⁾

따라서 이제부터의 통일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는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의식적인 차원의 이질성에 대한 주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논의조차도 당위론적인 통일문제를 현실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은 남북분단의 상황속에서 심화된 남북한의 이질화상태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민족공동체의식을 형성시켜 주고, 동질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일의 정치공동체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에 관하여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면,⁴⁰¹⁾ 과거에 통일교육의 내용은 자본주의에 대한 편파적인 미화, 공산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관련 내용에서는 주로 장점을 기술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주로 부정적인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 공산체제의 현실과 변화'에서도 북한의 최근의 변화와 긍정적인 측면도 소개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현실에 관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의 시각에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질성이 크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교육내용을 설정하는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 남한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과 현실이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보다 일방적으로 우세하다는 식의 편파적인 시각은 탈피해야 한다. 남한체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교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체제의 단점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몰타하고 있지만 그러한 현상은 공산주의 자체의 문제와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몰타이 곧바로 자본주의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 화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의 화합과 상호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교과서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과 실체가 모든 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보다 우월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400) 鄭世九, 統一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사회과교육, 제26호 (1993.8), p.22.

401) 韓萬吉, 中等學校 통일교육 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원,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6) (서울 : 통일원, 1992), pp.491-492.

로 기술되어야 한다. 즉 남한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의 우수성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여야 한다. 반대로 북한체제의 문제점과 동시에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이상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해야 한다.⁴⁰²⁾ 결국 남한과 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교육에서 남북한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그에 대한 상호비교나 절충방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고양시키고 동시에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습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⁴⁰³⁾ 그럼으로써 풍요와 복지의 원천이며 인간생활의 물질적 보장의 기초가 되는 성장 및 효율지향적인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안정과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간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복지사회의 이념이 통일국가에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이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국가의 복지사회의 이념에 대한 교육은 자유시장경제원리와 평등지향적인 사회주의 원리를 적절하게 변증법적으로 종합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⁴⁰⁴⁾

결국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양문화를 보아온 우리의 인식의 틀을 자각·수정하고,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이질화를 극복하며, 양문화의 장단점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이러한 측면이 통일교육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은 통일과정에서 또한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 단계에서도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를 형성해 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문화와 전통, 관습, 언어, 민족정신 등의 다방면에 걸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남북분단 이후 이데올로기적 및 체제상의 대립으로 인해 과거의 통일교육은 북한을 '경쟁해야 할' 또는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심화되어 온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측면을 지향해야 하며, 아울러 아직까지 엄존해 있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더욱 굳게 다지고 동시에 발견해야 한다.

402) 한만길, 「민족문제와 통일교육의 방향 -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 전개논문, p.146.

403) 이러한 차원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상은 당시 민족독립운동전선에 나타난 좌우익 노선의 대립을 지양케 하고 연합 및 통합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의 삼균주의는 한국의 민족주의사상과 서구의 사회주의사상을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미래 한국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환기시켜 주며, 우리의 지상과제인 민족통일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鄭鶴燮, “趙素昂의 三均主義”, 신용하편, 한국현대사회의사상(서울: 지식산업사, 1984), pp.270-271 참조.

404) 姜敏錫, 전개논문, p.142.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전통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가운데 현대 사회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살려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질성회복을 위해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전통적 윤리의식의 측면, 민족공동체교육의 측면, 평화교육의 측면,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상의 네가지 영역은 서로 독립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 그러면 우선 전통적 윤리의식의 측면을 알아보자.

5.2.1 전통적 윤리의식의 측면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의 재통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치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요소를 규명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통일교육의 제1차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중에서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단일의 역사문화적 토대위에서 형성된 전통적 윤리의식이다. 이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통합 이전에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민족공동체형성의 기반이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윤리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儒, 佛, 仙 三教이다. 이 세가지 사상이 세가지 고대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정치·사회제도와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에 나선 유교사상의 이면에는 불교와 도교, 특히 토속적 민간신앙과 혼합된 한국적 도교와 불교가 서민생활을 지탱해 온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일은 한국의 고유신앙이 도교(仙敎)와 융합되고 또 그것이 불교와 융합되어 한민족의 감정생활을 지배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이 유교의 舍理主義, 主知主義와 결부되어 민족의 정신생활을 지탱하여 왔다는 것이다. 도교는 養氣攝生의 학문으로서, 불교는 見性成佛의 학문으로서, 유교는 修己治人の 학문으로서 상호공생하고 보완하여 왔다. 이것은 동양사상의 특징이라고도 하겠으나, 한민족의 평화적 성격과 종합능력 때문이며, 한민족의 고유사상을 토대로 모든 외래사상의 융합, 조화되어 왔다는데 한국사상의 종합성과 독자성이 있을 것이다.⁴⁰⁵⁾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전통적 윤리사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⁴⁰⁶⁾ 먼저 원시신앙 및 古代 法俗에 따른 윤리는 祈福娛神, 敬天愛人, 그리고 생명·노동력·사유재산 중시의 측면을 볼 수 있다. 불교에 따른 윤리는 四聖제(苦·集·滅·道)와 八正道(正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 그리고 忠·孝·信·勇·仁과 함께 圓融會通과 現實淨土를 들 수 있다. 또한 유교에 따른 윤리는 五倫과 四德, 父慈·子孝·兄愛·弟敬·夫和·妻順·君忠·接人慕·朋友信·撫宗族厚와 함께, 經世致用, 利用厚生, 그리고 應事接物을 들 수 있다.

405) 韓國國民倫理學會編, 思想과 倫理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p.75-76.

406) 鄭世九, “韓國의 民主市民에게 要求되는 倫理·道德의 定立”, 韓國國民倫理學會篇, 民主市民을 위한 倫理·道德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pp.96-101 참조.

특히 이러한 전통윤리사상에 나타난 중요한 측면은 人間尊重思想과 中和의 大道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전통사상의 정수인 이러한 인간존중사상과 중화의 대도로서 이질화 현상을 동질화하고 분열의 시대를 화합의 시대로 이끌며 보다 차원 높은 사상과 윤리를 창조하여 사회 통합을 기하고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⁴⁰⁷⁾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전통 윤리의식은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탐구되고 포함됨으로써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서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5.2.2 민족공동체교육의 측면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의 이념은 이질화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교육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족주의 이념은 민족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립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체제속에 살아오는 동안 민족의 동질성이 파괴되었음은 물론 적대감과 경쟁으로 일관해온 것이 지난날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숙원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동시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의 바탕위에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사회적, 심리적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국민적 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⁴⁰⁸⁾

우리 민족이 민족의 역량과 지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지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통합적 민족주의라는 상위의 개념을 통해서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변증법적으로 초월해야 할 것이다.⁴⁰⁹⁾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체제내적인 민족주의 의식보다 오히려 통합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시킴으로서 민족의 역량과 지혜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는 측면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을 위한 민족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우선 통합민족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원적인 속성을 역사적인 전통성에서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 통합민족주의의 이념적 기반으로서의 민족의 개념은 통합을 위한 사상적 공감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로, 통합을 위한 민족의 개념은 민족의 현실 즉 분단사회의 현실성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로, 통합의 민족개념은 민

407) 유승국, “고대의 윤리사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韓國倫理思想史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50.

408) 현동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교육관리기술 (1993.10), p.132.

409) 姜敏錫, 전제논문, p.138.

족발전의 미래를 위한 발전의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을 그 속에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의 요건을 전제로 할 때, 한민족의 개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⁴¹⁰⁾ 즉 한민족은 ① 단군의 자손으로서 ② 민족의 역사의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하여, ③ 한반도에서 오직 단일적인 민족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분단극복의 의지와, ④ 한민족의 미래지향적 발전 의지에의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반분열주의, 반계급주의, 반외래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정체성에 입각한 통일국가를 형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족전통을 부정하는 외래사상이나 계급 또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이질화와 분열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민족국가'의 갈등과 분쟁을 지양하고 민족의식과 국가의 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 기능과 문화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이상적인 민족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동질적 집단이다.⁴¹¹⁾ 따라서 통합민족주의에 바탕을 두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단순히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이거나 금강산과 백두산을 관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⁴¹²⁾ 우리는 한핏줄을 이어 받은 한 민족이며, 분단은 외세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통일은 우리민족의 과제라는 사실이 당위로써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국수주의적 사고의 발상도 아니요, 통일후에 정치, 군사적인 힘을 얻어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타의에 의해 분단된 민족의 쓰라린 고통과 한을 이제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에 주어진 절대적 과제이다. 결국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과 북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서서 화해하는 삶의 태도를 길러 남북한 주민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과 의지를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민족주의에 기초를 두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 교육⁴¹³⁾은 우선 맹목적인 민족 우월주의나 민족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족공동체 발전에 장애요소인 조국 분단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며, 참여하는 자세를 지니게 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한간의 이질화와 민족상잔의 불행한 과거를 이유로 공동

410) 진덕규, "한국의 민족개념과 민족의 통합", 李相禹編, 統一韓國의 摸索 (서울 : 박영사, 1987), pp.69-70.

411) 한홍수,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의 형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民族意識의 探究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226.

412) 鄭永禧,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教育學연구, 제31집 4호 (1993), p.231.

413) 정세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教育월보 (1922.1), p.30 참조.

체의식의 형성에 회의감을 지니지 않고, 남북한간에 민족적 동질성에 깊은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끝으로, 무조건적인 감상적인 입장에서 통일만을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2.3 평화교육의 측면

일반적으로 평화의 의미를 우리는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의 유지, 즉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평화의 개념이다. 이에 비해 적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들(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한다.⁴¹⁴⁾ 여기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란 ①전쟁으로부터의 해방, ②기근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③질병으로부터의 해방, ④무지로부터의 해방, ⑤비참한 주거생활로부터의 해방, ⑥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호, ⑦착취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⑧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차원에서 셀러는 평화의 윤리학적 과제에 대한 해명을 인간의 삶의 세계의 에토스의 총체적 해명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 인간의 구원과 연계시켰다.⁴¹⁵⁾ 셀러의 평화의 이념은 한마디로 국민들과 민족들간의 평화의 이념이다. 즉 국민들간의 평화는 정치가들의 전략이나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국민들의 생명의 존중과 그들의 평화에 대해서 동경하는 정서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데서 실현될 수 있다.

평화교육은 근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사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공격성이나 배타성, 폭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와 합의의 통로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교육을 말한다.⁴¹⁶⁾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인간대 인간, 혹은 국가대 국가간의 '의로움'을 전제로 한 사회구성원의 개념에서 비롯된다. 평화교육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평화의 개념은 자유와 해방에 기초한 사회구성원 정신이어야 한다. 평화속에 내재한 해방은 '-으로부터 벗어남'을 위한 갈등과정과 활동이며, 더 나아가서 '-을 위한 벗어남'의 과정이나 활동을 일컫는, 그래서 온존성을 추구하는 총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으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이나 벗어나는 활동으로서의 해방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내적 차원이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소외·억압·지배·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을 위해' 전개되는 해방의 과정이나 활동은 평화를 위한 해방의 외적 차원으로서 그것의 핵심을 평화추구에 두게 된다. 여기서 해방은 개혁이나 혁명 혹은 저항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해방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국제적 모순상황이나 국내의 한 민족간에 내재된 모순상황

414) 강성위, "평화의 철학", 金泰吉外, 現代社會와 哲學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7), p.339.

415) 秦教勳, 哲學的 人間學研究(I) (서울 : 경문사, 1994), p.358.

416) 이삼렬,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 한길사, 1992), p.275.

을 극복하기 위해 혁명·개혁·저항 등의 수단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⁴¹⁷⁾

이러한 차원에서 평화교육은 평화에로의 교육이기 때문에 의식과 행동의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통의 기초위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기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⁴¹⁸⁾ 첫째로, 평화교육은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철저히 규명하며 비평화적인 폭력들에 대항하여 새로운 확신들과 행동형식들과 인지양식들을 배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평화교육은 우리시대의 슬한 평화적대적인 오류들과 운동들에 직면하여 새로운 정치적 행동의 능력들을 배개하여 줌으로써 평화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평화운동의 능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평화교육은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관한 기술적 능력들과 과학적인 지식들을 배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양식과 공간과 지식과 노동의 결핍이나 재화와 기회와 병가의 불공평한 분배 등이 국가적이고 간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과 통일도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의 영역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교육, 환경교육, 통일에 대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시될 수 있다.⁴¹⁹⁾ 우선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교육으로서 평화교육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공격성에서 기인한 폭력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격성의 실재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를 단순히 전쟁부재의 상태라고 하지 않고 삶의 전반적 영역속에서 갈등을 극복하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상태라고 확대하여 정의한다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환경교육은 마땅히 평화교육의 범주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교육은 단순히 '환경'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전한다는 평화교육의 이념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⁴²⁰⁾ 인위적으로 파괴되는 자연과의 평화문제는 이

417) 한준상, 남북 국민정서를 하나로 묶는 평화교육, 통일한국 (1993.5), pp.33-34 참조.

418) 오인타,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 기독교사상 (1988.7), p.103.

419) 鄭永壽, 平和教育의 課題와 展望, 교육학연구, 제31집 5호 (1993), pp.179-185 참조.

420) 김젤바하는 "생태학적 위기의 극복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세계의 위기의 해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생태학적 위기는 인간이 조성한 것이며, 따라서 생태학적 위기는 바로 인간의 위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근원은 과학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있다는 것이다 ; 전교훈, 「산림사회와 환경문제」, 人間性回復을 위한 倫理教育의 課題 ('91 국민윤리교육 서울·인천·경기지역세미나, 1991.5.25), pp.37-38.

제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바로 여기에 교육적 과제가 있다.

끝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의 차원에서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판적 평화교육학의 입장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적 구속상태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와 북한의 폐쇄적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우리를 전쟁의 위협속으로 몰고 갔던 구조적 폭력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구조적인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세대에게 길러 주어야 한다.⁴²¹⁾

평화란 갈등관계와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화해를 이루고 어떤 형태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오늘날 남북한과 같은 분단체제에 있어서 외세에 대한 종속과 독재체제의 억압과 수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인간적 사회가 수립되었을 때 가능하다.⁴²²⁾ 따라서 평화교육은 남북한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사회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구조하에서 남북한간에 심화되어온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내에 또 다른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려면 국내 외적인 평화 저해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요한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⁴²³⁾

5.2.4 민주시민교육의 측면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값어치 있는 추구대상인 까닭은 그것이 민족적 측면에서나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나 '보다 격상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보다 격상된 삶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 기회의 균등,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사

421) 오인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화적대적' 교육환경은 입시준비 일변도의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기능적 관계, 학생상호간의 비정한 경쟁, 전인교육의 이념의 중탈, 자율 아닌 억압의 교육, 국수주의교육, 기성세대의 물질만능과 답습, 대화를 잃은 폐쇄된 생활, 삶의 의미 사색의 기회미진, 이웃과 역사, 인류 등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보았다 ; 오인택, 「청소년교육에 있어 평화문제」, 청소년평화의식 개발 (YMCA, 1986, pp.17-29 ; 김정환,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관리기술, (1988.7) p.164에서 재 인용.

422) 이삼렬,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책임", 소홍렬외, 가치 - 윤리·가치관의 혼란과 새 윤리 정립 (서울 : 우석, 1989), pp.296-298 참조.

423) 한만길, 「학교통일교육의 사회과학적 접근모색」, 통일문제연구, 제6권 2호 (1994. 겨울), pp.179-180.

회에서 삶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남북통일은 이러한 진정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이 곧 그 지름길이라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통일은 또한 민주시민적 자질의 발휘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아집, 독선, 폭력 등의 비민주적 형태는 가장 큰 저해요소이기도 한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요구되고, 명실상부한 민주시민사회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 두 차원의 교육을 상호 긴밀히 연결시키는 교육이 요구된다.⁴²⁴⁾ 즉 민주시민의 육성은 우리 국민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⁴²⁵⁾ 이와 동시에 함께 사는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민주공동체는 다원주의,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모두가 모든 다른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사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가 보편화 될 때 정치는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형태가 될 수 있다.⁴²⁶⁾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이념적 색채를 달리 하는 환경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이 새롭고 신비스러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진실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생활규범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한다. 집단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된다. 더구나 통일교육의 대상인 동시에 장치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국가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⁴²⁷⁾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함은 물론 공동생활에서의 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우리사회를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성숙한 민주적 공동체로 승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다. 민주주의를 기치있는 삶의 원리로 신념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민주적인 생활규범을 지키는 일은 곧 통일교육의 바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⁴²⁸⁾

424) 文龍麟,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 청신여대 사회과학논총, 제2집 (1990), p.22.

425) 신상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1992.3), p.43.

426) 박광주, 「民主共同體의 理念과 價値」, 民主共同體의 理念, 課題, 發展方向(I) (21세기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11), p.15.

427) 추명완, 「청소년 통일교육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9호 (1993.여름), p.65.

428) 헌동화, 전개논문, p.132.

반면에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에 있어 어느 정도 역설적으로 사회규범들을 비판하려는 의지와 문제시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反社會化 특징들을 소유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⁴²⁹⁾ 반사회화로 인해 시민들은 충분한 이유들이 있으므로 군중에 저항하여 자기의 입장을 지킬 행동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에 의욕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참여하는 시민을 길러 내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사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사회의 융화와 단결을 추구하려면 민주사회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한 차원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429) 정세구역, 民主市民教育 (서울 : 교육과학사, 1989), pp.26-27 참조.

참고문헌

I. 국 문

(1) 한 국

- 강광식, “통일에 대비한 사회과학적 성찰 : 그 필요성과 과제”,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강성윤,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전개과정”, 안보연구, 제24호, 1994.
- 강민석, “민족공동체 윤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통일교육의 접근방향”, 공주대 교육연구, 제9집, 1993.
- 高範瑞,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고성준, “북한정치이념과 전통정치문화의 상호관련성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0호, 1991.
- 고영복, “남북한 관계개선의 과제”, 한국개발연구원편, 남북한 관계개선과 준비통제, 서울 : 한국발전연구원, 1990.
- 고유환, “김정일체제의 위기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로”, 안보연구, 제24호, 1994.
- 郭台煥, “남북한간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이론적 구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1권 1호,
-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세미나, 1993.
- 권영민, “남북한 문화통합”, 21세기논단, 1992, 겨울호.
- _____, “문화예술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1), 21세기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 11.
- 국토통일원, “김만철일가 북한실태 증인록”, 서울 : 국토통일원, 1987. 12.
- _____,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실태, 1983.
-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태제”, 북한개요,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 _____, 월간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 1995.
- _____, 통일백서, 서울 : 국토통일원, 1994.
- 김광익, “민족의 동질성과 이념의 이질성”, 코리아평론, 동경 : 민족문제연구소, 1985.
- 김기환, “북한의 명절”, 통일한국, 1995. 1.
- 김남식,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회주의관”, 안보연구, 제24호, 1994.
- 김동성, “ 통일한국의 체제 및 이념모형과 국민정치의식 정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봄, 여름.
- 김문환, “통일문화정책 : 현황과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 정문연, 1991.
- 김병로, 김정일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9.
- 金聖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3년(상, 중, 하)”, 국제문제, 1994, 4, 5, 6월호.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9.
- _____,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9.
- 김순교, “북한의 전통문화 말살 : 집단주의 체제와 개인생활”, 북한 1982. 5.

- “김정일시대의 전망(1.사회문화정책)”, 내외통신, 921호, 1994. 10.
-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제1집, 1988.
- 김영윤, “고전적 통합이론의 남북한 적용 가능성”, 통일경제, 1995. 9.
- 金宅煥, “독일통일후 정치경제사회통합의 애로가 한국통일에 줄 교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논총, 제9집 제1호, 1993.6.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서울 : 새미, 1996.
- 金學成,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내적 통합의 제문제”, 통일문제연구, 제4권 3호, 1992, 가을.
- 김형찬, “김일성주체사상과 교육비판”, 통일문제연구, 제1집, 1989.
- 김한초, “남북한의 사회적 이질성 극복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 정문연, 1991.
-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3. 10.
- 남인숙,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문화적 배경”, 통일문제연구(통일원), 제5권 3호, 1993, 가을.
- 도홍렬, “북한사회변화와 주체사상”, 동아연구, 제13집, 1988.
- _____, “북한사회의 변화요인”, 통일문제연구(통일원), 제3권 4호, 1991, 겨울.
- _____, “분단 이후 남북한 체제변화과정과 주요 사회적 관행의 변용양상 : 사회·문화분야, 정문연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 정문연, 1994.
- 文龍鱗, “교육제도와 정책”, 최 명편, 북한개론, 서울 : 을류문화사, 1990.
- _____, “통일지향적 가치체계 형성방안 모색”,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사회복지, 1994, 겨울호.
- 민병천, “김정일체제의 정책전망”, 안보연구, 제24호, 1994.
- _____, 북한공산주의, 서울 : 대왕사, 1989.
- 민족통일연구원, 김일성 사후 1년 :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김정일 계승체제 견고화 동향,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4.
- _____, 남북한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 _____, 북한의 대남동향 분석(1995 1-3),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정권의 장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4-19.
- _____, 통일문화연구(상, 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 박갑수, “북한사회의 집단 적개심과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 6.
- 박영호,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양태와 해소방안 : 신정치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정치학회,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1994.7.
- 박용헌, “북한의 문화정책과 전통문화”, 북한학보, 1981.

- 배규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모색”, 국가발전의 목표와 이념(21세기위원회 제3차 종합세미나, 1990. 10. 25-27.
- 박재주,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교육연구, 제12권 제9호, 1992. 9.
- 박종철,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 제16집, 1994.2.
- 배종익,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방향 탐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1992,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94.
-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적 특성”, 안보연구, 제24호, 1994.
- 徐載鎭, “남북한 현존 가치체계의 갈등양상 진단”,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서재진, 김태익,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2. 10.
- 성영산, 서정희, 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귀순자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손길웅, 길태근, 북한 노동자 문화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송 북, 세계화 전략으로서의 공동체 재건, 공보처, 1995.
- 스즈키 시아유키, 김정일과 수령제사회주의, 유영구역, 서울 : 중앙일보사, 1994
- 신용하편, 한국현대사회사상, 서울 : 지식산업사, 1984.
- 申正鉉, “남북한 현존 삶의 갈등양상 진단”,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양성철, “통일은 왜 하자는 것인가? -남북한체제 통합과정의 접근전략-”,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1992. 6.
- 오기성, “북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북한, 5, 6, 7월호, 1990.
- 오수성, “적색공포(Red 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우 정, “북한의 전통문화 말살 : 미풍양속의 단절과 변질”, 북한, 1982. 5.
- 유석렬, “일탈 : 원인, 유형, 통제방법”,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7.
- 柳永玉, “통일정책의 상징작용에 관한 시대별 분석”, 극동문제, 1994년 1월호
- 유원동외, 공산권체제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 유재근외, 북한의 문화정보, 서울 : 고려원, 1991.
- 유재천, 사회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1)-21세기 위원회 최종보고서, 1991. 11.
- 윤석희,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민족통일(민족통일축전회), 1995. 1, 2월호.
- 이각범, “통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 개혁”, 통일경제, 1995. 9.
- 이계학, “민주공동체형성과 교육의 이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 정문연, 1991.
- 이광규, “남북한 문화교류의 증진 방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1992. 6.
- 이봉철, “통일국가이념의 모색”, 영남대 통일문제연구, 제16집, 1994.2.
-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 관련 가치관의 갈등양상”,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 정문연, 1994.
- 이수원, “남북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사회발전”,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이영희, “남북한 정치사회상의 이질감과 극복”, 남북한 이질감과 그 극복 전망, 효성여대 현대사상연구소 주최 1993년 통일문제교수세미나, 1993. 9. 23.
- 이운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접근-,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 _____,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 법문사, 1993.
- _____,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변화전망”, 한국안전보장논총, 17호, 1990.
- 이우영, “통일이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정문연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 정문연, 1994.
- 이장호,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이정식, “남북한의 이질화와 동질화 가능성”, 국제문제, 1986.2.
- 이종석,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비교”, 남북한의 이질화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 _____, 북한의 이해-사상, 체제, 지도자-,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 이춘길, “북한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제1집, 1993.
- 임재해, 민족문화론,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 임현진, “세계체제와 종속반전-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1991. 10.
- 임효선, “가치통합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한국 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 정문연, 1991.
- 전경수, 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5.
- 전상인, “남북한체제내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비교연구”, 남북한의 이질화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주최 남북한 통합모델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5. 8. 25.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10.
- 鄭敬培, “통일에 대비한 한국형 사회복지의 모델과 발전방안”,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에 대비한 한국형 사회복지의 모델과 발전방안』 토론회, 1995. 4.
- 정득규외,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전남대 통일문제연구소), 1981.
- 鄭範樸, “통일한국의 가치체계”,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정석홍,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실태 : 귀순자조사 중심, 통일문제연구(목포대), 1984.
- 정세구, “통일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사회과교육, 제26호, 1993. 8.
- 정용석, 분단군통일과 남북통일, 서울 : 다나, 1992.
- _____, “통일지향적 삶의 양식 형성방안 모색”, 정문연편,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정찬구, “통일준비 단계에서의 융화방안”, 정문연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 정문연, 1994.
- 조광동, 디디가도 우리식대로 살지요, 서울 : 정보믹스, 1994.
- 조남국, “사회적 지위의 획득수단에 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 비교”,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조혜정,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민족주의와 진보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로 가는 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움 (1995. 11. 28), pp.25-26.
- 조지 F. 쿠나제, “한반도 통일 :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국토통일원, 90년대 동북아 세질서와 한민족공동체 형성, 1990.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 _____,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편, 통일문화연구 (하),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 차인석, 사회인식론-인식과 실천-, 서울 : 민음사, 1992.
- 차재호,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최신림, “독일 경제 통합 과정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 통일경제, 1995. 10.
- 최병길, “남북한 주민의 정치·사회의식 비교연구”, 연세논총, 1985.
- 최 현, 김지영, “청소년의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통일문제 학술 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1993.6.
- 최 협,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21세기논단, 1992, 겨울호.
- 통일원, 북한영화의 이해, 서울 : 통일원, 1994.
- _____,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 통일원, 1994. 8.
- 통일원 정보분석실편,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서울 : 통일원, 1992.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편, 남북 교류공연 분석 및 통일지향적 공연 구성안 연구, 서울 : 한국예술연구소, 1995. 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성남 : 정문연, 1991.
- _____,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 정문연, 1993.
- _____,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민족사회적 가치체계의 융화-, 성남 : 정문연, 1994.
- 한상복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8.
- 韓相祐, “통독이후 교육·문화부문에서의 통합에 대한 고찰-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1993, 겨울.
- 한정일,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제4회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 1994. 7.19.
- 현대경제사회연구원편, 구조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9.
- 홍승직,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공통가치 모색”, 영남대 통일문제연구, 제16집, 1994.2.

(2) 북 한

가. 단행본 및 논문류

- 강능수,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적 문학예술의 기본특징”, 근로자, 1989, 제3호
 _____,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의 주체문학예술”, 근로자, 1991, 제4호
 _____,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근본특징에 대하여”, 근로자, 1990, 제1호(573)
- 강 철, “례의도덕에 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1994, 제1호
- “고상한 사상문화생활을 활짝 꽃피여 나가자”, 1992.5.12, 로동신문 사설, 공산권자료(북한연구소), 제25권 제5호
- 김경숙, “공산주의도덕에 대한 주체적 리해”, 사회과학, 1986, 제1호
- 김려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과업”, 근로자, 제5호, 1991.
- 김병훈,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체험하는것은 혁명적 작품창작의 근본요구”, 근로자, 제2호, 1989.
- 김보행,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문적문에 작품창작의 옳바른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근로자, 1989, 제12호
- 김일성, “군중예술을 더욱 발전시키자”,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며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문학예술총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문화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문화인들은 문화선전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_____, “민족문화유산은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민주건설의 현계단과 문화인의 임무”, 김일성저작집 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 김일성저작집 13,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우리의 문학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자”,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6,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현시기 문학예술인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김일성저작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자”,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수,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의 높은 영예를 지닌 우리 문학창작가들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근로자, 1991. 제3호.
- 김정보,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독창적인 문예관”, 철학연구, 1994, 제3호.
-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로동신문, 1995. 10. 5.
- 김형일,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너수”, 근로자, 제1호, 1988.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일심단결의 공고성의 근본원칙”, 1992.2.9, 로동신문 논설, 공산권자료, 제25권 제2호.
-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할 가장 숭고한 공산주의적 품모”, 1991.8.4, 중방론설, 공산권자료(북한연구소), 1991, 제24권 제8호.
- 리동석,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 근로자, 1991, 제9호.
- 류 단, “주체문학예술의 환원을 빛내이는 불멸의 문화적재보”, 근로자, 1991, 제5호.

- 류순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도덕의 최고표현”, 근로자, 1989, 제3호.
- 리 단, “우리 시대 연극예술 건설과 창조에 관한 불멸의 총서”, 근로자, 1989, 제7호.
- 리 평, “우리 당의 영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근로자, 1988, 제11호.
- 리수립,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주제로한 시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 근로자, 1991, 제8호.
- 리현민, “인격의 심리적특징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1994, 제1호.
- 박선영,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 근로자, 1988, 제10호.
-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서울 : 조국, 1989.
- 박용학,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 근로자, 1989, 제10호.
- 박정학,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할 중요한 활동방식”, 근로자 1989, 제3호.
- 박태준,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원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도덕적 원리”, 근로자, 1989, 제7호.
- 방정학,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할 중요한 활동방식”, 근로자, 제3호, 1989.
- 백선향,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된 충실성”, 철학연구, 1994, 제3호.
- 백인준, “민족가극 <춘향전>은 당의 민족문화유산계승방치의 빛나는 실현”, 근로자, 1989, 제5호.
- “부르쥬아 사상문화는 사람들을 부태타락시키는 사상적 독소”, 1992.9.24, 노동신문 논평, 공산권자료, 제25권 제9호.
- 사회과학원 어학연구소편, 현대조선말사전, 서울 : 백의, 1988.
- 사회과학출판사편, 문화예술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 “사회주의사회의 사람들이 지녀야할 고상한 정치사상적 및 도덕의리적 품성”, 1991.7.7, 로동신문논설, 공산권자료, 제24권 제7호, 1991.
-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것은 우리인민의 크나큰 행복”, 1992.9.30. 로동신문 논설, 공산권자료, 제25권 제9호..
- “완성된 과학적사회주의리론,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 대하여”, 로동신문논설, 1995.1.9.
- “우리인민이 누리고 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 문화생활”, 1992.9.13, 로동신문논설, 공산권자료, 제25권 제9호.
- 윤종성,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 근로자, 1990, 제4호(576).
- 윤기덕,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참된 당원의 빛나는 형상-장편소설 <녀당원>에 대하여-”, 근로자, 1990, 제7호(579).
- _____, “우리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 근로자, 1991, 제9호.

- 전용석, “일심단결의 정신도덕적기초”, 근로자, 1990, 제7호(579).
- 조선로동당출판사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주체사상은 문화예술 분야 구현되어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불멸의 혁명사상”, 1992.4.29. 평방논설, 공산권자료 제25권 제4호, 1992.
- 최익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근로자, 1990, 제5호(577).
- “총성의 일편단심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 1991.8.8, 로동신문 논설, 공산권자료, 1991, 제24권 제8호.
- 한중모,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리는 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요구”, 근로자, 1989, 제8호.
- 허백산, “불건전한 사상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중요고리”, 근로자, 1990, 제12호(584).

나.소설

- 최용규, “햇빛은 바닷가에도”, 조선문학, 제11호, 1969.
- 강학태, “길”, 조선문학, 11호, 1972.
- 김덕질, “열정의 나래”, 조선문학, 5호, 1975.
- 김도환, “대지동 어머니”, 조선문학, 12호, 1995.
- 김동호, “아버지의 초상”, 조선문학, 5호, 1991.
- 김보행, “봄눈이 내린다”, 조선문학, 7호, 1972.
- 김은희, “문수봉기슭의 효녀”, 청년문학, 3호, 1995.
- 김은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청년문학, 11호, 1995.
- 김흥덕, “추천서”, 청년문학, 4호, 1989.
- 로용득, “어느 한 친구에서”, 조선문학, 8-9호, 1972.
- 리갑기, “생활의 길”, 조선문학, 8-9호, 1969.
- 리기창, “도중역에서”, 조선문학, 1-2호, 1972.
- 리성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청년문학, 4호, 1992.
- 림명순, “막내아들”, 조선문학, 3호, 1995.
- 박승록, “사랑의 힘”, 청년문학, 5호, 1995.
- 박효준, “싸우는 부부”, 조선문학, 제12호, 1969.
- 소영호, “가장 귀중한 것”, 조선문학, 6호, 1979.
- 송영태, “더 높은 곳으로”, 조선문학, 5호, 1993.
- 안선옥, “한가정”, 조선문학, 1호, 1979.
- 조동서, “꽃다발”, 청년문학, 1호, 1995.
- 조명기, “축복받은 내지”, 청년문학, 4호, 1995.
- 최용규, “넓은 구내길”, 조선문학, 10월호, 1969.
- 최창학, “사랑의 길”, 조선문학, 2호, 1975.

2. 영문

- Alexander, Jeffrey C., "Analytic debates : Understanding relative Autonomy of Culture", Alexander, Jeffrey C. & Seidman, Steven eds., Culture and Societ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0.
- Archer, Margaret S., Culture and Agency - The Place of Culture in Social Theory -,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8.
- Calhoun, Craig, "Indirect Relationships and Imagined Communities : Large-Scale Inte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Pierre Bourdieu and James S. Coleman,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N.Y. : Westview Press.
- Hull, Andrea, West Australia's Cultural Policy Toward Integration Through Partnerships, Australian Studies, Journal of the Australian Studies Institute, Vol. 1, No. 1, April, 1994.
- Hwa Yol Jung, Rethinking Political Theory : Essay in Phenomenology and the Study of Politics, (Athens : Ohio Univ. Press, 1993), p.7.
- Jenks, Chris, Culture, London & N.Y. : Routledge, 1993.
- Peter J. Opitz and Dietmer Herz,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Sino-Soviet Affairs, Vol.XVIII, No. 4, Winter, 1994. 5.
- Opitz, Peter J,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ost-Unification Period, Sino-Soviet Affairs 64, Winter, 1994.5.
- Thompson, John B., Ideology and Modern Culture - Critical Social Theory in the Era of Mass Communication -,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Tuong Lai,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Following National Reunification in 1975,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Yeungnam Univ.), Vol. XVII, Mar., 1995.
- Turner, J. H., "Analytical Theorizing", in Social Theory Today, edited by Anthony Giddens and J. H. Turner, Stanford, CA : Stanford Univ. Press, 1987), p.178.
- Yoo Young Ock, Promoting a Correct Understanding About North Korea ; A Shortcut to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V, No.4, Win, 1993.

執筆者 紹介(掲載順)

1. 張 慶 燮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한국경제신문 정경부기자
 -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and Marriage co-editor
 - Asia Journal Associate Editor(현)
 - 한국일보 논설위원(비상임, 현)
 - 연구실적 :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등 연구논문 다수
2. 咸 仁 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이화여대, 덕성여대, 한림대 사회학과 강사
 - 한국여성개발원 선임강사
 - 연구실적 : 3단계 통일론등 연구논문 다수
3. 申 進 : 충남대학교 정외과 부교수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평화문제연구소 간사
 - 한국정치학회 회보 편집위원
 - 연구실적 : 부패구조와 정치개혁등 연구논문 다수
4. 金 貴 玉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강남대학교 강사
 - 연구실적 : 1980년대 북한소설에 반영된 여성노동자 및 근로자의 가치관등 연구논문 다수

5. 任 七 星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임강사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연구실적 : 방송극 대사의 계량언어학적 고찰등 연구논문 다수

6. 吳 基 城 : 북한연구소 연구원

〈주요경력 및 연구실적〉

- 북한연구소 연구부 연구원
- 인천대학교 국민윤리학과 강사
- 연구실적 : 북한 통치이데올로기의 주체사상에 관한 일고찰등 연구논문 다수

'96北韓 및 統一研究 論文集(第Ⅳ卷)

인 쇄 : 1996. 12. 7

발 행 : 1996. 12. 12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